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잠언 묵상)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7

솔로몬의 잠언 (1:1-7) 9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 (1:8-19) 15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1:20-33) 22

지혜를 추구하십시다. (2:1-9) 29

지혜의 유익 (2:10-22) 35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지혜 (2:10) 41

지혜로운 자 (1) (3:1-10) 42

지혜로운 자 (2) (3:1-10) 47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3:5) 51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3:5-6) 54

지혜로운 자녀 (3:11-26) 56

지혜로운 인간관계 (3:27-35) 63

지혜가 제일입니다. (4:1-9) 76

지혜로운 길 (4:10-19) 81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다! (4:20-27) 84

기독교인의 마음 관리 (4:23) 91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해야 합니까? (5:1-14) 93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5:8) 100

자녀를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5:11-14) 103

당신의 아내를 복되게 하십시오! (5:15-23) 105

“스스로 구원하라” (6:1-5) 110

개미보다 못한 사람 (6:6-11) 115

“불량하고 악한 자” (6:12-15) 121

하나님 보시기에 … (6:12-14) 127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칠악 (6:16-19) 128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해서는 아니 됩니다. (6:20-35) 136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습니다. (7:1-27) 142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8:1-11) 149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자 (8:1) 156
지혜의 능력 (8:12-21) 157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8:22-36) 162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9:1-18) 168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 (10장) 175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 (11장) 184
영혼을 지키는 자 = 이웃 사랑하는 자 (11:17) 194
사람을 얻는 자가 되라! (1) (11:30) 195
사람을 얻는 자가 되라! (2) (11:30) 201
의인의 뿌리 (12장) 206
의인의 빛 (13장) 211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14:1-9) 219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 (14:10-35) 228
지혜 있는 자의 혀 (15:1-7) 243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15:8-33) 251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16:1-3) 259
마음의 경영 (16:1-3) 265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신 하나님 (16:4-9) 26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 (16:10-15) 278
정직한 사람의 대로 (16:16-24) 286
우리를 독척하는 것들 (16:25-30) 291
존경 받을 만한 사람들 (16:31-33) 297
화목한 가정 (17:1, 9, 10, 13, 14) 305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2, 6, 7, 17, 21, 25) 313
마음의 연단하시는 하나님 (17:3, 4, 5, 7, 8, 20, 23) 319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 (17:11-13) 325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 (17:15, 26) 330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17:27-28) 335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 (18:1-3) 340
명철한 사람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 (18:4, 6-8) 344
제비뽑기와 재판 (18:5, 17-19) 349
게으름과 교만 (18:9, 12) 355
부자와 의인 (18:10-11) 360
사람의 심령과 선물 (18:14, 16) 365
입, 귀, 마음 (18:15, 20-21) 370
아내와 친구 (18:22, 24) 375
가난한 자의 부와 시련 (18:23, 19:1, 4, 7, 17) 381
“사람이 미련하므로” (19:2-3, 5) 388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 (19:6, 22) 393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19:8, 16) 398
미련한 아들 (19:10, 13-14, 18, 26-27) 404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9:19, 25, 28, 29) 413
이상적인 대통령 (19:12, 20:2) 419
술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지 마십시다. (20:1) 424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20:3-7) 434
심판 자리에 앉은 왕 (20:8-12) 442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1) (20:13-18) 449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2) (20:19-25) 457
“지혜로운 왕” (20:26-30) 474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20:29) 482
우리의 마음 (21:1-4) 487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마음 (21:3) 495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 (21:5-8) 497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 (21:9-20) 504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21:21-31) 514

지혜로운 부자 (22:1-16) 528
영혼을 지키는 자 (22:5) 541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22:6) 544
과연 나는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22:6) 547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2:17-29) 550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23:1-8) 560
4가지 교훈 (23:9-14) 569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 (1) (23:15-23) 575
부러워하지 말라! (23:17) 585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 (2) (23:24-35) 587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24:1-9) 595
우리가 해야 할 일들 (24:10-20) 602
낙심 될 때 (24:10) 613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24:15-16) 616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의 시민은? (24:21-26) 620
보고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24:27-34) 627
하나님 앞에서 (25:1-7) 636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25:8-10) 644
경우에 적합한 말 (25:11-15) 654
자제해야 합니다. (25:16-28) 664
미련한 자 (26:1-12) 684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26:3, 11) 712
게으른 자의 특징 (26:13-16) 714
멀리해야 할 다섯 부류의 사람들 (26:17-22) 726
위선자는 … (26:23-28) 738
자랑, 칭찬, 분노, 질투, 책망 (27:1-6) 756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27:7-10) 772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27:11-14) 781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27:15-19) 790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방법 (27:17) 799

벗겨지지 않는 나의 미련 (27:20-27) 802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 (28:1-7) 815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28:8-14) 829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8:15-20) 84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28:21-28) 865
지혜를 사모하는 자 (29:1-5) 890
지혜로운 의인 (29:6-11) 902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29:12-21) 911
방자히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29:18) 925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29:22-27) 927
지혜를 배우는 사람 (30:1-9) 939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30:10-17) 950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 (30:12) 966
가장 지혜로운 삶? (30:18-33) 968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러준 3가지 교훈 (31:1-9) 989
현숙한 여인 (31:10-31) 1000

결론 1027

서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언 1장 7절, 31장 30절).

하나님께서 약 14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더욱더 많이 들춰내 주시되 저로 하여금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미련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의 “지혜의 책”들을 묵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책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약 4년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한 후(2005년 9월 21~2009년 9월 30일) 그 다음으로 묵상한 책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2009년 10월 7일 ~ 2010년 12월 22일). 그런 후 저는 2011년 1월 5일부터 “잠언” 책을 수요기도회 때에 설교하기 시작해서 지난 주 2019년 10월 9일에서야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렇게 8년 넘도록 긴 시간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잠언” 말씀의 설교를 그 긴 세월 동안 들어주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이 잠언 묵상집이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믿고 책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의 첫 장인 1장 7절과 마지막 장인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1:7)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 책 전체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말로 지혜라는 생각입니다(잠 1:7, 9:10, 15:33, 참고: 욥 28:28; 시 111:10).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잠언 말씀 묵상집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말씀 묵상집을 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9년 10월 13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잠언

[잠언 1장 1-7절]

저는 새해 2011년을 맞이하여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무슨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잠언" 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중 잠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약 6년 동안 구약 성경의 "지혜의 책"(The Books of Wisdom)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책(약 4년 반)과 "전도서" 책(약 1년 2개월)을 묵상하였기에 계속해서 지혜의 책을 묵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의 책"들을 묵상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자신이 미련하여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때가 악한 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엡 5:15-17).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2011년 첫 수요기도회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책인 "잠언"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기에 앞서 "잠언" 책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1) "잠언"(Proverbs)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어느 교회 웹사이트를 보니까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잠언"이란 말은 '비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마샬'에서 왔다. 이 말의 동사형은 '다스리다','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 잠언은 사람의 행동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말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샬'이란 히브리어를 '箴言'으로 번역했다. 箴이란 '바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찌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잠언은 우리에게 '충고와 책망' 뿐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는 '찌르는 말'이다"(인터넷).

흥미로운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John MacArthur 목사님의 설명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들이란 짧고 간결하고 함축된 격언들로서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영원한) 진리와 지혜를 표현한다. 잠언들은 그것들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신적 원리들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지 반영하게 만들므로 그들의 생각들을 증명한다'[The proverbs are short, pithy sayings which express timeless truth and wisdom. They arrest one's thoughts, causing the reader to reflect on how one might apply divine principles to life situations (e.g., 2:12)(MacArthur)].

(2)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잠언의 저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을 3천개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솔로몬 왕이 잠언 전체가 다 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책은 솔로몬 왕 외에 또 다른 저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24장 23-34절의 부분 첫머리를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지혜로운 자"란 말은 복수 명사로서 솔로몬 왕 외의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곧, 잠언의 부분적인 말씀은 솔로몬 왕 외에 다른 저자들이 썼습니다(박윤선). 이 지혜로운 자들이 잠언 30장 1-33절을 쓴 "야게의 아들 아굴"(1절)과 그 유명한 잠언 31장 1-31절을 쓴 "르무엘 왕"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들 외에 또 다른 두 저자가 아굴과 르무엘 왕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잠언 전체가 거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썼지만 몇 부분은 다른 지혜로운 자들이 썼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혜의 책 중에 한권인 잠언은 솔로몬 왕이던 다른 저자들이든 다 지혜로운 자들이 썼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잠언이란 책을 썼을까요? 솔로몬 왕이 잠언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 잠언의 서론(Prologue)인 잠언 1장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서론인 오늘 본문 잠언 1장 1-7절을 보면 잠언의 이중적인(twofold) 목적(2-6절)과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 구절(7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이중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의 기술을 생산 하는 것입니다(to produce the skill of godly living by wisdom and instruction) (MacArthur).

오늘 본문 잠언 1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for attaining wisdom and discipline). 여기서 "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원적으로 든든함(to be firm)을 의미하는데,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공리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훈련(discipline)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박윤선). 곧,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경건한 삶을 사는 신적 원리들(principles)만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신적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술(skills)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4절).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은 어리석은 자들, 곧, 개방된 자들을 "슬기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줏대가 없고 개방된 자는 이리 저리 외래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잠언들)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시비를 바로 분별하고 굳게 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조심하지 않고 덤비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노숙한 사람처럼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박윤선).

둘째로, 잠언의 목적은 분별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to develop discernment) (MacArthur).

오늘 본문 잠언 1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To discern the sayings of understanding). 여기서 "명철"이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시대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과 부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일 신년연합예배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범사에 헤하려 좋은(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버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살전 5:21-22).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어쩔 때는 악한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버리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혼동(confusion)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게 만듭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말한 후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했습니다(창 3:4, 5). 선과 악을 혼동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케 하는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케 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악을 범하게 만들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와처럼 명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명철하지 못하여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들도 명철하지 못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선을 취하여 행하기보다 악을 취하여 악행 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명철을 얻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장 5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우리의 학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왜 그리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학식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며 더 명철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얻는 학식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므로(by sharpening our mind) 가능합니다(MacArthur). 6절을 보십시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잠언 말씀들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마음은 더욱더 날카로워져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멸시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므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지혜로워 지고 명철해 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구절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이 주제 구절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식을 더하라고 5절에서 말한 후 이렇게 7절에 와서는 “지식의 근본” 즉, 지식의 전제, 혹은 지식은 선두 또는 지식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함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말함이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에게 대한 공포심을 가리키지 않고 그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고 두려워함을 의미한다”(박윤선). 그런데 저는 맥아더(MacArthur) 목사님의 정의가 더 마음에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나 의지, 느낌, 행실과 목적들이 하나님의 자세와 의지와 느낌과 행실과 목적으로 맞바꿔있는 정신 상태이다’[“The fear of the Lord is a state of mind in which one’s own attitudes, will, feelings, deeds, and goals are exchanged for God’s (cf. Ps. 42:1)” (MacArthur)]. 이 정의가 제 마음에 설득력 있게 다가온 이유는 작년 한두 달 안식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제가 보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를 제가 듣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지 결코 자기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결코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느낌, 주님의 자세와 의지, 주님의 행실을 본받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악을 선택하여 악을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므로 선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자들의 정신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자세와 의지와 느낌과 행실과 목적 등을 모르기에 선을 택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악을 선택하여 악한 자세와 악한 의지, 악한 느낌과 악한 목적 및 행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시 14:1).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아래 삶을 살아가기에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2011년 첫째 주 수요기도회를 맞이하여 지혜의 책인 잠언의 첫 서론 부분인 잠언 1장 1-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이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잠언의 이중적인 목적과 잠언의 주제 말씀입니다. 잠언의 이중적인 목적은 지혜와 훈계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의 기술을 생산 하는 것과 분별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주제 요절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이 2가지를 명심하고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잠언의 목적을 이루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

[잠언 1장 8-19절]

지난 주 토요일(2011년 1월 8일) 애리조나 주 투산 지역의 한 쇼핑센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뉴스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특히 '9.11. 둥이 소녀'라고 불리는 9살 난 크리스티나 그린에 관한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TV 뉴스를 보니까 크리스티나의 부모님의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좀 관심을 갖고 보았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 때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총 맞아 죽은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 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전인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그 죽은 크리스티나란 아이의 장례식 때 캔자스 주의 한 침례교회가 시위를 예고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침례교회 교인들은 몇 년 전에도 전쟁에서 죽은 한 군인의 장례식 때에도 플랫 카드를 들고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식의 글을 써서 시위하므로 말미암아 큰 소란을 일으켰던 교회인데 이번에도 9살 난 크리스티나 어린아이의 장례식 때에도 그러한 소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 입법부에서 그녀의 장례식에 다른 시위대들이 300피트 이내 접근 금지 할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는 CNN 인터넷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단의 유혹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이 많겠지만 한 2가지로 요약한다면 저는 "혼동"(confusion)과 "환상"(illusion)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단은 달콤한 환상(sweet illusion)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혼동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범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잠언 1장 1-7절에서 배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7절) 경건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2절상, 3-4절) 영적 분별력을 개발시켜(2절하, 5-6절) 악한 이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약 1:5-6) 하나님을 경외하므

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엡 5:15-17).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세나 의지, 느낌, 행실과 목적들이 하나님의 자세와 의지와 느낌과 행실과 목적으로 다 맞바꿔있는 정신 상태입니다(MacArthur).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지 결코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결코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느낌, 주님의 자세와 의지, 주님의 행실을 본받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잠언 1장 8-19절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 3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일으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유대인 부모의 자녀 교육을 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토라)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녀가 4살이 되면 하루 3시간씩 토라(모세5경)을 암송하도록 시킨다고 합니다(인터넷). 과연 이러한 유대인의 근본적인 신본 주의적 교육 철학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쉐마(Shema)'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신명기 6장 4-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 자녀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영적 교육이 '쉐마'란 단어라고 합니다. 유대인 자녀는 어머니 무릎 밑에서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부터 이 '쉐마'란 단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 리고 그들은 마지막 죽어 가는 임종 시에 모든 가족과 주위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언처럼 부탁하는 말도 역시 '쉐마'라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들이 잠들기 전 '쉐마'를 외우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잠들다

죽을 경우 '쉐마'가 마지막 유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들의 마음 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시켜야 하는가 하면 그 말씀에서 우리 자녀들이 떠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중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시 119:56)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 즉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기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판이 아닌 그들의 머리에 심겨지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는 최고의 방법은 모범(an example)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범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본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56절).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잠 1:7) 믿는 부모님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잠언 1장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관”이요 “목의 금사슬”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순종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높여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박윤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젊은이들을 높이시사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의 말씀을 배워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의 꾐을 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10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꾈지라도 따르지 말라." 과연 악한 자들(죄인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꾑니까? 바로 거짓된 행복을 약속하는 속임수로 젊은이들을 꾑니다. 그 거짓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악한 죄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약속하는 거짓된 행복은 물질이나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젊은이들을 미혹하여 악인들은 그 젊은이들에게 함께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함께 해치자고 압력을 넣습니다(11절). 그것도 매우 잔인하게 해치자고 말합니다(12절). 그리고나서 그 죄 없는 자의 소유를 다 탈취해서 공동 소유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14절)(박윤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성경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1) 첫째로 생각난 성경 이야기는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좋은 포도원이 악한 아합 왕의 왕궁에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그 포도원 대지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을 때 나봇은 자기 조상이 물려준 땅이므로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아합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이였습니다. 그녀는 궤계를 꾸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위증하여 장로와 귀인들 앞에서 그를 쳐서 살해한 후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2) 둘째로 생각난 성경 이야기는 어제 새벽기도회 때 읽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요셉의 형들이 도단이란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을 때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를 꾀하였다(18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동생이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하자고 서로 말을 맞췄습니다(20절). 그리고나서 그들은 그들의 맏형인 르우벤 몰래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28절)난 후 요셉의 옷을 취하여 수 염소를 죽여 그 곳에 피에 적시고(31절) 그 채색 옷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져다가 보여드렸습니다(32절). 그 때 아버지 야곱은 다른 자녀들의 위로를 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35절). 어떻게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거짓된 행복을 약속하는 속임수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미혹을 받았을 때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3:5-6) 거짓된 행복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된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 물질과 이기적인 탐심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과 그의 종들인 악한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이 아닌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행복의 눈을 멀게 하여 영원한 것을 등한히 하게하고 순간적인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서 이러한 사단과 악한 자들의 꾐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사단과 악한 자들의 꾐이 있을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꾐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꾐에 우리 마음을 양보(yielding)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15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2절이 생각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1장 8-19절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습니다:

(1) 우리는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 우리가 이미 본문 잠언 1장 10절에서 묵상했듯이 우리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꾈지라도 좇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이나 잠언 1장 10절이나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리할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 만일 우리가 악인의 꾀를 좇게 되면 결국에 가서 우리는 그 악인들과 함께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인의 꾐에 넘어가면 결국에 가서 우리는 그 악인들의 범죄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아예 서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악인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3) 그리할 때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국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꾀를 좇게 하여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과 아예 함께 다니지도 말아야 합니다. 함께 교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충동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악인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잠 1:16).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기에 달음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득이

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기뻐하며 기탄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죄악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 자신이 죄악 자체와 같다고 할 정도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는 그들의 악행을 제지할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의 악으로 밀려들어가게 됩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 하지 말고 다니지도 말고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새들이 그물을 치는 것을 보고 피하는 것처럼 (17절) 우리 또한 악한 자들이 유혹의 그물을 우리 앞에 칠 때에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미련한 새처럼 악한 자들의 그물에 걸려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3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8절),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의 꾐을 좇지 않습니다 (10절) 그리고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15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잠언 1장 20-33절]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기에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악한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왠지 교회는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요 3:19).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나눔으로 인하여 지금 교회는 상처와 아픔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기보다 우리의 미련함을 전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잠 12:23).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전 1:2)로서 그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됨(unity)일진데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왠지 요즘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여기 미국 이민 교회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교회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교회일진데 사람들에게 속한 교회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서(마16:18)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주 수요기도회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란 제목아래 잠언 1장 8-10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8절),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의 꾐을 좇지 아니합니다(10절), 그리고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15절). 오늘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제목 아래 본문 잠언 1장 20-33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지 묵

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리석음은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은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지혜가 필요한 3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어리석은 자들"(simple ones), "거만한 자들'(mockers) 그리고 "미련한 자들"(fools)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시비를 분변할 줄 모르고 일정한 견해가 없는 자들로서 악한 운동에 휩쓸리기가 쉬운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미 죄악에 휩쓸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극도로 악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와 달라서 악으로 굳어졌고 도덕적으로 우매한 자들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로서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이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How long?)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22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호 4:6).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6절). 그러므로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맞이했습니다(암 8:11).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있습니다(잠 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법도를 떠나(8절) 악한 자들의 꾐에 넘어가(10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하되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여 마음이 강퍅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우리들의 범죄를 후회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퍅해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강퍅해져서 범죄를 후회하는 마음조차도 전혀 없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지혜를 사랑하므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미워하고 지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음의 강퍅함을 면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훈계를 얻어야 합니다(2절).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므로 말미암아(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의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25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식을 미워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혜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들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훤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할지라도(20-21절) 듣기를 싫어합니다(24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23절)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듣기를 싫어하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24절).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합니다(25절). 결국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미련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맙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지를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29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23:9).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하며 모략을 얻습니다(1:5).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지식이 더하며(21:11) 더 지혜롭게 됩니다(19:20).

듣는 귀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이의 책망까지도 듣는 귀는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25:12)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더하며 더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퇴보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32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우리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과 교훈과 책망 받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퇴보는 결국 우리를 죽이며 우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23장 12-13절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11절).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 <u>재앙이 폭풍같이 임합니다.</u>

오늘 본문 잠언 1장 2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경이 여기고 듣지 아니하며 지식을 미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미워하며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는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폭풍같이 내리시므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의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에 깊이 잠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7절).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조롱(God's derision)이라 생각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시 44:13, 119:51) 하나님께 조롱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2) <u>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십니다.</u>

오늘 본문 잠언 1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다가 결국 재앙을 만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근심과 슬픔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왠지 그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을 보면 어리석고 거만하여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외면했고(2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7-9절), 하나님의 교훈(25절)과 책망(23절)을 외면했습니다(MacArthur).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부르셨지만 듣지도 않고 등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부지런히 등을 돌려 우리가 갈 길을 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다는 것,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견디실 수 있습니까?

(3) 세 번째 결과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행의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들의 죄의 결과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신다는 말씀입니다(MacArthur). 그 한 예로 우리는 성경 로마서 1장 24-28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욕되게 하셨”다(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다(26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28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된 본능대로 살도록 그냥 내어 버려두시는 것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재앙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다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실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악 된 본능대로 내어 버려두시면 우리에게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겔 1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악의 결과에 그냥 내어 버려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받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눅 3:8).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잠언 1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

이 평안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를 추구하십시다.

[잠언 2장 1-9절]

우리 선택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3가지입니다: (1) 광풍같이 임한 재앙 (잠 1:27), (2) 하나님의 외면 (28절), 그리고 (3) 하나님의 내어버려두심(31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며 (live in safety) 재앙의 두려움 없이(be at ease)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악을 떠나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3절).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미련함을 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시편 107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우리는 미련함을 택하므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결과인 곤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혜를 택하기보다 미련함을 택하므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1-9절 중심으로 "**지혜를 추구하십시다**"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한 2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왜(Why?)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가? (2) 어떻게(How?)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가?

왜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면 알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3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And discover the knowledge of God). 우리가 이미 잠언 1장 7절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고 어리석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지식을 미워합니다(1:22). 과연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곧,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9절에서 한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과연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가장 고상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Thus you will discern the fear of the Lor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나 그 분의 의지나 느낌, 행실과 목적 등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갈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죄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를 추구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아 악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 욥이란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욥 1:1).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되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1:29) 오히려 어리석음을 좋아하게 만들므로(22절)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들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15절).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출 32:8) 악으로 달려가며 죄를 범하기를 빨리합니다(잠 1:16).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아서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u>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3 가지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u>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3절을 보십시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장 3절에서 솔로몬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하나님께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삶 속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신자의

열정적인 애원을 보여줍니다(MacArthur). 이러한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필요를 느끼는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Charles Bridges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학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기도에 의하여 얻는다. 학문은 성경학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나 기도는 신령한 기독자를 만들어 준다"(박윤선). 맞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기도에 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간구하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전 영역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한 기독자로 세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4절을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오래 전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마치 광부가 금을 캐듯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TV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광부들이 땅 깊은 탄광 속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한 기억이 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본 뉴스는 작년에 칠레에서 광부들이 탄광에 갇혀 있다가 구출 받은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광부들이 일을 하는지 그저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하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저는 그 광부들을 생각할 때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걸 정도로 뭔가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동 시대'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달콤한 환상인 거짓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버리고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생각할 때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다가 마음의 변하여 그들을 좇아온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데 더 낫다'라는 식으로 모세를 원망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죄의 노예 생활이 영원한 생명보다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광야에서 비록 육신은 죽을 찌라도 구원 받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 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치의 혼동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가치관 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26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귀중성을 알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아야 합니다(잠2:4).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있어서 보배를 찾는 자처럼 그것을 귀히 여겨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마치 사람들이 귀중한 보배를 구할 때 그것을 얻기까지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욥 28:1-11)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많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박윤선).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배롭게 여겨 희생을 아끼지 않고 구할 때에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7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을 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This has become mine, That I observe Your precepts).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악한 이 때에 세월을 아껴 주님을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엡5:17-17).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알아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의 유익

[잠언 2장 10-22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져할 질문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등등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 없이 많은 질문들 중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질문을 성경 전도서 1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과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유익한 것을 취하고 무익한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유익한 것을 취하고 무익한 것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수요기도회 때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미련함을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잠언 2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를 추구하십시다**"란 제목 아래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며 어떻게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알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걷기를 원하시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듣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은 본문 잠언 2장 10-22절에서 찾아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지혜의 유익 때문입니다. 과연 지혜의 유익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의 유익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인해 즐거우십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지난 해 묵상한 전도서 7장 11절 말씀을 다시 뒤돌아보면 그 때 배운 교훈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토록 살도록 인도해(도와) 주기에 지혜는 좋고 유익하며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지혜가 바로 우리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에 지혜는 좋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자의 생활에는 행복 됨이 있습니다(박윤선). 그 행복 됨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심령 속 깊이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도록 재창조 되었고 그 재창조된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찬송가 500장).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쁘고 우리 마음엔 평안을 지니게 됩니다(잠2:10)(박윤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바로 지혜가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에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의 유익은 우리를 보호해 주며 건져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11-12절을 보십시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장 8절을 보면 성경은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3-4절) 지혜를 주시사 그 지혜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며 또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에 쳐해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며 건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악한 자들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1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악한 자들과 폐역을 말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13-14절을 보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지혜)을 미워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미련한 자들로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1:3)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구부러진 길을 걸어갑니다(2:15). 이들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 악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은 바른 길, 또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빛의 자녀들인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위험에 빠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그를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다가 안 넘어가니까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처럼(창39장)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진 폐역과 악행을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한 길을 걷는 우리를 모함하고 함정에도 빠트리고 위험에도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사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처럼(창40-41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2) 지혜는 우리를 음녀들로부터 보호해 주며 건져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16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음녀들이란 한 2가지로 성경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박윤선).

(a) **첫째로, 그들은 말로써 사람을 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

성경 잠언 5장 3-4절을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

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신앙을 앗아 갈 수 있는 무서운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잠언 7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혜가 없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깊은 밤에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젊은이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 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 음탕한 여인은 그 젊은이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그 젊은이는 곧 그녀를 따랐습니다(21-22절). 성경은 그가 마치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22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어떻게 요셉처럼 뿌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말로서 사람을 호리는 음녀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잠언 7장 1-5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 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말로 우리를 호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만이 우리를 그녀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며 건져줄 수 있습니다.

(b) **둘째로, 음녀들은 정조가 없습니다.**

잠언 2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들은 자기의 결혼 파트너인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창 2:24)을 파괴한 자들입니다. 한 마디로, 음녀들은 정조가 없습니다. 음녀들은 이 남자 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는 자신의 순결을 헌신짝처럼 버린 자들입니다. 이러한 음녀들의 집은 오늘 본문 잠언 2장 18절에 보면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들과 음녀들에게로부터 보호해 주며 건져줍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한 자들과 음녀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게 만들므로 우리를 보호해주며 건져줍니다(12절)(박윤선).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이나 음녀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떠나 구부러진 악한 길을 걷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혹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하게 탐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창3:6). 그러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으로 악한 자들과 음녀들의 길을 보게 합니다. 그 결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자들과 음녀의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게 할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함께(동행)하지도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혜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20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의 길인 의로운 길, 공평한 길, 정직한 길, 곧 모든 선한 길을 걷게 해줍니다(9절).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똑바른 길을 걷게 해줍니다. 그 똑바른 길은 “선한 자의 길” 또는 “의인의 길”입니다(20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나 음녀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올바른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 올바른 교제란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자와 의로운 자와 사귀며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Walvoord).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자와 의로운 자와 교제하면서 정직(upright)과 완전함(blameless)을 추구합니다. 왜 지혜로운 자는 정직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영원히 남아 있길 원해서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둡고 패역한 길을 걸으므로(13-14절) 결국 “땅에서 끊어지겠고 … 땅에서 뽑히리라”(22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장 10-22절 말씀 중심으로 주신 “지혜의 유익”이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다.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줍니다. 지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며 또한 위험에서 건져 줍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곧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게 해 줍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 가신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인 천국에서 다함께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지혜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잠언 2장 10절).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인해 즐거우십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도서 7장 11절을 보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토록 살도록 인도해(도와) 주기에 지혜는 좋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바로 지혜가 우리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에 지혜는 좋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좋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므로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영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므로 영혼 구원에 힘을 썼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도 말했습니다(빌 4:1).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리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바울은 그의 기쁨이요 그의 생명이며 그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찬송가 82장)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과연 이 영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 (1)

[잠언 3장 1-10절]

저희 교회 회원자격을 보면 “영적 자세”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자세”란을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필요한 영적 자세인 “순종”, “겸손”, “신실함”, “충성”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세에게 대한 내용들 이전에 적혀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는 다름 아닌 “The kind of person you are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kind of work you do”(당신이 누구인가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판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Doing)보다 존재(Being)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입니다. 제가 이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행함으로 존재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도전이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행함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 가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잠언 2장 10-22절 중심으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 지혜의 유익은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며(10절), 우리를 보호해 주고 건져주며(11-12절)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20절). 오늘은 본문 잠언 3장 1-10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 (1)**”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신앙 자세입니다. 한 4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새기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명령 잊어버리지 않고 지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자신의 마음 판에 새깁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14:21) 순종하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기에(잠 1:22)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며(24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비웃음(26절)과 하나님의 외면(28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31절).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는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 된 삶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사랑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 말씀 인격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인격화된 삶은 바로 진실 된 삶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거짓된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그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하기에(22, 24절) 악한 자(10절, 2:12)와 음녀(2:16)의 꾐과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 마음 판에 더욱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 사랑과 진실 된 삶을 살아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신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독점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이런 의뢰심을 가리켜 “동심의 신뢰(childish confidence)”라고 합니다(박윤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단순성 있는 신뢰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동심의 신뢰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로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1절)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3-4절)고 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명령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시냇물이 마를 텐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적을 행하시사 시냇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사 육지처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냇물을 메마르지 않게 계속 시냇물이 흘러내리게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적을 엘리야에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릿 시냇가의 물은 말랐습니다(7절). 과연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가 자기 명철을 의지했더라면 과연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었을까요? 결국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는 마릅니다(7절). 그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고 명하십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12절) 하는 한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궤하게 하셨습니다(9절).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과 함께 한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8-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

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물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피조물인 우리의 낮은 생각에 집어넣어서 살아갈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잠3: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분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16:3).

셋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다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일을 경영하여 그 경영하던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 일이 잘 된 줄 착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할 때(3:3) 우리는 미움과 거짓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기 여기는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 분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헛된 믿음입니다(14:16).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는 이러한 헛된 믿음의 원인은 높은데 마음을 둔 교만입니다(롬 12:16). 왜 우리가 높은데 마음을 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친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잠 3:7)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합니다(롬 12:16). 이러한 교만함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우준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1:21-22).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

므로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일으켜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9절을 보십시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여 재물을 얻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므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함 속에서 자기 배를 더 채우고자 애쓰지 결코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는 지혜로운 자는 마치 지혜 있는 자녀들이(엡 5:15)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6:1)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2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합니다(잠 3:9). 공경하되 그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9절). 왜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신 26:1-3, 9-11) 하나님을 재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Walvoord). 물질로 하나님께 받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입니다(박윤선).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쓰여 있고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대가인 물질이 귀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고후 9:7)(박윤선).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2)

[잠언 3장 1-10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잠 3:1, 3).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 된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5-6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납니다(7절).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악에서 떠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9절). 이렇게 하나님을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 4가지로 오늘 본문 잠언 3장 1-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은 장수와 평강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장수의 축복을 생각할 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에서도 성경은 자녀들("아들아")이 부모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고(1절)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해야 한다(9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장수"입니다(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평강"의 축복도 주십니다(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 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종하므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양심에 찔림과 죄책감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 사랑과 진실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4절).

둘째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결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길과 대조적입니까? 잠언 2장 12, 15절을 보면 성경은 악한 자들과 폐역을 말하는 자들의 길은 구부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구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은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똑바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길을 걷게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은 건강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구약 성경을 읽다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치 않는 죄를 징계하심에 있어서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5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히려 행악하기를 기뻐하면(잠 2:14)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는 “종일 심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32편 3-4절에서 고백했습니다(참고: 시 51:8)(MacArthur).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질병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서 생긴다. 불신앙의 심리 속에는 의심, 염려, 미움, 시기, 불안이 판을 친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에 해롭다. 위장병의 대부분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생긴다”(박윤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은 부요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9절).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신 8:18) 자기가 재물과 소산물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의 축복을 주십니다(시 112:1-3).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재물과 부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전 5:19).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수와 평강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

를 받으며 건강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또한 누리는 축복은 바로 부요, 즉 물질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야 말로 우리의 명철로는 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보면 어느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 역경을 만나면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명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다가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다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잠 3:7).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자세를 취하며 또한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저의 명철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시 23:2)은 믿으면서 동일하신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록 허락하신다(4절)는 사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 받기는 좋아하면서 재앙을 받는 것은 싫어하고 있습니다(욥 2:10). 지금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은 영적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형통은 좋아하면서 고통은 싫어하고, 풍성함은 좋아하지만 궁핍함은 싫어하며, 축복은 좋아하면서 재앙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편식하는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명철로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로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1절)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3-4절)고 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고 명하실 수가 있나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시냇물이 마를 텐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가 자기 명철을 의지했더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는 마릅니다(7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고 명하셨습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12절) 하는 한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궤하게 하셨습니다(9절). 이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들과 함께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차이입니다(사 55: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물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피조물인 우리의 낮은 생각에 집어넣어서 살아갈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잠3:6).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3장 1, 3, 5절에서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잠언 3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명철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 마음 판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 잠언 3장 3절을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새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새겨지되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판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마음 판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마음 판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므로(1절) 우리 마음 판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새기게 될 때(3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5절).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6절).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6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만사, 우리 명철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일보다 수 없이 더 많습니다. 그 수 없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 마음 판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판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새겨주실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므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잠3:5)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명철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한데(왕상 17:1)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명하십니까?(3-4절)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으면 당연히 시냇가는 마를 것이고(7절) 시냇가의 물이 마르면 엘리야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고 명하시면서(9절) 거기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12절)하는 한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좀 돈 많은 크리스천 과부를 준비해 놓으시면 풍족히 먹고 사역도 좀 넉넉히 후원받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엘리야 목사님은 나와 내 아들이 먹을 한 끼 음식을 먼저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명합니까?(11, 13절)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13절)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 만큼 사랑하겠습니까? 한 끼 음식, 엄마인 내가 못 먹어도 내 아들은 먹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그 음식을 목사님에게 먼저 갔다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18, 24절)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15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5, 10절). 어떻게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잠 3:5).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왕상 17:4, 9, 14). 심지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4절)는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5절).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6, 16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17절)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게 놓아두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우리 삶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들춰내셔서(18절) 회개케 하시사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고자 그러시는 것일까요?(20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자 그러시는 것일까요?(22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그러시는 것일까요?(24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지혜로운 자녀

[잠언 3장 11-26절]

저는 어제 새벽기도회 때 제 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인 딜런, 예리, 예은이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부족한 아빠인 제가 그 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 토요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걸이를 한 예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제 자신이 사랑하는 딸 예리를 하나님께 받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리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역사', 두 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길 간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 수고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맏아들 딜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 딜런아 진실하고 신실하길 바란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나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잠언 3장 11-26절을 묵상하다가 11절과 21절에 "내 아들아"라는 솔로몬 왕의 말을 보고 그 단어들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녀**"란 제목 아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의 핵심은 과연 지혜로운 자녀는 누구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녀들은 누구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 자녀들(또는 후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는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

랑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1-1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징계합니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희 집 딸 둘이서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싸우기에 제가 징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아이들을 징계한 후 ‘너희들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글을 써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딸아이는 글을 길게 써서 그림까지 그려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자기가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뉘우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글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인 저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서했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데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딸아이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신 8:5). 징계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도를 떠날 때(forsake the way or leave the path) 우리를 징계하십니다(잠 15:10).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도를 떠날 때 징계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셔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3:12).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아들, 딸로 여기고 계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히 12:6-8).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우리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들을 멀리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잠 22:15), (2) 우리를 회개케 하여(계 3:19)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욥 34:31)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히 12:9), (3)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함(히12:10)과 또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사 53:5).

오늘 본문 잠언 3장 11절에서 솔로몬 왕은 “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2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잠언 3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은 “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하였는데 이렇

게 오늘 본문 3장 11절에 와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 11절에 와서 아버지의 징계를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솔로몬 왕은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자녀들이 자신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켜 주므로 자신의 법과 명령이 하나님 중심된 것임을 말함과 동시에 그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솔로몬 왕이 “내 아들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싫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박윤선).

그 하나님의 징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미 징계의 목적 세 가지를 묵상한 것처럼 징계의 유익은 우리 마음에 얽힌 미련함을 멀리 쫓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다시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징계의 유익을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3장 12절에서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마디는 바로 징계의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징계의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징계의 유익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유익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좀 마음으로 깨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욥 5:17). 그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지혜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3-15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과연 세상의 은과 정금과 같은 물질이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까? 지난주에 저는 한 기독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한기총은 해체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여기서 "한기총"이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약자로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임)(인터넷). 제가 이 기사를 읽게 된 이유는 얼마 전 한기총에 소속된 목사님 한 두 분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려고 선거 때 돈을 쓰고 받고 등등을 고백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 기독교 인터넷 웹사이트 기자가 영동교회 장로님이지 고신대 석좌교수이신 손봉호 교수님을 인터뷰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 기자가 이런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권 선거로 드러난 교계 지도자들의 지나친 명예욕이 단지 한기총의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손 교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문화에 존재하는 처세주의와 입신양명 추구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 개신교의 신앙이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게 복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친다. 목회자는 정치를 해서 권력을 얻을 수도 없고, 기업을 해서 돈을 벌수도 없다. 결국 남는 게 명예뿐이다 보니 여기에 집착하게 된다"(참고: "처세주의"란 '저 하나만 생각하는 태도"란 뜻; "입신양명"이란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이란 뜻). 여러분은 이 손봉호 교수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국 개신교의 신앙이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 교수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신앙은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믿는 이 기복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3장 13-15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3, 18절).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지혜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혜의 가치는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금은보화보다 지혜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기에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18절을 보십시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지혜의 복은 장수와 부귀요, 즐거움과 평강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복은 내세의 구원에 속한 축복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박윤선).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의 진정한 의미인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부귀인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축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만 남아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가장 불행한 것은 금은보화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박윤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3장 19-20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에 대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비교기 될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지혜와 근신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2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솔로몬 왕은 그의 자녀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른 판단력(sound judgment)과 분별력(discernment)을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을 경외하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이 늘 모시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은 무엇입니까?

(1) 영혼의 생명(life)입니다.

잠언 3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 우리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박윤선). 솔로몬 왕은 우리가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안전(safety)입니다.

잠언 3장 23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 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길을 떠나 구부러진 길(2:15)과 어두운 길로 행하게 하려고(13절) 미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사 안전하게 정직한 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20절)을 계속 걷게 하여주십니다.

(3) 단잠(sweet sleep)입니다.

잠언 3장 24절을 보십시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므로 안전하게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배 안에서 잠이 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성도들

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단잠을 주십니다.

(4) 담대함(confidence)입니다.

잠언 3장 25절을 보십시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진실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환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합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6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 그 지혜를 추구하는 가운데 지혜의 축복들을 겸손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근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영혼의 생명, 안전, 단잠 그리고 담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잠언 3장 27-35절]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생각에 떠오릅니까? 언젠가 어느 지체가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나누기에 그 때부터 제 개인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가끔씩 인간관계에 대한 글들을 적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2월 1일 날짜에 "용납하라"란 제목 아래 쓴 그 글 내용을 저는 다시 읽으면서 지금도 공감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해답은 로마서 15장 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것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조차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알아갈 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원수조차도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27-31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하지 말라'("Do not")라는 명령으로 다섯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27, 28, 29, 30, 31절). 이 다섯 구절들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한 3그룹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Walvoord). 이 3 그룹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한 3가지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원리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실제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혜롭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첫 번째 원리는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27-28절을 보십시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보내신 이 메일의 글을 읽어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면 보편적으로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어 봐도 별 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했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이것이 가장 큰 후회랍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후회를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국에 슈바이처라고도 불렸던 고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주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이웃 사랑과 섬김으로 한 평생을 재물로 바치셨던 분으로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새벽 1시 45분 경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때 한국의 언론은 그 분을 가리켜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인터넷). 그 분은 의사로서 "의사 한번 못 만나고 죽어 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대로, 그의 일생은 가난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그가 머무르는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그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복음병원을 무료의료기관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어 유료로 전환한 뒤에도, 가난한 환자들은 그냥 나가도록 공공연히 뒷문을 열어 놓아 병원 직원들을 곤란하게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고 장기려 박사님은 끊임없는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3장 27-28절에서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인 궁지에 빠진 자에게 아끼지 말고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유가 있는 자들로서 궁지에 빠진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유 있게 하신 목적이 남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유 있게 하신 이 목적을 깨달아 궁지에 빠진 불쌍한 우리 이웃을 돕데 신속히 도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그 궁지에 빠진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28절). 생각해 보

십시오. 궁지에 빠진 사람이 여유가 있는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는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지에 빠진 이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이웃에게 아낌없이 선을 배품에 있어서도 미루지 말고 궁지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여 신속히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고용주(employer)와 종업원(employee)의 관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여 그 종업원에게 주급이던 월급이던 그 때 그 때 임금(wage)을 지불(pay)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종업원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땅히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잠언 3장 27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것을 마땅히 그 주인들에게 주는 것을 거부(보류)하지 마십시오'["Do not withhold good from its owners"(Walvoord). 무슨 말입니까? 가게에서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돈 중 종업원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일하여 번 돈은 더 이상 고용주 것이 아니라 종업원 것이기에 고용주는 그 돈의 주인이 종업원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유 있는 고용주는 여유가 없는 종업원이 주급일 경우 일 주일 일주일 살아가는 것, 월급인 경우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여유가 없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빡빡하게 살므로 그 주급 또는 그 월급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급이던 월급이던 그 때 그 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고용주라면 한번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종업원이 일주일이던 한 달이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일한 만큼 임금을 그 때 그 때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고용주에게 받아 마땅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을 일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고용주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일주일 일주일, 또한 한 달 한 달 받은 임금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급이나 월급을 고용주란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신명기 2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19:6).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되 특히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볼 때 배품에 있어서 참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제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인색한가 자아성찰해 볼 때 그 원인은 제 안

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이기적인 마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고 넓게 깨닫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하여 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텐데 저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인색한 작은 배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수요기도회 때 구했습니다. 고 장기려 박사님처럼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소외되고 상처입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섬기되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친구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잠언 3장 27-28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1)”란 제목 아래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지 첫 번째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란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28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저는 여기서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3가지 포인트란 (1) 우리 모두는 베풀 힘이 있다는 것과 (2)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3) 우리가 선을 베풀되 아끼지 말고 신속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가지 포인트를 묵상하고 나눈 후 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적용케 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한 3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우리 모두는 베풀 힘이 있다는 포인트를 생각할 때 주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의 한 마디를 우리 이웃에게 베풀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의 이 메일과 전화를 받게 하시사 따뜻한 한 마디의 위로를 베풀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마땅히 받을 자라는 사실과 남편 또한 아내에게 존경을 마땅히 받을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지난 주 수요기도회 후 말씀 묵상한 것을 이 메일로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눈 후 저에게 온 한 형제님의 답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부부 관계에도 적용하게 된 깨달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는 신속함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내가 요구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랑을 배품에 있어서 어쩔 때는 신속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how good is a timely word!).

오늘 본문 잠언 3장 29-30절을 보십시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보면 서로 오해도 사고 그 오해로 인하여 서로 관계가 나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 중 하나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현상은 서로 오해가 더욱더 깊어지면 우리는 신뢰가 깨지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원수가 되어 서로 모함하며 심지어 모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29절). 여 기서 "안연히 살거든"(lives trustfully)란 말씀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살고 있는 이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뢰감을 주는 이웃을 우리가 모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신뢰감을 주는 이웃을 우리에게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비난하여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0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이 자기 궁 곁에 가까이 살고 있었던 이웃 나봇에게 행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사마리아 왕 아합이 자기 궁 곁에 가까이 있는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만일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팔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2절)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열조의 유업을 아합 왕에게 주시를 금하셨기 때문입니다(3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뢰할 만한 이웃인 나봇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결국 그를 모함하며 모해하여 죽여 버렸습니다(8-13절). 남편을 돕는 배필인 이세벨 왕후가 남편 아합 왕을 돕데 그의 욕심을 채워주고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나봇이란 가까운 이웃을 모함하여 죽여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고 있던 이웃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만한 이웃 나봇을 모함하고 모해하여 죽인 이 죄악 된 일이 결코 아합 왕 시대 때만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

가까운 이웃과 신뢰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예수님의 계명인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와 우리 가까운 이웃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깨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사단은 제 삼자를 미혹하여 그를 사용하여 우리의 신뢴 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켜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계속 진실하고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감을 주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뜻(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까닭 없이 우리 주위 사람들을 오해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주며 모함하며 모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우리를 신뢰하는 우리 친척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등에게 그 신뢰감을 깨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인 이웃을 우리 몸 같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사단의 끊임없는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 가까운 이웃을 신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설상 그 이웃이 나중에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 수군수군하며 우리를 모해하고 모함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 가까운 이웃을 신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우리 이웃에게 신뢰감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우리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 중에 제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인간관계 중에 제일 슬프고 괴롭고 불행 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위로자(the best encourager)인 반면에 또한 제일 낙심케 하는 자(the worst discourager)도 됩니다. 과연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3)”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잠언 3장 27-3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묵상한 2가지 원리와 더불어 세 번째 원리도 부부 관계에 적용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27-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저는 이 교훈을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이미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마땅히 사랑을 받을 자인 우리의 아내에게 사랑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는 제일 가까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조차도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변명 중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아내가 사랑 받을 만하게 우리를 존경해야지 우리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랑 받을 만한 언행을 해서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마땅히 사랑 받을 자로 알고 사랑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경(respect)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줘야 합니다. 물론 아내들은 그녀들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존경 받을 만한 언행을 일삼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 24절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 또는 경외(respect)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그녀들의 남편을 존경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2) 우리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29-3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남편 또는 우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단은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기보다 그 신뢰감을 깨고자 의심과 불신을 우리 각자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들은 아주 조그만 일로도 크게 싸우고 다투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조그만 일로 서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오해를 하면서도 그 오해를 풀려고 어떻게 대화할 줄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해로 인하여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엔 오해가 쌓일 때 그 쌓인 오해가 장성하여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불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로도 분노가 쌓인 것들이 폭파하여 크게 다투고 싸웁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들의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까닭 없이 서로 비난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30절). 또한 우리는 서로에 까닭 없이 피해를 주면서 모함하고 모해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부부관계에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그의 아내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31절을 보십시오: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우리는 이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포악한 자나 죄인이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잠 23:17; 24:1, 19). 그 결과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시 73:1).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포악한 자나 죄인과 악인들은 형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충분히 실족하여 그 악인들의 행위를 좇아 하나님께 범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3장 31절에서 솔로몬 왕은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포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3장 32-35절에서 한 4가지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Walvoord). 이 4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a)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32절을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가 포악한 자들이나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좇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이유에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핑계될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학한 자들이나 악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좇아서 아니 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제일 가까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우리 부부관계 안에 정직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부부들이 패역한 자를 부러워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보다 패역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부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부부들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패역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들은 주님께 정직하듯이 우리들의 아내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정직하듯 아내들도 그녀들의 남편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b)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33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 잠언을 보면 솔로몬 왕은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잠 23:17; 24:1, 19).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3:33). 비록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요 전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시 73:18-19).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잠 3:33).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의인의 고통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빌 1:29).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어느 부부가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들은 천 명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좇기보다 한 명의 의인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29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부들이 한 몸이 되어 의인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c) 하나님께서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34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이미 잠언 1장 26절에서 묵상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고(24절)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할 때(25절) 우리는 재앙을 만날 것이고(26절)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사실(26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 책망을 멸시할 때 우리는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34절에서도 솔로몬 왕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성경은 거만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거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 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교만함을 집어넣어서 서로를 겸손히 섬기기보다 서로보다 높은 자리에게 사랑 또는 존경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부부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마음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빌 2:5-8). 그러므로 우리 부부들은 서로를 우리 자신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3절). 그리고 우리는 각각 우리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서로의 배우자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4절). 그리할 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4절).

(d)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35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포악한 자들, 악인들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수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양심도 마비되었고 얼굴도 철면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죄를 거듭 짓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운 줄 점점 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한 기독교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어 보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함께 큰 기독교 단체에서 동역하다가 그 나이가 더 많으신 교단 선배 목사님의 돈 선거를 폭로하면서 증거로 녹음한 테이프를 제시하는 글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뭐라 할 말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더 할 말 없게 만든 것은 그 사실을 폭로하는 참모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증

거물 녹음기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수치심을 느끼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하여 우둔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뿐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고 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도 수치심을 못 느끼는 그러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우리는 좀 수치를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들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서로 존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이 마비되었고 우리의 얼굴이 철면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때 그 면책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1)~(3)란 제목 아래 잠언 3장 27-25절에서 주시는 3가지 인간관계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를 저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3 가지 원리를 우리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주위에 많은 부부들이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수를 꽂는 말도 분노 가운데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부부들이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도 부러워하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기보다 거만함 가운데 서로를 컨트롤(control)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부부들이 미련하여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책망도 듣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존경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남편은 마땅히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며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의인의 고통에 서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므로 겸손히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부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를 세우는데 헌신하여 부부 이혼율이 치솟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부부가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들어내는 부부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잠언 4장 1-9절]

"최선을 다하되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9가지 원리"란 책의 저자인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님의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의 문맥은 저 같은 목회자가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은 다하되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목회자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은 최고의식이라는 것입니다(김경원).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귀하지만 최고가 되려는 최고의식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함에 빠질 위험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를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4장 7절에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지혜"(wisdom)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7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가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가 제일입니다**"란 제목 아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인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제일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7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어 놓고 그 지혜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절). 그 정도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소유를 걸은 만큼 값어치가 있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을 얻기에 주의하라." 우리가 제일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한 도리(sound teaching)를 주시기 때문입니다(2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은 선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법)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2절).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합니다(4절).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5절) 지켜 행해야 합니다(4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지금 솔로몬 왕은 자기는 자기의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의 "유약한 외아들"(only child)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아들들(1절)에게 선한 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2절).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의 교훈은 자기가 부모님에게 외아들이었을 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들이 솔로몬만 아니라 세 아들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대상3:5)(Walvoord).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다윗 왕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 또한 자기의 아들들에게 선한 도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저에게, 그리고 저는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은 "헷 사람 우리와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는데(왕상 15:5)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나이가 늙을 때에 이방인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우상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11:4).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잠 4:1)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4절)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5절)고 했지만 그는 나이가 늙어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친 대로 자기가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한 마디로, 솔로몬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습니다(왕상 11:4). 그러면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에게 선한 도리(교훈)을 받았을 터인데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대하 12:1).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호보암을 본받아(1절) 다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2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할아버지인 다윗의 신앙이 아들 솔로몬과 손주 르호보암에게 계속 전수되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하는

솔로몬 왕조차 다윗 왕의 훈계를 떠나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잊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 볼 수가 있습니다(시 34:8).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 육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선한 말씀(가르침)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롬 8:28)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도리(잠 4:2)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그에게만 소망을 걸고 그의 선한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시 34:8).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롬 8:28).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인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한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 <u>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u>

오늘 본문 잠언 4장 6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장 7-8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는 지혜(6절)로 행실을 온전케 하여(7절) 공 평(성도)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성경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2:1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3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킬 때(2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거치지 않도록 안연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3절). 이렇게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주며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질 때 한 가지 마

음에 점점 더 느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미련해 질 때 제 신앙과 마음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제 자신이 미련하면서도 제 자신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길 뿐만 아니라(12:15)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면서(26:11) 즐긴다는 것입니다(15:14).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참으로 우리는 위험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성경은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최고인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얻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2) <u>우리가 제일인 지혜를 품고 높일 때 지혜가 우리를 높이며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u>

오늘 본문 잠언 4장 8절을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혜를 높일 때 지혜가 우리를 높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높이면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낮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민으로 인하여 마음도 긴장도 되고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 심각한 고민이란 "목회자의 변질"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제가 변질되어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범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8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변질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기보다 제 자신의 지혜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함 속에서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제 자신의 어리석음만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인 지혜를 높이고 그 지혜를 품으라는 말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고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도리(교훈)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빌 2:9)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3) 우리가 제일인 지혜를 품을 때 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 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은 "지혜"를 여성으로 인격화했습니다. 그 여성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품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4절을 보십시오: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인 지혜를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화려하게 하시사 우리의 명성이 불신자들 중에 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유를 걸은 만큼 값어치가 있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훈계를 듣고 마음에 두어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길

[잠언 4장 10-19절]

만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두 선택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여 걸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한 상담자의 칼럼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많은 우리 한국사람 이민 자녀들이 술과 마약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4장 10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Listen, my son, accept what I say, and the years of your life will be many). 지금 솔로몬 왕은 그의 아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지혜로운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정직한 첩경", 즉 정직한 길(upright paths)입니다(11절).

지금 우리는 정직의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포장하여 진리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을 떠나 "사특한 자의 첩경" 또는 "악인의 길"을 걷게 만들고자 계속해서 거짓으로 포장된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14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4장 14-15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아예 지나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16절).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입니다(17절). 즉, 그들의 주요 음식은 한 마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악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을 떠나 악인의 길을 걷게 만들고자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악인들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길이요 정직한 길이요 의인의 길을 걷기보다 악인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인의 길을 걸어 다닐 때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실족하여)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저는 그 이유가 사단의 교묘한 역사인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섞어서 우리에게 진리이라고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사단의 포장된 거짓 "진리"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므로 말미암아 혼동 상태에서 사단의 포장된 거짓 "진리"를 선택하여 결국에 가서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단의 포장된 거짓 "진리"와 참 하나님의 진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보면 사단의 포장된 거짓을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인 지혜를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훈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닐 때에 우리의 걸음이 곤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12절).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길이란 정직한 길이요 그리고 정직한 길이란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18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에 돋는 햇볕 같이 자신이 성결의 빛(light of purity)(박윤선)이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취되 마치 낮에 그 햇볕이 더욱더 쨍쨍하게 비취는 것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성결의 빛은 점점 더 밝고 환하게 비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 12장 3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이 다니엘서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4장 10-19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대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의 길과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죄악 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선 우리는 “정직의 빛”과 “의의 빛”을 밝히 비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므로 말미암아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2세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혜로운 말과 훈계를 듣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실족케 하여 정직의 길을 떠나 거짓의 길을, 의인의 길을 떠나 악인의 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현상은 우리 자녀들이 이 악인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유혹할 때 그 악인의 길을 들어가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에 들어가서 악인의 길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인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걷도록 훈계하고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다!

[잠언 4장 20-27절]

여러분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라고 부릅니다. 이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과다활동과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소아청소년기의 정신과적 장애입니다. 이 장애의 증상의 특징은 집중력이 매울 떨어지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크고 기억력의 저하 증세가 보입니다. 또한 행동의 예측이 어렵고, 분노조절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참견을 잘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의 75%가 지속적으로 적대감, 분노, 공격성, 반항 등의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를 생각할 때 영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영적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이 장애의 증상의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변화가 심하여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5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미 잠언 2장 2절에서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5장 1절 하반절에서도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로 인하여 우리의 귀 또한 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시대 때 들리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한 선택은 바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우리)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딤후 4:3). 우리는 "바른 교훈"(sound doctrine)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지혜로워 질 것이며 또한 명철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과 말들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 솔로몬 왕은 이미 잠언 3장 21절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바른 판단과 안목)들로 하여금 우리 눈앞에서 자꾸만 떠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요일 2:16)에 이끌려 살아가고 만들고자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걷기보다 보는데로 걸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눈으로 보며 읽으며 상고함이 중요합니다(박윤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행 17:11-12)(박윤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만 향할 때에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폭풍을 바라보았지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므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롬 10:17). 그 이유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므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으

며 묵상하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책을 평생에 우리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신 17:1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합니다(20절). 그리고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눈으로 바로 보며 또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걸어가야 합니다(잠 4:25).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하는 삶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네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데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지켜야 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지켜야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속에 지킬 때에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민 16:22)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근거는 바로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 관리해야 하느냐 할 때 저는 한 6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관리,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위기관리, 마음 관리, 그리고 영혼 관리. 그 중에 마음 관리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한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u>우리는 우리 마음을 부지런히 성찰해야 합니다.</u>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15:11, 18).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18-20절).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이 아닌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살인)하는 생각(요일 3:15), 음란한 생각, 도덕 질과 거짓된 생각과 싸워 사랑하며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2) <u>우리는 우리 마음이 강퍅해 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u>.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 어떻게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 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a)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teaching)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로 “사람이 바른 교훈(sound doctrine)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심장이 우리를 교훈할 정도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시 16:7).

(b)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rebuking)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예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expose them).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예하고 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는 양심이 찔림(conscience stricken)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집니다(렘 23:29). 그리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000명의 신도들처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37절). 그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람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38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c)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함(correcting)을 받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비틀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구부러진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생각을 하게 만드시며 또한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및 책망을 받고 돌이며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training in righteousness)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하심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길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4절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지키므로 우리의 마음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잘 지켜야 할 것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

고 있습니다. 그의 권면의 메시지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들을 우리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면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든 생각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바른 교훈)으로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다면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와 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귀와 눈과 입술 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쳐다보며 입술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2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궤휼을 품나니.”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들이나 위선자들처럼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궤휼을 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진실 되게 말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말고.” 만일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입술로 악한 말을 하며 궤휼을 말해서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잠 5:2).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6-27절을 보십시오: “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솔로몬 왕은 우리의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탄케 하라’는 말은 ‘측량하라’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위태하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위태한 길인 줄 알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길로 향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위태한 길이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든든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7절). 즉,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발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

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수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잠언 7장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소년)가 생각났습니다(7절). 그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8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따랐는데 그것은 마치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2절). 이것에 미련한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쳤고 그 길에 미혹되어(25절) 그의 발이 위태한 음녀의 길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태한 음녀의 길로 발걸음을 향한 미련한 소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7장 23절을 보십시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은 든든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하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집중력을 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마음관리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에에서 남이니라”(잠언 4장 23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형의 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다가 흑인 강도가 들어와 돈을 훔치고 도망가는데 그 형의 어머님이 뒤쫓아 나아갔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 때 그 강도가 가게에서 훔쳐간 돈은 $100 이였습니다. 어이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100을 지키려고 강도를 쫓아 나아가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순간적인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귀한 생명이 단 돈 $100에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키는데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을 지키려고 별의 별 노릇을 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을 지키고자 마음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돈에 마음을 뺏겨 돈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돈으로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주며 교인들 앞에서 자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돈으로 지배(control)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마음은 왜 내 팽개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더 이상 돈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더러워지고 있는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조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마음을 구원해 보려는 교만한 본능 속에서 경건의 모양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입니다(행 15:10).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구원 계획을 문제시하여 의심 하는 마음입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러한 마음은 "주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느 무엇보다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잠 4:23). 우리는 이 근본적인 교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시간을 허비하면 아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 나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더럽히는 사탄의 계략과 많은 유혹 속에서 마음 지킴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Christ's righteousness)만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긍할 것은 오직 '나 행한 것 죄뿐'이란 사실과 우리의 연약함 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되므로 성결한 생활을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시편 51편 10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해야 합니까?

[잠언 5장 1-14절]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성폭행 당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 인터넷 조선일보를 보니까 "동기생 집단성추행 의대생들, 유력 로펌 변호사 대거 선임"이란 제목 아래 기사가 뜨거운 논쟁 기사인 것 같아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기사 내용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나이가 20대 초,중반인 한국 K대 의대생들 3명이 집단으로 성추행한 협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들의 법무법인(로펌)의 변호사들을 대규모로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학생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이 다 합쳐서 10명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들인가 봅니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학생들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그 많은 유명한 변호사들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및 강간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당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폭행을 반대하는 조직(anti-sexual violence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RAINN(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란 단체의 성범죄 통계를 보니까 약 2/3의 성폭행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8%의 강간범들은 친구이거나 아는 사람(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보니까 매 2분마다 미국에 사는 사람 중 누군가가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sexually assaulted)(인터넷).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성적 유혹이 많은 세상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 두 주 수요기도회 동안 잠언 4장 20-27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지 한 다섯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20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21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며(21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24절).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26-27절). 오늘은 잠언 5장 1-14절 말씀 중심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1절)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That you may observe discretion And your lips may reserve knowledge).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지식과 근신함을 얻어(1:4)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2:11; 3:21-24).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여 지식과 근신함을 얻으므로 말미암아 그 지식과 근심함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녀 곧 창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여 지식과 근신함을 얻을 때에 그 지식과 근신함이 우리를 음녀의 유혹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다[(2:16)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음녀의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4장 3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For the lips of an adulteress drip honey And smoother than oil is her speech).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음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의 유혹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말씀(3절)은 음녀가 우리를 입술로 유혹하는 것은 그만큼 간교하고 능란하여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넘어가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기에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성경은 음녀의 입술이 처음엔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할 것 같아도 나중에는(끝에는) 그녀의 입술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워서(4절) 결국 우리를 영적 사망인 "사지"와 영원한 멸망인 "음부"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박윤선). 이것이 바로 음녀가 우리를 입술로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그녀는 우리로 하여금 쾌락주의에 빠져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여(6절)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음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음녀의 입술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으로 음녀의 입술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꿀과 같이 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 10절에서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보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음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녀의 유혹의 목소리가 아무리 꿀과 같이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보다 이미 기름보다 미끄러운 음녀의 입에서 떨어뜨리는 꿀과 같은 미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송이 꿀이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송이 꿀’이 심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벌들을 없애는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한 사람은 와서 사닥다리로 집 지붕 쪽까지 올라가서 약을 뿌리고 갔는데 얼마 후 그 많은 벌들이 죽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지붕에 올라가더니 아예 지붕의 부분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송이꿀(honeycomb)을 다 없앤 후 다시 지붕을 잘 덮었을 뿐만 아니라 벌들이 다시금 지붕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붕과 벽 사이에 틈들을 다 막아주고 갔습니다. 그 벌 없애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붕을 뜯어서 송이 꿀을 없애지 않으면 그 꿀들이 녹아서 벌레와 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들도 다시 모이게 된다고 하기에 할 수 없이 거금을 들여서라도 송이 꿀을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사단이 음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육신의 쾌락을 좇는 죄악 된 송이 꿀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므로 그 사단과 음녀의 유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틈을 다 막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여기 저기 틈들이 많아 사단과 음녀의 유혹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므로 우리는 음녀의 입에 나오는 어떠한 유혹도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음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8절을 보십시오: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적 유혹이란 것은 매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피함으로만 이기게 된다”(박윤선).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라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 생각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던 요셉(창 39:6)을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되(7절)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도(10절)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동침하기를 거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10절). 그러나 하루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게 되었을 때(11절) 그녀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말했을 때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12절). 그러므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는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요셉처럼 성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마음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죄악의 사슬에 매여 성적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과 달리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 외에 삼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딤나에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삿 14) 가사에 가서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고(16:1) 또한 그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 하는 여인을 사랑하므로(4절) 그녀의 꾐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결국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성적 유혹을 이기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래 전 들은 이야기는 창녀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결국에는 죄를 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 제가 아는 어느 한 여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창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을 직접 들은 기억도 납니다. 참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과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기의 집 문에도 아예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되 창기의 말을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므로 창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지 않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갈 때 어떠한 불행한 결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그 불행한 결말을 한 5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1) 우리는 존영을 상실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Or you will give your vigor to others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길을 음녀의 집 문에 가까이 갈 때 첫 번째 불행한 결말은 우리는 존영을 상실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존영"이란 "힘 또는 정력"(strength or vigor)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honor)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해석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녀를 멀리하지 않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하므로 결국 그녀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힘도 잃는 것은 사실이지만 왠지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실은 힘이라기보다 명예의 상실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란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사울 왕 밑에 있었을 때에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었지만 그가 왕이 되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들춰내셨을 때에는 자기의 명예와 영광(splendor)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란 말… 결국 남의 부인을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다윗의 음행의 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1:3)(박윤선). 다말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2)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지 않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청춘 시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네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And your years to the cruel on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음녀를 가까이 할 때에는 우리의 황금과 같은 시기인 청춘을 잔포자인 음녀에게 다 낭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

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이란 황금과 같은 나이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좋은 시기인데 그 황금과 같은 시기를 하나님이 아니 음녀에게 허송세월을 한다면 그 젊은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음녀가 잔포자 또는 잔인한 자인 것은 청년들을 젊은 시기를 허송세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3)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지 않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수입을 상실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And strangers will be filled with your strength And your hard-earned goods will go to the house of an alien).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명예나 시간만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탕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께 받쳐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음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음녀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받은 축복을 이방인 여자인 음녀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데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녀에게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지 않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므로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11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패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And you groan at your final end, When your flesh and your body are consumed).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기와 동침하므로 성병에 걸려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까? 아직도 AIDS라는 병은 고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것은 자기가 AIDS를 걸린 줄 알면서도 어떠한 창기들은 다른 이들과 동침하므로 성병을 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접

하다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한지 결국 창기와 동침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건강을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서 끝에 가서는 한탄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지 않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되어 양심상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12-14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끝에 가서 명예도 잃고 시간도 허비하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에게 훈계를 받고 꾸지람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고 듣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성회에 속하여 살면서도 파렴치하게 많은 죄를 범하였으니 이 얼마나 더 큰 죄입니까?(박윤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면책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면서 자기 고집과 죄악의 본능대로 성적인 범죄를 지고 있는 자들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것 같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많이 배우고도 그 진리를 거스리는 자의 죄는 더욱 많은 벌을 받는다"(눅 12:47-48).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식과 근신함을 얻어 우리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창기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창기의 유혹에 넘어가 명예와 시간과 재물과 건강 다 잃어버리고 양심에 고통 속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하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잠언 5장 8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 예배 학교 시간에 어느 한 자매가 앞으로 자기가 결혼하면 남편이 한번은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매의 입에서 자기 미래의 남편이 불륜의 관계를 맺을 것은 예상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매는 요즘 만연하는 불륜의 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일이 자기 부부 관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으로는 그 자매의 말을 듣고 놀랬지만 또 한쪽으로 그 자매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왜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본문 잠언 5장 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녀)인 "음녀"["방탕한 여인"(현대인의 성경)](3절)입니다. 왜 잠언 기자는 음녀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를 가까이 하면 "나중에 쓰라림과 고통만을 남겨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처음에 쓰라림과 고통을 맛보면서 계속해서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나중엔 쓰라림과 고통만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알면서도(머리로만 알겠지만) 불륜의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쓰라림과 고통을 맛봐야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녀를 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면 "네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에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네 재물로 배를 채우고 네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9-10절). 실제로 불륜의 관계로 인하여 영예와 재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남자는(6:29) 그 여자의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면 그 남편은 복수할 것이며 결코 자기 아내와 통간한 남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34절). "아무리 많은 위자료나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가 받지 않을 것"입니다 (35절). 질투함으로 분노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와 통간한 남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면 "결국 네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고 어째서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내가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12-14절,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훈계하고 책망을 하면 듣습니까? 잠언 6장 27-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마치 불을 품에 품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은 그 불이 남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불이 자신의 부부관계와 가정에 상처와 모욕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므로 망치지 않습니까?(참고: 32-3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미련한 남자는 멀리해야 할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합니다(참고: 7:7-8). 그는 자꾸만 그녀의 집 쪽으로 갑니다(8절). 그것도 깊은 밤 흑암 중에 말입니다(9절).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아내를 가까기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의 집 쪽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멀리합니다.

저는 미련한 남자가 남의 아내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 이유를 잠언 5장 15-1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그가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녀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있다면(19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결코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고 남의 아내 가슴을 않지 않으며 자식을 낳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16, 20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지혜로운 남자(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남편)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남편)을 행복하게 하며 또한 그녀(그)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그)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녀(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불륜의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패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잠언 5장 11-14절).

저는 세 자녀들을 둔 아버지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딜런, 예리 그리고 예은이가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 삐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제 자신이 사춘기 때 삐뚤어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 세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만 미래 일을 알 수 없기에 저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5장 11-14절을 보면 잠언 기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그가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1절) 나이 들어 몸(육체)이 쇠패할 때에(11절)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잠언 기자가 두려워했던 아들의 후회하는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왜 내가 부모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며 가볍게 여겼는가?'와 (2) '왜 내가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는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과 선생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 두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우리의 삶에 제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끼치는 부모님의 영향은 선생님의 영향보다 더 크고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부모님의 훈계와 꾸지람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의 영향을 거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부모님의 교훈과 꾸지람을 싫어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잘되라고 교훈하며 꾸짖으신 부모님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바램과 달리 우리는 삐뚤어진 길로 걸으면서 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제자가 죄악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길 원하겠습니까? 지금 잠언 기자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의 아들은 나이가 많아 육체가 쇠패할 때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부모님의 교훈과 꾸지람을 싫어하고 가볍게 여긴 것을 후회하며 또한 자기의 선생님의 가르침에 청종치 아니한 것을 후회하면서 자기 아들이 모든 악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잠언 기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님의 교훈과 꾸지람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므로 말미암아 원치 않은 결말이 자기 아들에게 올까봐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잠언 기자와 같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미 두려워하던 일이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현실로 일어났습니까?

저는 과연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언 기자처럼 “내 지혜”와 “내 명철”(1절)을 세 자녀에게 전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제 지혜와 명철을 세 자녀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그 보다 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과 세 자녀 앞에서 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저 제 마음은 세 자녀를 향한 이 아버지의 두려움이 현실화 되지 않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복되게 하십시오!

[잠언 5장 15-23절]

여러분도 "복덩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네이버 사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복덩이는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5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Let our fountain be blessed)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샘"이란 아내를 비유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아내를 복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물론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아무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잠언을 보다 보면 그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1:9, 19; 25:24).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는 "아내"는 그런 다투는 여인이나 성내는 여인이라기보다 "어진 여인"(an excellent wife)(12:4), "슬기로운 아내"(prudent wife)(19:14) 또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a wife of noble character)(31:10)입니다. 잠언 12장 4절을 보십시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31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성경은 이러한 어질고 슬기로우며 현숙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

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아내를 배우자로 둔 남편은 복 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아내는 그에게 복덩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복덩이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주 덩어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잠언 5장 18절에 나오는 "복되게 하라"는 원어 히브리어 의미에는 "복"(bless, be blessed)이라 뜻도 있지만 "저주"(curse)라는 뜻도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Vine).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복덩이로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말2:14)(박윤선). 그러므로 우리 남자는 우리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복덩이요"(You are my blessed one)라고 마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말로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된 아내를 우리의 복덩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죄요 또한 교만의 죄입니다. 아마 우리 남자들 중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숙한 여인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투며 성내(성깔 있)는 여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아내를 복덩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럴싸한 변명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한 말을 제가 듣는 다면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여인을 선택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을 거부하고 우리가 보기에 예쁘고 매력을 느끼는 그러나 나중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는데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우리 남자들이 자기가 선택하여 결혼한 아내에게 참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행동으로도 아내로 하여금 자기가 저주 덩어리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많은 아내들이 자기들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의 인생입니까? 우리는 우리 아내(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덩이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아내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 아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배우

자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5장 18절을 보십시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어떻게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바 되어야 한다(we must be captivated by her love)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아내의 미모보다 그녀의 미덕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는 말씀 비유의 의미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물”과 우리의 “샘”(15절)인 우리의 아내의 사랑만을 즐기며 결코 그녀를 버리고[“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하지 말라는 말의 뜻(박윤선)] 음녀의 집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아내로 말미암아 성적으로나 애정적으로나(sexually and affectionately) 만족할 만한 원기 회복(satisfying refreshment)을 얻을 때에(MacArthur) 우리는 결코 음녀의 품을 그리워하며 음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을 것입니다(20절).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5장 16-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못하며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고(19절) 오히려 음녀를 연모하며 다른 여인의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20절). 부부 카운슬러 M. 게리 뉴먼은 200명의 남자들 (바람을 피우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을 대상으로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지에 대해 조사 연구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고 합니다(인터넷): 48%의 남성들은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감정적/정신적인 사랑을 상대방(아내/애인)으로 부터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가장 큰 이유가 아내들로부터 육체적인 친근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약 8%의 남자들만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신체적/육체적 친근감보다, 그들의 아내로부터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라는 감정적/정신적 친밀감을 원한다고 합니다. 단,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자와는 다르게, 남자들은 이런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77%의 남자들은 주위에 바람을 피운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0%의 남자들은 바람피우는 대상을 직장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같은 직장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직장내 동료 여인들 또

는 후배 여인들로 부터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자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는 여인한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된 선택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7-14절). 그 징계란 우리가 7-14절에서 묵상한 "존영 상실"(9절), "시간 상실"(9절), "재물 상실"(10절), "건강 상실"(11절), "양심상 고통을 당함"(12-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의 결과를 알고 음녀를 연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높은 동기를 21-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한 3가지입니다(Walvoord).

(1)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5장 21절을 보십시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For a man's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and he examines all his paths).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악인의 모든 행위를 감찰(평탄케 하신다는 말의 개역)하신다는 말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히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 음이 우리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고 다른 여인의 사랑을 연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2) 죄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미에 걸리듯 걸려들게 하며(1:17-18)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줄에 매이게 하기에 우리는 음녀를 연모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비록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만들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3) 우리의 도덕적 생활이 규율이 안 잡혀 자기 멋대로 행할 때에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음녀를 연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언 5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결코 미련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음녀에게 빼앗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아내 또는 배우자를 복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신의 배우자를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아내를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 신부된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 맘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장 1-5절]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보증을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여기 미국에선 차를 살 때에 은행에서 융자를 하면서 co-sign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와 동일한 성실변제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채무자(debtor)가 변제(pay off what one owes)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연대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 혹시 그 co-sign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co-sign을 하므로 대신 은행에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차 값을 대신 물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한 히스패닉 형제가 차를 사는데 co-sign을 해달라고 직접 부탁을 받아 좀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 제가 보기에도 참 착하고 신실하게 보이던 형제였는데 그 난감한 상황에서 제가 co-sign을 하는 것을 못하겠다고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그 형제가 그 당시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부인도 참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등등 제가 거절할 이유가 거의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교인들 중 누구는 보증 서주고 누구는 안서주고 그럴 수 없다는 제 생각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co-sign를 하지 않았는데 그 형제는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줬는지 얼마 안 있다가 차를 새 차를 구입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가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서 저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듣기론 그 부부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요 보증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성경에서는 보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5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웃을 위하여 담보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요점은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담보 또는 보증하였다가(1절) 우리가 그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2-3절), 즉 우리가 그 이웃

의 채무 이행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하라(deliver yourself)고 말하고 있습니다(5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이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 불이행(defaults)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것, 즉 보증을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MacArthur). 박윤선 박사님은 물론 여기선 보증을 서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우리의 이웃이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그 이웃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어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 왕이 경고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은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만일 보증을 선 것이 사고가 생길 때에 실제로 책임질 것을 각오하지 못한 보증인이나 혹은 남에게 속아서 보증인이 된 사람 또는 책임을 이행할 경제적 실력이 없는 보증인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물론 우리가 그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설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선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기보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참고: 신 15:1-15; 19:17) 또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참고: 레 25:35-38; 28:8)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MacArthur).

이번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이 디폴트(default), 즉 채무 불이행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에 극적인 타결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만일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황까지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가 나서서 그 많은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돈 많은 중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적으로 채무 불이행 때에도 담보나 보증을 서려고 하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 사람을 누가 나서서 그 빚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도 그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나서서 보증을 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사랑한답시고 다른 형제가 진 빚을 갚은 책임을 약속하는 보증을 섰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오늘 본문 잠언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보증을 선 우리가 “노루가 사냥꾼에 손에” 사로 집힌 것처럼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힌 것처럼 대금업자(money lender)의 손에 잡혀서 그 대금업자의 컨트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다가 갚을 수도 없으면서 다 사용한 후 그 사채업자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

까? 왜 뻔히 그 결과를 알면서도 사람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씁니까? 아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26절 하반절에서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Do not be a man who puts up security for debts)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자"가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17:1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판단력이 부족한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결코 우리는 남의 빚에 함부로 보증을 서서 노루가 사냥꾼에 손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히게 된 것처럼 대금업자의 손에 잡혀서 그 대금업자의 컨트롤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가 그 이웃의 채무 이행 책임을 우리가 떠맡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 핵심 교훈은 한 마디로, 성경은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6:3) "… 스스로 구원하되", (5절) "…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6장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성경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그 이웃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Walvoord란 학자의 의하면 그 말의 뜻은 우리 자신을 부서트리고 밟아서 뭉개 되데 우리 자신의 위신이나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로 엎드려 그 이웃에게 애원하라는 말입니다(Walvoord).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다보면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으로 싹싹 빌면서 빚 갚는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로 굴욕감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대금업자에게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빌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의 교훈은 만일 우리가 책임 의식 없이(확실한 책임감 없이) 남의 보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채권자나 또는 보증 혜택을 입은 자에게 애걸하여서라도 그 보증을 취소시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박윤선). 성경은 그 보증을 취소시키도록 하되 취소되기 전까지 우리는 여유 있게 시간을 부리면서 쉬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에 절박감(긴급감)을 가지고 보증을 취소하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처럼, 또한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걸린 것처럼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쳐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여유 있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사냥꾼에 그리고 새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 걸렸다면 어떻게 서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지 않겠

습니까? 그와 같이, 만일 우리가 책임 의식 없이 남의 보증인이 되었다가 갑가기 채무이행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절박감(긴급함)을 가지고 보증을 취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대금업자에게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보증을 취소해 달라고 애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노예가 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여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미국이 디폴트(default), 즉 채무 불이행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므로 들어난 사실은 지난 1월말을 기준으로 미국의 빚은 14조 6백억 달러였는데 이 국가부채는 3조 달러인 2010년 미국 예산의 5배이고 2011년 한국 예산(약 2600억 달러)의 54배에 달하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 연방정부의 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하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5초마다 10만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람에 누어있는 신생아까지 포함한 미국 인구를 3억 9백만 명이 한 사람당 진 빚이 45,390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인터넷).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미국을 가리켜 “파산 직전의 ‘빚의 제국’”이라고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미국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경제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os Angeles 도시도 경제난을 맞이했고 많은 회사들이 경제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괜찮을 때 “믿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했다가 지금 경제난을 맞이하여 파산위기에 놓인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도 “믿음”(?)이라는 말 아래 경제 모험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빚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롬 13:8)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정 관리를 신실하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명분아래 이웃에게 보증을 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채무 불이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대금업자에게 빚을 져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6:3, 5). 만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 잘못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대금업자에게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애걸까지 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애걸하되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깨달아 알아 우리는 여유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성과 절박감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하여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대금업자가 우리의 보증을 취소해 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대금업자가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스스로 구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구원자 주님만이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자 주님

께 애걸하듯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약 1:5).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불이행(defaults)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보증을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개미보다 못한 사람

[잠언 6장 6-11절]

여러분은"게으름"(lazines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으름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는 것(마 25:18)은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26절)이라는 책망을 받는 죄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게으름 극복을 위한 십계명"이란 글이 있어서 읽어 내려가다가 그 십계명 보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크게 4가지가 중요합니다"란 글에 좀 공감이 되어 여러분과 나눕니다(인터넷):

(1) "첫 번째는 '바닥 체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바닥이 있습니다. 대개 변화의 시작이란 현실의 삶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일어납니다. 이는 심각한 불행을 겪고 나서야 찾아 올 때가 많지만,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를 미리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거나,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바닥 역시 움직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는 '긴 안목과 큰 그림'입니다.

그것은 한 해와 내일의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 때 큰 그림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강점이라는 붓으로 가슴이라는 캔버스에 그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름과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같은 습관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수직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상위의 관점

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3) 세 번째는 '작은 실천'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비전이나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디딤돌을 잘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목표를 쪼개고 또 쪼개서 작은 실천을 작은 승리로 만들고 이를 단단하게 쌓아가야 합니다.

(4) 네 번째는 '지속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점검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 습니다. 괘종시계의 풀어진 태엽을 매일 감듯이 느슨해진 마음의 태엽을 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긍정적 습관을 바탕으로 자기점검의 시간을 확보하여 의례화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이 개미보다 못한 것입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게?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개미 보다 못한 사람"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개미 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바로 "게으른 자"(sluggard)입니다(6절). 그러면 게으른 자는 누구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사전).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게으른 자"란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규율(훈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를 말합니다[a person who is habitually lazy and inactive, suggesting he has no discipline or initiative, as a moral failure(Swanson)]. 그러나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란 그저 이런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5장 19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게으른 자"를 "정직한 자"(upright)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5-26절을 보면 성경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를 "의인"(the righteous)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게으른 자"를 "해태한 사람(an idle man), '나태하여 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Walvoord). 이것을 볼 때 게으른 사람이란 그저 습관적으로 게으르므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란 의미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란 의미도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48장 10절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Cursed be the one who does the LORD'S work negligently)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오늘 본문 성경 잠언 6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 미련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과연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박윤선):

첫째로,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협력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7절을 보십시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Which, having no chief, Officer or ruler). 여러분도 "개미"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개미"하면 세로로 나란히 걸어가는 개미 떼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특히 저는 "개미"하면 음식 같은 것을 물고 떼를 지어 걸어가는 개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가끔 고개를 숙여서 떼를 지어 가는 개미들을 보는데 어쩔 때 보면 개미들 중 몇 마리는 어떠한 물체(음식)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인터넷 글을 읽어 보니까 개미에 대한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 몇 가지 나눕니다(인터넷):

(1) 개미들은 서로 사려(thoughtful)가 깊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개미"하면 여왕개미하고 일개미로 생각하지만 "척후 개미"(patrolling ant)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미는 척후 개미를 보내어 먹이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찾아 낸 후 척후 개미는 미숙한 동료를 데리고 천천히 세로로 나란히 가며(병렬주행) 새로 발견한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개미는 인도자 선생 덕분에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가는 개미가 꾸물거리면 안내자도 속도를 늦추며 뒤쪽 개미가 다시 따라붙으면 다시 빨리 이동할 만큼 인도자 개미와 따라가는 개미 모두 매우 사려 깊다고 합니다.

(2) 개미들은 서로 상부상조(help each other) 한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그들의 “의사소통”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페로몬(같은 종의 동물끼리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화학적 신호를 말함)으로 서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개미의 화학 신호는 다른 벌목 곤충보다 훨씬 발달하였는데 다른 곤충과 마찬가지로 개미는 길고 가늘며 움직일 수 있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더듬이 한 짝에서 냄새의 강도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미 대부분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지표에 페로몬으로 길을 남겨 다른 개미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무리지어 정찰하는 종중에서는 먹이를 찾는 척후 개미는 먹잇감에서 개미집 방향으로 흔적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다른 개미들이 이 흔적을 따라가며, 이들이 먹이를 들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냄새 길을 더욱 보강한다고 합니다. 그 곳 먹이가 다 없어지면 돌아오는 개미가 표시를 하여, 냄새는 천천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개미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령 먹잇감과 이어진 냄새길이 장애물로 막히면 척후 개미는 길을 벗어나 새로운 통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한 개미가 새 길을 찾으면, 개미는 돌아오면서 지름길을 냄새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개미들이 몰리게 되어, 지름길의 냄새는 강해지고 점차 최선의 통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3) 개미들은 크기에 따라 전문 직종을 나눈다고 합니다.

개미들의 “식량 재배”를 보면 대부분의 개미는 잡식 포식자이자 죽은 생물을 처리하는데 그러나 그 밖에 특별한 영양 공급 방법을 발전시킨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개미를 “가위개미”라고 하는데 그 개미들은 자기네 개미집 안에서만 버섯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 잎을 모아 자신의 군체로 가져와서 작은 고작으로 자르고 버섯 농장에 놓는데 일개미들은 크기에 따라 전문 직종을 나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개미는 줄기를 자르고, 더 작은 일개미는 잎을 씹으며, 가장 작은 개미는 버섯을 돌본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개미”하면 “부지런함”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미들이 서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사실이 …. 그러나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감독하는 자가 있어도 그 감독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도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2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넣기를 괴로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게으른 자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서 로 상부상조하면서 협력하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감독하는 개미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서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협력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에 가서 자세히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로, 개미는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8절을 보십시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베짱이”이를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동안 베짱이는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개미들을 조롱합니다: “어이, 개미들,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베짱이는 매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며 살다가 겨울에 되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밥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이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개미처럼 되어야지 베짱이처럼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베짱이처럼 게으르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 이솝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저 개미처럼 근면성실해야 한다는 교훈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어릴 때야 누가 미래를 걱정하면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잠언 6장 8절에서 성경은 개미보다 못한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도 성경은 개미를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즉 자기들의 음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개미들이다(they prepare their food in the summer)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여름”에 겨울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여름이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개미들은 겨울철 먹을 것을 모아 들인다고 합니다(박윤선). 이렇게 개미들은 추수 때에 자기들이 겨울철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하는데 게으른 자들은 오늘 본문 잠언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좀 더 자고 좀 더 졸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

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오되 마치 피해자가 강도를 만나 압도당하는 것처럼(24:34) 가난이 온다는 뜻입니다(MacArthur).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6장 9절에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면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21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들은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들은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13절을 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젊은 과부는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폄론을 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므로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26:16)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3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게으름의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개미처럼 추수할 시기에 미래(장래)를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협력하여 부지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실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상부상조하며 협력하여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주님 앞에 설 때에 결코 아무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는 책망을 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마 25:26). 오히려 우리는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23절).

“불량하고 악한 자”

[잠언 6장 12-15절]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대답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비슷한 점들이 많고 서로 통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등 이러한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와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도 괴팍하고 까다로우며 나를 너무나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아예 관계도 맺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사람, 악의를 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다투려하고 상처 입히려는 등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 이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 6장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경제적으로(financially) 우리를 파괴하는 지혜롭지 못하게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한 자(1-5절)와 도덕적으로(morally) 우리를 파멸하는 게으른 자(6-11절)에 대해서 말하다가 오늘 본문 잠언 6장 12-15절에 와서는 윤리적으로(ethically) 이웃 관계를 파괴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불량하고 악한 자**”란 제목아래 과연 불량하고 악한 자가 누구인지 본문 잠언 6장 12-15절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불량한 자”란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란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네이버 사전).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 의미를 보니까 “불량한 자”란 “쓸모없는 자” 또는 “무가치한 자(worthlessness)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Brown). 그리고 “악한 자”란 “사악한 자”(wicked man)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man of trouble), “괴롭히는 사람, 걱정시키는 사람”(troubler)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Brown). 여러분은 “불량한 자” 하면 구약 성경 인물 중 누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여러

분은 다윗 시대 때 아비가일의 전 남편인 “나발”이란 인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25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 나발 외에도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나발이나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벨리알의 사람”(a man of Belial)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여기서 “벨리알”이란 “부도덕이나 가치 없음과 같은 악에 성격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말”로서 히브리어로 ‘가치 없는 자’, ‘건달’, ‘야비한 자’, ‘사악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보통명사였지만 이윽고 악마 그 자체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과 같은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인터넷).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를 오늘 본문 잠언 6장 12-15절에서 솔로몬 왕은 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궤휼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2절을 보십시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궤휼한 입을 벌리며.” 여기서 “궤휼한 입”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삐뚤어진(또는 구부러진) 입(twisted mouth) 으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짓이요 속이는 말들(false and deceptive words) 뿐입니다(Walvoord). 즉,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궤휼한 입으로 거짓말과 속이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 발달된 것은 바로 ‘눈짓, 발짓, 손가락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음모를 꾸밀 때에 피해자에게 자가의 숨겨진 의도가 간파(detect) 될까봐 두려워서 피해자가 못 알아차리게 눈짓과 손짓과 발짓을 다 써가면서 자기의 공모자에게 신호를 줘서 그 음모를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John MarArthur 목사님에 의하면 이것(이러한 관행)은 동양(the East)에 흔했다고 합니다(MacArthur). 그래서 솔로몬은 눈짓에 대해서 잠언 10장 10절 상반절과 16장 3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10:10),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16:30).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정직하고 진실 된 대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상대

방의 몸짓 언어(body language)도 유심히 바라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심각한 대화를 할 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곤 대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몸짓 자세도 유심히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의 손도 바라보곤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은 입으로도 말을 하지만 몸짓으로도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비언어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로 많은 메시기를 상대방에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그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각한 얘기를 마음 문을 열고 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주의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좀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좀 글썽거렸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을 보았습니다. 그 때 침을 삼기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떨고 있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느낌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진실 되게 마음 문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임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를 들어 저에게 말을 할 때 좀 목소리가 크고 밝으며 환영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의 내용이나 몸짓 언어를 보면 너무 자기 마음을 포장하여 과장하여 말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대화하다보면 왠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의 진실함을 느낄 수 없어 상대방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예를 드는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진실성과 더불어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한 언행이 일치가 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를 줄만한 대화와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발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처럼 궤휼한 입으로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불량하고 악한 자의 입이 궤휼하여 거짓과 속이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패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입이 삐뚤어져서

(perverted) 진리를 삐뚤게(왜곡) 하여 거짓과 속임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perverted)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삐뚤어진 마음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의 입으로 거짓과 속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거짓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은 거짓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그가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으로 말하자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이 거짓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량하고 악한 자는 스스로 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왜곡된 진리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 무서운 사탄의 역사 중 하나는 바로 그는 우리에게 '섞인 진리'를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짓을 더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섞인 진리를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교묘한 역사입니까?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하나님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과 그의 종들인 이단자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되 그 말씀에 더하므로 진리를 왜곡하여 유혹했던 것처럼(마 4) 지금도 사단과 그의 종들인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되 그 말씀에 거짓을 추가하여 '섞인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4절 말씀처럼 사단과 그의 종인 이단자들은 삐뚤어진 (패역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리가 없고 오히려 왜곡된 진리인 거짓과 속임이 가득 차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쓰러트려 하나님께 죄를 범케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진리를 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귀하게 간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우리 심비에 깊이 적어 내려갈 때에 우리는 사단과 이단자들의 진리가 왜곡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항상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2:10).

마지막 셋째로,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Who spreads strife). 여러분, 패역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고 패역한 입으로 거짓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속인다면 불화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다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툼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10:12), 분을 쉽게 냄(15:18), 패려함(16:28), 미련한 자의 입술(18:6; 20:3), 거만함(22:10), 욕심(28:25) 그리고 노함(29:22, 30:3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요소들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솔로몬 왕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로몬 왕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던 분을 쉽게 내는 것이던 욕심 등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툼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다툼의 원인들 중에 제일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는 말을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말을 언제나 바르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툴 때 보면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구부러지게(삐뚤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데 왜 말을 삐뚤게 하는가 생각해 볼 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삐뚤어진 마음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불화와 다툼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므로 말미암아 분쟁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패려함과 미련함, 거만함과 욕심 등을 집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투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있습니다(약 4:1). 그 결과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눅 22:24). 이러한 사탄의 다투게 하는 역사가 왜 위험한가 하면 그 이유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약 3:16).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보시

기에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두고 바른 교훈을 따르면서 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하지 않고 삐뚤게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삐딱한 마음으로 말을 삐딱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삐딱하고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바른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미워하며 여러분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량하고 악한 자는 무가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궤휼한 입과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악을 꾀하므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불량하고 악한 자, 무가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한 입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

[잠언 6장 12-14절]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삐뚤어진 입으로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잠언 6:12).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14절).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14절) 인간관계를 삐뚤어 놓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은
바른 입으로 바른 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은
바른 마음으로 항상 선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은
화목케 하여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칠 악

[잠언 6장 16-19절]

여러분, 혹시 “칠 악”(Seven Deadly Sins)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칠악”하면 1995년작 “세븐”(Se7en)이 생각납니다. 그 때 그 영화에는 유명한 배우인 브래드 피트, 모건 프리만 그리고 케빈 스페이시가 출연하였는데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일곱 가지 원죄를 모티브로한 연쇄살인 사건을 보여주었는데 영화의 주제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일곱 가지 원죄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인터넷). 여기서 말하는 그 일곱 가지 죄악이란 색욕(lust), 탐식(gluttony), 탐욕(greed), 게으름(sloth), 분노(wrath), 질투(envy), 그리고 교만(pride)입니다. 이 일곱 가지 죄악은 카톨릭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분류한 것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인터넷): (1) 교만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 (2) 탐욕은 물질에 대한 애착과 요구, (3) 색욕 육체적 쾌락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 (4) 탐식은 음식에 대한 무질서한 섭취로 생각하는 일을 둔하게 만들고, 이성의 통제를 약화 시키며 인간의 품위를 하락시킴, (5) 질투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비난, (6) 분노는 타인을 증오함으로 타인은 물론 자신까지도 해칠 수 있는 죄종, (7) 게으름은 받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거절하는 태도. 카톨릭에서는 이 칠 악을 오늘 본문인 잠언 6장 16-19절을 근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에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칠 악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여기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숫자가 혼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는 죄악이 여섯 가지인지 아니면 일곱

가지인지 좀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 왕은 숫자를 "육 칠"이라는 두 숫자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2가지로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해석은 이 "육 칠"이란 숫자를 저자가 사용한 목적은 우리에게 완전히 죄악의 목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죄악이 그 전에 적혀 있는 여섯 가지 죄악의 산물(product) 또는 절정(culmination)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Walvoord). 만일 우리가 이 해석을 따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곱 번째 죄악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19절)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17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18절)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19절)의 산물 또는 절정이라는 말입니다. (2) 두 번째 해석은 이 여섯이나 일곱이라는 순서의 숫자는 전체(totality)를 묘사함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과 집중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된 숫자들이라는 것입니다(참고: 30:15, 18; 욥 5:19, 암1:3)(MacArthur). 그 한 예로 욥기 5장 19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2가지 해석들 중 제 생각엔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 해석을 우리가 따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죄악 중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그 이전에 나오는 여섯 가지 죄악들의 절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같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엔 솔로몬 왕이 나열하고 있는 일곱 가지 죄악의 절정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기보다 네 번째 죄악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히브리어 문법에 chiasm(교차대구법)을 적용할 때]. 오히려 두 번째 해석이 저에겐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욥기 5장 19절 때문입니다. 여섯이나 일곱이란 숫자를 함께 사용된 것은 그 숫자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 전체를 묘사함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과 집중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된 숫자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잠언 6장 16-19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는 칠 악(일곱 가지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악은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곧 교만한 눈과 …." 우리가 "눈"을 생각할 때 이미 6장 13절에서 묵상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눈짓"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해하려고 다른 악한 사람하고 공모를 할 때 불량하고 악한 자는 상대방이 알아차릴까봐 눈짓을 하는 것을 보면 교만한 눈을 가진 자 또한 다른 사람을 해하되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형제 사이를 이간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저는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눈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형제 사이를 충분히 이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성경 잠언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6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눈이란 바로 잠언 3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이 심히 높은 것'(lofty eyes)을 말합니다. 이렇게 눈이 심히 높은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낮추신다고 성경 시편 18편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눈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겸손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자입니다(빌2: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사(잠 3:34)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십니다(엡 4:2). 즉, 교만한 눈을 가진 자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만 겸손한 눈을 가진 자는 형제 사이를 화목케 합니다.

둘째 죄악은 바로 "거짓된 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거짓된 혀와 …." 우리가 이미 묵상한 12절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궤휼한 일을 벌"린다(a corrupt mouth)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자기의 구부러진 입으로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에 있어서 구부러진 입으로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하는 자는 잠언 2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재물을 많이 모아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성경 잠언 21장 6절은 분명히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는 인간관계에서도 "미움"이 개입돼 있습니다. 잠언 26장 28절을 보십시오: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의 거짓된 혀로 상처 입힌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기에 거짓말 하는 자가 거짓말을 해서라고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상대방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내 뱉는 망령된 증인, 그 거짓된 증인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은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입술은 하

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12:22). 그리고 거짓된 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언 12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성경은 거짓된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한 입술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욥 33:3).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잠 12:22)

셋째 죄악은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분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구약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무죄한 자인 나봇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는 죄악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등 이 모든 것이 다 이세벨 왕후에게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녀는 남편 사마리아 왕 아합은 자기의 궁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밭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그 밭을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에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고 말하므로 근심하고 답답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세벨은 아합을 위하여(왕상 21:1-4) 교만한 눈으로 나봇을 보고 거짓된 혀로 편지를 써서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분부하여(11절) 결국에는 나봇을 죽여(12-13절) 그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었습니다(16절). 결국 악한 왕후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할 만한 이웃인 무죄한 나봇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생각할 때에 저는 전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게 한 유대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그들의 거짓된 혀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생각났습니다(요19:6). 그리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찬송가 144장 2절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무지한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이심을 모르고 무죄한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오늘 본문 잠언 6장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불량하

고 악한 자의 손과 발을 생각할 때 무죄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손을 주님께 받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비록 사단과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피곤케 하여 주님의 일을 중지하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느 6:9) 우리의 손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죄악은 바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6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패역을 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뚤어진 말을 하면서(12절)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14절). 그 원인은 항상 악을 꾀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그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을 삐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이 삐뚤어진 원인은 항상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은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악한 계교만을 꾀합니다. 그 악한 계교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삐뚤어 놓는 계획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여 진리를 거짓과 섞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삐뚤어 놓습니다. 그 말은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막 7:21)을 자극하여 끄집어내어 그 악한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를 주관케 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성경 마가복음 7장 21-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러분, 사단의 악한 계교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을 보아도 사단은 거짓된 혀를 사용하여 아담과 하와의 눈을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가인은 무죄한 자인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창 4장)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

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 진실 된 마음, 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죄악은 바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6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눈짓을 할 뿐만 아니라 “발로 뜻을 보”인다(signals with his feet)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량하고 악한 자가 자기의 발로 뜻을 보여 악을 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발은 악을 행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데 쓰이는 발을 생각할 때 잠언 1장 15절이 생각납니다. 그 구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10절)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우리 발을 금하여 악인들의 길을 밟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악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입니다(16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악인은 무죄한 자인 의인의 피를 흘리는 손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6:17)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18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악인의 손과 발은 악을 행하는데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가 348장 2절이 우리의 헌신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특히 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민첩해야 합니다. 비록 악인들의 발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지만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데 빨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죄악은 바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는 두 번째 죄악은 “거짓된 혀”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는 여섯 번째 죄악은 그 거짓된 혀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이미 묵상한 말씀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궤휼한 입을 벌”린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쓸모없고 문제만을 일으키는 사람은 삐뚤어진 입

으로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내뱉는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 19절에 와서 솔로몬 왕은 거짓된 혀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그의 거짓된 혀로 "까닭 없이" 자기의 이웃을 쳐서 증인하며(24:28) 또한 그 이웃을 거짓으로 모함하기 때문입니다(신 19:18).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망령된 증인의 마음에 "미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그 미워함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자를 가리켜 잠언 10장 18절은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짓 증인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망령된 증인은 충분히 형제 사이를 이간할 수가 있습니다(6:19).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망한 풍설(false reports)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a malicious witness)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출 23:1). 만일 거짓된 혀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면 성경 잠언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기 때문입니다(14:2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행 1:8).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합니다. 증거 하되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죄악은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14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고 문제를 일이키는 자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이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이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간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는 첫 번째 죄악인 "교만한 눈"(17절)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잠언 13장 10절을 보십시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다(시 101:5).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중 가운데서 형제 사이를 서로 멀어지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중 가운데서 형제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합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이지 결코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신실하게 잘 지켜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는 일곱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일곱 가지 죄악들이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칠 악들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떠한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한 눈, 진실 된 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드려진 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마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진실을 말하는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칠 선들(일곱 가지 선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 6장 20-35절]

여러분 "칠거지악"이란 말 아십니까? 지난 주 수요기도회 후 잠언 6장 16-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칠 악"이란 묵상 내용을 제 개인 Facebook에 다가 올려놓았더니 어느 목사님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조선시대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생각"난다고 적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여 인터넷을 탐색해 보았더니 칠거지악이란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잘못이라고 말하더군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이 없음(無子), 음탕함(不貞), 질투함(嫉妬), 나쁜 병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口說), 도둑질을 함(竊盜)(인터넷). 저는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즉 이혼할 수 있는 이 일곱 가지 잘못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세 번째인 "음탕함"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혼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 이혼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최고로 "색욕"죄가 많은 나라에 뽑혔다고 하여 그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7대중 죄별로 본 BBC 세계국가별 성악(性惡)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죄가 많은 나라는 바로 호주(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7대 중죄"란 전통적인 대죄 7가지로 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그리고 색욕입니다. 호주는 색욕, 탐욕 그리고 자만 등 세 가지 대죄 부문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세계에서 가장 죄가 많은 나라로 뽑혔다고 합니다. 미국은 식탐부문 죄 많은 나라 1위로 선정됐고, 아이슬란드는 자만과 나태 죄 부문에서 죄 많은 나라 1위, 멕시코는 탐욕 부문에서 1위, 그런데 한국은 색욕 대죄 부문의 세계최고 나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25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지금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녀의 음란한

눈짓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권면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음녀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모"(outward adornment)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음녀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녀의 외모는 아름답기에 남자들이 그녀에게서 매력(attraction)을 느낍니다. 그녀는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기에 안목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는 남자들의 시선을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언젠가 인터넷 뉴스 판을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서쪽 국가 카메룬에서는 어머님들이 자기 딸들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불에 달군 쇠방망이나 돌로 딸의 가슴을 지져서 성징을 없애는데 카메룬 소녀 4명 중 1명이 '가슴 인두질'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 가슴 인두질을 당하는 소녀들은 평생 고통 속에 거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머님들이 하는지 생각해 볼 때 남자들의 본능이 여자들의 가슴을 보면 시선이 집중되고 성적 상상과 함께 자극이 생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인터넷).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성형수술의 종류에서 많이 하는 빈도를 보면 "지방흡입술" 다음에 "가슴 확대 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검수술이나 코 성형 술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솔로몬 왕은 잠언 5장 20절에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며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합니다(18-19절). 그런데 음녀는 자신의 외모로도 우리를 유혹하되 특히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유부남들을 미혹하여 음녀의 가슴을 안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는 자기의 외모는 남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 자기의 외모 외에 그녀의 혀는 기름처럼 매끄러워서(5:3) 아첨하여 남자들을 호리되(2:16, 6:24) 매우 유혹적입니다. 그녀의 혀는 남자들의 마음을 끌되 성적으로 유혹함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입니다. 특히 그녀의 혀는 지혜 없는 남자(7:7)나 자기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여기지 않고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않는(5:19) 유부남들을 미혹함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입니다. 이러한 음녀의 외모와 혀 외에도 음녀의 눈꺼풀(6:25)도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음녀의 눈꺼풀이 남자들의 마음을 유혹합니까? 바로 음녀의 눈은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므로(flirting eyes) 그들을 유혹합니다(Walvoord). 많은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는 음녀의 요염한

눈짓에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잠깐 동안이며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참고: 시 37:20).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인의 아름다움은 “숨은 사람” 즉, 내적 사람이지 결코 겉 사람이 아닙니다. 겉 사람의 아름다움은 잠깐 동안이요 썩어질 것이지만 내적 사람의 아름다움은 썩지 아니합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에게 이 썩지 아니할 내적 아름다움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4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요 썩지 아니할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딸들은 그저 용모가 사람들 보기에 좋아서[예: 왕후 와스디(에 1:1)]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므로 결국에는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많은 사람들 더불어 행음(음란)하는(겔 16:15)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러한 자기의 외모의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자의 아름다움은 헛되다는 사실(잠 31:30)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솔로몬 왕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6장 26절을 보십시오: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악하고(24절) 음탕한(26절)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그녀의 눈꺼풀에 흘려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파산하게 되며,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창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여 그녀와 사귀므로 재물을 없이하고 있습니까? 잠언 29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얼마 전 차가 망가져서 차를 견인할 때 그 견인차 운전사하고 대화한 기억이 납니다. 이혼 한 후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은 주로 자기에게

이것저것 자꾸만 사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운전사가 말하는 요즘은 그런 여자들은 돈보고 자기를 사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운전사는 이혼을 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피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이런 여자, 저런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30-3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유부녀와 통간하는 죄악이 도적질한 죄보다 더 크다고 말하면서(박윤선) 도적질하다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라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통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함에 있어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만큼 성적 불성실함은 값을 치름에 있어서 파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임) 참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남녀들이(싱글이나 유부남/유부녀나) 오늘 본문 27-28절 말씀처럼 "불을 품에 품고"있으며 또한 "숯불을 밟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처럼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당연이 그 옷이 탈 수 밖에 없으며 숯불을 밟으면 당연히 그 발이 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많은 남녀의 성관계가 결혼 밖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많은 남녀들이 간통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29절과 32-33절에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부녀와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성경은 우리가 간통의 죄를 범할 때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통했을 때 그 여자의 남편이 질투하고 분노하여 자기 아내를 간통한 남자를 원수같이 여겨 용서하지 않고(34절) 아무 보상금도 받기를 거부하고(그 보상금이 아무리 클지라도)(35절) 그 남자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6장 20-24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기 위해선 한 마디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참고: 3:1-3; 7:1-3).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2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a lamp)이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며, 빛(a light)이기에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우리에게 "훈계의 책망"(the corrections of discipline)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항상 새겨서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사람들 보기에 매력을 느낄만한 "고운 모양"도 없었다(no beaut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력을 느낄만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벧전 3:3-4)고 말하였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4절)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아름다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시편 27편 4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편 기자처럼 제가 한 가지 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저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사야 35장 1-2절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

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삶입니다. 곧,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들어내며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습니다.

[잠언 7장 1-27절]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그 뜻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궁지에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가끔 스스로 무덤을 파는 말을 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 안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도 저는 제 자신 스스로를 궁지에 빠뜨리는 말을 할 때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고사 성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은 말인데 그 뜻은 ‘자신이 꼰 새끼로 자신을 묶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자승자박”이란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7장 7절을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한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그 지혜 없는 자란 어리석은 자들 중 한 소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간직하지 않고(1절)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1, 2절) 말로 호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입니다(5절). 저는 오늘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과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지 그 과정을 한 3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라도 깨달아 알아 그 유혹과 싸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사단은 한 지혜 없는 자로 하여금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

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잠언 4장 14-15절에서 우리에게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므로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새겨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며 악인의 길로 다닙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에 나오는 한 지혜 없는 자가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갈 때(8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오히려 돌이켜 떠났어야 했습니다(4:15). 그러나 그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의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걸어가되 그 음녀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해가 저물고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의 집으로 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7:9). 왜 대낮이 아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소년은 음녀의 집으로 향했을까요? 그는 아무도 자기를 보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리석은 소년은 남에게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은밀히 깊은 밤에 창녀에게로 간 것입니다(박윤선). 왜 그는 깊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집을 나와 창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near)하여 그녀의 집 방향으로 간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그 지혜 없는 소년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 2절을 보십시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기서 "눈동자"란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눈의 중 가운데'(the center of eyes)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깊은 밤"이란 단어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the center of night", 즉 '밤의 중 가운데'란 뜻입니다(Walvoord).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한 지혜 없는 소년이 깊은 밤의 중 가운데 은밀하게 창녀의 집으로 간 원인은 그가 그의 눈의 중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어쩌면 그는 그의 눈으로 자기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그 음녀를 은밀히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6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음녀의 집 쪽으로 향하여 걸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 전 80년대에 그 유명한 Hollywood 길 바로 한 block 밑에 있는 Sunset 길에는 많은 창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골목 모퉁이에도 창녀들이 서 있어서 운전하고 지나가는 남자들에게도 눈짓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사춘기 때 친구들하고 그 Sunset 길을 차로 지나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왜 그 길을 친구들과 함께 차로 지나갔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때 저희가 야밤에 그

길을 차로 지나간 이유는 창녀들을 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때 참으로 제가 어리석은 소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Sunset 길을 아예 차로 지나가지도 말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길 근처에도 그 늦은 밤에 가서는 아니 되었었는데 미련하게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Sunset 길에 아직도 창녀들이 늦은 밤에 거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음녀의 유혹이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젠가 TV channel 4를 보니까 경찰 수사관들이 함정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18살 미만 minor 여자로 하여금 인터넷에서 남자들하고 채팅하다가 그녀의 집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 남자들을 경찰이 잡을 때 그 현장을 TV에서 방송해 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함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결국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 판에 새기로(3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야 합니다(2절).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동자는 귀하면서도 아주 연하여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먼지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눈썹과 눈까풀이 지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도 잠시 동안만 부주의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그만 거기서 이탈되기 쉽다”(박윤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귀하에 여겨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음녀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음녀는 숨겨진 의도로 한 지혜 없는 자를 나와서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성경은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깊은 방 흑암 중에(9절)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녀의 집으로 갔을 때(8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 음녀는 마치 몸 파는 창녀처럼 옷을 입고 그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를 가리켜 오늘 본문 10절 한국 성경에서는 “간교한 계집”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그 소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간교한 창녀는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는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바로 ‘숨기다’(hidden)입니다(MacArthur). 과연 그녀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잠언 23장 27-28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

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인간에 궤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가 한 지혜 없는 자를 창녀의 옷같이 입고 맞이하는 숨겨진 의도는 "함정"을 놓아 그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faithless) 만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음녀의 숨겨진 참된 의도는 많은 결혼한 남자들로 하여금 결혼할 때에 언약하였던 것을 파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박윤선). 문제는 지혜 없는 우리 남자들이 이러한 간교한 여자의 숨은 의도를 모르고 너무나 어리석게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 잠어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숨기다'(hide) 또는 '소중히 간직하다'(treasured up)이란 의미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간교한 계집은 그녀의 참된 의도를 숨기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숨기라 또는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흥미롭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간교한 여자가 자신의 참된 의도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둬야(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셋째로, 음녀는 입술의 호리는 말로 한 지혜 없는 자를 꾑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 구글(google)에 들어가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찍으니까 영화 "옵세스드(Obsessed)"를 보고 어떤 사람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 한 4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 옵세스드라는 영화는 유부남을 유혹하는 여자의 집착을 보여준 스릴러 영화입니다(인터넷). 첫째 방법은 '적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노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남자의 성적 본질을 자극하는 것으로서 남자들은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머리에게 금방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눈으로 자주 웃어라'입니다. 여자의 미소는 남자에게 수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고 웃으면 그 남자는 심하게는 '저 여자가 나에게 반했나봐'라는 망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방법은 '눈물을 보여라'입니다.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불러들이는 마법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 방법은 '자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한 남자를 자주 바라보면 그 남자는 반드시 그 여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 21절을 보면 음녀가 그 어리석은 남자를 호리를 말로 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영어로 "seduce"(유혹)입니다. 이 영어 단어 "seduction"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그 문자적 의미

는 “to lead astray” 곧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미혹시키다’ 또는 ‘타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시에는 유혹과 꾐이 관련되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여 행동 선택을 하게 만들되 그 행동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타락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음녀가 한 지혜 없는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음녀는 보이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여기서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그 음녀는 창녀같이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녀들이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유혹적으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여자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치마가 왜 그리 짧은지….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거의 팬티 옷을 입고 다니는 수준의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창녀들이 유혹적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노출이 심하되 남자들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성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옷을 입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우리 남자들을 유혹하기에 참으로 자극적이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옷을 입고 창녀는 여기 저기 거리나 광장 모퉁이에 서서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2) 음녀는 만지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7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노출이 심하게 옷을 입은 음녀가 어리석은 남자에게 돌진하여 두 팔로 그를 꼭 끼어 앉고 입술에 키스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했을 때 그 어리석은 남자는 안 그래도 그 음녀의 창녀같이 입은 옷을 보고 시각적으로도 이미 성적 흥분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 음녀를 자기를 붙잡고 입까지 맞췄다면 그 때에는 성적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교한 음녀는 한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함에 있어서 육체적 접촉까지 사용합니다. 그 음녀가 만지고 키스까지 하므로 그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할진대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얼마나 성적으로 자극을 받겠습니까?

(3) 음녀는 들리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녀는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운 말로”(with persuasive words), “입술의 호리는 말로”(with her smooth talk)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여자도 마차가지라 생각하지만 특히 남자는 오감에 있어서 시각, 촉각과 청각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유혹 받을 때 여자의 몸매 보므로 유혹당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통해서도 유혹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음으로도 충분히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음녀도 보면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할 때 그 남자로 하여금 그녀의 숨겨진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설득을 시키는 말과 호리는 말, 즉 매우 부드러운 말로 그 남자를 걸어가는 길에서 미끄러져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음녀는 어리석은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 그 음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13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4-15절).

이 말은 그 음녀가 창기의 신분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한 것을 갚았기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 리입니까? 분명히 신명기 23장 18절은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 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 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음녀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실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따금 종교 의식을 강행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란한 직업도 도와주신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까?(박윤선)

(2) 그 음녀는 자기의 침상을 그 어리석은 청년에게 말로 묘사하면서(잠 7:16)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18절)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은 주머니를 가지고 집을 떠나 먼 길로 갔으니까 보름에서야 집에 돌

아오기에(19-20절) 안심하고 함께 동침하자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유혹적인 음녀의 말입니까? 이러한 음녀의 매끄럽고 유혹적인 말들은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남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이러한 여성의 꾀는 말에 설득당하고 넘어가서 다른 여자와 동침하며 성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지혜 없는 청년도 결국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마치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이 그 음녀를 따랐습니다(22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지혜 없는 자의 결말은 멸망이란 말입니다(23절). 마치 새가 그물로 들어가면 확실히 그 생명을 잃음과 같이 한 지혜 없는 자의 결말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잃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야 합니다(24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 같이 지켜야 합니다(2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중이 간직해야 합니다(1절). 그리고 우리는 음녀를 가까이 하기보다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5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음녀를 따라갔다가는 멸망한 자가 허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6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 우리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으며 그녀의 길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25절).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잠언 8장 1-11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제 자신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비춰볼 때 저의 어리석음이란 많지만 한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1) 저의 어리석음이란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어리석음은 지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제가 지식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하면 저의 어리석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훈계와 법도를 떠나(8절) 사단의 꾐에 넘어가(10절) 죄악에 휩쓸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2) 저의 어리석음이란 저의 안일함(complacency)에서 오는 신앙의 퇴보입니다.

잠언 1장 3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안일함 또는 안주함이란 현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서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 등 성장함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저 지금 현재 신앙 상태로 만족할 때, 저의 신앙에 퇴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퇴보란 하나님의 지식과 교훈과 책망 받는 것을 싫어하므로 오는 결과로서 그 원인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하나님의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것인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퇴보 속에서 세상(사람들)을 친근히 하여(수 23:12) 세상과 짝지어 사는 것입니다.

(3) 저의 어리석음이란 마음이 조급함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이 마음이 조급한 자는 혈기의 분노를 급속히 발하되(박윤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내적 분노를 급속히 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잠언과 같은 지혜의 책들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들춰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특히 잠언을 통하여 지혜와 훈계를 해 주시며(1:2) 또한 어리석은 저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시는(4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잠언 8장 5절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찌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찌니라 …."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명철 할지니라**"는 제목 아래 과연 나는 또한 우리는 어떻게 명철해 질 수 있는지 한 2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명철해지기 위해선 우리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지혜가 온 우주에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는 탄식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8장 2-3절에서 지혜가 "길 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

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장 20-21절에도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훤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묵상한 잠언 7장 말씀에서 간교한 계집은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12절) 떠들어서(11절)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는데 오늘 본문 잠언 8장 1-4절에서는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성문 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어리석은 유혹의 소리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들으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훤화하는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기에 죄악 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지혜를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옳은(바른) 길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잘못된 길과 죄악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1, 5절). 우리가 명철해 지기 위해선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잠언 8장 6-9절에서 한 4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u>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u>.

오늘 본문 잠언 8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Listen, for I have worthy things to say). 여기서 “가장 선한 것”(noble/princely things, worthy things)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가치 있고, 적절하며 또한 매우 참된 말들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worthy thing, i.e.,words that are valuable and proper and so true)(Swanson).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

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가치관을 성립하게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 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영원하고 유익한 가치가 있고 무엇이 순간적이고 무익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하고 유익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합니다.

(2)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기서 "정직"(right things)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진실성'(integrity) 또는 "정직/청렴/강직"(rectitude)란 것으로서(Koehler) 선(line)으로 말하자면 일직선(straightness)으로서 직석 방향(a linear direction)에서 구부러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Swanson).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어 우리가 구부러진 길과 똑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어 정직한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그리스도인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정도를 걷는 것을 선택하여 그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3)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진리"(truth)란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확고하다/견고하다'(to be firm), '견디다/인내하다'(endure), '신실하다'(be faithful), '진실하다'(be true), '신뢰하다'(trust), '믿는다'(believe)라는 뜻입니다(Vine).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나 기도 및 찬양 할 때 "아멘"할 때 주로 그 의미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7절하). 한 마디로,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바른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여 그 입술로 진실을 말하면 또한 진실 된 삶을 살아갑니다.

(4)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우리에게 "공평"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8절을 보십시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의롭다'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공평하다'(just)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공의롭다(공평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6절 하반절에서 묵상했듯이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직"을 말하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우리에게 "공평"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나 "공평"이나 공통점은 선으로 말하자면 일직선으로서 그 선이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 "입의 말은 다 의로 은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그리스도인은 굽은 길과 패역한 길을 떠나서 오직 공평의 길을 선택하여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소리(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선하고 정직하며(6절) 진실하며(7절) 또한 공의로운(8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지식을 얻을 것이요 또한 총명해 질 것입니다(9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해져서(9절) 가장 선한 것과 정직한 것과 진실 된 것과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장 좋은 길, 정직한 길, 진리의 길, 공평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바른 지식, 바른 가치관, 바른 길,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 된 삶, 가장 선한 삶, 정직한 삶, 그리고 공평한 삶을 살아 드리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명철해 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만일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은과 정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선을 잡아다 주기보다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달리 생각하자면, 생선 자체보다 그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기술(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우리는 훨씬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생선 자체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훈계보다 금은보화, 즉 재물을 더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0-11절 말씀의 핵심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은진주 보화는 생선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생선을 잡는 방법 또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얻어 지혜로워지면 재물을 벌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재물 자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좋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소성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안철수 씨가 한 말인 ‘이젠 하드웨어로는 승산이 없다’가 생각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하드위어 보다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웨어란 컴퓨터나 컴퓨터에 붙어 있는 주변 장치들인 컴퓨터 본체, CPU, 하드 디스크, 마우스, 모니터 등등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게임을 하려고 해도 하드웨어만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주어야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비교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하드웨어, 사람의 지식은 소프트웨어(인터넷). 사람의 육체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의 육체는 마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둘 다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의 육체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재물을 얻고자 애쓰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저는 “재물”하면 신명기 8장 17-18절이 생각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

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재물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8장 10-11절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은이나 정금보다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는 재물보다 그 재물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에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8-21절을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명철해 져서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을 걸어 다니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재물을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얻어 명철해 져야 합니다. 명철함이 재물보다 더 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서 저희 노회 소속돼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쓰신 사설을 읽었는데 그 사설에서 저는 처음으로 "디지터 치매"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지터 치매"란 무엇인가하면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사람들이 기계를 의존하다보니 머리를 잘 안 쓰게 되고 그 결과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스마트 폰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 폰이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특별하게 머리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계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기 머리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치매 증상 같은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관찰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지터 치매"를 생각할 때 "영적 치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 소리를 잘 듣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식을 기억치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구부러진 길을 걸으며 진실 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보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불의의 삶과 불의를 행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명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철한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자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잠언 8장 1절).

그 이유는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6절상).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알려주기에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영원하고 유익한 것이며 또한 무엇이 순간적이고 무익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자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우리에게 “정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6절하).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 주기에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음에 있어서 사단의 소리는 우리에게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똑바른 길, 즉 정도를 걸으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자는 정도를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여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7절).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기에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자기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자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여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우리에게 “공평”을 말하기 때문입니다(8절).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행동’을 알려 주기에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사단의 소리는 우리에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공평한 불의를 행하라고 말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명철한 자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바른 행동, 즉 공의를 행합니다.

지혜의 능력

[잠언 8장 12-21절]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힘들고 괴롭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8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말씀하면서 14절에 가서는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명철이요 능력은 지혜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능력**"이란 제목 아래 과연 지혜의 능력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의 능력의 한계인 우리의 미련함을 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의 능력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장 7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8장 13절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곧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사랑하되 미련한 자

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입을 사랑합니다(13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는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에 자기도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분이 저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을 말하시면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를 말했습니다(19절). 그러시면서 그 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말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24절)고 말하시기에 저 또한 그 분이 말하신 성경구절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 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19절).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능력함 속에서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3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미워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기 때문입니다(12절).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판단의 지식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종교 윤리적 선악을 바로 분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혜는 우리를 슬기롭게 하여 종교 윤리적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지혜의 능력을 여러분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되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은 겸손과 온유와 선한 행실과 정직한 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능력을 소유한 지혜로운 성도는 겸손

하며 온유하여 선을 행하며 또한 진실을 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의 능력을 소유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둘째로, 지혜의 능력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5-16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선 나라의 법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라의 행정기관인 입법, 사법, 행정 중 특히 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하는 사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법부에서 법을 바로 실행함에 있어서 공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가리켜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법치국가를 지향함에 있어서 그 나라 통치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 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법대로 치리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왕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요즘 우리 교회는 말만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예수님의 두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말만하기에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는 것과 행사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17절).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선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교회는 이 세상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공의를 세우므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 안에 공의를 세운다는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왕상 3:9)

선을 행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살전 5:22). 그 말을 오늘 본문 문맥 중심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선한 행실과 정직한 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엡 2:10).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but of peace)이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4:33).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믿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가정과 교회 안에는 결코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정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지혜의 능력은 재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묵상한 잠언 8장 10-11절에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얻을 때 우리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기에 재물 자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8-19절을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솔로몬 왕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7-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 얻기를 힘쓰기보다 재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얻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21절) 곧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지혜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도 않

은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약 1:5). 그리고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잠 8:1).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란 바로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혜의 책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면서 또 하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지혜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 지혜의 능력을 구하게 된 동기는 지혜의 책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더욱더 제 자신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들춰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지혜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께 지혜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저 또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을 저 또한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혜의 능력이 또 필요한 이유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지혜의 능력을 덧입어 공의를 세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역사를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뤄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지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잠언 8장 22-36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눅 10:40). 그러다 보니 "나 혼자 일하게 두는"(40절) 주위 형제, 자매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심지어 주님에게까지 나아가 기도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주님, 저들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40절). 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41-42절). 주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39)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42절)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42절)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8장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명철해 지기 위해선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함과 지혜의 훈계를 듣고 지식을 얻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6절상). 즉,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지혜는 우리에게 “정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6절하). 즉,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3) 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7절). 즉,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른 지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4) 지혜는 우리에게 “공평”(공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8절). 즉,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잠언 8장 끝 부분인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도 솔로몬 왕은 ‘지혜에게 들으라’(32, 34절), ‘훈계를 들으라’(33절)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우리에게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듣고자 날마다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여 전파함에 있어서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 가운데 특별히 저는 성경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그 바르게 해석한 본문 말씀을 어떻게 듣는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끔 저는 이러한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면 종종 저는 성도님들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오래 전 제이 아담스(Jay Adams) 교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라는 책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태도, 설교 경청을 방해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책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 중 하나는 말씀의 씨를 받는 우리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듣는 태도는 정성과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받음이다"(박윤선). 그 정성스러운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오늘 본문 34절에서 솔로몬 왕은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수종들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왕궁 문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기다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박윤선). 제이 아담스 교수님은 그의 책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에서 설교를 잘 듣는 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감이다. 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성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행 17:11)라고 말한다. 기대감이 있어야 잘 들리게 된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한가지에만 신경을 쓰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 어린아이다움이 있어야 한다. 순수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들리게 된다. 성경을 살필 때에도 진리를 발견하려는 간절함 때문에 성경을 살펴야 한다. 편견 가지고 가면 아무 것

도 못 얻는다. 흠이 있나 없나 하는 꼬투리 잡는 듣기는 병든 귀이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고 말씀한다. 듣는 것이 둔한 귀가 있다는 말이다. 설교 듣기는 "트집 잡기"가 아니라 "진리 찾기"이다(아담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날마다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날마다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잠언 8장 22-26절까지를 보면 솔로몬 왕은 지혜가 천지창조가 이뤄지기도 전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여기서 "전부터/전에", "아직",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는 단어들을 볼 때 솔로몬 왕은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참 유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잠언 8장 22-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신 8:3).

둘째로,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32절을 보십시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데서만 끝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문제가 있듯이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기경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 할 때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겸손히 잘 못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그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지켜 행해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습니다(눅 8:12).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 잠간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여(13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하여(14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므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15절).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좀 달리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의 파워란 오늘 본문 잠언 8장 27-30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라는 말들을 볼 때 솔로몬 왕은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잠언 8장 27-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우리들의 빛이기에(요 1:4) 그 빛 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훈계를 듣고 지켜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33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지혜가 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30-3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으며 또한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셨습니다(MacArthur).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창 6:5-6). 결국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습니다(롬 5:12). 그러나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21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지혜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35절을 보십시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36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하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리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참 지혜로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선 지혜의 훈계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듣되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지식(진리)과 바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정도)을 걷게 하고 바른 삶(행동)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잠언 9장 1-18절]

이번 주 월요일에 친구를 통해서 책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책 저자가 익히 들어본 "박완서"씨래서 관심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책 제목이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바로 "못 가본 길이 더 아릅답다"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못 가본 길이 너무나 많아서 저자가 못 가본 길이 무엇이 길래 아름답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련이 많이 남는 사람들은 선택 때문에 버려진 다른 것들에 대해 미련을 많이 갖습니다"(인터넷). 아마 못 가본 길에 대하여 미련이 많은 사람은 이 책의 제목에 이끌려서 한번쯤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책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였는데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는 첫 장 제목 이였고 그 첫 장에서 저자는 유년시절과 6.25 전쟁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꿈꾸던 길을 전쟁으로 인하여 걷지 못하고 비록 다른 길을 걸어서 지금 거의 80년을 이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뒤돌아 볼 때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비단은 현재 내가 실제로 흭득한 비단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흭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박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약 44년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과 주님께서 걸어오게 하신 길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인생을 그리고 딱 두 길로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줄 알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 길을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어리석고 미련하며 방황과 죄악의 길이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방황과 죄악의 길이였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이요 그 길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인 이유는 저는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찾으

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신 길은 한 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제 삶의 존재 목적의 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왜 제 삶의 존재 목적의 길이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 삶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인 이유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도 누리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약 6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지혜의 책 중에 하나인 시편부터 묵상케 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도서, 그리고 금년 2011년 들어서서 잠언 책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지혜의 책들을 통하여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욱더 들어내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지혜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잠언 9장을 통하여 저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제목 아래 과연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리석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잠언 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만"(mocking)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7-8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 거만하다'고 말할 때 주로 그 의미는 '저 사람 혼자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긴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만한 자"란 바로 "경멸하는 자" 또는 "비웃는 자"(scorner)를 가리킵니다(Strong). 이러한 거만한 자는 진리의 교훈을 비웃는 자(scoffer)입니다(박윤선). 그리고 진리의 교훈을 비웃는 거만한 자의 특징은 바로 교만하고 오만해서 멸시하여 거절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거만한 자는 무엇을 멸시하며 거절하기를 좋아합니까? 바로 훈육(discipline)과 책망(reproof or rebuke)입니다. 다

시 말하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여 거절하기를 좋아합니다(Whitaker).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거만한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8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우리가 도리어 능욕을 받고 또한 흠을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7절). 여기서 ‘흠을 잡힌다’는 말은 우리가 거만한 자를 책망할 때 우리는 그 거만한 자에게 언어 학대(verbal abuse)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Swanson). 예를 들어, 우리가 거만한 자를 사랑하므로 면책을 할 때 그가 우리에게 욕(설)을 퍼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솔로몬 왕의 말처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 마음 속에 왜 거만한 자는 책망을 듣기를 그리 싫어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교만한 자가 충고를 받지 않고 도리어 반항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반항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는 교만으로 어두워져서 진리를 모르고 자기의 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까닭이고, 둘째로, 언제는 그는 소위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충고나 책선하는 자를 도리어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자존심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더러 남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빌 2:3)(박윤선). 혹시 이러한 죄악 된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만함이란 자기 자신의 죄악 된 자존심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으로 책망한다 할지라도 책선하는 자의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결코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12절). 오히려 그 거만한 자는 지혜의 책망을 듣지 않고 미련한 계집(13절)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13-17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계집은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되 지혜가 없는 행객을 불러 미혹하되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계집의 미혹의 소리인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주석가에 의하면 “도적질한 물”이란 부정 성관계(illicit sex)를 가리킬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잠언 5장 15절에서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말씀이 결혼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적질한 물은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

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래 먹는 떡"(9:17)은 은밀히 행하는 것(a clandestine activity)으로서(Walvoord) 그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만한 자는 이러한 미련한 계집의 미혹에 빠져(16-17절) 홀로 해를 당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과연 거만한 자는 어떠한 해를 당합니까? 거만한 자는 어리석어서(16절) 미련한 계집(13절)의 미혹에 넘어가(16-17절) 그녀의 처소가 사람을 죽이는 곳이며 음부로 보내는 곳임을 알지 못하고(18절) 그녀의 초청에 응하므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2:18; 5:5 7:27).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9장 6절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거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철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3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1-5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은 성중(성읍) "높은 곳에서" 두 가지 다른 목소리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한 계집의 초청이요(14절) 또 다른 하나는 지혜의 초청입니다(3절). 그리고 성경은 지혜 없는 자들은(16절) 성읍 높은 곳에서 부르는 미련한 계집의 초청에 응하여 자기가 걷고 있던 바른 길을 버리고(14-15절) 어리석음의 길을 택하여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18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는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택하여 결국에서 생명을 얻습니다(6절). 미련한 계집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17절)고 말하면서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는 반면에 지혜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5절)고 말하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 지혜의 초청은 이사야 55장 1-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그의 구원에 참예하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참예하라는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말합니다(박윤선). 성경 잠언 9장에서 미련한 계집이 말하고 있는 "도적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17절)과는 달리 지혜는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5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실 살과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가리킵니다. 지금 성경은 미련한 계집의 초청에 응하여 도적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으면 결국에는 사망하지만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 지혜의 식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생명(6절), 곧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 명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혜의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8-9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 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거만한 자를 책망하게 되면 그는 우리를 미워하여 또한 우리가 도리어 능욕을 받고 또한 흠을 잡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7-8절). 왜 지혜 있는 자가 자기를 책망한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책망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배워서 더 지혜로워 지며 또한 학식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9절). 한 마디로, 우리의 책망이 지혜 있는 자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12절) 우리는 지혜의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적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짧은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지적할 줄은 다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그리고 바르게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적을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적을 받을 때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에 상처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를 지적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그 사람의 이기적인 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충분

히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해 가운데 우리가 지적을 받을 때 우리의 본능은 우리를 지적한 사람의 오해를 지적하고 싶은 충동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적을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한 사람을 통해서(그 지적이 맞던지 틀리전지 간에) 우리를 지적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지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The way of a fool seems right to him, but a wise man listens to advice).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거만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으로 책망을 한다 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겸손한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견책을 달게 받으므로 지식을 더합니다(15:32, 21:11). 우리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책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되어서 명철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악 되고 불결하며 속된 사람인 줄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근본"이란 잠언 책의 주제인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에서 "근본"가 다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근본"은 "beginning", 즉 '시작'이란 뜻인 반면에 오늘 본문 9장 10절에서 "근본"은 "prerequisite", 즉 '전제 조건'이란 뜻입니다(Walvoord). 즉,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지혜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행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 지혜의 전제 조건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명철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내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는 신앙의 길, 우리는 특히 거만함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철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의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승리!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

[잠언 10장 1-32절]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70-80년대 유지인, 장미희와 함께 최고의 인기스타 반열에 올랐던 정윤희 씨의 아들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망원인이 약물복용과 음주에 의해 급성 폐렴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가 전에 유명했던 인기스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읽어 보았는데 그녀의 22살 아들이 여기 로스앤젤레스 사립대학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재학중이였다는 사실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래전 USC 대학 재학생들 중 많은 유학생들은 한국에 부자 집 자녀들로서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에 충실하기보다 술과 마약 등 방황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기에 그 들은 이야기 이렇게 전에 인기스타의 자녀의 죽음 소식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나이 57살이나 된 정윤희 씨와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식을 그리 잃는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0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즉,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부모님의 근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란 제목 아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누구인지,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는 미련한 자녀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의리를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불의의 재물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2절을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얼마 전 온 가족 식구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의 "Life"란 게임을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그 게임을 같이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 게임이 아주 물질(만능)주의적인(materialistic) 게임이라고 아내에게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좀 파악하고 아이들에게 물질에 관하여 교훈을 주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게임을 하다 보니 아무리 게임이지만 몇 천 불, 몇 만 불, 심지어 십만 불 지폐가 게임 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게임을 물질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너희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아니 된다'라고 말해주었더니 'I know'(예, 알아요)라고 대답하더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리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사실입니다(2절).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탐심 속에서(참고: 1:19; 28:16) 부당하게(unjustly)(참고: 16:8) 얻되 특히 절도(theft)와 속임수 또는 사기(deceit)로 얻은 재물을 가리킵니다(Walvoord). 그 좋은 예가 잠언 1장 13절에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까닭 없이 흘려(11절) 죽게 한 후 그 사람의 온갖 보화를 빼앗아 우리 집에 채우자'(13절)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의 재물을 빼앗지는 않겠지만(물론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엔 많지만) 충분히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 우리 집 은행 구좌를 채우려는 유혹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 없이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탐심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말로는 바른 목적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재물을 모으려 하고 심지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는 미련한 자녀들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의의 재물을 얻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사실을(10:2)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He will reject the craving of the wicked)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3절).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의 수입(income)은 오히려 그에게 (형)벌(punishment)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으면 좋을 텐데 악인의 수입은 오히려 그에게 형벌이 된다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입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재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잠언 10장 2절 하반절에서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But righteousness

delivers from death)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의리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리"라는 단어입니다. "의리"하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리"란 "의"(righteousness)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란 '남을 동정하는 사랑(신 24:13)을 가리킨다는 해석가들이 있지만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박윤선). 저는 박윤선 박사님의 해석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불의의 재물"이란 불공평한 방법인 절도나 사기 등으로 얻은 재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 아닐진대 "불의"와 대조적으로 "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의"는 재물을 사랑하지만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 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죽음에서 건집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2절을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의리가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사람이 의리를 지키면 그 지키는 동안 곤란한 때도 있지만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을 할 때에 비록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하셨는데 의롭다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심지어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영원한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잠언10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하여금 주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이로든 영적이로든 우리 하나님

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있을지라도 일용할 양식 먹여주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3) 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6-7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의인에게 내려 주시는 복이란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비록 의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다소 곤란과 역경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형통케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이름을 후세대에 기억되게 하시되 칭찬받는 인물로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를 형통케 하시사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사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사 나중에는 요셉의 이름이 후세대에 칭찬받는 열조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미련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쳐 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이 멀어 무익한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부지런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게으릅니다.

성경 잠언 10장 4절을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생산적으로 살지 못하고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마냥 침대에서 뒹굴면서 먹고 자기만 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잠언 6장 6-11절에서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란 제목 아래 개미보다 못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으른 자란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자, 불의한 자로서 개미보다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미보다 못한 게으른 사람은 감독하는 자가 있어도 게으르게 일하고, 일을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협력도 할 줄 모르고(6:7),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없는 것(8절)을 볼 때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0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해도 나태하게 일을 하기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21:25). 오히려 게으른 자녀는 일을 만들므로(참고: 딤전 5:11-13) 부모님에게 근심이 됩니다(잠 10:1).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게으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렘 48:10). 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성경 예레미야 48장 10절은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오늘 본문 잠언 10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추수 때에 잠을 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복음 전파에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을 면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10장 26절을 보면 성경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게으른 자가 그 주인에게 역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이 게으른 자를 볼 때 역정이 나거나 속에 거슬릴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게으른 자식으로 인하여 근심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게으른 종업원을 볼 때 얼마나 역정이 나겠습니까? 그 종업원의 게으름을 볼 때 얼마나 그 주인의 눈에 그 종업원이 거슬리겠습니까? 당연이 그러한 종업원을 그의 주인이 좋아 할리가 없습니다.

고대(약 4,500년 전) 이집트의 현자로 불리웠던 프타호텝(Ptah-Hotep)은 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The wise rise early to start to work, but fools rise early to worry about all there is to do"(Matthews)(지혜로운 자는 일찍 일어나 일을 하기 시작하지만 미련한 자는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온종일 할일 생

각하면서 걱정하십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0장 4절에서 게으른 자와 대조적으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4). 다시 말하면,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요 특히 추수 때인 여름에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 수확한다는 것입니다(5절). 이러한 자를 가리켜 성경은 "지혜로운 아들"(5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지혜로운 아들은 그의 부모님으로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셋째로, 지혜로운 자녀는 명령을 받지만 미련한 자녀는 조심 없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성경 마태복음 21장 28-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한 아버지에게 있는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였을 때 그 맏아들은 "아버지여 가겠소이다"라고 말한 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28-29절). 그 아버지가 이제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까 그 둘째 아들은 "싫소이다"라고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30절). 이 비유를 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31절). 그 때 그들의 대답은 "둘째 아들이니이다"(31절)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 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31-32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불순종한 맏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싫습니다'라고 말한 후 뉘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멸시하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 혹은 "아니오"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실제로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할 때 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외에 아버지 앞에서 "예"하고 순종하는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셋째 아들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제일 좋지만 그러한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 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둘째 아들

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싫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뉘우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지혜로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명령을 한 4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1)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9절을 보십시오: "바른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굽은 길 곧 죄악의 길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바른길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운(깨끗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의로운(깨끗한) 생활을 하는 자는 우선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고로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고생 끝에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고로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박윤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길 원치 않는 부모기 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여 그릇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징계를 받아서라도 다시금 바른 길, 곧 생명 길로 행하는 것(17절)을 간절히 보길 원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인내할 것)입니다.

(2)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12절을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다투고 싸우며 미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웃 사랑은 지식에 근거한 사랑입니다(14절). 그저 무조건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식입니

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허물을 다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가려 주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녀는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기보다 들춰내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자의 미워하는 마음은 그 상대방에게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없는 허물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러한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미워함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 대해 오늘 본문 잠언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3)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입술을 제어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생각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말을 많이 해서 제 자신의 허물을 들어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까지는 먹히기까지는 못하지만 입술을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21절). 저는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천은과 같은 혀를 생각할 때 구약의 인물인 에스라가 생각났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겸 제사장이였습니다(스 7:11).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10절)한 학자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사 50:4). 우리도 에스라처럼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 낙을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2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미련하여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을 볼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

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행악으로 낙을 삼지 말고 지혜로 낙을 삼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로 즐거움을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오늘 본문 잠언 10장 8절과 10절을 보면 성경은 미련한 자녀는 입이 미련하여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입이 미련한 자가 말을 조심성 없이 하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하여 화를 당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왜 미련한 자는 말을 조심성 없이 해서 스스로 화를 당합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처럼 지식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4절).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습니다(21절).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32절). 그 결과 미련한 자의 패역한 혀는 베임을 당할 것입니다(31절). 또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1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1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27절)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2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정직히 행합니다(29절). 행하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히 행합니다(4절). 또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8절).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영히 요동하지 않습니다(30절). 그러나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이 됩니다(1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무익한 불의의 재물을 추구합니다(2절). 그리고 그들은 게으릅니다(4절). 또한 그들은 조심 없이 말을 하므로 스스로 화를 당합니다(8, 10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

[잠언 11장 1-31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이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은 그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자녀이셨습니까? 어제 화요일 오후에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는 방과 후로 보내고 첫째 딸 예리는 제가 데리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리가 학교에서 Spelling Test가 있어 좀 늦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Spelling Test"란 아마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반 대표 학생들을 뽑아서(?) 수많은 영어 단어들을 외우게 한 후 시험을 치르는 것인가 본데 이번에 12명이 대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 후 선생님에게 예은이만 좀 데려가 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후 예리는 제가 데리러 가는데 이 아이가 좀 일찍 끝났는지 학교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앞에 차를 세우고 태운 후 오늘 시험 어떠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한 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이파이브(high five)를 했습니다(동시에 한 손을 들어 서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마주쳤음). ㅎㅎ 그리고 나서 엄마와 전화 통화하겠냐고 물었더니 예리가 하고 싶다하여 전화기를 주었더니 엄마하고 예기하는데 speaker phone으로 해 놓아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제 아내라 예리에게 "I am proud of you"(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딜런과 예은이를 pick up 한 후 제가 차 안에서 예리가 1등을 했다고 말하니까 이 아이들도 기뻐하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 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양육을 제대로 못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면서 각자 맡은 책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대화할 때 이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닮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이런 면을 닮지 않았으

면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친히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때에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며 제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마음에 안심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 수요 기도회 때 잠언 10장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한 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잠언 11장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20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란 제목 아래 과연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인지 한 5 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교훈들을 받아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2절을 보십시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벧전 5:5) 또한 물리치시는 모습(약 4:6)을 참 많이 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8장 29절을 보면 "교만"은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중에 저는 사울 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는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작게 여겼는데(삼상 15:17)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20절) 교만해진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사울처럼 그렇게 변질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가 변질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9, 19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보다 변명하면서(20-21절) 끝까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 달라(30절)는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교만이란 이렇게 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보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푸신다는 사실입니다(잠 3:34, 약 4:6; 벧전 5:5). 저는 "겸손한 자" 하면 구약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생각납니다. 특히 저는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겸손했던 모세, 그러나 모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겸손한 모세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5-8절을 보면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6-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5절).

오늘 본문 잠언 11장 2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교만한 자는 실패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은 교만한 자들은 목을 곧게 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느 9:16).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에(29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실패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잠 11:2).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실패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성공케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겸손한 자들을 성공케 하실까요? 다시 질문하면, 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까요? 그 원인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2절).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성공의 비결인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겸손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잠언 11장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4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u>지혜로운 자들은 침묵할 줄을 압니다.</u>

오늘 본문 잠언 11장 12절을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겸손하여 그 마음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13절).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신실하기에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밀을 잘 숨깁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들은 미련하여 상

대방 앞에서 이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혜로워서 침묵을 해야 할 때 침묵을 합니다.

(2)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모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14절을 보십시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어 자신에게 모사들을 둡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들은 지혜로운 모사들과 의논하여(15:22; 20:18)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전쟁에 있어서 다윗 왕은 모사를 등용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모사들을 등용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삼하 8:15-18; 왕상 12:6)(박윤선).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은 잠언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모사들을 등용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님들을 모사들로 모시고 의논하며 조언을 구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하여 삶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11:14).

(3) 지혜로운 자들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15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우리는 이미 잠언 6장 1 - 5절에서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 불이행(defaults)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것(보증을 서는 것)을 솔로몬 왕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만일 보증을 선 것이 사고가 생길 때에 실제로 책임질 것을 각오하지 못한 보증인이나 혹은 남에게 속아서 보증인이 된 사람 또는 책임을 이행할 경제적 실력이 없는 보증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1장 15절에서 다시금 보증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지혜로운 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지혜로운 자는 안전하다(secure)고 말하고 있습니다.

(4)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30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저희 교회 2006년도 주제 구절이였습니다. 그 해 저희 교회 주제는 “사람을 얻는 자가 되라”(Be a Soul Winner!)였습니다. 그 때 오늘 본문 잠언 11장 30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때야 하는지 스펄전 목사님의 책 “The Soul Winner”에서 7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7가지를 지혜로운 자와 전복시켜 보았습니다: (a)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다, (b)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높은 수준의 영적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c)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d)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e)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진정한 열심이 있습니다, (f)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큰 단순함이 있습니다, (g)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은 정직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3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란 그의 중심에서부터 추구하는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는 의를 사모하며 의의 길로 걷기에 그는 생명에 이른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사악한 자는 그의 패역으로 인하여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하).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악한 자의 패역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즉, 사악한 자의 패역은 바로 속이는 저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악한 자의 패역은 바로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거짓을 추구하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사모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정직한 자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러기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도시가 정직한 자의 축원, 즉 축복 기도로 인하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 도시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정직한 의인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한 의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들을 보므로 그 도시를 칭찬하고 높이기 때문입니다(Walvoord).

우리가 이러한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므로 이 도시의 시민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높이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여기 저기 도시에서 행하고 있는 성시화 운동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972년 춘천에서 성시화 운동 총재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되 한 도시 내의 전 교회(Whole Church)가 전 도시(Whole City)에 전 복음(Whole Gospel)을 전하는 3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시화 운동의 내용은 복음화, 성결화 그리고 복지 화라고 합니다. 즉, 사람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정의롭고 성스럽고 복스러운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이 운동의 목적과 내용을 생각할 때 참 귀한 목적과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과 내용이 실제로 한 도시에서 이뤄지기 위하여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정의롭고 성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의를 사모하며 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정직하여 의를 사모하며 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은 완전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5절을 보십시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과연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자”란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를 가리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는 행위가 온전한 자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란 말입니다. 과연 행위가 온전한 자는 어떻게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바로 “공의”(righteousness)를 행하기 때문

입니다(5절). 다시 말하면, 행위가 온전한 완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속이는 저울"(false balance)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just weight)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1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공의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다(God will smooth our way)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는 거침이 없고 마침내 형통케 하신다는 말입니다(박윤선). 물론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완전한 자들을 그 고난과 역경의 통로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시키사 마침내 그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다시 말하면, 악인은 자신의 악에 잡혀(6절하) 패망한다(10절)는 말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16-17절을 보십시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유덕하다'는 말은 영어로 "gracious", 즉 '은혜스럽다' 또는 "kindhearted", 즉 '마음씨가 곱다, 인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덕한 (여)자들은 인정이 많아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인자한 자"란 '자비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1)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자들은 삼갑니다.

잠언 11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구약 당시 여자는 자가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자 코걸이라는 장식품을 하였습니다(MacArthur).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은 삼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 코에 금 고리를 달아 놓은 것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금으로 만든 코걸이를

돼지 코에 해 놓으면 돼지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삼가지 않는 여인, 즉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행하여 파렴치한 여인은 이 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우나 행실이 방종스러우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체의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해 놓은 것과도 같다. 그것은 사실상 흉한 것이다"(박윤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여인이요 그러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정결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위는 신중하며 분별력 있게 자기 재량껏 일을 잘 처리하는 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정이 많아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며 또한 은혜를 베풀되 신중하게 자기 재량 것 잘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되 신중하며 분별력 있게 잘 베푸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2)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자들은 흩어 구제합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아낌없이 구제하는 것("흩어 구제하여도")을 좋아합니다(24-25절)(박윤선). 그들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하게 하는 비결이요 풍족케 하는 비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그 비결을 모르기에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서 과도히 아끼되 남에게 베푸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4절). 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성경은 구제하는데 인색한 자들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the people will curse him)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겠습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함"(generosity)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후히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후히 베풀되 특히 남을 구제하는 일을 아낌없이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아낌없이 구제하며 남에게 후히 베풀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선을 간절히 구하므로 하나님께 은총을 풍성히 얻었기에(27절) 다른 이들에게

풍족히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28절)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다른 이들에게 후히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의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8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솔로몬 왕은 의인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인에게 환난이 있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성경은 의인의 자손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진정한 의인의 소원은 선합니다(23절).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23절)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자기가 접한 모든 역경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의를 굳게 지킵니다(19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18절). 그 상이란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하여금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시34:8).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죄인)을 보응하십니다. 의인의 보응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환난 중에서 구원하심(8, 21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십니다(10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은 마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하십니다(2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되 사람(영혼)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30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이 생각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교훈처럼 겸손하며, 정직하며, 완전

하며(행위가 온전하며), 은혜와 자비 베풀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의의 길을 걷는 자로 세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 이웃 사랑하는 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잠언 11장17절).

영혼을 지키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 또는 사랑하는 자란 이 말씀은 계속 나로 하여금 생각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다'는 말씀은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타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진리,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해가 좀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므로 자신의 영혼 혹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사랑의 본질,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말씀을 생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 자기 영혼을 해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천은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영혼이 새롭게 된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 나아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다른 영혼을 사랑하므로 내 자신 영혼을 지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되라! (1)

"…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언 11장 30절).

새해 2006년도 승리장로교회 표어는 "사람을 얻는 자라 되라!"(Be a Soul Winner!)입니다. 그리고 표어 구절은 잠언 11장 30절 하반절인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니라"(he who is wise wins soul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얻는다'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혹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MacArthur). 한 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향을 끼친다'(a "life-giving influence")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주는 영향'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1장30절 상반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는 불의인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불의인의 열매를 맺는 이 잃어버린 나무를 찾아 주님께 데리고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생명을 주는 영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생명나무로서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는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사람을 얻는 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주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질(혹은 인품)이 있어야 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그의 책 "The Soul Winner"에서 7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Andy Stanley 목사님의 지도자들의 인격에 대하여 던진 질문("The Next Generation Leader")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격 개발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인격 개발의 끝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장로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야 저 누구누구는 참 예수님을 닮았어(혹은 닮아 가는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불경건한 영향을 받고 있는 까닭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 개발의 끝 혹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닮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에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14절 이하에서 얻는 대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14절). 그러기 위해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15절). 둘째로,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17, 19절).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타협하는 도구(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보라고 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초청자나 혹은 전도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삶 속에서 들어내지 못한다면 영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스펄전). 우리는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므로 말미암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영적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옥한음 목사님의 교회갱신 목회자협의회 설교(제목: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2001. 8.22)를 보면 옥 목사님은 그 설교 서론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리더십에 엄청난 변화를 말씀하시면 그 변화가 질적으로 나빠지는 변화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 없는 질그릇이라면 그것은 질그릇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보배를 금 그릇에다가 담지 않으시고 질그릇에다가 담으셨으니 이 질그릇은 죽을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느끼는 지도자라면 "그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천사가 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고민이 있습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저와 여러분, 과연

우의 영적 삶의 수준을 얼마나 높게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 동네 산을 표준으로 삼고 준비하는 사람과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 준비 자세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 직분자들 다 그런데 하면서 그들을 표준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설교자들은 반죽은 상태(the state of half-death)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강단에서는 천사요, 일상생활 삶 속에서는 지렁이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이나 직장에서는 다르게 산다면 그것은 반 죽은 상태 신앙생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영적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수준을 낮추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릇 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일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가정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들어나면 교회 안과 밖에서의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얻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히 쓰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적용해 본다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있기에 주제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는 글은 저는 부족해요 하면서 2%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2%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98%가 부족한 것을 2%로 부족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두 부류의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만에 가득찬 사람들로서 '나를 칭찬해 달라, 제발 나를 칭찬해 달라, 나는 그것을 원한다'하는 사람들이며, 또 다른 교만한 사람들의 부류는 '나를 칭찬해 달라'는 원함조차도 없는 자들로서 이미 너무나

교만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던 안하던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기보다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이 부류의 교만한 사람들을 말씀하신 후 스펄전 목사님은 잘못된 겸손을 말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겸손을 가리켜 그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sinful love of ease"(편안함을 추구하는 죄악 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낮게 보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여겨 아무 선한 일도 모험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존(self-reliance)이 없다고 말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편한 곳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겸손해서 자기 자신들이 책임질 일(비난 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sinful love of ease"(편안함을 추구하는 죄악 된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도전은 영혼을 얻는 자는 이러한 부류의 교만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을 얻는 자는 진정한 겸손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게 해주며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생각게 만듭니다.

넷째로,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믿음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1:22).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라"(실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던 것을 묵상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는 영혼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사 영혼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믿어야 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믿음대로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중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열심히 아닌 그럭저럭 영혼을 얻고자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큰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큰 단순함이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얻는 일에 목적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영혼을 얻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이나 다른 것에 있다면 마음에 단순함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영혼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음에 단순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simplicity)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실함"이란 영어 NASB 성경에는 "simplicity"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의 단순함(진실함)을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얻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단순한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항복해야 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 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

덩어리를 주님께 다 받쳤던 것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영혼을 얻는 자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2006년도 “사람을 얻는 자라 되라!”(잠11:30)는 표어를 걸고 한 영혼, 영혼을 전도함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위에 일곱 가지 특질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일곱 가지 특질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잊지 않고자 말씀 선포 후 다시 적어 내려가 보았습니다. 벽에 붙여 놓고 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힘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는 자로서 세움을 받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얻고자 말입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되라! (2)

"…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니라"(잠언 11장30절).

2006년 신년연합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승리장로교회 새해 표어 구절인 잠언 11장 30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4가지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잠에게 깨고 싶은 간절한 마음속에서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무관심과 특히 영적 무능력 속에서 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에 오직 이 네 가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할 제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는 신년연합예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4가지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새해 2006년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겨주시사 이 4 가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14-15절을 보면 성경은 약 120문도가 "…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였고, 둘째로 전심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했으며, 마지막 셋째로 이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전도하라"[미주복음신문, 2005년 11월27일]에 난 기사를 보면 "기도는 리더십"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조직이나 국가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국가와 가정 그리고 사회와 직장을 기도로 통치하고 관리하십시오. …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사인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인터넷). 그러면서 기사를 쓴 저자가 하는 말은 "기독교 인터넷사이

트 갓피플 닷컴이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네티즌 1043명을 대상으로 '내가 해본 방법 중 가장 좋았던 전도 방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는데 17%가 '만날 때마다 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기'를 꼽았다고 합니다(인터넷).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굴복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패턴처럼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13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허락해주시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14절) 그러므로 결국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15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16절) 우리가 보기엔 안 좋은 귀신들린 여종과의 만남(16절)을 통하여 핍박이 올지라도(19-24절)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25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26절)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33절)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34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큰 지진을 통하여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므로 받는 "권능"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부터 능력"(눅24:49), 즉 "권능"은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파워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의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Word Pictures in the N.T. & Nelson Study Bible). 유상섭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임한 성령이 그로 하여금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능력으로 시작하게 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유상섭).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위로부터 능력", "권능"은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능력을 이미 받았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위로부터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

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을 받지 못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미 이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엡 3:16).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므로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얻는 자 바울이 어떻게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인터넷 웹사이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구원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적혀 있는 글을 보니 "전도의 첫걸음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과연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2절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약 120문도가 약속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1:14),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모인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파했을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2:41). 여기서 우리는 한 패턴(pattern)을 보게 됩니다: 기도 --> 성령 충만 --> 복음 선포 --> 3000명 구원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므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만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능력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랑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관심"이라고 서울 사랑의 교회 원로목사님이신 옥한음 목사님이 그의 책 "전도자"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냉혹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더 무서운 무관심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옥한음). 마치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 인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은 수 없이 많은데 우리는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31, 32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을 베푸는 사랑"(옥한음)이 결핍돼 있고 오히려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와 드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식구들과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 등등, 그들을 그냥 놔두고 혼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질문해 볼 때에 옥목사님은 이들을 두고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옥한음). 그러한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여,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옥한음).

우리는 결코 누가복음10장 29절에 나오는 율법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리화 시키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사랑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좋아하시던 말씀은 제가 알기론 시편 23편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마치 양이 제 갈 길을 가듯이 내가 살아간다면 철저히 부족함을 느껴야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며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제 갈 길을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부족함을 느끼므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저는 이 새해 2006년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때에 인간 제임스의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사모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깊고 넓게 크게 체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인의 뿌리

[잠언 12장]

여러분 혹시 2011년 10월 5일부터 한국 SBS에서 방영되었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정명의 소설 “뿌리 깊은 나무”를 드라마 한 것으로, 조선 세성시대 훈민정음 반포 전 7일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으로서 한글창제의 위대함과 이면에 가려진 고충을 가감 없이 보여준 드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그 제작을 기도한 세종대왕의 동기에서 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그가 고민했었을 여러 상황들을 모두 다 빼놓지 않고 잘 상상해내어 드라마로 보여주었다. 해서 한글을 직접 쓰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아래서 자라난 사람의 하나로서 그러한 위대한 왕을 가졌던 긍지뿐 아니라 그처럼 고귀한 글자를 손수 쓰고 있다는 자부심을 적지 않게 북돋아 주었다”(인터넷).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글이 얼마나 익히기 쉽고 그 것을 만들어 낸 동기가 얼마나 고상한 생각에서였던가를 잘 모르고 자라나는 해외 이세들에게 영어 자막이 붙여지자마자 꼭 보여주고 싶은 드라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인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로서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의인의 뿌리**”라는 제목 아래 한 2가지로 잠언 12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굳

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우리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달리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뿌리가 악하면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인은 짐승과 같이 징계(correction)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잠 12:1). 왜 악인은 징계를 싫어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잠언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악인은 미련하여서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악인은 지혜로운 자의 권고(충고)를 듣지 않습니다(15절). 그리고 악인은 악을 꾀하면서(2절) 궤휼을 도모합니다(5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입니다(6절). 이러한 악인에게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욕을 끼치는 여인”(a disgraceful wife)을 아내로 두므로 자신의 뼈를 썩음 같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자신만이 굳게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도 굳게 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악인은 결국에 가서는 엎드러져서 소멸됩니다(7절).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3절). 어떻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지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의인이 훈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은 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행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합니다. 다시 말하면, 훈계를 좋아하며 지식을 사랑하는 의인의 계획들은 공평하고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시사(2절) 어진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진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남편의 면류관이 되게 하십니다(4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어진 여인을 아내로 주시사 그녀로 인해 그 의인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굳게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3절) 그 의인의 집도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7절).

둘째로,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성경은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그가 불의의 이를 탐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방탕한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because he is chasing fantasies)(11절). 여러분, 악인의 마음에 있는 탐심은 공상과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을 좇습니다. 그러기에 그 악인은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의 것을 약탈합니다. 그의 생각은 비뚤어져 있어서(8절) 자기의 손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11절) 남의 것을 약탈할 생각만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는 악인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24절).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면 성경은 게으른 악인은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생각만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8절) 그의 마음도 비뚤어져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궤휼이 있고 …." 악을 도모하는 악인의 비뚤어진 마음에는 기쁨("희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잔인함이 있습니다(10절).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악인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려서라도 남은 것을 약탈할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악인은 입도 비뚤어져서 입술에 허물이 있다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술에 허물이 있되 그 입술에서는 궤휼(lies)을 말합니다(17절). 다시 말하면, 악인은 눈깜짝일 동안만 있는 "거짓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19절). 그래서 악인은 음식도 핍절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합니다(9절). 그리고 심지어 악인은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여(18절)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12절). 과연 어떻게 의인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까?

(1) <u>의인은 부지런합니다.</u>

잠언 12장 27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인은 악인처럼 불의의 이를 탐하지 않습니다(12절). 또한 의인은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 악인처럼 게으르지 않습니다(27절). 오히려 의인은 부지런하여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므로 먹을 것이 많습니다(11절). 그리고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도 돌아봅니다(10절). 그러므로 부지런한 의인은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24절). 그러나 게으른 악인은 부림을 받습니다(24절). 한 마디로, 의인의 부귀는 부지런합니다(27절).

(2) 의인은 지혜롭습니다.

잠언 12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 지혜로운 의인은 악인처럼 스스로 높은 체 하지 않습니다(9절). 오히려 그는 지식을 감추어 둡니다(23절; 10:14). 그에게는 절제와 겸손함 있어서 적합한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 상대방을 세워줍니다(참고: 14:1). 그리고 지혜로운 의인은 미련한 자처럼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권고를 듣습니다(12:15). 그 이유는 지혜로운 의인은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9:20). 또한 지혜로운 의인은 모사(advisers)가 많으면 평안(승리)을 누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듣습니다(11:14). 또한 지혜로운 의인은 미련한 자처럼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 않고 수욕을 참습니다(12:16). 그가 수욕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10:12). 그리고 그는 화평을 추구하기에(12:20) 수욕을 참는 것입니다.

(3) 의인은 진실히 행합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보십시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히 행하는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는 거짓 입술이 아닌(19, 22절) 영원히 보존되는 진실한 입술(19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말합니다(17절). 또한 의인의 진실한 입술은 마치 양약 같아서(18절) 선한 말로 상대방을 즐겁게 합니다(25절). 그리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26절). 더 나아가서, 의인의 정직한 입술은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합니다(6절).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뿌리 깊은 영성”이란 책을 보면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친교를 강조하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질명 가운데 하나인 ‘뿌리 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저자에 의하면 이 병에 걸린 나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일반인은 나무가 병들었는지도 눈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 나무에서 느린 죽음의 서곡을 듣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뿌리진디도 이러한 뿌리 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옛 뿌리를 잘라내고 새

뿌리를 접붙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산지 포도나무에 미국산 포도나무의 뿌리를 이식시킨 후 시간이 경과하면 줄기, 가지, 열매는 전과 다름없지만 뿌리는 더 싱싱하고 질병에도 저항력을 지닌 포도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점은 질병이 찾아오는 곳,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곳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나무의 문제가 뿌리 병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뿌리 병과 같은 영혼의 질병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바른 영성생활을 하기 위해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드리길 기원합니다.

의인의 빛

[잠언 13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정도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만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얼굴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빛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선한 일을 하므로 말미암아(마 5:16)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에 얼굴이 빛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남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원수들의 박해 앞에서도 그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처럼 말입니다(행 6:15)(박윤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잠언 13장 9절 말씀 중심으로 "**의인의 빛**"이란 제목 아래 잠언 13장 전체를 한 2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꺼지는 악인의 등불입니다.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꺼지는 악인의 등불은 교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10절을 보십시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인터넷) 겸손의 반대 개념으로 교만이한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며 교만은 최대의 죄라는 것입니다(잠 1:7, 6:16, 17, 벧전 5:5). 교만은 흔히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의로움의 교만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잠 16:18). 오늘 본문 잠언 13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교만한 악인은 권면을 듣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10절). 그리고 지혜가 없기에 교만한 악인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나 꾸지람도 즐겨 듣지 않습니다(1절). 그리고 악인이 훈계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이유는 그는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13절). 다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존경심이나 두려움이 없기에 훈계나 꾸지람을 경이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교만하여 스스로 부한 체 합니다(7절). 잠언 12장 9절을 보면 악인은 음식이 핍적하면서도 스스로 높은 체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 잠언 13장 7절에서는 교만한 악인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부한 체 한다(pretends to be rich, but has nothing)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체하는 것이나 스스로 부한 체 하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요 진실된 자신의 모습은 아닌 거짓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데로, 부하면 부한 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실 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꺼지는 악인의 등불은 궤사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악인의 마음이 궤사하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불성실하여 강포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강포를 갈망하는 악인은 강포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강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러나 악인은 마음만 궤사할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입술도 궤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악인은 자신의 궤사한 입술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5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성경은 “궤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but the way of the unfaithful is har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악인은 자신의 마음만 돌처럼 굳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도 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악인은 자신의 입술을 크게 벌리므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3절).

셋째로, 꺼지는 악인의 등불은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4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

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악인은 마음으로만 재물을 원하고 실제로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악인은 망령되이(dishonestly)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11절). 잠언 12장을 보면 성경은 게으른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여(12:12)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의 것을 약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시 62:10)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은 포학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며 또한 늘어난 재물에 마음을 둡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마음은 방탕한 것을 좇기 때문입니다(잠12:11). 다시 말하면, 악인은 아무 가치도 없는 헛된 것을 좇기에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의 것을 약탈하여 자기의 재물을 축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13장 22절에 의하면 그러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16-17절을 보십시오: "그가(악인이)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 자가 나눌 것이며." 또한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결국 악인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잠 13:4)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환하게 빛나는 의인의 빛입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그의 입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췹니다.

어떻게 의인의 그의 입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췹니까?

(1)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5절) 진리를 기뻐하므로 이 세상의 빛을 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그 입에서 진실을 말하므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십니다(12: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히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진실 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진실 된 그리스도인은 거짓 입술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2:19, 22). 그리고 그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19절). 그러므로 의인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말하므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의인의 빛을 발합니다.

(2) 의인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생명의 말씀을 남에게 가르침으로 그 자신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갈6:6). 곧, 지혜로운 의인은 자기의 지혜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잠언 12장을 보면 성경은 의인의 진실한 입술은 마치 양약 같아서(18절) 선한 말로 상대방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25절)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26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은 자기의 정직한 입술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합니다(6절). 결국,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므로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되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들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3) 의인은 자신의 입을 지키므로 자기의 영혼을 보존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3절을 보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자신의 입을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말을 조심합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므로 남들을 유익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등 하나님께 축복 받을 일들을 하면서 악인처럼 입을 크게 벌려 자신의 비뚤어진 입술로 허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12:23).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악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기의 많은 악한 말로써 우선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또 망하게 한다(마 15:11).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입을 지켜야 한다"(박윤선).

둘째로, 의인은 그의 삶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췹니다.

(1) 여기서 환하게 빛나는 의인의 삶이란 그의 부지런함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의인의 빛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4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의인은 부지런하여서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는 밭을 경작하므로 양식이 많아집니다(23절).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일 대가로 얻은 재물을 아껴서 부지런히 모아(저축해)둡니다(11절). 그래서 부지런한 의인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 자기의 재물 때문에 위험을 면할(구속함을 받음) 경우도 있습니다(8절)(박윤선). 그리고 그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칩니다(22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선인(의인)은 자기의 재산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그 선한 의인의 후손들도 선한 사람들일 경우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재산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그들(후손들)이 불의하면 그 유산을 누리지 못하고 파산한다"(박윤선). 물론 모든 의인이 부지런히 일을 하여 다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도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럴 경우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the poor hears no rebuke)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의인은 도적들에게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냐 가 아니라 부지런한가 아니면 게으른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인은 부지런함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의인은 정직히 행하므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췹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의인의 빛은 정직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6절을 보십시오: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의인은 거짓을 미워합니다(5절). 그리고 그는 거짓된 행실을 버리고 진실 된 행실을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정직한 의인은 하나님을 경

외하기 때문입니다(14:2).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며 존경합니다(13:13). 그리고 그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행사가 다 진실합니다(시 33:4). 이사야 26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신 주님께서 정직한 의인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잠 13:6) 또한 그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 이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의인의 빛은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합니다(16절). 그러므로 지혜로운 의인은 훈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18절). 그리고 의인에게는 권면을 듣는 지혜가 있습니다(10절). 특히 지혜로운 의인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므로 더욱더 지혜를 얻습니다(20절). 그리고 그에게는 선한 지혜가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15절). 어떻게 그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의인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는 교훈을 가르쳐 주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은혜를 베풉니다(14절). 특히 선한 지혜가 있는 의인은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되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에 근실히 징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선한 지혜가 있는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21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의인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선이라 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가면 주실 상급을 생각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상급이 꼭 천국에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므로(시 34:8)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의인은 그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므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비췹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의인의 빛은 바로 소원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0장 28절을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잠언 11장 7절에서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소망은 불의의 소망이기에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3:18). 오히려 성경은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씀하고 있습니다(14:32).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장래가 있습니다(23:18).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장래의 소원은 오직 선함입니다(11:23). 그런데 문제는 이 장래의 소원이 성취가 더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잠언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미래의 소원 성취가 더디게 되면 우리는 상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Walvoor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소망(소원)을 성취해 주시므로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기뻐하며 기뻐할 것입니다(9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궤사하며 게으른 악인의 등불은 분명히 꺼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빛은 분명히 환하게 빛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진실 된 입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므로 그들의 영혼을 유익케 하는 선한 입술, 그리고 자신의 입을 지키므로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입술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정직하며 또한 지혜롭게 행하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하게 비취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시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취게 하실 것

입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잠언 14장 1-9절]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3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3가지 기도 제목들이란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서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각 가정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함께 기도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특히 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2008년 5월 18일에 전파했던 "주여, 저희 가정을 세우소서!"란 제목 아래 역대상 17장 16-27절 말씀을 다시 뒤돌아보면 그 때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었습니다: (1)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내 가정이 되게 하소서!'(16절), (2)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권위가 되게 하소서!'(23절), 그리고 (3) '주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가정이 되게 하소서!'(25절).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권위인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인지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뒤돌아보십시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14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심에 있어서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을 보십시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2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우리의 집과 섬기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과연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여인은 "패역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란 바로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박윤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깁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녀는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7가지로 말하였습니다(박윤선): (1)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딤후 3:4), (2)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부패한 인간성 그대로 행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유1:10), (3)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속히, 또는 매번 벌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녀는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롬2:4), (4)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잠 13:13), (5)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망동합니다, (6)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마7:7-11)을 멸시함입니다, 그리고 (7)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성되이 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기에 똑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비뚤어진 길을 걷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미련한 여인은 표리가 있는(불성실한)(double-dealings) 길을 걷습니다(KJV 성경주석). 그녀는 불성실하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헙니다.

둘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여인은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그녀는 교만하여 남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다른 이들을 우습게보고 마음으로 또한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아내가 미련하고 교만하면 남편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므로 우습게보고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입으로 자기의 남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므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문제는 그녀는 자기가 자기의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하고 미련한 아내와 사는 그 남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허물어지겠습니까? 잠언 11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 무슨 뜻입니까? 미련하고 교만한 여인은 자기의 입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치욕을 당합니까? 잠언 10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하고 교만한 여인은 자기의 입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되 채찍 또는 막대기(26:3)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여인을 낮아지게 하십니다(29:23).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여인으로 하여금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교만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헙니다.

셋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거만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 미련한 여인은 거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듣는 능력을 상실합니다(MacDonald). 여러분, 사람이 듣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듣는 귀가 두개나 있다고 한들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이나 충고나 면책 등을 듣기를 계속 거부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 옳다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위에 친구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제일 잘 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거만하게 들릴 때 누가 그 사람 주위에 남아 있겠습니까? 만일 집 안에 아내가 미련하여 거만하다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말 듣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듣는 능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과 특히 자녀에게 미칠 나쁜 영향을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말 듣기를 거부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만하여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7; 9:10)(Walvoord).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혜가 없는 거만한 미련한 여인은 그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가정을 자기 손으로 무너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습니다(시14:1)(박윤선). 그리고 그녀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기에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을 나게 하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딤전 6:4). 여러분, 집 안에 아내가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여인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그러한 가정에는 평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여인이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만하여 어느 누구의 충고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란 영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는 마음에 자세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잠 14:7)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 집을 무너트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여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여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시 53:1). 그러므로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에 그녀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시 53:1). 그녀는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1,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 알고 있습니다(12:15). 야고보서 1장 22절을 생각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실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미련하고 거만한 여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자기 집(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여인은 진리를 모르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기 범한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할 능력을 그녀는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모르며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미련한 여인은 잠언 10장 23절을 보면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러기에 미련한 여인은 죄로 마음이 강퍅하여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미련한 여인은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미련한 여인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무식한 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녀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에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녀는 죄를 심상히 여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

악 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을 정도로 강퍅한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집에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둘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 과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1:7).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박윤선 박사님은 한 5가지를 말하였습니다(박윤선): (1)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2) 은밀한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며 깨어 기도합니다. (3)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4) 평안한 때에 오히려 주님을 떠날까 하여 두려워하며 조심합니다, (5) 난처한 때에 구차스럽게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고 의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죄를 결코 심상히(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9절).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9절).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가 범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하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9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하는 여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녀를 기꺼이 받아들이신다(acceptance)는 말입니다(Walvoord).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8:35)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정직히 행하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십니다.

둘째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입술에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겸손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권면과 훈계를 겸손히 들어 지식 얻기가 쉽습니다(6절). 그녀는 심지어 의인의 책망도 겸손히 듣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은혜로 여깁니다(시 141:5). 그러므로 그녀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환영합니다(welcome). 그 이유는 그녀는 그 지혜로운 자의 책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게 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학식(learning)을 더하게 하므로 유익되게 합니다(잠 1:5, 9:9). 잠언 9장 9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겸손하여 학식을 더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교만한 여인처럼 입으로 매를 자청하지 않습니다(3:3). 오히려 그녀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합니다(3절).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여 남에게 유익하도록 입술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 자신도 유익을 얻습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을 사랑하므로 그를 헐뜯지 않고 도리어 감싸준다(벧전 4:8). 그러니만큼 남들도 말로써 그를 보호한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신실한 증인으로서(5절) 지식 있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롭고 입술에 지식이 있는 여인을 통하여 가정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셋째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4절을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당연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 논밭을 경작함에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가 없으면 농업에 있어서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소를 사서(money) 시간을 투자하여(time) 소를 먹이고 씻기로 돌보므로 말미암아 함께 부지런히 일하여(work)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력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짐승들 중에서도 특히 소를 거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

라."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소'는 충성과 노력의 상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충성하며 노력함. 노력하되 그녀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산업이 핍절치 아니"합니다(잠 31:11). 잠언 31장 13절부터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되(13절) 그녀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15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17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18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27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칭찬합니다(28절). 이러한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넷째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길을 압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8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걷기를 원하는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시 53:1).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진리를 떠나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어내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가정을 허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웁니다. 그녀는 먼저 자기의 갈 길을 압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가 할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합니다(고전 7:17)(박윤선). 그 하나님의 뜻 중 하나는 바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주님께 충성하며 부지런히 노력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을 생각할 때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성경 룻기서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생각납니다. 성경

은 그 모압 여인 룻을 “현숙한 여자”(a woman of excellenc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룻 3:11). 어느 면으로 보면 룻의 가정은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 말론도 죽고 시동생인 기룐도 죽고, 동서인 오르바도 가정을 떠났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과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좇아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룻은 보아스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룻은 현숙한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으며(2:10), 순종하는 여인이었고(3:5-6) 또한 인애를 베푸는 여인이었습니다(3:10). 주님께서는 이러한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가정을 세우시사 그 가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메시아 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에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길을 알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가 할 일을 충성되이 행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

[잠언 14장 10-35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우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시면 왜 고통스러우신 것인지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시면 왜 즐거우신 것인지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삶 속에 겪는 슬픔이나 기쁨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잘 나누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좀 하는지 모를지라도 왠지 우리 각자의 슬픔을 잘 나누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나눠도 상대방이 우리의 슬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기쁨은 어느 누구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 몸인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들도 우리 각자 마음의 슬픔이나 기쁨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할 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체휼하길 (sympathize)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이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통"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한 8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집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 여기서 "집"이라 함은 한 주석에 의하면 가족 식구들(family members) 이란 뜻도 있지만 또한 소유(물)(possessions)를 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Walvoord). 만일 이 해석이 맞는다면, 이 11절 상반절 말씀은 악한 자의 집, 곧 그의 가족 식구들이나 소유(물)는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 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시73).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집은 일시적으로 흥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자의 죄악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인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집도 회개치 아니한 죄악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 집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은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활이 곤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욕되게 하다'는 말은 "부족, 혹은 곤고"를 가리킵니다. 즉, 백성이 죄가 많으면 그 생활이 곤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물론 이 말은 한 나라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생활이 곤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죄가 많으면 생활이 곤고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도 한 나라의 욕을 끼치는 신하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정에 적용해 볼 때 한 가정에 죄가 많으면 생활만 곤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부끄

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삐뚤어 나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므로 부모님에 욕을 끼치고 가정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들이 죄를 많이 범하므로 자녀들에게도 욕을 끼치고 가정에 큰 수치를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안을 가리켜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많은 죄로 인하여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와 우리 집안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하시사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돌이켜 우리 마음에 기쁨(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보기엔 바른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닌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 16장 25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였는데 왠지 이 말씀을 솔로몬 왕에게 비춰볼 때 그가 보기에 바르게 행한 길은 그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왕상 11:1) 그녀들과 연애한 것이라(2절)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하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2절)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연해했습니다(2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결국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나이 늙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좇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9-10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10절). 그는 결국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믿어서 선택한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늦게나마 깨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므로 죄를 범하였던 교만한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찢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두개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4-26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우리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우리 집은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분쟁이 있으면 온 가족 식구들은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길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잠언 1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과연 우리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길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합니다. 점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돌이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추구할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3절을 보십시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 순전하지 못하고 길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 곧, 육체의 기쁨이 있은 뒤에는 슬픔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보기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두는 것이 바르게 보여서 그녀들을 옆에 두었다가 결국 나중에 늙어서는 그녀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두었을 때 그가 얼마나 웃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엔 그녀들로 인하여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했겠는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 뒤에는 분명히 슬픔이 뒤따른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 등을 추구했었지만 결국 이 세상이 저에게 준 것은 슬픔과 눈물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 두 명이 총에 맞아 숨져서 장례를 치루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슬픔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좀 더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 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방자하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노하기도 속히 하여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한다고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조급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리석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18절). 이러한 어리석은 자는 비록 겉으로 웃고 즐거워하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마음에 근심과 슬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보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웃는 얼굴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겉으로 항상 웃는 사람들을 볼 때 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항상 웃고 있는 얼굴 뒤에는 근심의 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웃고 있는 얼굴이 빛나지 않는 지체들을 볼 때 마음에 슬픔이나 근심을 포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 뒤에는 결국 슬픔과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마음이 패려하면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 여기서 ‘마음이 패려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원래의 악습으로) 되돌아가다, 타락하다’[backslider in heart(Walvoord)]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성장이 멈춘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해 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싸인 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에 종종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살면서 거짓을 좇고 실제로 우리가 또한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이 패려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믿고 거짓을 추구하며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a false witness is deceitful)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되 만일 우리 마음이 패려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악한 계교를 꾀합니다(6:18).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남을 해할 계교를 꾸미게 됩니다(박윤선). 그리고 우리는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14:22). 만일 우리가 이렇게 악을 도모하고 악한 계교를 꾸미고 있다면 우리의 패려한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패려한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4절).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 그것을 회개치는 않고 얼마 동안 덮어 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소리치며 그 사람을 잡는 날이 온다(약 5:4; 창 4:10). 다시 말하면, 범죄자는 자기가 친히 솔선해서 자기 죄를 잡아내어 그것을 회개하므로 해결해야 된다. 그가 그리하지 않고 넘겨 버리면 그 죄가 그를 따라잡아 그에게 보복을 하고야 만다"(박윤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야 만다는 말이 한쪽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치 않은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속이고 속임을 당했던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 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 47:9). 이 야곱의 고백을 생각할 때 저는 창세기 37장 34-3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수염소의 피가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을 때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하고 요셉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패려하여 하나님을 떠나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할 때 그러한 우리의 거짓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란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고통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고통과 슬픔에 잠기지 않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패려해 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타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돌이키시사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온갖 말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경험, 지식 부족 등으로) 순진해 빠진", "(모자랄 정도로) 순진한"(naïve) 또는 "남을 잘 믿는, 잘 속아 넘어가는"(gullible)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다른 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Walvoord).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4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but the folly of fools is deception)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남을 잘 믿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온갖 말을 믿습니다(14:15). 그 한 예가 바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7장 7절부터 나오는 말로 호리는 간교한 계집에게 빠진 (5절)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입니다(7절). 그 소년은 그 간교한 계집의 떠드는 소리와(11절)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의 꾀임(21절)에 넘어가 그녀를 따르되 마치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이 했습니다(22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그는 상하여 엎드러짐과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6-27절). 우리가 너무 순진해 빠져서 남의 말을 잘 믿고 잘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마음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남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음이 고통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0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편애(favoritism)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편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약2:1; 참고: 요7:24). 그래서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2절)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면서(3절)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2절)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3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은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요(4절) 우리는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것입니다(6절).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9절).

오늘 본문 잠언 14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웃"이란 특히 20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the poor) 또는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빈곤한 자"(the needy)를 가리킵니다. 이 죄악 된 세상에서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20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21절).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31절).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부자들을 시기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but envy rots the bones)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부자들을 시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며 업신여기며 학대하는 사회에서는 평화가 있기보다 고통과 슬픔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그리할지라도 교회란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구별(차별)하여 편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편애가 있다면 가난하고 빈곤한 형제들은 미움을 받으므로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우리가 말만하고 행함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서 "입술의 말"이란 실행 없이 말만 하는 것(욥 11:2; 사 36:5)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렇게 입술로 말만하고 행동이 없는 자는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4:23). 과연 말만하고 실행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궁핍을 이룹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두 가지로 말하였습니다(박윤선): (1) 그는 육신 생활에 궁핍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는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으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수고롭게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창3:19)을 어기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벌로 궁핍해집니

다. (2)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게으른 자는 영적 생활에도 궁핍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생활이 풍부해 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를 육신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풍부함을 추구하기보다 자꾸만 궁핍함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술로 말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말만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 연약한 인간은 말하기는 속히 하는데 행동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잠언 14장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but the folly of fools yields folly).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미련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련한 자는 마음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을 하고 실행으로 즉시 옮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엎드러진다'는 말은 몰리워 간다(driven away)는 뜻으로, 강제로 끌리움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환난으로 몰리워 간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심판하시되 환난으로 그를 삼키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에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사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한 7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장막이 흥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정은 생활의 곤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1절).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한 자, 곧 진실하게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믿어 그분의 의를 받은 자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그는 장막에 거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다 집을 팔고 장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악한 자의 집은…"이라고 말한 후 정직한 자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말한 이유는 정직한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위에 것을 생각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장막은 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참고: 히 11).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천국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세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흥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과 교회를 번영케 하실 것이며 또한 안정케 하실 것입니다(Walvoord). 한 나라도 마찬 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하여 나라를 공의로 잘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의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34절). 그리할 때 그 의의 나라에는 백성이 많아질 것이요(2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높여주신다("영화롭게 하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과 안정이 있는 나라나 교회나 집에 거하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만일 우리 마음이 패려하면(14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믿고 거짓을 추구하며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뱉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속이되 만일 우리 마음이 패려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악한 계교를 꾀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남을 해할 계교를 꾸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22절). 이렇게 패려한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면(14절), 즉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영혼이 만족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철한 자"처럼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 나아갈 때(박윤선)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되 진실한 성도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함으로(25절)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만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은 자"란 참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박윤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습니다(18절하).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기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여 어리석은 자처럼 순진하여 무조건 남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남의 말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찾아 그 주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4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걷기를

원하는 길을 걷지만(8절상)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갈 길을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가 할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합니다(고전 7:17).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14장 35절 상반절을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슬기롭게(지혜롭게) 행할 때에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슬기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 또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방자하게 살아갑니다(16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떠나 살아가므로 그의 삶에는 안전감이 있습니다(26절). 오늘 본문 잠언 14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7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갈 때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2절). 즉, 우리는 죽음에도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32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악을 떠나 살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26절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9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악인과 불의자들이 선인과 의인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인과 의인이 악인과 불의자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과 불의자가 선인과 의인을 이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힘이 좋아서 선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인들이 선인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인과 의인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이긴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선인들이 악인들을 이긴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굴복한 일(창 42:6)이나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이 모세 앞에 굴복한 일(출 8:28, 9:27, 12:31-33),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한 악인들이 도리어 사자 굴에 던짐이 된 것(단 7:27),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서 하만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에 7:9-10) 등 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박윤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에게 지면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4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많은 준비를 가지고 중단됨 없이 힘써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사랑)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길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췰 때에”란 노래 1절 가사를 보십시오: “주의 사랑 비췰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췰때 기쁨 오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4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존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31절). 그 말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게 명철함(great understanding)입니다. 우리가 크게 명철할 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노하기를 더디 할 것입니다(29절). 또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히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특히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관계에서 마음에 화평을 누길 것입니다(30절).

일곱째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왕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들의 요점은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3절 상반절에서도 솔로몬 왕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하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궁핍을 이루는 반면에(23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은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히 일을 하되 특히 추수 때인 여름에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 수확한다는 말입니다(5절). (2)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11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부지런히 일을 하여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익은 먹을 것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3)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부지런한 자는 다른 이를 다스리게 되기에 그것 또한 부지런함의 이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히 수고하면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노래를 찬송하곤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그 “회개의 사죄”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다 보면 참으로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고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비춰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보기엔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을 때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추구할 때, 말만하고 행함이 없을 때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30장을 부르면서 저는 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서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슬프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실망한 이 몸 힘을 주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길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에 수고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

[잠언 15장 1-7절]

여러분, "세치 혀를 잘 놀려야 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무슨 뜻입니까? "세치의 혀"란 약 10cm 정도 길이의 혀라는 의미로서 짧은 혀로 하는 말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만큼 혀는 짧지만(3치라 표현), 혀로부터 나오는 말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혀로부터 나오는 말이 어떤 이들은 엄청난 상처와 좌절과 실망과 저주가 되고, 어떤 이들은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얻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본문 잠언 15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의 혀**"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입입니다.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의 입은 과격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경을 읽다보면 분노 속에서 과격한 말을 한 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노를 발하며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한 말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3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발하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아니 어떻게 자기의 아들에게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라고 과격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 요나단 입장에서 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일까요? 사울 왕은 분노 가운데 요나단의 어머니를 들먹여 욕하는 이런 행위는 특히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나타내는 가장 격렬한 감정의 표시였다고 합니다(인터넷). 결국 사울 왕은 분노 가운데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과격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몹시 화를 쉽게 내는 자[a man of rage(Walvoord)]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는 다툼을 일으킵니까? 그는 분노 가운데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되 과격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므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도 분을 쉽게 내는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옳은 줄 알고 떠들며 싸웁니다(박윤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노할 때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에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과격한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충분히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 말하기를 더디 해야 합니다(약 1:19).

둘째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서 '쏟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bubbles forth"(거품을 밖으로)입니다(Walvoord). 이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영어로는 "gushes"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의미는 "(액체가) 솟구치다, (액체를 갑자기) 쏟아 내다, (칭찬, 감정을 별로 진실성 없이) 마구 쏟아 내다"입니다(네이

버 사전). 무슨 뜻입니까?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서 미련한 것이 거품처럼 마구 쏟아 낸다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미련한 자는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결국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깨닫는 진리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이런 저런 말을 쏟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므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14:33).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23). 여기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미련함)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되 오늘 본문 잠언 15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입으로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27-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하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무턱대고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서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며 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로, 미련한 자의 입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패려함"이란 말이 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듣는 자를 괴롭히는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는 패려한 혀를 가지고 있고 그는 그 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되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참고: 15:13; 17:22, 18:14). 특히 미련한 자는 분노가운데 과격한 말을 함부로 하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자는 분노 가운데 자기가 입에서 쏟아내는 말로 얼마나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분노하는 순간에는 자기만 생각하지 상대방이 상처 입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아이들 둘이서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근처에 있다가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에게 "jerk"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그 jerk라

는 말은 “얼간이”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쓴 소리 한 마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 방에 가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가 왜 그리 화가 났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제가 9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어떤 흑인 여자가 저에게 “jerk”라고 불렀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그 말을 하였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생각하면 요즘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들 사용하는 말이기에 그저 별 신경 안 쓰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어 중에 ‘you stupid’(멍청한 자식, 바보 같은 자식)이 있는데 영어로 이 stupid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f’ word의 욕을 서슴없이 대화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기에 다들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쉽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blockhead”(Kittel)(돌대가리 혹은 병신)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모욕(insult)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하는 가운데 형제에게 병신이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부르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떠한지 한 4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 지혜 있는 자는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함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지라도 노하기를 더디 합니다(18절). 그러한 가운데 그는 분노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순한 대답으로 그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부드러운 말로 그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사무엘상 25장 24-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란 바로 악으로 선을 갚는(21절) 불량하고(25절) 미련한(25절) 나발이란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이 약 200명 각기 칼을 찬 사람들을 데리고(13절) 나발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고(17절)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미련한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그의 종에게 자초지종을 듣고(14-17절) "급히" 떡 이백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 등등을 나귀들에게 싣고(18절) 소년들에게 앞서가게 한 후(19절) 자기도 뒤쫓아 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20절)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4-25, 28절).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찌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찌며 또 네게 복이 있을찌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32-34절).

잠언 25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을 대합니다. 대하되 지혜 있는 자는 부드러운 혀로 상대방을 설득시켜 그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분을 쉬게 합니다. 쉬게 하되 성경 잠언 16장 14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살육의 사자와 같은 왕의 진노도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혀입니까? 우리의 혀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분노를 부드러운 말로 쉬게 하는 지혜로운 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 무슨 뜻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되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성경은 지식을 전파한다(spread knowledge)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의 눈

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귀는 지식을 구하며(18:15)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시1:2). 즉,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에 그 지식을 잘 전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자의 입술과 대조적입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지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2절하) 전파하는데(12:23) 비해 지혜 있는 자는 혀는 지식을 잘 전파합니다.

잠언 24장 5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15장 2절 상반절에 적용해 볼 때 지식을 잘 전파하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강하고 힘을 더한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육신의 강함과 힘보다 우리의 혀의 강함과 힘을 기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꾸준히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료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 여기서 "온량한 혀"란 '치유하는 혀'를 가리킵니다. 즉, 미련한 자의 입술은 과격한 말을 하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혀를 가지고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과연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므로 상처를 치료합니다(2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되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부드러운 말(유순한 대답)(1절)로 잘 말하여 상대방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치유하는 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혀는 진실하고도 화평스럽게 하는 말로서 듣는 자를 위로하며, 살려주며,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리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골 4:6)(박윤선). 성경은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듣는 자를 위로하고, 살려주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에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5:4).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기에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성경 잠언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종종 내주 하시는 성령님께서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을 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채팅으로 상담을 할 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구절을 나누게 하시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엿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그 때 그 지체에겐 적합한 말씀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잠언 15장 23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므로 기쁨을 얻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잠언 25장 11-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충고의 말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여기서 “경우”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바퀴”란 뜻입니다. 곧, 그 때 형편과 경우에 잘 조절하여 돌아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충고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잘 조절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박윤선): 충고하는 자 자신이 사랑과 화평을 지니고 있을 때에 말해야 됩니다. 능욕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의 없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할 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그 충고하는 자에게 큰 대접(“은쟁반에 금사과”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의 의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과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므로 주위 사람들이 주는 충고를 큰 대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을 함에 있어서 어쩔 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고나 심지어 책망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나 책망도 아끼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우리는 거만한 자에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에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우리를 미워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며 그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잠 9:8).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잠언 15장 1-7절 중심으로 미련한 자의 입과 지혜 있는 자의 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과격한 말을 하고, 미련한 것을 쏟으며 또한 상대방의 마

음을 상하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며, 지식을 선히 베풀며, 상대방의 상처를 치료하며 또한 때에 맞는 말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혀는 지혜 있는 자의 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혀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잠언 15장 8-33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흑백이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혜의 책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배워서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미워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란 제목을 걸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제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상태에서(사 29:13, 마 15:8, 막 7:6)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러한 제사에 대해 이사야 1장 11-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

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수한 제물과 제사들을 가증히 여기셨고 그들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견디지 못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과 모임들을 싫어하셨고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종교 예식을 철저히 행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13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행동으로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받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을 추구하고 그들의 삶은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사를 생각할 때 저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도 모르고 우리의 뜻대로 살면서 매 주일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보다 변질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복음성가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이 생각납니다. 그 노래 가사 2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한데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추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

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오늘 본문 잠언 15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입은 미련한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면서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잠언 15장 18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가족 식구이던 교회 식구이던 분을 내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났을 때 성경 마태복음 5장 24절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형제와 화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잠언 15장 8절은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악인은 아닐지라도 악인처럼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사랑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아무 회개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길을 걷는 악인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입니다(10절).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는 이익(profits)을 탐하기 때문입니다(27절).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을 걷는 악인이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는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그 탐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면서라도 크게 부하고자 합니다(16절). 그리고 그는 실제로 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비록 "살진 소"는 먹지만 서로 미워하는(17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15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지혜 있는 자가 그를 견책할지라도 그는 그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합니다(12절). 오히려 그는 지혜 있는 자의 견책을 싫어합니다(19절). 심지어 그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도 업신여깁니다(5절). 이것은 자기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들어내는 것입니다(21절).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32절). 잠언 13장 18절에서 이렇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는 궁핍과 수욕(poverty and shame)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잠언 1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악인의 집을 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15절). 그리고 그는 마음의 근심 속에서 심령이 상할 것입니다(13절). 더 나아가서, 악인은 엄한 징계를 받되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여러분, 악인은 무지하고 미련한 것을 즐기므로 바른 길을 걷기보다(21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 악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소욕을 좇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악인은 뇌물을 좋아합니다(27절). 그 길은 크게 부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번뇌가 많은 길이요(16절) 미움과(17절) 분노와 다툼(18절)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꾀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8-9절) 악인의 악한 꾀(26절) 또는 악한 계교(wicked schemes)(6:18)도 미워하십니다. 비록 악인은 자기가 계획한 악한 꾀나 계교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사(살펴 보시사) 우리의 앉고 일어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다 밝히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15장 11절에서도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악한 자는 악행하기를 꾀합니다(24:8). 그 이유는

그는 교만하고(15:25)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16, 33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꾈지라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가 우리를 꾀는 이유는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13절). 곧, 악인이 악을 꾀하는 이유는 남의 것을 탐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잠언 15장 27절 말씀처럼 악인이 악한 꾀를 내는 이유는 이익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은 뇌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인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악한 계교를 사용하여 남의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작취 하려는데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꾀를 많이 부리다보니 게을러 질 수밖에 없습니다(19절). 자기가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수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악한 꾀만 부려서 부하고자 하니 게을러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15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The way of the lazy is as a hedge of thorns)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꾀나 부리면서 게으르게 사는 악인의 삶에도 동서남북으로 가시와 같은 어려움들로 둘러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악인이 자기 악한 계교로 인하여 그의 소유가 많아지고 부해지므로 성공해 보이는 듯 해보일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성공(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 시 73). 우리는 결코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 그리고 악한 꾀를 우리 또한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8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

리는 무수한 제사(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란 바로 "올바른 자의 기도"를 말합니다(박윤선). 과연 누가 올바른 자입니까?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올바른 자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즉, 올바른 자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는 상한 심령,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오늘 본문 잠언 1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멀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멀리하시는 악인이요(29절) 악인의 제사(8절)와 악인의 길(9절)과 악한 꾀(26절)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9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길을 걷는 악인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지만(10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16,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33절)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며(17절) 노하기를 더디 하고(18절) 부지런합니다(19절).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지계를 정하시므로 말미암아(25절)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8, 21절).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으로 하여금 "위로 향한 생명 길"로 걷게 하십니다(24절). 그 의인에게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어서(31절) 훈계와 견책 받기를 좋아합니다(10, 12, 32절). 그 이유는 명철한 의인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14절). 그러므로 명철한 의인은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30절) 자기의 부모님을 즐겁게 합니다(20절). 그리고 그는 자신의 즐거운 마음으로 인하여(13, 15절) 얼굴은 빛나며(13절) 항상 잔치합니다(15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되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선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기쁘고 친절한 말입니다(박윤선).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뼈를 윤택케 하는 좋은 기별, 즉 좋은 소식(Good news)을 전합니다(15:30). 또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 말합니다(28절). 그는 함부로 분노 가운데 자기 마음에 있는 미련함과 악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순한 대답으로 자기 이웃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1절). 그리고 그는 그의 이웃에게 때에 맞은 말을 하므로 그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23절).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웃과 좋은(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경영함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의논합니다(22절). 의논하되 그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다른 사람의 이를 탐하지 않고 뇌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27절). 또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경영함에 있어서 모사를 많이 둡니다(22절). 그러므로 그의 경영하는 것이 성공합니다(22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정결한 제물처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말을 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결한 제물처럼 받아주시기에 그의 경영하는 것을 성공케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로서 나느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우리의 행사(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

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3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15장 8-3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3 가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3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과 악한 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와 의를 따라가는 자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1-3절]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 경영과 남은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박수웅 장로님은 그의 책 “박수웅의 자기 경영”에서 자기 경영과 남은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박수웅): 먼저 “2002년 자기 경영표”를 보면 자기 경영의 주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마6:35)”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영의 “목표”는 “인격과 삶과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 성령 충만의 열매를 주 하나님 안에서 이루자(살전 5:23-24, 갈 4:19, 수 14:6-15)”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경영에 있어서 “삶의 영역”과 “사역”, 이렇게 두개로 구분하였는데 삶의 영역을 보면 “영적생활”, “지적 생활”, “정서적 생활”, “건강생활”, “가정생활”, “직업”, “교회 생활” 그리고 “재정”으로 나누었고 사역의 영역을 보면 그분이 섬기고 있는 “JAMA(전 세계 예수 대각성 운동)”, “KOSTA(전 세계 유학생 수련회)”, “CCC(대학생 선교회)”, “가정 사역(Family ministry)”, “그리스도의 대사(Christ’s ambassador)”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의 삶의 영역에서의 영적생활을 보면 그는 말씀으로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QT(말씀묵상)의 생활화, 인격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Knee-mail) 나가는 것과 시편 119편 9-11절대로 내 사고를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에는 “살찌지 않도록 절제된 식생활을 지키자, 일주일에 한 번 골프로 운동하자, 규칙적인 생활로 규모 있게 살자”라고 목표를 세우셨고 “직업”에는 “병원 일은 파트타임과 시간제 근무로 바꾸자, 병원 동료들에게 양보하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자, 찬송하는 의사로 복음을 증거 하자,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록 Peacemaker(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라고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 그의 “미래 이력서”를 보면 그는 1998년(그의 나이 54세)부터 2023년(79세)까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론 그분의 연세가 지금 거의 칠순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의 60세(2004년)부터의 계획을 보면 “병원에서 은퇴하다”, “집 구매를 위한 은행 융자 완전 청산하다”, “막내아들 … 결혼으로 2남 1녀 자립시키다”, “전 세계로 사역 범위 넓히다”라고 시작해서 2006-2010년(62-66세)을 보면 “후배

들 사역 현장에 동참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충성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0대 초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충성한다는 것,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2011-2020(67-76세) 계획을 보면 "멘토로서 후배 양성하고 동역하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주님 형상 닮는 데 주력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 계획은 "생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책 발간하다", "미래 이력서에 쓴 대로 비전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리고 "천국 입성 준비하다"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미래 계획서 입니까?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오늘 이후로 우리 각자의 "자기 경영표"와 "미래 이력서"를 한번 써보면 어떨런지요?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을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경영"(the plans)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서 그 의미는 "계획들"(plans) 또는 '고려하는 것들'(considerations)란 의미로서 정돈되고 목적이 있으며 정리된 아이디어들로서 미래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plans, considerations, i.e., an orderly, purposed, arrangement of ideas with regard to future actions(Swanson)].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미래의 행동에 관한 정돈되고 목적이 있으며 정리된 아이디어들, 즉 미래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은 좀 오해 요지가 있는 성경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마음으로 미래에 관한 계획들을 세워보았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이뤄지니까 우리는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없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God's sovereignty)과 우리 인간의 책임(our responsibility)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전 어느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러한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인 전도(복음전파)와의 긴장 상태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고 누가 아닌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성경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로서 나"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경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계획들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세울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뤄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수웅 장로님처럼 자기 경영에 있어서 주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인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계획들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방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좋은 예가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므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셨는데(1절)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했습니다(6절). 그 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틀릴 확률이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서도 겉으로는 옳게(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흠 하나 없는'(flawless)라는 말입니다(Swanson). 즉, 우리 사람의 본능은 자기 보기에 자기 행위가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의 잘못(결점)을 보고 지적해도 우리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상하여 역정을 낼 정도로 자기가 잘못이 결코 없다는 것을 변호하기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셔도 우리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말 1:6-7).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6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7절). 결국,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고 주님을 더럽게 하지 않았다고 확고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할 때 저는 그 원인인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보기에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생가하든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참 위험합니다. 그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범죄를 죄를 여기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라는 식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삼상 16:7).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잠 16:2).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계획하고 있는 것들,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동기는 불순하면서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21장 2절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서 "맡기라"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굴려 버리라"(roll)는 뜻입니다. 즉, 마치 돌을 굴려 버리듯이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겨 버리라는 말입니다(Swanson).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행사를 다 맡겨 버린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시금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을 굴려 버린 후 다시금 그 돌을 찾는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을 굴려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손에 이미 그 돌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행사를 다 맡겨 버렸다는 것은 이젠 우리가 돌에서 손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버렸다고 한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다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굴려 버리다"라는 단어가 시편22편 8절과 37편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시 22:8),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37:5). 시편 기자는 '맡기라'라는 단어와 함께 '의지하라'와 '의탁하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의탁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마

음에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인 마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온전히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맡기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들을 다 맡겨 버려야 합니다(마26:39).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시 37:5).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획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 삶을 계획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계획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경영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잠언 16장 1-3절).

"Mind program"의 최동석 박사는 경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경영이란 비전/목적/방향을 먼저 정한 후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다"(인터넷).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전체가 바로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마음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 즉 정신구조(mental structure)에서 출발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건들을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패턴을 일으키도록 돕는 것이 곧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특히 경영자의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에서 바람직한 행동패턴이 나온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경영은 우리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19:21).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우리 마음에 계획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말씀입니다(21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God's sovereign will)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는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경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3:5). 결코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

다(5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6절). 하나님을 인정하되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4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우리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3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3절). 한 마디로, 마음의 경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believing heart or faith)이 있어야 합니다. 즉,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바람직한 마음 상태는 바로 신뢰함(trustfulness)입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우리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16:1). 기도로 아뢰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뤄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바람직한 마음 상태는 바로 겸손함(humility)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경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겸손한 마음(humble heart)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16:5). 그러므로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할 뿐만 아니라 많은 “모사”(many counselors)와도 “의논”(consultation)도 합니다(15:22). 다시 말하면, 겸손한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우리의 진정한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에게 상담도 받고 그들에게 지도도 구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그들의 충고와 견책도 겸손히 듣습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바람직한 마음 상태는 바로 지혜로움(wisdom)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경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지혜로운 마음(wise heart)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자기의 관점”(2절)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25절)보다 “하나님의 관점”(God’s perspective)으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2절). 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 자기의 행위가 모든 깨끗하게 보일지라도(2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속하여졌다는 사실(6절)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납니다(6절). 즉,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바람직한 마음 상태인 지혜로움에서 바람직한 행동패턴인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지혜롭게 행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7절).

마음의 경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은 주권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바른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바른 마음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삶 속에는 바른 행동패턴이 나와야 합니다. 그 바른 행동 패턴이란 한 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참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마음의 경영과 바른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신 하나님

[잠언 16장 4-9절]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일)하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Wiersbe).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여러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때를 저는 한 다섯 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태어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이란 나무로 말한다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은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들어나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주권적인 뜻을 이뤄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신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한 3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6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 있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악도 지으셨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지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시편 5편 4절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리고 악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유할 수(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도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악의 근원”(Origin of Evil)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악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악이란 누가 지으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보시기에 매우 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피조물이 선한 가운데 갑자기 뱀이라는 악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죄를 범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계에 이렇게 죄악의 세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가속화되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 등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즉, 의문은 뱀으로 등장하는 악마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 정체는 무엇인지, 이러한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신 데 악이 어떻게 발행하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인터넷). 이 대답은 우리의 지식 밖이라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한 천사가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추방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었다는 것(벧후 2:4, 유 1:6)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 떨어진 천사가 어떻게 교만해 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나온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영적 세계에서 없애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떨어진 천사인 사단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천지창조 후 에덴동산에 뱀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도록 놓아두셨을 까라는 의문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데

왜 그 악과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잠언 16장 5절을 보면 성경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악인을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잠언 1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있다고 성경에 써 잇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지으시지 않는다. 그는 악을 미워하신다(시 5:4). 악인이 악해진 것은 악인 자신이 책임을 질 일이다. 그러나 그건 어떤 사람의 악으로 기울어짐을 방임하신 것만은 확실하다. 여기에도 그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악인의 회개를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덕과, 및 그가 마침내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빛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롬 2:4-5, 9:17).”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스겔서 33장 11절이 생각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시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차적인 목적은 만일 그 교만한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을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모세 시대 때 교만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이요 교만한 바로 왕도 사용하시사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앞에서 교만한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다 전멸시키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크신 은혜와 진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잠 16: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오늘 본문 잠언 16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서로 단합하는 자도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박윤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

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시는 이유는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욘 4:2)이시기에 그분은 교만한 악인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딤전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잠언 1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신 성품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희생의 피(대속자의 피)로 속죄하는 제도(진리)의 해택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박윤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16장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한 2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8장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미워해야 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롬12:2)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잠언 16장 5-6절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뜻)은 '겸손하라'(5절), '사랑하라'(6절), '진리 가운데 거하라'(6절)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6절)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7절).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적은 소득, 불의한 사람에게는 많은 소득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6장 8절을 보십시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번째 질문 또한 우리로 하여금 퍼즐(puzzle)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적은 소득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불의한 사람에게는 많은 소득이 있도록 그냥 내어 버려두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던질 때 생각하는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 아삽이란 사람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여(3절) 자기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기 때문입니다(2절).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란 악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고난이나 재앙도 없으므로(5절) 교만하고 강포할 뿐만 아니라(6절) 특히 그들은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7절). 이렇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12절)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시편 기자 아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질시하여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소득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 않은 줄은 저나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득이 그리 많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를 소유하려면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잠 15:16) 자기의 수입에서 남들을 돕는데 많이 사용하고 축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호화롭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활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박윤선).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6장 8절에서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만을 대조할 뿐만 아니라 "의"와 "불의" 또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소득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의"가 있느냐 아니면 "불의"가 있느냐 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본능과 대조적입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소득이 많고 적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더 민감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가 물질(돈)이 많으냐 아니면 적으냐를 중요시 여기기보

다 우리에게 “의”가 있느냐 아니면 “불의”가 있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적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많은 소득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기 때문입니다(잠 13:22).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쌓아놓는 재물은 결국에 가서는 의인들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탐심으로 물질을 모으도록 내어 버려두시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의 모든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전도서 6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폐단을 보았는데(6:1) 그 폐단은 사람에게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8:6). 사람에게 무거운 그 폐단이란 하나님께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아 마음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그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수고케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재물을 모아 쌓게 하신 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모든 죄인의 재물을 주시사 누리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롬 4:25). 과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u>우리는 악인의 많은 소득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u>

악인의 많은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잠언 1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는 그 악인으로 하여금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16절). 또한 악인의 그 많은 소득은 오히려 그의 양심에 늘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딤전 6:10) 또한 그의 심령은 늘 어두워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마 6:23-24)(박윤선). 악인의 많은 소

득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Who is the LORD?)라고 말하게 만듭니다(잠30:9).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많은 소득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우리는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소득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미워하고(13:5)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19). 또한 우리의 입술은 마치 양약 같아서(12:18) 선한 말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며(25절) 또한 우리 이웃을 구원하며(6절)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26절). 또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13:4). 그리고 우리는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6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므로(13절)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15절).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지난 주 잠언 16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 아래 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는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2)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3)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 솔로몬 왕이 잠언 16장 1절에서 말한 “마음의 경영”은 우리 사람들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19:21).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우리 마음에 계획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것입니다(21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

리는 우리 인간의 책임인 마음의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을 생각할 때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그의 주권 속에서 이루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들이 이뤄지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시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책임인 마음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u>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u>

그 말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3:5). 결코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5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6절). 하나님을 인정하되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4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16:3).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3절). 한 마디로, 마음의 경영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believing heart or faith)이 있어야 합니다. 즉,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바람직한 마음 상태는 바로 신뢰함(trustfulness)입니다.

(2) <u>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 (16:1)</u>.

기도로 아뢰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뤄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마음 상태는 바로 겸손함(humility)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경영을 하는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humble heart)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

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16:5). 그러므로 겸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할 뿐만 아니라 많은 "모사"(many counselors)와도 "의논"(consultation)도 합니다(15:22). 다시 말하면,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진정한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에게 상담도 받고 그들에게 지도도 구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충고와 견책도 겸손히 듣습니다.

(3)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마음 상태는 바로 지혜로움(wisdom)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경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마음(wise heart)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관점"(2절)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25절)보다 "하나님의 관점"(God's perspective)으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2절). 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 자기의 행위가 모든 깨끗하게 보일지라도(2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속하여졌다는 사실(6절)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납니다(6절).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람직한 마음 상태인 지혜로움에서 바람직한 행동패턴인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행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7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시는 목적은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교만한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을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적은 소득, 불의한 사람에게는 많은 소득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적은 소득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불의한 사람의 많은 소득을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

라고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겸손히 그리고 지혜롭게 마음의 계획들을 세우므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

[잠언 16장 10-15절]

2012년 5월 14일 월요일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오바마는 최초의 게이대통령”이란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읽어 보니까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Newsweek)가 최근 동성결혼 지지를 선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최초의 게이 대통령”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기사 내용 중심으로 쓴 기사였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결혼을 지지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그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동성 결혼을 지지했는가 에 대한 각각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해석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 ‘역풍의 위험을 무릅쓴 소신 발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간 오바마의 국정운영에 실망해 등 돌렸던 진보적 지지층의 눈길을 다시 잡아챌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가 동성애라는 뜨거운 이슈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런 일이 결국 저와 여러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신명기 17장 18-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만일 우리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전 세계가 바라보는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공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라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보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살전 2:4)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0-15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말하되 그는 선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이란 제목 아래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 또는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고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결정이 왕의 입술에 있다’(A divine decision is in the lips of the king)이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맞습니까? 영어 성경 번역이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더 가깝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즉, 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결정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왕은 신적인 지혜가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서론에서 언급한 신명기 17장 18-20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적인 지혜가 왕의 입술에 있는 원인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의 경우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성경 시편 1편이나 119편을 쓴 것을 보면 솔로몬 왕 또한 하나님의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므로 더욱더 지혜로워 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은 우리가 신적 지혜를 얘기할 때 솔로몬 왕보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예로 드는데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14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천사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신적 지혜가 아닐까요? 이러한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1절) 드고아에 있는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2절) 그녀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준 (3절)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19절). 그러므로 다윗 왕에게 들킨 그 드고가의 슬기

있는 여인은 다윗 왕에게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20절).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천사의 지혜, 신적인 지혜를 지니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과 악을 분간”(discerning good and evil)할 수가 있었습니다(17절). 그러므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느 누구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었습니다(19절).

오늘 본문 잠언 16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신적 지혜가 있는 왕은 “재판 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적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왕은 천사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므로 재판할 때 바른(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므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이 10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솔로몬 왕이 판결내린 재판이 무엇입니까? “창기 두 계집”이 그에게 와서 (왕상 3:16) 살아 있는 한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쟁론할 때(22절)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24절)하여 “산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25절)하므로 아기의 진정한 엄마나 누구인지 분간하여 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28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판결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가 이 지혜가 있다면 동성 결혼을 지지했을까요? 이번에 CNN 인터넷 뉴스에서 기사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 진화하다가(evolve) 이러한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생각이 진화되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서 신적 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지혜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흐려진 분별력에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국인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적 지혜 곧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대통령)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2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합니다(8:13).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경계하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자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순종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릅니까?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이런 저런 비리고 부정 등으로 인하여 검찰에 불러 가고 심지어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는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서론에서 읽은 신명기 17장 18-20절에서 찾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을 범합니까? 신명기 17장 16-17절 말씀처럼 이것저것 “많이” 두고 “많이” 쌓아두는 죄를 범합니다. 특히 돈과 재물을 많이 쌓아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합니다(롬 12:2).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잠 16:12절). 오늘 본문 잠언 16장 11절을 보십시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서 “간칭”, “명칭”, “추돌들”은 다 “저울”(measures)을 가리킵니다. 저울을 가리키되 정확히 측량하는 저울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이 저울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한결 같은 저울”을 가리킵니다.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잠언 20장 10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한결 같지 않은 저울을 자기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 있습니다. 왕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공의로 바르게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는 왕은 그 나라를 굳게(견고히) 서게 한다고 오늘 본문 잠언 16장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3가지 원리를 성경 잠언에서 찾아봅니다:

(1)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합니다.

성경 잠언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대선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여기 저기 온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를 뽑아 달라고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민들에게 자기를 뽑아주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저런 일들을 그들을 위하여 하겠다고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과연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약속들을 대통령이 되어서 잘 지켜 나아갑니까? 그 정도로 진실성이 있는 공의로운 대통령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한국 대통령 선거를 TV로 보다보면 대통령 후보들은 온 나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약속을 할 때 그들은 서민들에게도 잘 다가가는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사랑하고 긍휼이 여기고 있는가 라는 의문도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왕이 인자(긍휼)만 있고 진리(약속을 지키는 진실성 곧 공의)가 없으면 백성이 문란하게 되고, 진리가 있고 인자가 없으면 너무 강경하여 백성이 감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인자와 진리, 둘 다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박윤선).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대통령이 인자와 진리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만이 인자와 진리로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2)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는 왕은 악을 제하여 버립니다.

성경 잠언 25장 5절을 보십시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는 왕은 악한 간신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자(긍휼)와 진리(공의)를 나라를 잘 다스리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까이서 일하는 신하들이 악한 간신들이 라면 그 왕과 그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만일 왕이 그 악한 간신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그들의 죄악의 결과를 자기 자신(왕)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신들을 신임하는 것은 왕으로서 어리석게 택하는 자살 행위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3)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는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여 줍니다.

성경 잠언 29장 14절을 보십시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왕이 낮아져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체휼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바로 파악하여 그들의 사건을 잘 판단해 줄 때에 그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말입니다(박윤선). 즉,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는 왕은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여 그들을 성실히 판단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고 있다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로마서 13장 1-5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선량한 시민들은 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들 위에 있는 정부의 권세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1절).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의로 나를 잘 다스리고 있으면 선량한 시민들은 정부의 권세를 거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명을 거스리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2절).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은 선을 행할 것입니다(3절). 그러나 악을 행하는 시민들은 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거스릴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4절). 즉,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보응하실 것이기에 악을 행하는 시민들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대통령)은 충신의 충고를 잘 받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잠언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인자와 진실로 나라를 잘 다스리되 특히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체휼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바로 파악하여 그들의 사건을 잘 판단해주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되 특히

자기 신하들 중에 간사한 악인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 간신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그 왕에게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은 단호하게 간신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명을 받아 주위에 간신들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민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를 쳐서 죽이고(왕상 2:25), 아도니야의 반란음모, 즉 왕 즉위식에 주동세력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를 추방하였으며(2:26-27), 자기 아버지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고(39-46절)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5절)를 죽이고 나중에 아도니야를 좇은 요압 장군을 죽였습니다(25절). 이들 중 특히 요압 장군을 죽인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이유는 요압 장군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서 도피하던 시기부저 솔로몬의 왕정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전쟁을 치룬 장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시기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인터넷). 그러한 그가 왜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권력에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민심 수습과 정치적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역사적 과도기에 아브넬 살해 사건, 아마사 살해 사건, 아도니아 반란사건 등을 일으"켜 이스라엘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은 악을 행하는 간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가운데서도 충신들을 자기 옆에 두고 그들의 충고를 잘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충신들의 입술은 "의로운 입술"이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정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잠 16:13). 이 얼마나 귀한 충실들의 입술입니까? 그들의 정직한 말은 지혜로운 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간사한 신하들은 거짓 입술로 왕에게 아부나 하므로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더 나아가서 나라를 치리함에 있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만일 왕이 미련하면 충신의 책망을 듣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 충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왕이 지혜로운 왕이라면 그 충신의 직설적인 책망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들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충신의 충고와 책망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에게 충신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왕에게 충고를 하는 이유는 그가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왕에게 충고합니다. 또한 그 충신들은 지혜로워서 왕의 진노를 쉬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진노가운데 포악한 정치

(폭정)를 하려고 할 때 지혜로운 충신은 그 왕의 진노를 쉬게 하므로 착한 정치(인정)를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충신의 충고를 들은 왕이 포악한 정치를 돌이키고(14절) 착한 정치를 하게 되므로 그 나라 백성이 대중적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15절 상반절)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해택은 팔레스틴에 곡식 열매의 성숙을 위하여 내리는 늦은 비와 같습니다(박윤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돕는 주위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야 함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가 지혜로워서 충신들의 충고도 겸허히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그의 보좌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충신들이길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고국 한국의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금년 12월 19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금년 11월 6일 화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과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인터넷).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뽑는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통령이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신적 지혜를 주시사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충신의 충고를 겸손히 잘 듣고 나라를 잘 치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정직한 사람의 대로

[잠언 16장 16-24절]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저는 "축복의 사람"이란 복음 성가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운전하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함께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 노래 1절 가사 앞부분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 여기서 "시온의 대로"란 시온성(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있는 큰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 내용은 시편 84편 5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다는 말은 그는 예루살렘 성전 가기를 심히 사모하여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말입니다(1-4절). 사모하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모하여 그의 신체까지 쇠약해졌습니다(2절).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말미암아 서글픈 자신의 신세를 아프게 한탄하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으로 갈 수 있기를 애원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그 당시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가보려는 경영과 노력에는 '눈물 골짜기' 같은 고통과 난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통과하면 그 끝에 '많은 샘의 곳', 곧 심령의 안위와 희열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른 비' 같은 천래의 은사를 받으며 하나님을 뵈옵는 일을 영적으로 체험했다고 합니다(박윤선). 이 시온의 대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참된 시온성인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6장 17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정직한 사람의 대로**"란 제목 아래 정직한 사람의 대로에 대해서 한 2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 악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 악을 떠난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이미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묵상한 잠언 16장 12절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잠언 16장 17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6장 6절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단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성경구절들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잠언 8장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결국 오늘 본문 잠언 16장 17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 악을 떠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 주 묵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근거해서 다시 말한다면, 마음의 대로가 있는 정직한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 줄 아는 사람이다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그 지혜를 얻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납니다. 그러면 마음의 대로가 있는 정직한 사람이 떠나는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8-19절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 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의 대로가 있는 정직한 사람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는데 특히 교만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만을 떠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직한 자는 잠언 16장 5절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 한 가지 마음이 대로가 있는 정직한 사람이 떠나는 악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잠언 15장 19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꾀를 많이 부리다보니 게을러서 땀을 흘리며 수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악한 꾀나 부리면서 게으르게 사는 악인의 삶에는 동서남북으로 가시와 같은 어려움들로 들러 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사람의 길은 잘 닦여진 대로처럼 평탄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좇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을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모든 악을 다 미워하고 떠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멀리 뵈는 우리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성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란 노래가 생각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라/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 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마지막 둘째로, 마음의 대로가 있는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지킵니다.

성경 잠언 16장 17절을 보십시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정직한 사람, 즉 진실한 신자는 죄의 유혹을 받을 즈음에 거기 빠지지 않고 용감히 그 죄의 유혹을 떠납니다(박윤선). 어떻게 진실한 성도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진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21-23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19절).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순종하여 자기의 길을 신실하게 잘 지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절). 그러기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존중시하여 그것을 잘 살펴보고 따라갑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그는 죄의 유혹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악을 떠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19편 9-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께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그 말씀을 따라 삼가는 시편 기자처럼 오늘 본문 잠언 16장 20절에 나오는 잠언 기자도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므로 죄의 유혹을 용감히 뿌리치고 떠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주의하여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겸손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되 그 길을 잘 지킵니다. 결코 그는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입을 잘 지켜(23절) 그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입을 슬기롭게 하여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합니다(23절). 23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즉,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지혜로워서 자기의 입술을 지키되 그 입술을 통하여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21절, 23절). 어떻게 다른 이들의 학식을 더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선한 말"로 가능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은 꿀 송이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정직한(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로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떠나되 특히 교만과 게으름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삼가 주님의 말씀의 주의하여 악을 떠나 우리 자신의 길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

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의 입을 슬기롭게 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한 말로 남의 학식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람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를 독촉하는 것들

[잠언 16장 25-30절]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음 3가지 가정을 세우고 동기부여론(Motivation Theory)을 개발하였습니다. 첫째 가정은,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은, 인간의 행동은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정은, 인간의 욕구는 기본 욕구(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에서부터 상위욕구(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이 메스로우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는 일종의 동기이론인데 밑에와 같습니다: (1) 생리적 욕구: 기아를 면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로서,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에 관한 욕구에서 성적 욕구까지를 포함합니다. (2) 안전 욕구: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에 나타나는 욕구로서 위험, 위협,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3) 애정/소속 욕구: 가족, 친구, 친척 등과 친교를 맺고,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귀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4) 존경 욕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5) 자아실현 욕구: 계속적인 자기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둔 욕구입니다. 다른 욕구와는 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 '성장욕구'라고 하기도합니다. 알고 이해하려는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인터넷). 저는 이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들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2가지 욕구들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2가지 욕구들이란 육체적 욕구와 영적 욕구입니다. 여기서 육체적 욕구란 메스로의 첫 번째 욕구인 생리적 욕구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우리의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식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달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또 다른 욕구를 바로 영적 욕구입니다. 이 영적 욕구를 2가지로 간략하게 구분을 한다면 의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와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6장 26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 욕구에 대해서 언급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독촉하는 것은 배고픔(hunger)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노동의 대가로 먹습니다(시128:2).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창 3:19). 그러므로 성경은 노동하지 않는 자를 규모 없는 자(불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살후 3:11). 그리고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놀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창 6:5). 그 결과 우리는 범죄 할 위험이 많습니다. “마귀는 게으른 자의 마음속의 둥지를 튼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노동해야 됩니다(박윤선). 여러분, 노동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악시 하면서 부지런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10:4-5; 12:24; 14:23, 28:19). 부지런히 일하되 노력하는 노동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식욕을 인하여”) 애를 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말은 자기의 식생활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식생활을 위하여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자신의 배고픔이 자기를 독촉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본능은 배가 고프면 당연히 식욕을 만족시키고자 음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다면 음식을 사고자 돈을 벌고자 애씁니다. 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음식을 사겠지만 어떤 이들은 돈을 구걸해서라도 음식을 사 먹습니다.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 신호등 앞에서 플랫 카드를 들고 서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플랫 카드에 쓰여 있는 글이 바로 ‘I am hungry’(나는 배가 고픔니다)입니다. 심지어 잠언 6잗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기의 굶주리는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고픔은 우리를 독촉하여 우리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육체적 욕구인 식욕을 생각할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리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로 하여금 배가 고프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신(요 6:33)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35절)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주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28절)고 물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29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육신의 배고픔이 우리를 독촉하여 일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적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여서 만족하여 믿음이 자라나 보는데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고후 5:7). 믿음으로 살아가되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마 6:25, 31)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33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욕구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욕구인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란 바로 자기기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우리 주위 사람들이(특히 신앙의 선배님들이) 보기엔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자기기만으로 인하여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기만에 빠지기 쉬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박윤선): (1)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 행동이 옳은 줄 압니다. (2)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종교의식을 철저히 행하므로 자기 의(self-righteousness)와 자기 공로에 의지하여 자기 영광을 나타내며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자기 행위가 옳은 줄 믿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말은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행동은 바르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

노라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은 이미 흐려져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기만 가운데 선택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대가는 "사망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국 속담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조심하여 실수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인터넷). 이 속담을 오늘 본문 25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해 보는 조심하여 실수 없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다고 믿을지라도 다시 한 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 길을 선택한 우리 자신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율법주의자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아닌지 자아성찰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그 길이 바르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한번 쯤 다시 생각해 보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란 바로 악함입니다.

여기서 "악함"이란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욕구란 불량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7절을 보십시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기서 "불량한 자"(a scoundrel)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악마의 사람"(a man of belial)입니다(6:12). 사람이 불량하다는 말은 곧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요 사악한 사람(worthless and wicked)을 가리킵니다(Walvoord). 이 불량한 자가 하는 일은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냥꾼이 웅덩이를 파서 먹이를 잡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웅덩이"(pit)를 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함정에 빠져 넘어트리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케 합니다. 특히 이 불량한

사람은 맹렬한 불같은 입술로 우리를 넘어트리려고 노력한다고 오늘 본문 잠언 16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쓸모없는 말, 사악한 말을 하게 하므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케 하고 우리 이웃에게 죄를 범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입술로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욥 2:10).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욥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1:22).

(2)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욕구란 패려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8절과 30절을 보십시오: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패려한 자"란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박윤선). 이러한 자는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므로 다툼을 일으킵니다(6:14). 그러한 패련한 자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계획을 강구하기 위하여 눈을 감을 뿐만 아니라 입술을 닫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을 감는 이유는 악한 계획을 강구하기 위해서요 그가 입술을 닫는 이유는 악한 계획을 결단성 있게 또는 힘 있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박윤선). 이러한 패련한 자는 잠언 6장 19절을 보면 거짓을 말하여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16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패련한 자는 거짓말과 수군수군하므로 형제 사이나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간질 시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기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켜 다투게 만들고 결국에서 멀리하게 만들어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패역을 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나 악을 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 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하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도모해야 합니다.

(3)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욕구란 강포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9절을 보십시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

로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강포한 사람"이란 남을 해롭게 하는 악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불선한 길" 곧, 멸망의 길로 유혹하여 이끌어 갑니다(박윤선).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강포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7장에서 우리는 말로 호리는 음녀(5절), 간교한 계집(10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소년(7절)을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어서(21절) 결국에는 그 소년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23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사단은 오늘도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여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케 하려고 사단은 부지런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욕구와 영적 욕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독촉하는 육체적 욕구인 배고픔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욕구를 영적 화하여 우리의 영적 식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케 만들고자 독촉하는 자기기만과 악함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존경 받을 만한 사람들

[잠언 16장 31-33절]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시사저널”에서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총 30개 분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한 글과 사진들이 있어 좀 읽어보았습니다(인터넷). 정치에는 박근혜 의원, 기업에서는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 IT에서는 안철수 연구소 이사회 의장인 안철수씨, 그리고 금융에서는 버크셔헤더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제 1위는 순복음 교회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님, 2위로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한음 목사님, 3위에는 명성 교회 담임 목사인 김삼환 목사님, 4위로는 고 한경직 목사님, 5위로는 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하네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읽으면서 한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 받는 분들 성함을 보니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소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존경 대상에 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는 그저 설문조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든 생각은 가장 존경받는다고 조사된 순복음 교회 원로 목사님은 지금 인터넷 기독교 뉴스에 이런 저런 문제로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때 한 때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분이 지금은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성경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왜 존경을 받았을까 하고 인터넷 성경책을 찾아보았을 때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란 바로 에스더 10장 3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개란 인물과 사무엘상 9장 6절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은 모르드개란 인물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더 10장 3절을 보십시오: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성경은 모르드개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크게 존경을 받았

을까요? 그는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을 안위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모르드개가 유다 백성들 중에 크게 존경을 받은 이유는 그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였기에 모르드개는 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그들을 안위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였습니다. 왜 그가 존경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대답을 사무엘상 12장 2-4절을 좀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 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같은 12장 23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 그는 기도의 사람 이였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잠언 16장 31-33절을 보면 존경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한 3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은 평생 의로운 길을 걸어온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1절을 보십시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카락 염색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일 나이가 더 들면서 하얀 머리카락이 더 많아지되 머리 한 부분에만 하얀 머리카락이 많고 다른 부분은 지금처럼 시커멓게 되면 염색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머리카락이 백발이 된다고 해도 저는 염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

유는 잠언 20장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이 백발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저는 제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어도 염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인 “백발”이란 단순히 외부적인 하얀 머리카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저는 노인들의 백발을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어느 어르신들은 ‘목사님도 늙어보세요’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늙으면 주로 어르신들이 늙는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오히려 젊음을 더 좋아하기에 젊은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세월, 젊음도 다 한 때이기에 어느 누구다 다 빼놓을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늙어가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1절에서 솔로몬 왕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귀한 교훈이란 우리는 의로운 삶(a righteous life)을 살면서 늙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면서 늙어가므로 노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면류관”이란 말은 사람의 장수한 것이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가 늙어서 백발이 된 어르신들 중 특히 우리가 볼 때에도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야, 참 저분은 존경스러운 어르신이야’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르신들이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이 안가는 백발의 노인들이 있는데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 아직도 죄악 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존경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도 참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고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절로 그 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특히 그 분들의 성품이 성화된 모습을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1절에서 솔로몬 왕은 평생 나이가 늙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의로운 길을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걸어가는 노인들은 마땅히 존경 받을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10:27). 장수의 축복을 받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니(고전 13:6), 그 심신이 평안합니다(잠 3:2). 따라서 그들은 육신 생명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되어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바로 “영화

의 면류관"입니다. 그는 나이가 늙어 백발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경 받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2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느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니까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우울과 분노라고 합니다(인터넷). 우울증이 불행의 내적 표현이라면 분노는 불행의 외적 표현으로서 우울증은 자신을 파괴한다면 분노는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우울증" 하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울증의 위험을 인식하는 반면에 분노에 대해선 우리는 그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문화는 분노에 대해선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뒤끝만 없다면" 화를 가끔 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이 뒤끝 있는 사람은 화를 가끔 내는 것조차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에서는 분노를 중요한 감정적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분노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anger management"(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입니다. 그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 테크닉을 좀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분노가 무엇인가를 정의하여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과연 "분노"가 무엇입니까? "분노"란 한자로 '분할 분' 자에 '성낼 노'자를 쓰는데 "분할 분"자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혹은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거나 뭉쳐 있는 것이 일시에 솟아오른다'는 뜻이고 "성낼 노"자는 음을 나타내는 노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라는 뜻이 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따른 "분노"의 정의는 "자신의 욕구, 요구 혹 뜻하는 바가 막히거나 거부당했을 경우 마음과 생각에 있던 것들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인터넷). 흥미로운 정의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구나 요구나 뜻하는 바가 막히거나 거부당했을 때 울컥 치솟아 오르는 분노의 감정, 참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정의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욕구나 요구나 뜻하는 바가 거부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때 마음에 뭉쳐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분노가운데 윽박을 지르고 물건들을 내어 던지고 폭행까지 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분노의 감정,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노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1) 첫째는 가벼운 '짜증(irritation)'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불쾌감' 정도로서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단계입니다. (2) 두 번째는 '분개(indignation)'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앙갚음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만, 대개의 경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극복해냅니다. (3) 세 번째는 '격분(wrath)'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이 격분의 단계에 이르면 보복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 있을 때는 당한 대로 갚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형태로든 분을 풀어야 편안해 지는 단계입니다. (4) 네 번째는 '격노(fury)'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격노(激怒)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급기야 그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5) 다섯 번째는 '광분(rage)'의 단계입니다. 이 광분(狂奔)의 단계는 말 그대로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스런 분노로서 아주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이 다섯 단계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분노까지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짜증은 다 내보았을 것입니다. 분개와 격분, 아마 격노까지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잠언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되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잠 16:32).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열매 중 "절제"(self-control)입니다(갈 5: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분노의 감정(feeling)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사실(fact)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도록 역사,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분노를 억제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29:11).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정복하는 지혜로운 자가 한 성을 정복하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16:32).

마지막 셋째로,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옛날 성경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인도하심)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가가 타고 있던 배가 하나님이 내리신 대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 사공들이 각자의 우상 신에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책임을 묻고자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욘1:1-7). 제비를 뽑는 행동은 그 옛 시대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잘못인지 죄를 발견하는 것이요(삼상 14:41-42), 둘째는 신적 인도(에 3:7; 잠16:33)입니다. 여기서 이방인 사공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는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죄를 발견하는 것. 또 다른 좋은 예는 신약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 나머지 열 한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 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함에 있어서(행1:22)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맛디아였습니다(23절). 그 때 열 한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24-25절)라고 한 후 제비를 뽑았는데 맛디아가 뽑혔습니다(26절). 그래서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되었습니다(26절). 이렇게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인도하심)을 알던 그 시대에는 제비는 사람들이 뽑아도 그 참된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박윤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 교회 시대에는 제비뽑기란 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시 119:105)(박윤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준다는 말입니다(MacDonald).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 최고의 예(supreme example)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이십니다(마 26:39).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면 저는 특히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가 생각납니다. 이 찬송가의 해설을 보면 작사 작곡한 루터교 목사인 Benjamin Schmolck(1672-1737)은 참으로 작은 예수의 삶, 참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반개혁파 세력으로 인하여 루터교회들은 카톡릭에 다 흡수되고, 시내에는 금지되어 성 밖에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종탑도 없고 통나무 움막에 흙벽의 초라한 교회 한 곳, 그것도 로마 가톨릭 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환자 방문도 장례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루터 교회에 시무하던 중이었습니다. 3명의 동역자가 36개 마을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을 목회해야 했습니다. B. Schmolck는 과로로 쓰러졌고 중풍으로 와병 신세가 되었고 회복된 후에도 오른손이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었으며, 백내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목양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심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완전히 소실된 집과 화마에 아들 형제까지 잃어버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때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에서 이 유명한 찬송시를 낳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고통에서 탈출하고 싶은 심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고뇌의 일단을 피력하셨습니다.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에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복종하는 실천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B. Schmolck는 작은 예수의 삶, 제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할 때에도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의 결정이 바로 이 찬송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에서 투영됩니다(인터넷).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 주여 뜻대로”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존경의 대상이 결핍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점점 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존경의 대상을 찾아 볼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부모님

이나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주님가신 길, 그 한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노하기를 속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경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목한 가정

[잠언 17장 1, 9-10, 13-14절]

여러분, 직장인들의 인생 최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직장인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8.7%가 '인생의 최종목표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으며 그 1위는 화목한 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최종목표 1위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27.4%, '창업' 16.0%이었으며 이외에도 '세계일주' 9.0%, '내 집 마련' 8.5%, '이직' 4.2%, '종교귀의' 0.9%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복수응답)으로는 '열심히 일을 한다'가 60.4%를 차지했다고 함. 이어 '돈을 많이 모은다' 45.8%, '인맥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 34.4%,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31.1%, '재테크를 한다' 26.4% 순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72.2%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8.5%,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7.1%,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6.6%,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2.4%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풍부하면서 가족 식구끼리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가족식구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남은 것을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레 7:16; 19:6; 삼상9:24).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즐겁게 먹어야 할 그 자리에서까지 서로 다투는 가족은 불만이 심각한 가정입니다(박윤선).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을 드린 후 남은 돈 때문에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다툰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화목함은 풍부함과 궁핍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 리고 제 개인적 생각은 다툼의 원인이 꼭 풍부해서 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지를 한 4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서로의 허물을 거듭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잠언 17장 9절을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제가 지난주에 제 개인 페이스 북에다가 이러한 토론 주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왜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기가 두려운(힘든) 것입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신뢰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큰 상처를 받거든요. 온전히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 말처럼 기도제목을 내 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거듭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거듭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의 기도 제목을 거듭 말하게 되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6장 28절 말씀처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여 다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보면 왜 서로 다툽니까? 거짓말쟁이인 사단이 우리 부부 관계를 이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단은 우리 부부 관계를 이간합니까? 바로 거짓말로 이간하되 특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허물을 더욱더 잘 보게 하고 그 허물을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말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하므로 부부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또한 다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데(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단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우리 생각에 기록해 놓게 만들어서 그 잘못한 것들을 서로에게 말하게 만들되 거듭 말하게 만들므로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과 불화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 왕이 잠언 18장 8절에서 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5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되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또한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엡 4:3).

둘째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충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서로의 충고를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7장 10절을 보십시오: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서로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므로 감정이 상하여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자녀들이 서로 다투도록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녀들이 미련하여 책망을 해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로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의 충고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얼마나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의 엉덩이나 종아리를 매 백대로 때린다면 우리 자녀들의 엉덩이나 종아리에 얼마나 큰 자국들이 배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거만하여(잠9:7) 자기의 잘못에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에게 충고 한 마디 한다면 외적으로는 몸에 배기는 자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의 마음에는 우리 부모의 충고가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성경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닭이 울고(눅 22:60)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날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61-62절). 닭이 울고 주님이 쳐다보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니 이 얼마나 총명한 자입니까? 이렇게 총명한 자들은 매 백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그의 말씀 충고(책망) 한 마디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이러한 총명이 우리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명한 자, 즉 깨닫는 자는 한 마디의 충고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적어 놓은 책인 논어에 보면 “문일지십”이란 사자성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자성어의 뜻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뜻으로 보통 영재나 천재들처럼 하나만 알려줘도 열 가지를 깨우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인터넷). 한 마디 충고를 해도 잘 깨달고 그 충고를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옳은 길)을 걸어갈 때 어찌 우리 가정이, 어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화목한 가정은 악으로 선을 갚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선으로 선을 갚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므로 그 가정에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악으로 선을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와 그의 나라에 충성하고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므로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처럼 다말을 강간하였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가족적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끔직한 가족적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한 결과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가족적 재앙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끝이

지 않고 있습니다. 깨짐과 다침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현대 가정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가정에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가정,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결국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힐 때 성경은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mp3로 성경을 듣다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잠시나마 묵상할 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동일하게 말하면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롬 12:21). 우리는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므로 고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선을 행하나 상대방이 악으로 갚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외롭지만(시 35:12)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살후 3:13).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가정에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시 34:14).

넷째로, 화목한 가정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잠언 17장 14절을 보십시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에 주로 무슨 일로 다툽니까? 큰 일 때문에 다툽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일로 다툽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사자성어 한 3가지를 나눕니다(인터넷): (1) 百年偕老(백년해로) : 부부가 되어 서로 사이좋고 화목하게 함께 늙다, (2) 偕老同穴(해로동혈) : 부부가 화목하

여,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힘. 부부사이의 화목함, (3) 蝸角之爭(와각지쟁) : 달팽이의 뿔 위에서 하는 싸움. 매우 사소한 일로 다툼. 작은 나라끼리 싸움. 이 외각지쟁이라는 사자성어의 배경 이야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위나라 혜왕(재위 기원전 369~기원전 319)이 제나라 위왕(재위 기원전 356~기원전 320)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 뒤 위왕이 약속을 어겨서,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했다. 혜왕의 신하 공손연이 이 말을 듣고 당당히 군대를 파견하여 쳐야 한다 하고, 계자는 군대를 보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혜왕은 머뭇거렸다. 이를 본 대진인이 혜왕에게 “달팽이 왼쪽 뿔에는 촉나라가, 오른쪽 뿔에는 만나라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두 나라가 땅을 뺏으려고 싸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 만 명이었고, 도망치는 적군을 쫓아 보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라고 하니까, 혜왕이 “뭐야, 함부로 씨불이(지껄이기) 아니냐”고 하자, 대진인이 말을 이었다. “예, 그 ‘함부로 씨불이’의 알맹이를 보여 드리지요. 끝없는 우주 안의 나라들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나라 중에 위나라가 있고, 위나라 안에 서울이 있고, 그 서울 안에 임금님이 계십니다. 임금님과 달팽이 뿔 위의 나라와 얼마나 다를까요”(인터넷). 결국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원인이 매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7장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Starting a quarrel is like breaching a dam)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라스베이거스 근처에 있는 후버 댐 가보셨습니까? 만일 가보셨다면 그 후버 댐에 아주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하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버 댐 위에서 구경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댐에 지극히 작은 구멍이 있어서 물이 아주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후버 댐 위에 서서 계속해서 구경을 할 수 있겠는지요? 비록 물이 조금씩 흘러나올 정도의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아마 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피신하라고 하고 아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사자성어 “水滴穿石(수적천석)”가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뜻은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돌에 구멍을 뚫는다”(인터넷). 비록 큰 댐에 지극히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그냥 방관해 놓으면 그 댐이 무너지므로 큰 피해를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잠 17:14). 그런데 주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시비를 그쳐야 하는데 왜 우리는 시비를 그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작은 일로 시작한 싸움이 점점 확대되어 더 큰 싸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싸우는 정욕”(your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때

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싸우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정욕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잠언 17장 19절 말씀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He who loves a quarrel)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loves sin)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7:19). 결국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원인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이요 그 정욕에는 우리 각자가 “욕심”(You want something)을 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약 4:2).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서로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욕심이 있는 그 원하는 욕심이 만족되지 못할 때, 즉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하는 것(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싸움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몽골 선교사인 이용규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을 알고 계시죠? 그 후에 쓴 책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명문대 하바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도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가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강조한 것은 그러한 학벌이나 세속적인 영광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을 내려놓음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이용규).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내용 중 이러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울고 있는 아이다. 이 아이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속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우 리는 우리 속에 어린 아이가 있는지 모른 채 그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만 안정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게 된다. 그만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모습에서 향유 옥합을 본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를 놀라움 가운데로 몰아가며 내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그런데 옥합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드려졌지만,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채로 남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 말씀에서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를 보게 되었다. 예수의 발 앞까지는 갔지만 정작 깨어져야 할 때 깨어지지 않으려는 나의 자존심을 본 것이다. 존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에서 깊은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나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봅니다. 저의 옥합을 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드려졌어도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를 발할 수 없다. 옥합이 깨어져 안에 있는 향유가 다 흘러나올 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용규).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라 위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 커녕 감격하여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 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남을 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화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동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족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서로 이해, 용서, 위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17장 2, 6-7, 17, 21, 25절]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를 보니까 “자녀 양육의 방법보다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제목 아래 글이 있어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글 내용은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 원칙”이란 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인터넷). 이 책에서 저자(정정숙)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잘 배워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 방법론이나 스킬보다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훈련함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와 훈련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한 8가지되는 것 같은데 그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모범을 통한 교육과 즐거운 가족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가치를 더욱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양육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전 보다 더 생각하게 되고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 잠언 17장 2절에서 솔로몬 왕은 슬기로운 종, 즉 지혜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잘 다스리므로 그 아들의 형제처럼 유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대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주인에게 유업을 나눠 얻는다는 말을 지금 솔로몬 왕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그의 주인에게 아들처럼 유업을 나눠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종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종(또는 슬기로운 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지혜"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란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 19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7:2). 그 좋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17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주인의 아들처럼 자기도 유업을 나눠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요 그 어미의 고통이라고 잠언 1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므로 그의 아버지의 근심이요 그의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미련한 자를 낳는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또한 미려한 자식을 둔 아버지는 낙이 없다(the father of a fool has no jo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미련한 자"란 히브리 원어는 '이해가 느리고/둔하고'(dull), '우둔한/멍청한'(thickheaded)라는 의미며 두 번째 "미련한 자"란 단어는 '영적 통찰력과 예민함이 부족함'(one who lacks spiritual perception and sensitivity)을 뜻합니다(Walvoord). 즉, 미련한 자식은 둔하고 멍청할 뿐만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예민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므로 부끄러운 짓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근심이요 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근심과 고통이 되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삶의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는 먼저 우리 부모가 적어도 한 3가지를 충실해가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16:20).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합니다(10:8).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9:9). (2)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4장 7절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7절). 만일 우리가 미련한 자를 떠나지 않고 사귀게 되면 우리는 해(고통)를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13:20). (3)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달아 갈 때 우리는 더욱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6절을 보십시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여기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은 좁게 해석한다면 손자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기쁨과 위엄(joy and dignity)을 준다는 말입니다(Walvoord).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한다면 후손들은 조상에게 면류관이란 뜻으로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수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신앙과 경건한 영향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므로 나타나되 그것이 자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MacArthur).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살 때에 그 부친에게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 때에 그 선조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길을

걷다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참고: 16:31)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우리가 걸어온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겠습니까. 물론 자녀 양육 우리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생산될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본도 제대로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은, 부모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도 그들이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다"(박윤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본받아 올바르게 살아만 간다면 이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시는(가셨던) 이러한 부모님이 계시다면(계셨다면) 오늘 성경 잠언 17장 6절 하반절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은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삼 세대가 등장하는데 손자는 할아버지의 기쁨과 영광("면류관")이고 아버지는 그 자녀의 자랑스러움(pride)이리는 사실이 흥미롭고 참 귀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고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는 가정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손자)의 관계,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삼 세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므로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니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엡 6:4).

셋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친구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저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겠지만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대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대학교에 가서 좋은 교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지만 좋은 룸메이트,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신앙 좋은 친구들을 만나므로 우리 교회 대학생들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7절 상반절에서 솔로몬 왕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친구의 사랑이 더욱더 빛을 발함을 말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을 보십시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이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이러한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이러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므로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구 사랑 외에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 우애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한 혈통에 속한 형제들은 환란 때에 자발적으로 서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박윤선).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들끼리 자발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 부모가 양육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도 귀하지만 특히 어렵고 힘들 때 형제들끼리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는다는 것은 참 귀한 형제 우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위급할 때 서로 돕고 사랑하므로 그들에게 형제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넓게 높게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7장 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한 3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3)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친구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하여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

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잠언 17장 3-5, 7-8, 20, 23절]

어제 화요일 새벽기도회 때 이사야 41장 10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운 상황에 쳐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러한 상황에 쳐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접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하며 둘째로 그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에 성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하는 두려운 상황들,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단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한 3가지로 잠언 17장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성경 잠언 17장 4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나 공통점은 둘 다 사악하고 악한 말에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악한 말’이란 수군수군이나 악한 계획이나 거짓이나 중상모략을 꾸미는 악한 말(대화)를 가리키며 ‘악한 말’이란 악행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망치고 파괴하려는 말을 가리킵니다(Walvoord).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

는 자는 자기의 입술로 사악하고 악한 말을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친구 요나답의 말을 따라갔다가 죄를 범한 사실입니다(박윤선). 암논이 처녀인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인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걸려 있을 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삼하 13:1-3): "침상에 누워 병든체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5절). 암논은 이 말을 듣고 일부러 누워 병든체하고 있을 때 자기의 부친 다윗 왕이 찾아왔고 그는 다윗 왕에게 자기 누이 다말로 와서 자기 보는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자기에게 먹여 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6절). 다윗 왕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결국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러 그 오라비 암논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이려다가 결국 그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14절). 또 다른 예는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은 사실입니다(사 30:9-11; 렘 38:1-6)(박윤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바르게 예언하였습니다(렘38:3).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실 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유대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사 30:9). 그래서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10절)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무수한 거짓말을 뱉고 있습니다(잠 14:5). 그들은 거짓 증인들이기에 거짓말을 뱉어 어떻게 해서는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7장 20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 이유는 그들은 마음이 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 증인들의 마음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요 8:44)은 지금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내뱉게 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하여금 교회 지도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케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7절을 보십시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란 지도자를 가리킨다(잠 8:16). 지도자라고 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니 만큼 그에게는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의 기대에 어긋난다. 그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박윤선). 지금 우리 많은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진실을 숨기고자 거짓말을 하며 거짓 행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삶, 거짓된 신앙,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잠언 17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 마음의 불순물인 거짓을 다 제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도가니가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므로 은이나 금의 불순물을 갈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불순물이 거짓을 갈라내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리가 아닌 거짓이 붙어(섞여) 있는 것을 갈라내어 없애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요 8:32) 또한 그 진리를 순종케 하시므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계십니다(벧전 1:22).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 된 마음과 진실 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으로 세우시사 사람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고 계십니다(잠 14:25).

둘째로, 하나님은 재앙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성경 잠언 17장 5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4장 21절과 31절을 보면 성경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21절)이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31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어기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곧 그 가난한 자를 지은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잠언 2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요 원수까지 사랑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궁핍(빈곤, 가난)을 통하셔서도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핍함과 재앙을 연결해서 잠언 17장 5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

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지지난 주 수요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전도서 5장 13-16절 말씀에서 "재난"을 당하므로 재물을 다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풍부할지라도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란 사람처럼 우리도 재앙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 궁핍케 됨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궁핍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십니까? 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리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궁핍함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마음으로 깨닫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진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며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뇌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성경 잠언 17장 8절을 보십시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이 무엇입니까? 한 성경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뇌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주는 부정한 재물이다"(인터넷). 모세의 율법에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출 23:8).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므로(신 10:17, 대하 19:7), 그의 백성 역시 뇌물을 받아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전 7:7). 특히 재판관에게는 엄히 경계되었습니다(대하 19:7). 뇌물은 결과적으로 정의를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삼상 8:3; 잠 17:23)(인터넷). 잠언 17장 2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잠언 1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뇌물"하면 생각나는 것은 한국 뉴스에 자주 뇌물을 받아 검찰에 수사를 받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게 뇌물을 받아 감옥에 간 정치인들이 많은데 또 뇌물을 받아 검찰에 조사받는 정치인들을 보면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잠언 15장 27절의 말씀처럼 이익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아 가진 자는 그 뇌물이 지기 보기엔 보석 같아 자기의 탐심을 만족케 하는 것 같으므로 부탁 받은 일을 힘껏 성사시키려고 하겠지만 그 결과는 그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욥 36:18)(박윤선).

여러분, 이러한 뇌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뇌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공의를 가르쳐 주고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로운 마음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뇌물이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뇌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는 자가 비록 처음엔 그 뇌물이 보석같이 보일지라도 그는 뇌물과 탐심으로 인하여 심령의 근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받은 뇌물로 인하여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로 인하여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마 13:22)(박윤선). 그러나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한 분 만으로 자족하는 자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석같이 여기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뇌물을 통하여 마음의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을 받는다" 또는 "단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성경 욥기 23장 10절이 생각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나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기가 정금 같이 나올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17장 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말 하는 자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사 우리 마음의 모든 불순물인 거짓을 다 제거하시고 진실 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뇌물로 우리 마음은 연단하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이 배움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에 거짓말하는 자와 재앙과 뇌물을 접하게 될 때 실천에 옮기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연단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

[잠언 17장 11-13절]

혹시 여러분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에 의하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적 반항 장애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떼쓰기 또는 뗑깡 부리기(temper tantrums)가 자주 나타남, (2) 어른과 지나칠 정도로 심한 말싸움을 하거나 자기주장을 함, (3) 어른들의 요구나 규칙을 따르는 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함, (4) 일부러 다른 사람을 짜증나고 화나게 부추김, (5)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림, (6)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과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냄, (7) 자주 화를 내고 원한을 가짐, (8) 화가 나면 버릇없고 싫은 말을 함, (9) 앙갚음을 하려고 함(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7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A rebellious man seeks only evil)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역”이란 무엇입니까? 반역이란 권위 있는 사람에게 불순종이나 반대나 혹은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act or state of disobedience, opposition, or resistance to one in authority(Swanson)].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에게 불순종이나 반대나 저항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신명기 31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 말씀은 모세가 120세에 온 이스라엘에게 베푼(1-2절)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24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한 말로서 모세는 하나님을 거듭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거역할 것을 알고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신명기 31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

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좇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목격하였습니까? 그러기에 모세는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27절). 패역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 잠언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잠언 17장 11-13절은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Swanson):

첫째로,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는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1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성경은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역만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God's messenger)를 보내시사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그 반역만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역하되 반역만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 받기를 거부하므로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Walvoord). 왜 반역에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 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굽은 자이며 혀도 패역하여 결국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잠언 17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있지만 악인(죄인)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13:2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역만 힘쓰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강퍅케 해서는 아니 됩니다(28:14).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렘 17:17).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삼하 22:19).

둘째로,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는 남을 해롭게만 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2절을 보십시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호 세아 13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끼 잃은 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염통 꺼풀을 찢고 그들을 삼키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합니까? 그 이유는 John MacArthur 목사님 말에 의하면 미련한 사람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분노할 때 들 합리적(이성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Fools are less rational in anger than wild bears(MacArthur)].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련한 자가 비이성적으로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잠12:16) 미련한 자는 비이성적으로 당장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오랫동안 삐뚤어진 생각으로 분노를 품고 있다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죽이고자 2년 동안 분노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분을 오래 동안 품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박윤선). 그래서 성경 잠언 2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품은 사람이 오래 동안 상대방을 유쾌하지 않게 만들며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의 분노가 그렇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우리는 그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기 때문입니다(10:23). 그리고 행악으로 낙을 삼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만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남을 해롭게만 하므로 우리는 그를 가까이 하지 말뿐 아니라 만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반역만 힘쓰는 악한 자는 가족적으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은 반역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소나 나귀만도 못한 자이며(사 1:3) 그런 자는 실상 주인을 향하여 발꿈치를 드는 자입니다(시 41:9; 요 13:18)(박윤선). 그러므로 성경은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집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되 "…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삼하 12:10). 그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의 근친상간(13:1-19)과 더불어 압살롬의 피의 복수(20-29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의 순간적인 첫 반응은 놀람과 충격, 아픔과 슬픔, 두려움 등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족적인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반역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헌신에는 '선으로 악을 갚겠습니다'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모든 가족적 재앙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이 접합 재앙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단련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78편 40-41절을 보면 성경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며 그 분을 슬프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는 가운데 그 분을 격동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반역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을 남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순종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

[잠언 17장 15절과 26절]

지난 주 뉴스를 통해서 이미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 4,934만 3,540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런데 이 판결로 인하여 월요일 하루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3조 9935억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왠지 모르게 저도 이 재판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이 가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될지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국 계 미국인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일 그 판사가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삼성에서 항소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변치 않는 생각은 판사가 재판을 법대로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삼성의 승리로 끝났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애플의 승리로 끝난 것을 보면 어떻게 같은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사법부의 판결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정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국민정서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강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인터넷).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인터넷 기사에 “삼성, 애플이 아닌 미국 애국심에 졌다”라는 제목 아래 글을 쓴 것을 보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배심원 제도의 한계가 낳은 결론이라는 분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이렇게 세상의 사법부 시스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

람들이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재판에서는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부당행위가 합리화 될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공평함과 부당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잠언 17장 15절과 26절에서 자신이 미워하시는 것과 자신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2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7장 15절을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면 우리는 잠언 15장 8-33절에서 이미 묵상한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3가지로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악인의 제사"(8절), "악인의 길"(9절) 그리고 "악한 꾀"(26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제사"란 제사 드리는 자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악인의 길"이란 입술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꾀"란 악한 계교(6:18)로서 이익을 탐하므로 상대방의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5절에서 솔로몬 왕이 또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란 바로 악인을 의롭다 하던지 또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판사(The unjust judge)가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제일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라 생각합니다. 살인강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그 판결, 그 판결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공평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인강도를 아무 죄가 없다고 풀어주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형선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공평한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판결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우리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온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잠언 17장 15절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왜 그 사람은 불공평하게 재판을 내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불공평한 판사는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를 잠언 1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불공평한 판사는 뇌물을 받으므로 재판을 굽게 하여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도다."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고 악인의 의롭다 한 이유가 뇌물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뇌물로 인하여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죄가 없다(You are innocen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범죄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고 오히려 풀려나며 의인이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나라 사법 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미국 교육자 찰스 시키즈(Charles J. Sykes)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Some rules kids won't learn in school)이라는 10가지 조언에서 첫 번째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인생이란 공평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 말처럼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을 비롯해 외모, 건강, 재능, 행운과 불운 등 모든 면에서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가장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불평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개선 의지나 노력보다는 그저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자포자기 하는 태도가 더욱 큰 불공평을 초래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합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선 먼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원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잠언 24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크리스천 판사들은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줘서 악인에게 "네가 옳다"(또는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백성에게 저주를 받으며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4절). 오히려 성경은 악인을 죄 없다 그러지

말고 그 악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5절). 즉, 우리 크리스천 판사는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5절).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7장 26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부당행위(injustice)입니다. 그리고 그 부당행위를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의인이요 또한 귀인이라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는 바로 불이익 취급입니다. 여기서 불이익 취급이란 예를 들어 해고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휴직, 출근정지, 감봉 등이 있으며 또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직으로 전근도치하거나 대기 발령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인터넷). 어디 부당행위가 노동에만 제한돼 있겠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부당행위가 만용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정직하고 진실 되게 살고자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잠언에 '선하지 못하다'(It is not good)이란 문구가 오늘 본문 잠언 17장 26절 외에도 한 세 번 더 잠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잠언 18장 5절인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가 오늘 본문 잠언 17장 26절 말씀과 좀 유사합니다(다른 두 구절은 19장 2절과 25장 27절임). 이 두 구절을 요약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은 의인을 벌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악인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판장이 재판에서 악인은 정죄하고 의인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것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에 시비를 밝히고 잘못된 자를 태형으로 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도 재판장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때리게 하되 40번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권을 존중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박윤선).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고후 11:24).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매를 맞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에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 곧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 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윤리인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막 10:19; 롬 1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부당한 착복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끊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제반 활동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합니다. 새 사람은 부당한 돈의 제공자도 되지 말고, 받는 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던지 또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판사가 불공평한(unjust) 판결을 내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는 불공평한 판사를 미워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공평함을 우리 또한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인 부당행위(injustice)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당함(justice)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공평함과 정당함을 추구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잠언 17장 27-28절]

진정한 1등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특성이 필요한 것일까요? LG 경제연구원에서 출저한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리더십 전문가인 Tomas J. Neff와 James M. Citrin이 쓴 책 'Lessons from the Top'에서 사업을 1등으로 이끌고 있는 성공 리더 50명의 15가지 공통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이 15가지 자질들 중 단지 3가지만 지적 혹은 기술적 능력과 관련되었을 뿐, 대부분이 소프트한 차원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한 태도나 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Good Relationship)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성지능이 점차 기업 경영의 현장에서 특히 향후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경영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만큼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관 또한 너무나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풍부한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성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높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직 차원에서 보면 리더와 부하직원간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 유대감은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직장 내지는 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Daniel Goleman이란 심리학자가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 간의 차이는 기술적 능력이나 지능지수(IQ)보다 감성지능(EI)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약 80% 정도의 감성지능과 20% 정도의 지적 능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리더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Daniel Goleman이란 심리학자의 주장과 좀 달리 생각합니다. 만일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감성지능 80%가 필요하고 지적 능력이 20%가 필요하다면 제 생각엔 그 20% 지적 능력이 80%의 감성지능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제 생각엔 효과적인 리더십에는 감성보다 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성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감성은 지성에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생각에 근거는 성경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28절 중심으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을 자제(억제)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는 '입을 자제한다'(restrain mouth)입니다(Brown).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입을 자제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잠언 10장 19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식(지혜)있는 그리스도인이 말을 자제하는 이유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목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 같은 경우는 많을 말에 해야 하겠지만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막 5:48).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1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은 남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 속에서 우

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교회 성경공부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즉,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하기를 더디 하고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롬 10:17)를 속히 해야 합니다(약 1:19). 그리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민은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부터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섬기면서 여러 지체들을 접했는데 너무나 많은 때에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마음이 괴로워 항상 학교 아파트로 돌아와서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은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 제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말을 내 뱉으므로 원치 않게 여러 지체들의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 기억납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며 잠언 2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즘은 그 때 대학생 때 보다 언어에 조급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고 말하려고 노력을 하곤 있지만 잘 안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입을 열어 말을 하되 될 수 있는 데로 말을 적게(few words)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잠 26:22). 특히 저에게만 나눈 상대방의 기도 제목도 그 사람 허락 없이는 아무리 서로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아무리 칭찬이래도 진솔하게 하되 과장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며 특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억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관대하되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않게 자아성찰하면서 균형 있게 자아비판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눈다면 잠잠할 때 잠잠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8절을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좀 웃음이 나오면서도 이렇게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둘째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침착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한다면 '명철한 자는 성품이 냉철합니다' 입니다. 여기서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말은 성품이 침착하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Be cool!." 이 말의 뜻은 "침착하세요!"입니다. 이 말은 주로 상대방이 흥분해 있을 때 '당신 좀 침착하세요'라는 의미해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품이 냉철하다/냉정하다/침착하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cool of spirit"(영혼의 침착함)이란 뜻입니다(Walvoord). 이 말은 명철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침착하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NIV)을 보면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품이 '냉철하다'는 말은 "even-tempere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성격이) 침착한"이지만 우리가 "temper"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네이버 사전). 즉, 침착한 성품이란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4장 29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내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약 1:19) 크게 명철한 사람이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잠언 17장 12절에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즉,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왜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합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사람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분노할 때 들 합리적(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자가 분노할 때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들 합리적(이성적)이라면 만일 이러한 미련한 자를 우리가 만났다면 그 사람 앞에서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지혜)있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그 영혼이 침착한 그리스도인은 비이성적인 사람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잠 16:32). 여러분, 성경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모던 시대고 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즉,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치 또는 규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바로 “감성주의”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성보다 감성을 더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감정적이며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에 지배되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과 교리의 기초 위에서 신앙을 세워가기보다는, 체험이나 신비 또는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부분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28절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만 묵상을 하였는데 그 하나는 우리는 말을 자제해야 하며 또 하나는 우리는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여 말하기를 더디 해야 하며 말을 해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서 입을 열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침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좀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여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

[잠언 18장 1-3절]

유태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인터넷). 우리들은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머리를 쓰다는 말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법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즉, 유태인들은 지혜 있는 자로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모든 것을 지혜에 걸면서 행동하여 왔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의 교육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그들의 지혜가 집대성 된 것으로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 꾸준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은 뒤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들을 평생 지속하며 지혜를 쌓아나아 간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8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온갖 참 지혜(완전한 지혜, 참 지식)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란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첫째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절을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집니다. 즉, 그는 자기의 친구들에게서 고립되어(isolated)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이기적(selfish)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이기적인가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친구들에게조차도 가혹하게(harsh) 행하기에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6장 28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즉,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친한 벗도 이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는 자기 친구의 허물도 거듭 말하므로 자기의 친한 벗도 이간할 수 있습니다(17:9).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전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참 지혜는 없지만 거짓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3장 14-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적이요 정욕 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15절). 이러한 땅 위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14절). 그러므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자랑하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합니다(14절).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시기와 다툼만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16절). 그러나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18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결코 자기 소욕만을 따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에 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로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낸다’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airing”입니다. 여러분, “air”하면 무슨 뜻입니까? “공기” 또는 “허공”이라는 뜻 아닙니까? 즉,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미련한 자는 허공에다가 자기의 의사를 쏟아내기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닫힌 마음을(closed mind) 가지고 있어서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입은 열려서(open mouth)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는 자입니다(Walvoord). 이러한 자는 지식 얻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견해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박윤

선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소원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진리를 버린다'(박윤선). 그러므로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미련하여 자기 입으로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15:2). 그 결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18:6).

여러분,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으로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견해를 마치 허공에 쏟아내듯이 그리 하지 않습니다. "허공"하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오늘 본문 잠언 18장 2절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열려있어서 이웃을 이타적으로 (selfless) 사랑하기에 자신의 입도 열어 말하되 목적을 가지고 절제 있게 말을 한다.' 그리고 저는 그 목적이 바로 이웃 사랑이요 교회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화평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말들을 은혜스럽게 합니다(전 10:12). 그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골 4:6). 또한 온갖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정직하며(잠언 23:16), 진리를 말합니다(8:7). 또한 그의 입은 지식을 전파합니다(15:7). 그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2절). 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10:21).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할 것을 압니다(10:32). 이렇게 온갖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과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고자 목적을 가지고 절제 있게 말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미련한 자가 자기 의사(견해)만 드러내기를 기뻐함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견해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보면 그저 내 마음이 열려서 그에겐 이런 저런 말을 편안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고 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들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멸시와 능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3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란 바로 온갖 참 지혜를 멸시(contempt)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에 그는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가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기에 멸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합니다(잠 1:25).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25절).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웃을 멸시합니다(11:12). 이러한 자는 자기의 이웃을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는 부끄러움(shame)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1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부끄러움과 더불어 능욕(disgrace)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여 자기 소욕을 따르며,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난(reproach)을 받으며 치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높이므로 그 지혜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4:8). 그리고 그는 지혜를 품으므로 그 지혜가 그를 영화롭게(honor you) 할 것입니다(8절).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12:8).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1:7). 온갖 참 지혜를 멸시(배척)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릅니다(18:1).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2절). 그 결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는 멸시와 능욕을 받습니다(3절).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자기 소욕만을 따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또한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과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고자 목적을 가지고 절제 있게 말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미련한 자가 자기 의사(견해)만 드러내기를 기뻐함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견해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높이므로 그 지혜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4:8). 그리고 그는 지혜를 품으므로 그 지혜가 그를 영화롭게(honor you) 할 것입니다(8절).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12:8).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

[잠언 18장 4, 6-8절]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의 동물들이 모여서 먹이를 잡아먹는 이야기를 신나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살고 있는 사자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자들은 먹이를 우선 쓰러뜨리고 난 후에 잡아먹지. 그러자 늑대가 눈을 번들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늑대들은 우선 먹이를 부드럽게 찢어 놓은 다음에 먹는단다.’ 동물들은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각기 한 마디씩 했습니다. 이때, 인도에서 살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가 쉰 목소리로 뱀에게 물었습니다. ‘뱀아, 너는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니?’ 그러자 몸을 돌돌 감고 있던 뱀이 동물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남을 헐뜯는 인간보다는 아직 낫다고 생각한다. 결코 혓바닥으로 남을 상처 입히지 않으니까 말이야’”(인터넷). 여러분, 이 탈무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혀로 남을 헐뜯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남을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8장 4절과 6-8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명철한 사람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두 종류의 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원합니다.

<u>먼저 명철한 사람의 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u>

오늘 본문 잠언 18장 4절을 보십시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솔로몬 왕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근본적이다(fundamental, basic)라는 말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식(15:7)이요 그 지식이란 바로 진리(truth)(8:7)란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

몬 왕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지혜의 샘이다(18:4)라고 말하였는데 그 뜻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여러분, 명철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풍성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샘같이 흘러 나와야 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명철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파돼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마치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흘러 나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나눌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잠언 18장 6-8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몹시 화를 쉽게 내는 자(a man of rage)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는 분노 가운데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되 과격한 말(1절),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므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분을 쉽게 내는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옳은 줄 알고 떠들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즉,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옳은 줄 알고 떠들며 싸웁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분을 내서 상대방에게 과격한 말을 하므로 상처를 입힙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축구하면서 종종 봅니다. 자기가 파울을 했으면서도 상대방이 파울 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과격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지난 주 축구할 때는 분명히 우리 팀원이 파울 했는데 상대방 팀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분노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 중에 상대방에게 인종 차별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상대방 사람이 그냥 아무 대꾸 안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잠언 17장 14절이 생각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 다툼을 좋아하지만(17:19) 명철한 자는 화평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웠지만 우리는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약 3:18).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우리 자신의 소욕만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잠 18:1-2).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는 화평의 복음이 흘러나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케 하며 또한 원수 되었던 사람들끼리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솔로몬 왕은 이미 잠언 12장 13절에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오늘 본문 18장 7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물"이라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함정"을 말합니다. 즉,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입술로 말미암아 스스로 함정을 판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함정을 판다'고 하니까 저는 이 말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 결국 자기 소욕을 따르면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미련한 자는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오늘 본문 18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미련한 자의 입은 스스로 매를 자청한다고 성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19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 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 된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입술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7절)(참고; 10:14, 13:3).

여러분, 명철한 자의 입에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복음)이 흘러나오지만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스스로 자멸케 하는 거짓과 악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입술은 명철한 자의 입술이 되어야지 결코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로, 미련한 자의 입은 남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8절을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but a deceitful tongue crushes the spirit)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려함”이란 말이 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듣는 자를 괴롭히는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패려한 혀를 가지고 있고 그는 그 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되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미련한 자는 분노 가운데 과격한 말을 함부로 하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소문내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교회 안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한 이 메일을 받고 저는 오래전 묵상한 사도행전 21장 27-36절에 근거하여 말씀 묵상한 사단의 전략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이란 4가지로서 소동, 충동, 소문, 폭행입니다. 특히 그 목사님의 이 메일에서 섬기시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제가 볼 때 사단의 역사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소문내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엿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 메일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비판적이고 자극적이 말을 될 수 있는 데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혀서 좀 냉정하게 상황을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상황 파악과 바른 판단을 해서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하면 상처 입지 않을까 하는 민감함과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온갖 참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을 안다(잠 10:32)고 배웠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8장 8절에서 미련한 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참고: 26:22). 그리고 그러한 말쟁이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남의 은밀한 허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같이 미련한 말쟁이는 남의 은밀한 허물을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결과 미련한 말쟁이는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명철한 자의 입은 치유하는 혀입

니다(15:4). 즉,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른 사람의 은밀한 허물을 말하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므로 상처를 치료합니다(2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말하되 지혜 있는 자의 혀처럼 부드러운 말로 잘 말하여 상대방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약 3:2).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명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입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자신을 망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명철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입에서 근본적인 진리(fundamental, basic truth)가 나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풍성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길 기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비뽑기와 재판

[잠언 18장 5, 17-19절]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큰 교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장합동의 97회 총회가 "용역 총회", "기자 출입 금지 총회", "가스총 총회", "노래주점 총회", "날치기 총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인터넷). "용역 총회"란 교단 임원 중 총무란 목사님이 "살인 청부업자가 고용돼 아킬레스건을 끊는 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용역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말하면서 약 150명가량의 용역 업체 사람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업 업체 사람들로 하여금 총회 모임 장소의 다른 모든 입구들을 폐쇄하고 정문 하나만 개방한 후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검문하되 사진, 이름, 소속 노회가 적힌 출입증 없이는 총대도 못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 업체 사람들이 총회 모임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자 출입 금지 총회"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용역 업체 사람들을 부른 교단의 총무라는 목사님이 총회 모임 중 마이크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가스총을 총회 도중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총 총회"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노래주점 총회"라는 말을 듣게 된 원인은 이번에 총회장이 된 목사님이 같은 교단 간부인 다른 두 목사님들과 함께 노래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덮으려고 교단 간부라는 다른 목사님이 여자 도우미를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된 정 모 목사님이란 사람이 총회를 인도하다가 마지막 날인가 갑작스럽게 파회 선언을 해 버리고 모든 임원들이 모임 장소에서 나간 후 마이크와 불이란 다 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날치기 총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140개의 노회장들이 모여 다섯 가지 안건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1) 비상 총회 소집, (2) 총회장 불신임 건, (3) 총무 해임 건, (4) 총회 정상화될 때까지 상비부 활동 중지, (5) 노회 상회비 및 각 교회 세례 교인 헌금 납부 유보.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받은 후 특히 이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5일간 열렸던 총회 모임에 대한 소식을 한 기독교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관심 있게 보고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과 마음이 좀 그랬지만 갑작스러운 총회 파회 후에도 842명이나 되는 총대들이 끝까지 남아서 마음을 모아 결국 140명에 이르는 많은 노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기가 예장합동 교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어 참된 회개와 회복과 개혁의 기회가 되길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갈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을 보면 오늘 본문 잠언 18장 5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로 총회 임원들을 뽑는 선거제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제비뽑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재판"입니다. 지금 총회에 총대 목사님 한 분이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개정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절충한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절충한 제안한 이유는 제비뽑기 선거제도 방법이 최적의 인물을 뽑는데 필요한 제도라기보다 금권 선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인 "재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총회 안에 총회장, 총무 목사님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소송과 재판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총회장 목사님의 노래주점 건이 법원 판결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8장 5절과 17절을 보면 성경은 송사와 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가서는 제비뽑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비뽑기와 재판**"이란 제목을 걸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재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5절을 보면 "재판"이란 말이 나오고 17절에 가서는 "송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송사"는 "재판"을 말합니다(인터넷).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성경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 44장 24절 상반절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 "송사"란 요즘 말로는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어 서로 잘 했다고 다투다가 결론을 못 얻으면 재판을 걸어 판결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인터넷).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규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넷): (1) 첫째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성도들 간에 소송하

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 둘째로, 성경 마태복음 5장 25-26, 40절은 송사하기 전에 먼저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화해가 되지 않았을 때 셋째로, 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은 재판을 받습니다(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왔음). 물론 여기서는 세상 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4) 넷째로, 신명기 1장 16절과 25장 1절은 재판장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했을 때 송사를 들으면서 (19:15-19)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공정히 판결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송사에서는 쌍방의 말을 다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반대심문(cross-examin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재판장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성경 출애굽기 2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애하여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잠언 18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을 두둔해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7장 15절에서는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하는 재판장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가 재판을 받아 면직(dismissal, removal)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어느 한 큰 교회 유명했던 목사님을 면직해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의 성추행 사건 등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목사를 재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노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 제 4장 제 19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인터넷). 이 규정에 따르면 목사관계 재판사건은 노회가 관장하고, 목사 이외의 모든 교인들인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등 온갖 세례교인관계 재판사건은 당회가 관장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 교회의 당회가 지교회 교인을 재판하기 전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8장15-17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

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재판을 하기 전에 당회는 지교회 교인을 사랑으로 권고해서 회개케 해야 합니다. 그 권고 과정 속에서 (1) 원고가 피고와 일대일로 상대하여 권고하되 (2) 만일 그 피고인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합니다. (3)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4)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 피고인을 미워하던지 증오해서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비뽑기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8절을 보십시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성경의 재판의 절차를 보면 다툼이 일어나 시비가 있을 때 때로는 제비를 뽑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제비뽑기를 시행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결정하기 애매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인터넷). 그러므로 제비뽑기 형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인터넷).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자들만이 취하는 행위가 바로 제비뽑기라는 말입니다(박윤선). 이 말은 다투는 사람들이 둘 다다 강한 자들로서 자기들의 다툼을 자기들의 힘으로나 혹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투는 양측이 제비 뽑는 결과에 의하여 중심에서부터 다툼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들의 심령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박윤선). 그런데 문제는 그 다툼이 심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투는 양측이 다툼을 종식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적어도 한쪽에서 그렇다면)는 제비뽑기를 하지도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잠언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옛날 전쟁하는 모습을 볼 때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엿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가족 식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화목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그러한 다툼은 없애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입니다(Walvoord).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달 전 한국 뉴스에 삼성 회사의 회장과 그의 형제들 간의 다툼이 생각났습니다. 가까운 형제들인데도 그 다툼 속에서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참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가까운 사이인 부부나 식구나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심해지면 아예 원수지간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다툼을 피하고 화목케 해야 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화목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는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화목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고후 5:18).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화목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Peacemaker Ministry)의 에릭 폴리 목사는 교회내의 갈등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에는 화평을 만드는 자(Peace-maker), 화평을 깨는 자(Peace-breaker), 그리고 화평을 가장한 자(Peace-affecter)가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유난히도 ‘화평을 가장한 자’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적 문화에는 갈등을 공개하면 체면과 권위가 손상된다는 정서가 오랜 세월동안 자리해 감추고 미화해서 지나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 된다”며 “이는 서로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간격이 멀어져갈 뿐 해결책은 아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상대의 인격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 용서와 화해를 통한 진정한 피스메이킹을 이뤄야한다”며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피스메이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폴리 목사는 성경적 피스메이킹이란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였듯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행해 화목케 하는 사역”이라고 제시했습니다(인터넷).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이든 가정 안에서이든 또한 직장에서 이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복음의 합당한 삶이란 화목케 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화목을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 간에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며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비뽑기가 그 당시 화목케 하는 사역에 한 방법이었고 지금도 그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서는 총회 임원들

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그 교단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쩌면 세상 법정으로 재판까지 갈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해결점을 찾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불미스러운 일인 세상 법정 판결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르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국 합동교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분쟁으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결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해도 우리는 교회나 노회,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의 복음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케 하는 사역에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므로 이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과 교만

[잠언 18장 9, 12절]

여러분은 성공을 가로 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은 그의 책 "성공의 7가지 장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넘어가야 할 성공 속에 감추어진 장애물들을 7가지로 나열했습니다(인터넷).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교만"(Pride)과 "게으름"(Neglect)입니다. 저자는 교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만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게으름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죄이고, 불평이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만과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18장 9절과 12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일을 게을리 하는 자(one who is slack in his work)와 마음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 중심으로 "**게으름과 교만**"이란 제목 아래 게으름과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9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솔로몬 왕은 이미 잠언 10장, 12장 13장 등등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 말의 요점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10:4).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게으른 자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손을 게으르게 놀리고 있기 때문에(10:4)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만 그는 자기의 머리를 부지런히 굴립니다. 특히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잠언 15장 19절에서 묵상했듯이 악인은 꾀를 많이 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게을러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며 수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에는 동서남북으로 가시와 같은 어려움들로 둘러싸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마 25:14-30).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14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15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19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나 두 달란트 받았던 자는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20, 22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24-25절)고 말했습니다. 그 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26-27절)고 말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말하면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꼬나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는 마음은 원하는데 손을 게으르고 놀리기 때문이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12:27)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9:24, 26:15). 웃기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마음으로만 원하고 실제로 사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또한 어느 누가 배가 고픈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까? 아니 그러면 아기처럼 누군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여줘야 합니까? 이것은 게으름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사냥도 하지 않고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게으름 중의 게으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 성경 잠언 19장 15절은 "태만한 사람"(an idle man), 즉, 나태하여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21:25). 그러면서도 게으른 자는 오히려 일을 만듭니다. 어떻게 게으른 자는 일을 만듭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즉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여 일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젊은 과부는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폄론을 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므로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They are idle. They are not

busy, they are busybodies)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1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의 일을 참견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하루의 삶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므로 형제 사람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오늘 본문 잠언 18장 9절에서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자와 패가하는 자가 형제라는 말은 게으른 자는 큰 낭비자(a great waster)란 말입니다(Spence-Jones). 그 말은 게으른 자는 마치 방탕 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잠언 12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but he who chases fantasies lacks judgment)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26:16).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게으름과 교만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게으른 자는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 책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교훈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합니다(잠 12:27, 15:19).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롬 2:21) 다른 이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또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잠 16:26). 부지런히 일을 하되 우리는 개미처럼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6:7). 그리고 우리는 개미처럼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되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8절). 마치 개미가 추수하는 여름 때에 겨울철 먹을 것을 미리 모아들이므로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할 것들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인터넷) 겸손의 반대 개념으로서(잠 11:23, 13:10, 15:33, 16:18, 19, 마 5:3, 눅 14:11)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며 교만은 최대의 죄라는 것입니다(잠 1:7, 6:16, 17, 벧전 5:5). 교만은 흔히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의로움의 교만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하되 우리는 특히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과 집중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히 12:2).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 집중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되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 8장 13절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나는데 특히 어떠한 악을 떠나는가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교만은 패방의 선봉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6:18). 그는 교만을 떠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13:10)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6:5).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춥니다(16:19). 그 이유는 그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11:2).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기에(3:34)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자신의 마음을 낮춥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대로가 있는 정직한 사람이 떠나는 악은 바로 "게으름"입니다(15:19).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의 길은 잘 닦여진 대로처럼 평탄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좇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을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처럼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부지런합니다. 결코 그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은 겸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기원합니다.

부자와 의인

[잠언 18장 10-11절]

이번 주 월요일 “대한민국 40대 남성도 전립선비대증 안전지대 아니다”라는 제목 아래 뉴스 기사가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이 기사 내용의 요점은 한국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가 5년 전에 비해 평균 23.5%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0대 남성들의 경우 평균 전립선 크기가 5년 전 16.7g으로 전립선비대증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속했지만, 2011년에는 평균 20.9g으로 전립선비대증 진단이 내려지는 수준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서양식 식이습관, 즉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가 적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비대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제가 이 기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 나이 이젠 40대 중반인데 “대한민국 40대 남성도 전립선비대증 안전지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 내용처럼 저는 지금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 내용은 저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전지대(safety zone)에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지대(danger zone)에 있습니까?

성경 시편 12편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위험지대인 이 죄악 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안전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 분께 달려가 그 분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0-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부자와 의인**”이란 제목 아래 한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1절을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솔로몬 왕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즉,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높은 성벽 같이 여긴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부자는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강한 방편이 재물이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인터넷). 이미 솔로몬 왕은 잠언 10장 15절 상반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절인 16절 하반절에 가서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악인의 수입(income)은 오히려 그에게 (형)벌(punishment)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3절).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십니까? 그 이유는 악인의 소득은 무익한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2절). 무엇이 불의한 재물입니까? 바로 탐심 속에서(참고: 1:19; 28:16) 부당하게(참고: 16:8) 얻되 특히 절도(theft)와 속임수 또는 사기(deceit)로 얻은 재물입니다(Walvoord). 솔로몬 왕은 이러한 불의한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강한 방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돈은 복이 아닌 은사이다.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받지만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은사는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자가 되라”(인터넷).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되도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자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잠언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푸른 잎사귀와 같은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의인은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8장 10절과 11절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10절에서 "견고한 망대"(a strong tower) 그리고 11절에서는 "견고한 성"(their fortified city)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긴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고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부자는 재물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편으로 삼기에 그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과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와 대조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의지하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합 2:4; 롬1:17; 히 10:38; 갈 3:11). 이것이 바로 의인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임을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결코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시로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4:10).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11-12절). 그러나 모세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16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전멸당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불렀는데 그 노래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그는 그가 온전히 의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2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숨기시며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의인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괴롭거나 힘들거나 위급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잠 18:10).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달려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함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결코 부자의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

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선물

[잠언 18장 14, 16절]

지난주일 우리는 시편 128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 하나는 바로 가정의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축복이란 아내(배우자)와 자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성경은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됩니까. 특히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잠 29:15)이라면 우리 부모에게는 큰 근심이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사람의 심령"(14절)과 "사람의 선물"(16절)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심령과 선물**"이란 제목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지난 주 화요일 새벽기도회 때 우리는 마가복음 5장 25-34절 말씀 중심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에게 대해서 생각

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에는 그녀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상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많은 돈을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치료비가 있다면 말임). 그런데 만일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우리의 병이 더 나빠졌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망과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잠언 12장 25절과 15장 13절 그리고 17장 22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12:25),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15:13),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17:22).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번뇌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질병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혈루증으로 앓아온 그 여자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충분히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여자처럼 우리의 질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돈을 드려 많은 의사들을 만나 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질병이 더 나빠져서 우리가 많은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충분히 부서지며 낙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는 우리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심령이 상한다’는 말은 환란이나 질병이나 기타 난관 앞에서 낙심해서 무력해진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 우리는 우리의 병마와 싸워 능히 그 병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상하여 낙심하여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병마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암 진단 이후의 일반적 정서반응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은 크게 3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1) 초기 반응 단계는 암을 진단받은 지 일주일 이내에 부정, 불신, 절망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때 일부 환자는 심한 불안 때문에 검사나 치료 방법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시기다. 이 시기 환자들은 암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우울, 불안, 불면, 집중력 장애, 식욕부진 등이 1~2주 지속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3) 세 번째는 적응 단계로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받아들이고 환자마다 자신의 대처 방식을 찾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과적 문제는 이렇다고 합니다. 암 환자의 50~70%가 암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 때문에 불면, 불안, 우울 등이 생기는 적응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암 환자의 10~20%에서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동반하는데 이때는 기분 저하, 의욕 감소, 불면증과 더불어 식사를 못하거나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신체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 암 재발과 전이에 대한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닥쳐올 변화와 고통에 대한 걱정 등이 많아지고 작은 신체적 변화에도 큰 병이 아닐까 지나치게 걱정하는 불안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가족들이 환자 자신을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치료진이 일부러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피해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우리는 암이란 질병이던 어떠한 환난과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마음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병마와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병마와 싸워야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죤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암 수술 전에 쓴 책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를 보면 이러한 글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을 허비할 것입니다. …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디자인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암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암은 이기는 것입니다. 암이란 죄의 대한 욕구를 말살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입니다. ... 그저 암하고만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암하고 함께 (나의 죄와) 싸울 생각을 하십시오. 암이란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눅 21:12-13)(Piper).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

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사람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선물"이란 "뇌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잠언 17장 8절과 23절을 보면 성경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8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23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므로(신 10:17, 대하 19:7), 하나님의 백성 역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전 7:7)고 했습니다. 특히 재판관에게는 엄히 경계되었습니다(대하 19:7). 뇌물은 결과적으로 정의를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삼상 8:3; 잠 17:23). 그래서 성경 잠언 1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 잠언 18장 16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선물"이란 "뇌물"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0-21절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약 20년 만에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6절)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서(7절) 자기의 함께 한 무리들을 두 떼로 나누고(7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9-12절)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a gift) 준비했습니다(13절).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그 예물을 자기 형 에서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야곱은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자기를 받아 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저는 잠언 21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노하는 형 에서에게 예물을 주므로 말미암아 약 20년 동안 자기를 향한 형 에서의 분노를 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8장 16절에서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한 예가 창세기 4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열 명의 아들에게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인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5장 27절을 보면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분노 가운데 나발에게 보복하려는 다윗을 만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물(선물)은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 중에 예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물 중에 예물은 바로 십자가에 받쳐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히 4:16). 다시 말하면, 예물 중에 예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엡 2:8). 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3:7).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38장 16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9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사(17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만 치유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17절).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20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사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롬 1:16). 바라기는 이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므로 사람의 심령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입, 귀, 마음

[잠언 18장 15, 20-21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0)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18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2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21절), “모든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3절).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과 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입에서 무슨 말 하기를 속히 하는지 그리고 우리 귀로 무슨 소리 듣기를 속히 하는지를 평가해 보면 우리 마음의 현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5, 20-21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사람의 마음과 귀와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입”과 “귀”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혀와 입에 대해서 잠언 17장까지 묵상해 오면서 여러모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교훈들을 한 3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하는(8:7-8) 진실 된 혀(12:19)를 사랑하시지만 거짓된 혀를 미워(싫어)하십니다(6:17). 우리는 구부러

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야 합니다(4:24, 6:12). (2) 지혜로운 자의 입은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15:2).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인)의 입은 구원을 얻게 하는(11:9) 생명의 샘이라도(10:11) 미련한 자(악인)의 입은 멸망에 가까웁니다(10:14; 18:7). 그 이유는 지혜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10:31)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고(10:6, 11), 패역을 말하며(10:32) 또한 악을 쏟기 때문입니다(15:28). (3) 우리는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미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기 때문입니다(10:19).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11:12; 17:28). 결코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입술처럼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18:6).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21절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즉 "혀의 열매"(the fruit of the mouth)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혀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나 의인이라면 우리 입에서는 진리가 나올 것이요 우리는 그 진리의 열매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야, 삐뚤어진 말이나 거짓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거짓의 열매를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the power of the tongue)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혀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혀를 지혜롭게 잘 쓰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도 살 수가 있지만 우리가 혀를 미련하게 잘 못쓰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혀의 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혀의 힘을 지혜롭게 잘 조절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힘 있다고 힘 과시하려고 혀를 함부로 놀려서는 아니 됩니다. 한 마디로, 혀의 힘은 절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솔로몬 왕이 잠언 10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아니 됩니다(10:19).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되 특히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는 아니 됩니다(18:8).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우리의 말 많음과 말실수로 인하여 형제, 자매의 마음을 충분히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15:4). 특히 우리는 잠언 12장 18절 말씀처럼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함부로 뼈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혀를 잘 못 쓰면 자타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목케 하는 말을 하십시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는 마땅히 서로를 화목케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

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적합한 말(what is fitting)입니다(10:32).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므로 "할 수 있거든 …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롬 12:18).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잠언 17장 1절에서 말했듯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둘째로, "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책을 뒤돌아보면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며(10:14) 자신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11:9)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말했습니다(15:2). 그 만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4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사람들의 귀는 이미 진리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슥 7:11).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렘 6:10).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있기에(The word of the Lord is offensive to them)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10절).

여러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잠언 17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사악한 말이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사악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악한 말이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도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요 진리(진실)를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선한 지식과 진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39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호 6:3).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골 1:10).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기원합니다(엡 4:13).

마지막 셋째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 여러분, 지식을 얻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바로 명철한 자 곧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명철한 자의 마음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18장 15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유사한 말을 이미 솔로몬 왕은 잠언 15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명철한 자, 곧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사모하여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듣기를 속히 합니다. 그 결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합니다(1:5). 그는 오늘 본문 잠언 18장 15절 상반절 말씀대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2:10).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합니다(22:17).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지식의 근본", 1:7)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요 지식입니다(신 4:6).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슬기롭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잠 16:23).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막 7:20).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 이상 악한 생각, 모든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 선한 생각이 되기 위해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며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입을 주관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내와 친구

[잠언 18장 22, 24절]

여러분, 여러분 생각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스승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만남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은 친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빛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아내"와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 중심으로 "**아내와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내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얻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설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은 아니시죠? 하하. 저는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5장 18-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

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복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5장 18절을 보십시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과연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를 어떻게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언 5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바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아내의 미모보다 그녀의 미덕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는 말씀 비유의 의미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물"과 우리의 "샘"(15절)인 우리의 아내의 사랑만을 즐기며 결코 그녀를 버리고 음녀의 집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아내로 말미암아 성적으로나 애정적으로나 만족할 만한 원기 회복(satisfying refreshment)을 얻을 때에 우리는 결코 음녀의 품을 그리워하며 음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을 것입니다(20절). 솔로몬 왕은 잠언 5장 16-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못하며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고(19절) 오히려 음녀를 연모하며 다른 여인의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20절).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된 선택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7-14절). 그 징계란 "존영 상실"(9절), "시간 상실"(9절), "재물 상실"(10절), "건강 상실"(11절), "양심상 고통을 당함"(12-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의 결과를 알고 음녀를 연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므로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2)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18:22).

물론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아무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아내"는 "어진 여인"(an excellent wife)(12:4), "슬기로운 아내"(prudent wife)(19:14) 또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A wife of noble character)(31:10)입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이러한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 로서 말미암는다고 성경 잠언 19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질고 슬기로우며 현숙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 잠언 18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아내를 배우자로 둔 남편은 복 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아내는 그에게 복덩이(매우 귀중한 사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여인이 현숙하고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4절을 보십시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욕을 끼치는 여인"입니까? 바로 남편과 다투기를 잘 하는 여자를 말합니다(박윤선). 이 다투기를 잘 하는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2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21:19; 25:24). 아마 우리 남자들 중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숙한 여인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투며 성내(성깔 있)는 여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아내를 복덩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럴싸한 변명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한 말을 제가 듣는 다면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여인을 선택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을 거부하고 우리가 보기에 예쁘고 매력을 느끼는 그러나 나중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우리 남자들이 자기가 선택하여 결혼한 아내에게 참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행동으로도 아내로 하여금 자기가 저주 덩어리라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많은 아내들이 자기들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덩이로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를 즐거워하며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4절을 보십시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구들이 많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심지어 자랑까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한번은 한인 타운 한 카페에서 인가 약 40여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있었던 적을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만큼 나는 친구들이 많다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까지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때 왜 제가 그리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때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많은 친구들 중 매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한 네 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저에게는 10분이 1 정도의 친구들만 남은 셈입니다. 하하. 오늘 본문 잠언 18장 24절에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u>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u>

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를 해를 당합니까? 저는 그 이유는 잠언 14장 20절과 잠언 19장 4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14:20),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19:4). 성경은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18장 24절을 보면 많은 친구들을 얻는 자가 해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많은 친구들이 재물을 보고 찾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돈을 보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친구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돈이 없으면 여러분을 떠날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여러분에게 돈을 보고 친구가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약을 할 때 친구들이 서로 나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마약을 하는 어떤 친구들은 돈이 많은 친구에게 달라붙어서 저 같이 돈이 없었던 자들하고 나눠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재물을 보고 찾아온 친구들을 많이 얻는 것은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에게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의 재물을 보고 친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왠지 솔로몬 왕은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떠한 친구가 있느냐 라 생각합니다.

(2) 솔로몬 왕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24).

무슨 말입니까? 한 마디로,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까? 잠언 27장 10절을 보십시오: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환난 날에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 즉 우리의 친구나 우리 아비의 친구의 집에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까운 이웃(친구)가 먼 형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는 어떠한 친구입니까?

(a)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는 신자들의 서로 돕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박윤선). 여러분,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는 서로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친구의 발전을 도모하므로 그 친구가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b) 마음을 즐겁게 하는 충성된 권고를 하는 친구입니다.

잠언 27장 9절을 보십시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란 “영혼의 권고”란 뜻으로서 사랑으로 간절하게 친구를 권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 간절한 권면에는 친구를 향한 아픈 책망도 포함됩니다. 잠언 27장 6절을 보십시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충성된 권고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도 하는 친구입니다.

(c)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 이러한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사랑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배우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의 축복도 주십니다.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와 시련

[잠언 18장 23절; 19장 1, 4, 7, 17절]

여러분, 가난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한 게 죄입니까?" 어느 누구도 가난한 게 죄라고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왠지 가난한 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말은 가난이 죄는 아닐 진데 빈부차가 점점 심해지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죄인인 모양 세상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 등을 받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18장 23절과 19장 1, 4, 7, 17절 말씀을 묵상할 때 "가난한 자의 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인 가난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 잠언 19장 4절과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3가지란 첫째로, 가난한 자의 부, 둘째로, 가난한 자의 시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의 부는 무엇입니까?

한 2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u>가난한 자의 부는 간절함입니다.</u>

오늘 본문 잠언 18장 2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히스패닉 사역이 다가가

며 전도하고자 애쓰는 우리 교회 주위 히스패닉 커뮤니티 사람들과 티화나 멕시코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보다 티화나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해보아도 지난 번 티화나 멕시코 선교 사역을 통해서 10명이나 되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은 지금 히스패닉 사역 약 7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 사람들보다 티화나 멕시코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더 가난함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티화나 멕시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심령이 더 가난해서(마 5:3)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에서 생각할 때 저는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겸손해지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함에 있어서 간절하여진다”(박윤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신 8:9)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14절)을 경고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그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12-13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 뉴스를 들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들은 후 오늘 본문 잠언 18장 23절을 묵상하면서 왠지 그 소식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결핍돼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기에 다시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위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으로 풍부해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입니까? 지금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가 두드러지게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3가지란 바로 헌신도(commitment)와 간절함(earnestness or desperateness)과 긴박감(sense of urgency)입니다. 왜 헌신도와 간절함과 긴급함이 부족할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원인을 이기주의와 안락주의와 게으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점점 더 교회를 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다들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않)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도 뿐만 아니라 간절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안락(comfort)을 추구하지 뭐 하러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며 고통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쾌락주의도 위험하지만 안락주의도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함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긴박감(sense of urgency)가 있습니까? 왠지 우리에게는 사명감(sense of duty)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긴박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안락을 추구하기에 게을러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설 때에 회계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18장 2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처럼 간절한 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

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2) 가난한 자의 부는 진실함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절을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시하는 기독교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대학생 때인지 신학생 때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저의 할머님을 모시고 어느 노인 아파트에 제 할머님의 아시는 권사님을 뵈러 갔다가 그 권사님에게 저에게 하신 한 마디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저의 할머님이 그 권사님을 부축하시고 모시고 아파트로 들어가시다가 그 권사님에게 저를 가리키시면서 앞으로 목사가 될 손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신 그 권사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에게 ‘진실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그 권사님의 한 마 디가 이렇게 계속 제 마음에 메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실한 목회자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 우리 모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절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2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두 말씀 상반절에 나오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란 바로 진실되이 행하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진실한 자란 사람의 겉과 속이 일치한 자를 말합니다(박윤선).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9장 1절에서 이러한 진실한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부함과 가난함을 대조하고 있다기보다 진실함과 거짓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여도 진실한 자가 부유하지만 거짓된 자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잠언 2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는 부자이지만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에 (crooked) 그의 언사에 있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러한 자는 잠언 2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에 그러한 삐뚤어진 마음에서는 삐뚤어진 말과 삐뚤어진 행동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기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말씀 인격화 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가난한 자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4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의 시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난한 자는 고립된다는 말이요 외로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미움을 받고 외로운 상태에 놓일 뿐만 아니라 악한 관원에게 학대와 압제도 당한다고 잠언 28장 3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22:16).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는 부자로 또한 어떠한 자는 가난한 자로 지으셨을까요? 잠언 22장 2절과 29장 1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22:2),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29:13).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포학한 자”, 즉 불의한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지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섞여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빈부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눈에 빛을 준다"는 말은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45절에서도 주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인터넷).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부자로 또한 누구는 가난한 자로 지으셨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부자가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겪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가난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신 8:3) 인내하며 시련을 견디어 내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잠언 14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야 합니다(29:7).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28:27). 우리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줘야 합니다(22:9). 우리는 결코 그들을 못 본 체해서는 아니 됩니다(28:27). 그러나 불의한 부자는 교만하여 가난한 자가 애걸할 때 냉혹하게 대합니다(18:23하). 이것은 성경 누가복음 16장 19-21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요구에 대하여 눈떠보지 않은 교만한 부자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박윤선). 더 나아가서, 불의한 부자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까지 합니다(잠 22:16). 그러나 성경 잠언 14장 31절 상반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풍부한 땅입니다. 동시에 이 미국 땅은 점점 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풍부함 속에서 배가 불러 교만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풍요로워서 교만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겸손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부인 간절함과 진실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겪는 시련을 우리 또한 겪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 고립되어 외로

운 상태에 놓여 있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람이 미련하므로”

[잠언 19장 2-3, 5절]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나운 암곰보다 더욱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무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 정작 지식인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더할 수 없이 잔혹하고 파괴적이며, 언제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같고, 한번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고집스럽게 하므로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련한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미련하므로**”라는 제목 아래 미련한 사람의 3가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사람의 죄는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절을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영혼이 지식 없음이 좋지 못하고 발이 급한 자는 범죄하느니라”(박윤선). 여기서 “또한”이란 접속사는 19장 1절과 연관돼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미련한 자는 입술이 패역할 뿐만 아니라 (1절) “지식 없는 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식 없는 소원”, 즉 지식 없는 열정

이란 말은 영혼의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리라” 말씀은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사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전 1:13)]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으므로(행 22:3)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심이 핍박하였습니다[“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빌 3:6)]. 또 다른 예는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1절). 사도 바울은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메시아) 이심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않고(9-10, 13절) 오히려 율법을 행하므로 구원을 얻고자 했다는 말입니다(5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2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교만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 지면 성급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예 중에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하되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와 이스라엘 치러 길갈로 내려온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또한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므로(12절)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찰스 브릿지스(Charles Bridges)란 영국 국교회 복음주의파의 설교자요 신학자는 영적 지식이 없는 영혼의 다섯 가지 불행을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박윤선): (1) 영적 지식이 없는 영혼은 생활의 참된 지침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2) 영적 지식이 없는 영혼은 죄악 처분의 방법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 신앙, 회개 등의 진리를 모릅니다. (3) 영적 지식이 없는 영혼은 환란을 당하여 도움 받을 길도 모릅니다. 곧,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겸손해지는 사실, 환란 중에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사실 등에 대하여, 그는 모릅니다. (4) 영적 지식이 없는 영혼은 책임 실행의 힘이 무엇임을 모릅니다. 그는 자기의 힘 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란 것은 사실상 힘이 아니고 연약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강하여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5) 영적 지식이 없는 영혼은 참된 소망을 모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할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전연 모릅니다.

둘째로, 미련한 사람의 죄는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미련함이 자기 길을 전복시키고(뒤집어엎고)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거스려 분풀이 하느니라"(박윤선). 우리 사람들의 죄악 된 본능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 놓고서 당하는 그 선택의 괴로운 결과(consequence)를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죄악 된 본능은 창세기 3장에 첫 인간인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본능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9절). 그 때 두려워 숨었던 아담은(10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12절). 아담은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에게 여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사 45:9)(박윤선).

여러분, "원망"하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을 뿐만 아니라(출15:24)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민 14:27). 그 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시 106:25).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민 11:1)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민 21).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는 원망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유다서 1장 16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불만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까지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미련한 사람의 죄는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5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말들의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뿜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박윤선). 여기서 "거짓말들의 증인"이나 "거짓말들을 내뿜는 자"는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짓말 하는데 철면피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서(롬 2:4) 이제는 거짓말 하는데 있어서 양심상 가책조차 받지 않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성경은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 9절). 더 나아가서 잠언 19장 9절 하반절을 보면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but a false witness is deceitful)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으면서 사람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시편 5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5절을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옛 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골 3:9).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잠 14:25).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5절).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말하므로(12:17)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14:25). 우리는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련한 사람의 3가지 죄를 생각

해 보았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죄는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하는 것이며, 죄는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며,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식 있는 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하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진실 된 증으로 진리(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

[잠언 19장 6, 22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어느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니까 "진정한 친구란" 제목아래 마음에 다가오는 글이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친구란 당신이 그리움 속을 헤맬 때에 문득 그리워지는 얼굴이며 당신이 살아있을 때에 곁에 있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당신의 환한 미소에 응답할 사람이며 당신이 어디에 있건 당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주려하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아픔, 당신의 슬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좌절해 있을 때 당신에게 따뜻한 느낌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당신이 홀로 길을 걷고 싶을 때 당신의 그 마음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당신이 외로울 때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며 짤막한 사연을 보내고픈 사람입니다. 친구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할 때도 당신의 행복만을 빌어줄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인터넷).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면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9장 22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6절을 보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요즘처럼 경제

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어 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젖어있어서 어떤 행동이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더욱더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좀 보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과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는 식당 중에 El Pollo Loco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도 하나 있지만 저희 집 근처에도 또 하나가 있어서 이 두 군데를 주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Tostada salad라는 것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한번은 저희 집 동네 근처에 있는 El Pollo Loco 식당에 가서 Tostada salad를 주문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lettuce를 너무 조금 넣었기에 제가 다시 일하는 사람에게 좀 더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한 번은 저희 교회 근처에 같은 식당을 가서 동일한 음식을 주문하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제 이름을 확인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저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가득 채워서 줬는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심이 후한 사람이 좋지 인색한 사람이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6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너그러운 사람은 인심이 후한 사람으로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남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알아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며 사랑의 손길로 섬깁니다. 섬기되 너그러운 사람은 오늘 본문 잠언 19장 6절 하반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듯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who gives gifts). 그러므로 너그러운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22:9) 종일토록 은혜를 베풉니다(시 37:26).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합니다(잠 11:25).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구제해 주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며, 여러분에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너그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너그러운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그리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 너그러운 자와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여러분에게 이러한 너그러운 친구가 있습니까?

잠언 18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

던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이 사실, 그 결과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요(잠 22:9)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시 37:2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족케 하실 것이며 또한 윤택케 하실 것입니다(잠 11:25).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은 인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잠언 19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인자함"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개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소원이 그의 친절이니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박윤선).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선(인자)을 행할 소원이 마음속에 간절하다면, 그런 소원을 가진 가난한 자가 마음 없이 선을 행한다는 부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여기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이 중요하기보다 마음속에 인자를 행할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삼상 16:7).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기에(시 51:6) 우리 마음에 인자함을 행할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 하는 부자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실 된 가난한 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부자는 겉으로 많은 이들을 구제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자함이 없는데 가난한 자는 인자한 마음으로 소수의 이웃들을 구제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멕시코 교회에 성도님들이나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승리장로교회 선교팀 분들이나 순수한 마음으로 멕시코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섬기시고 계시는 고메즈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멕시코에 많은 교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질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멕시코 교회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및 이런 저런 것들을 주고 있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승리장로교회에서 한 집사님 부부가 매일 can food (통조림 식품)를 모아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시는 것들을 우리 선교 팀이 멕시코 교회에 가지고 가서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사역이라 전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 교회 한 자매는 그 can food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인자를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솔로몬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 제단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4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5절)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자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함을 경험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은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시 63:3) 그 인자하심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정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아 7:10).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냐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모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며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 73:25). 그리고 바라기는 새찬송가 88장 1절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 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별 주님 형언할 길 아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19장 8, 16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시애틀 영광교회를 섬기시는 김병규 목사님이란 분이 쓴 칼럼 제목이 흥미로워서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자기 사랑이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였습니다(인터넷). 그 칼럼에서 김 목사님은 건강한 자기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소극적 차원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받고 용납 받는 경험을 많이 받아봐야 다른 사람도 많이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혜와 복음적 사랑을 느껴봐야 합니다." (2) 적극적 차원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알고 기뻐할 줄 알며 은사에 대해 행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사랑의 기초는 자기 사랑이라기보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병규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사랑의 기초라고 말한 것도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도 동의합니다. 특히 저는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말이 마음에 좀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의 장점을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해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8절과 16절을 보면 성경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구절 말씀 중심으로 "**자**

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한 2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8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일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좀 이기적이란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한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즉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듯이 나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오늘 본문 잠언 19장 8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한삼서 1장 2절의 간구가 응답 받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8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잠언 19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족하게 지내게 하며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우리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 동안 매

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성경 66권 중 지혜서(the book of wisdom)로 불리는 전도서를 이미 묵상했고 지금은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서인 전도서와 잠언을 묵상하는 이유는 물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계(discipline)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0절을 보십시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분명히 성경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을 때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훈계 받기를 싫어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잠언 15장 32절을 보십시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훈계 받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훈계 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지, 내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아 갈 때에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6절을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성경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을 지킨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이란 단어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어 히브리어로 "영혼"이란 "마음"(heart)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잠언 19장 8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뜻입니다(Swanson). 즉, 성경은 '마음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가서 성

경은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란 “명철”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8절). 그런 후 오늘 본문 잠언 19장 16절에 와서 성경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혼을 지킨다는 말씀은 마음을 지킨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므로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몸 건강을 잘 관리하므로 건강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몸 건강 지키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마음(영혼) 건강 지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특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신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여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딛 1:15).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지지 않도록(롬 1:24)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막 7:21-22)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한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u>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u>.

잠언 19장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 여기서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고 명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2)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19절 상반절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자의 멸망을 경고함입니다(박윤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 화요일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분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나누신 한 박지성 축구 선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 한 마디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박지성 선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 한 마디는 바로 히딩크 감독이 그에게 한 말로서 통역자가 이렇게 박지성 씨에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훌륭하대요.” 박지성 선수는 그 말 한 마디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면 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 한 마디가 자기의 심중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히딩크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이름 꽤나 알려진 유명 스타가 되었다거나 부모님께 45평짜리 아파트를 사드릴 만큼 넉넉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전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독님이 던진 채 1분도 안 되는 그 말 한마디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머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한국 축구 국가 대표 선수를 지냈던 박지성 선수가 예전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가 되었다는 말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히딩크 전 국가 대표 감독의 한 마디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

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므로 우리 자신의 영혼(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미련한 아들

[잠언 19장 10, 13-14, 18, 26-27절]

여러분, 혹시 한국의 전래동화 중 “미련한 소금 장수 아들”이란 글을 읽어 보셨나요? 그 동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인터넷): 옛날 어느 마음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둔해서 늘 걱정거리인 아들 … 다 자랐음에도 셈도 못하고, 쌀과 보리도 구분을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당연시자 … 소금 장수는 언제나 미련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소금장수가 되겠다고 하기에 소금장수는 그의 아들에게 소금 지게를 지워 내보내면서 나가서 소금을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미련한 아들은 광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일하는 광부들에게 오히려 그는 욕만 실컷 얻어먹고 소금 한 바가지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소금장수는 그런 곳에서는 같이 땅을 파주고 일을 도와주면서 사람들이 쉴 때 소금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길을 나선 아들은 이번엔 혼인 잔치를 벌이는 곳을 기웃기웃 거리다가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며 신랑신부 옆으로 가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사스러운 날 무슨 짓이냐며 몽둥이를 들고 혼내주려 했고 아들은 깜짝 놀라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런 데 가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말하면서 춤을 추어주고 소금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아들은 소금을 팔러 나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경사로다 경사로다 말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소금을 사라고 외쳤는데 그 곳은 다름 아니 불난 집의 마당이었습니다. 매만 맞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런 데 가서는 물을 끼얹고 불을 끈 다음 소금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아들은 그 다음 날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물을 홱 끼얹고 소금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들에게 우르르 몰려들어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을 뿐인데 소금도 못 팔고 매번 사람들에게 맞기만 했기에 다시는 소금을 팔러 안다닐 거라며 죄 없는 아버지만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걱정거리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말만을 기억해 행동을 옮겼지만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 보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아

들이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서 "미련한 아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늘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박윤선).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미련한 아들**"이란 제목아래 한 2가지를 중심적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아들은 어떠한 자이며 그리고 둘째로 부모가 그 미련한 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미련한 아들은 사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0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언젠가 한국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이라고 하면서 타조가죽으로 만든 100만대 국내 명품 가방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국내 영세업체가 수작업으로 만든 가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때 그 뉴스를 접하면서 스쳐간 생각은 '저 가방 불티나게 팔리겠다'였습니다. ㅎㅎ 그 이유는 대통령이 그러한 가방을 들고 다니니 나도 그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명품을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값 비싼 명품을 구입하는 계층이 넓어지면서 인기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웹사이트를 보니까 "사치스러운 여자란?" 제목의 글이 있어 좀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남자들은 사치스러운 여자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치'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다섯 가지 목록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 200만 원짜리 루이뷔통 백이 2개쯤 있다. (b) 루이뷔통은 사치가 아니고, 사넬 쯤은 되어야 사치다. (c) 점심은 대충 먹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사치다. (d) 자기가 벌어서 쓰면 괜찮고, 부모 돈으로 쓰면 사치다. (e) 일 년에 한 번 해외로 여행을 다닌다면 사치다. 답은 위에 다섯 보기 중 없습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주장은 남자에게 사치스러운 여자의 기준이란 '내가 현재 벌고 있는 또는 앞으로 가능한 소득수준에서 그녀의 현재 소비패턴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가 보기에 사치스러운 여자에 대한 기준이지만 일리가 있는 사치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정서적으로 사치스러운 시대 … 그래서 고독. 절망 더 깊어져"란 제목아래 글이 있어 좀 읽어 보았습니다. 한 문학평론가와의 인터뷰 한 내용이었는데 그 문학평론가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공감이 되어 좀 나눕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치스러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옛날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고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고독감과 절망, 좌절감을 더 심하게 느끼지요"(인터넷).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치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7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사치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웃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하여 과부의 심정을 외면하고 과부 앞에서 남편 자랑하는 것이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앞에서 아이 자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어려움, 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쓰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정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치를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인터넷).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사치란 가난한 자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9장 10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향락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인터넷). 그런데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뿐만 아니라(10:23) 이 세상의 향락으로 낙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19:10). 특히 가정에 있어서 미련한 아들은 집과 재물을 그의 부모님에게서 상속 받아서(14절) 허랑방탕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여(12절) 그 재물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것(13절)처럼 미련한 아들은 그의 부모에게 재물을 상속 받아 사치스럽게 삽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오늘 성경 잠언 1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히 5:8).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받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2) <u>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입니다.</u>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니라.” 이 말씀을 언어 히브리어로 개역하면 다름과 같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연거퍼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박윤선).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말씀들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0:1, 17:21, 25). 그리고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고통이 되며(17:25) 또한 미련한 아들을 둔 아버

지에게는 낙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1절). 그러다가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에 와서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앙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a)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이유는 부모 된 자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인력으로는 면할 길이 없고 별 수 없이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인력으로 면할 수 없음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고통이요 재앙입니다.

(b)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이유는 명예 상으로든지 재산상으로든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미련한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명예 상으로든지 재산상으로 손해보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도 봅니다. 왠지 "손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미려한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탕자처럼 방탕 생활하는 자녀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을 다 갈아 먹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손해요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c) 미련한 아들이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이유는 이런 괴로운 일은 선한 사람들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요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자녀 농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고 정성들여 물과 거름을 주면서 돌보았는데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다른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한 가정에 어떻게 삐뚤어진 미련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

입니까?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에서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의 가정에서 맏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가정에는 10명의 자녀들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버리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뿐입니까? 다윗의 가정에서는 암논이 자기 형제인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미련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과 슬픔과 불행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오늘 본문 잠언 19장 13절 말씀대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스뱌냐 3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큰 기쁨이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다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3) 미련한 아들은 그의 부모님에게 부끄러움과 능욕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6절을 보십시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를 구박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박한다’는 말은 ‘도둑질한다’는 뜻입니다 (Swanson). 다시 말하면,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물건을 어떻게 도둑질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낭비하는 것이 생각은 나지만 말라기 3장 8절 말씀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공경과 더불어 물질(용돈)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잠언 2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 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이 죄를 하나님과 자기의 부모님에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를 좇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아들은 자기의 어머니를 집에서 몰아냅니다. 어머니를 모시기보다 오히려 집에서 좇아내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서도 어머니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 노인 아파트 등 다른 곳에서 살게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미련한 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분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아들은 그의 부모님을 구박하고 좇아내므로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줍니다. 성경에 미련한 아들이 그의 부모님에게 부끄러움과 능욕을 끼치는 것 외에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는 자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6-17절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련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며(눅 18:20) 부모에게 효를 행합니다(딤전 5:4).

마지막 셋째로, 부모가 그 미련한 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부모는 그 미련한 아들에게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 여러분, 왜 우리 부모가 미련한 아들에게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아들에게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 부모는 그 미련한 아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미련한 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를 징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왜 우리가 우리의 미련한 아들을 징계해야 합니까? 잠언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가 미련한 아들을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징계하는 채찍이 우리 아들의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부모는 그 미련한 아들로 하여금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7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미련한 아들에게 희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에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에서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련한 아들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

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지식을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녀가 잘 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므로 나름대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여 양육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부모님에게 삐뚤어 나아가는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자녀 농사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양육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부모로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련함을 보이기보다 지혜로움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잠언 19장 10, 13, 14, 2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치하는 삶을 살지 말고 검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만일 우리에게 미련한 자녀가 있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능욕을 가져오며 우리에게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며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19, 25, 28, 29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보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회원자격"이란 교제를 보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영적 자세들(spiritual attitudes)란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보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The kind of person *you are*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kind of work *you do*).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순선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순선위는 존재(being)이지 행함(doing)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존재에서 행함이 나와야지 거꾸로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해인 수녀님 쓴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란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를 읽다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볕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인터넷).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인 수녀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희망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리고 "기쁨의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

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묵상하고 있는 잠언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9절, 25절 28-29절을 보면 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란 제목 아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9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은 맹렬히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진짜 very furious (몹시 화가 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영어 성경 NIV에서는 "A hot-tempered man", 즉 "욱하는 성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분노를 폭발합니다. 이 욱하는 성질이나 분노는 여섯 가지라고 합니다(인터넷): (1) 발성 분노(Sudden Rage)입니다. 이 분노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성격이 돌변할 정도로 화가 치미는 걸 말합니다.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전혀 못하거나 일부만 통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2) 잠재적 분노(Seething Rage)입니다. 이 분노는 반응이 누적된 것입니다. 이성의 장막 아래서 용암처럼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것으로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3) 생존성 분노(Survival Rage)입니다. 이 분노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결정짓는 특정부분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폭발하는 것입니다. (4) 체념성 분노(Impotent Rage)입니다. 이 분노는 무력감입니다. (5)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Shame-based Rage)입니다. 이 분노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게 아닌 데 민감한 반응입니다. (6) 버림받음

에서 비롯된 분노(Abandonment Rage)입니다. 이 분노는 외로움, 초조감, 불안감 등을 잘 견디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욱하는 분노는 총체적 분노(Total Rage)로서 강력하고 극단적입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이란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furious"(매우 화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이 "furious"란 단어를 보니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복수의 세 여신의 이름이 "Furies"라고 합니다(인터넷). 로마인들은 복수의 여신들을 푸리아(Furia:영어로는 Furies)라고 했는데 이것은 fury(분노, 격심함, 격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본래 이 말은 격렬하게 요동치는 일종의 광기를 뜻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와 같이 행동하는 여자를 일컬어 퓨리(Fury)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런 의미가 약화되었고 furious에는 '매우 화내다'라는 뜻만 담겨있습니다(인터넷).

이미 우리가 잠언 15장 18절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매우 화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잠언 19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가 노하기를 맹렬히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잠언 19장 19절에서 성경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죄를 범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범함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 어도 맹렬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왜곡하여 듣기에 맹렬히 분노하는 자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죄를 범함은 오늘 본문 잠언 19장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줘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고 나서도 또 다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He who is slow to anger)가 되어야 합니다(11절; 14:29; 15:18; 16:32).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출 3:6, 민 14:18, 시 86:15, 145:8, 나훔 1:3, 요엘 2:13, 요나 4:2). 만일 우리가 노하기를 속히 하

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잠 14:17). 그러나 만일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 하면 성경은 우리를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19:11).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노하기를 더디 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망령된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8절을 보십시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여기서 "망령된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망령된 증인이란 의도적으로 정의를 왜곡시키며 또한 무시하는 쓸모없고 사악한(worthless and wicked) 증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망령된 증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망령된 증인은 입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로 죄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Walvoord). 여기서 망령된 증인이 추구하는 죄는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6:19). 즉, 망령된 증인은 거짓 증인입니다(19:5, 9).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왜 이리 거짓말들을 많이들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이 문화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거짓말들을 한 것이 다 들통 났을 때에서야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 때에는 거짓말(선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28절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6장 19절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두 말씀을 함께 연관해서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망령된 증인은 거짓을 말하되 진실 된 말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충분히 형제 사이를 이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망령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19:5, 9; 21:28).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왜 망령된 증인은 의도적으로 정의를 왜곡시키되 그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시편 59편 1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망령된 증인이 의도적으로 정의를 왜곡시키며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에 망령된 증인은 진실을 왜곡시키며 입술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5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

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14:5, 25). 우리 입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신 5:20). 우리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 해서는 아니 됩니다(잠 25:18). 우리는 거짓말을 미워해야 합니다(13:5).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12:22).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요일 2:21).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잠12:17).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거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9절을 보십시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 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러분, “거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주로 우리가 ‘저 사람 거만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저 사람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는 ‘저 사람 거만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거만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한 히브리어-영어 사전을 보니까 “거만한 자”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거만한 자란 교만하고 오만한 자로서 경멸(멸시)하기를 기뻐하면서 훈계나 책망을 할 수 없는 자이다. 이러한 자에게는 아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Whitaker). 즉,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요, 오만한 자로서 자기 주제를 모르기에 자기 자신이 남보다 잘난 줄 알고 남을 경멸(멸시)하는 것은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은 훈계나 책망 받기를 매우 싫어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God mocks proud mockers)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거만하면 우리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you alone will suffer)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자녀안에 거만함을 우리 부모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 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1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잠언 10장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 잠언 26장 3절을 보십시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결국 성경은 거만한 자녀에게 매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5절을 보십시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3장 14절을 보십시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26:12) 또한 스스로 높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12:9, 25:6). 우리는 마음을 높은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롬 12:16). 한 마디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지면 아니 됩니다(고전 4:18).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대하 12:6).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참고: 빌 2:6-8).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고전 9:19).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19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령된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 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적인 대통령

[잠언 19장 12절; 20장 2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상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면 생각나는 것은 2004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한 QT 제목입니다. 그 제목은 바로 “버림받은 왕”이였습니다.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그 때 타이밍이 좀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일부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접하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버린 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 묵상하는 가운데 고 노 전 대통령의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묵상한 것을 보면서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일곱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 교만, 외식, 변명, 탐심, 우상숭배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 그 때 저는 '버림받은 사울 왕'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과 위기 가운데 버림받았던 사울 왕이 있었지만 같은 시기에 세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위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버림을 받을 때에 온 백성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란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인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을 때 그는 즉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대통령)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는 말로 그 QT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에 대하여 묵상한 QT 파일을 보니까 2008년 6월에 시편 101편 말씀 중심으로 “이상적인 왕과 이상적인 그의 백성”이란 제목아래 말씀 묵상한 것이 있어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때 TV 뉴스에서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 James

Dobson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에 대한 발언 중 그는 “confused theology”(혼동된 신학)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을 다시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한 그 시기는 한국에 그리스도인인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지 얼마 안 되어 소고기 재협상이라는 구호아래 촛불 시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101편을 묵상케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이상적인 왕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생각케 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로 묵상을 했었는데 첫째로, 이상적인 왕의 마음은 인자와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둘째로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셋째로는 이상적인 왕의 마음은 사특한 마음(간사한 마음,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멀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왕”에 대하여 묵상한 QT는 바로 작년 2012년 5월에 묵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묵상은 잠언 16장 10-15절 말씀 중심으로 한 것으로 그 당시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에 “오바마는 최초의 게이대통령”이란 제목 아래 글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동성결혼을 지지한 오바마 대통령,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대통령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한 3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둘째는,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며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는 충신의 충고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오는 가운데 오늘은 본문 잠언 19장 12절과 20장 2절에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상적인 왕에서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구절 말씀 중심으로 “**이상적인 대통령**”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상적인 대통령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2절 상반절과 20장 2절을 보십시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19:12),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왕의 노함(진노)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질문은 ‘왜 왕은 진노하는가?’입니다. 왕이 진노하는 이유는 그가 폭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죄악을 미워하여 노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잠언 16장 12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19장 12절과 20장 2절에서 말

씀하고 있는 왕의 노함은 공의(righteousness)를 나타내는 진노입니다. 이 공의를 나타내는 왕의 진노를 묵상할 때 저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심사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났다(18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6-27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순리이건만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이 불 일듯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또는 보응인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왕의 노함(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말은 사자란 짐승이 거처하는 산중에 어디든지 들리는 것과 같이 통치자의 행정 능력은 그 나라의 악인들을 어디서든지 두렵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fear to whom fear)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1절).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1절). 그리고 바울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고 말했습니다(3절). 무슨 뜻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가지고 공의를 행하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입니다. 즉, 그는 공의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행 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해야 합니다(벧전 2:14). 우 리는 이러한 공의로운 왕을 존대해야 합니다(벧전 2:17).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하면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가 우리 시민들에게 존대를 받을 만한 대통령인가 의문이 듭니다. 왠지 그는 James Dobson 목사님의 말처럼 혼동된 신학을 가진 대통령 같고 그의 신앙은(만일 신앙이 있다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왕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가 동성 결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법화 하려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사야 32장 17절을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에 평화와 평안과 안전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다간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시대에는 너무나 여러모로 불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34절을 보면 성경은 “공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공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를 영화롭게”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므로 우리 시민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왕상 3:6).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사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대하 9:8).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윗 왕처럼 그리고 솔로몬 왕처럼 정의와 공의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하여주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이상적인 대통령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 19장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왕의 은택(favor)가 누가 받습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왕의 은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9장 12절에서 왕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란 첫째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왕은 매우 (진)노한다는 것과 둘째로, 그러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왕은 은총(호의, 친절)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미 잠언 1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누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입니까? 잠언 16장 13절을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충신들이요 충신들은 “의로운 입술”이 있어 왕에게 정직을 말합니다. 왕은 이러한 신하들을 기뻐한다(delights)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신하, 특히 잠언 16장12절 말씀에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악을 행하는 간사한 신하들은 왕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

니다. 이 원리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되 방패로 함 같이 은혜를 그를 호위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비록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사방을 보아도 문제와 어려움들만이 있겠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를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9장 12절 하반절에서 풀 위의 이슬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풀 위의 이슬과 같은 왕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풀"은 일반 백성을 비유하는 말로서 매우 약하고 이름도 없는 것 같고 그 풀 위의 이슬과 같은 왕의 은택이란 말은 왕은 위엄으로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이슬 같이 고요하고 부드러운 체휼의 사랑으로 임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왕은 그의 백성의 봉사를 받기만 위주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또 존중히 대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물론 이것은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를 말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할시 에는 공의로운 왕은 악을 미워하므로 진노가운데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는 이상적인 왕은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들을 존중히 대합니다. 그 결과 그 나라 백성은 대중적인 혜택을 누립니다(16:15).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 보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시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누리게 하고 있다면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이 나라의 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전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건강 보험을 다 들게 하는 것과 소수의 국민들인 동성연애자들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것인 진정으로 국민을 고요하고 부드러운 체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존중히 대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건강보험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성결혼 지지 및 합법화 하려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를 볼 때에 이것은 국민을 사랑하여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의미가 없는 사랑입니다(Meaningless love).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즉, 이상적인 왕은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상적인 대통령인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술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지 마십시다.

[잠언 20장 1절]

여러분, 여러분 생각엔 왜 사람들은 술을 취하도록 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인터넷 한 기사를 보니까 술을 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시는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인터넷): '월요일은- 월래가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롱해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 토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 그 인터넷 기사에 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잔은- 건강을 위하여 마신다고 하나, 얼큰하면 - 쾌락을 위하여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면 - 방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만취가 되면- 광기를 부리게 된다." 술을 마시는 이유 중 하나는 기분이 좋아서 일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알코올을 조금 마시면 처음에는 중추 및 말초신경이 흥분되고 위산 분비가 촉진되며 또한 도파민(dopamine)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되므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을 과음하거나 장기간 남용 또는 과용하면 술이 불행하게도 뇌세포 파괴를 촉진시켜 우리 뇌의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매일 십만 개씩 뇌세포가 자동 사멸하는데, 알코올을 다량으로 마시면 더 많은 뇌세포가 죽습니다. 학업이나 기억 또는 사고능력 모두 저하되는데, 이들의 저하는 알코올의 농도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코올을 과음하면 취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소위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인터넷). 또 다른 사람은 술을 이럴 때 자기는 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나쁜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친해지기 위해 술을 마신다. 고백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리운 사람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속이 상할 때 술을 마신다. 누군가 보고플 때 술을 마신다. 마음이 울적 할 때 비가 올 때면 술을 마신다. 피로에 지쳤을 때 술을 마신다. 단합을 위해 술을 마신다. 호기심에 술을 마신다. 외로우면 또 술을 마신다"(인터넷).

여러분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안티 기독교 클럽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열 가지 이유 …" 중 넷째 이유를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넷째, 목사님께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어려운 자리에서 술잔을 받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에게 손가락질 하더군요.. 술 몇 잔은 괜찮아.. 받아... 참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더구나 집사 장로 아들이라는 작자들이 그러더군요.. 난 완전히 사기 당했습니다. 순진하게 목사님 말 듣다가 망했습니다. 요즘은 술을 먹게 됐습니다. 좋더군요... 요즘은 성경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왜냐구요..기독교인들에게 욕 얻어먹으니까요"(인터넷). 저는 이 넷째 이유를 읽으면서 적어도 이 글을 쓴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 쓴 사람의 말처럼 교회 장로님이니 집사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욕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론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아들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둘째 치고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가 듣기론 2세 목사님들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미국 보수 신학교를 졸업한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교회 보수 신학교 방문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 그 신학교 학생들 중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다고 저에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제가 기독교 책방에 가서 본 책 제목인데 그 제목이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입니다. 저자는 이 만재란 사람으로서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독교계 최고의 스테디셀러가 된 "막 쪄낸 찐빵", "세상 속의 찐빵"이란 책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방송생활을 통해서 얻은 많은 교계정보 중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비롯된 전반적인 교세 성장의 둔화 현상의 원인이 초신자 신규 영입 증가율의 감소와 신세대 청년층의 잇단 교회 이탈현상을 보고 기도와 숙고 끝에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77가지 이유 중 여섯 번째가 바로 "술 담배도 이해 못 하는 교회, 이해 안 돼!"입니다. "술 담배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물에는 이해의 양면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된다면 나중에 술 담배 끊고 나서 한 번 고려해 보겠다"(인터넷). 실제로 이만재씨의 말처럼 술 담배 끊고 나서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불신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교회를 가려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 별 자책감을 느끼

지 못하고 기독교인도 술 담배 하는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마시면 아니 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를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술 취함은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술 취함과 술 마심을 구분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도주를 마신 것은 사실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 마심은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의 “아디아포라” 문제, 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지식의 원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화되었으므로 구약적인 음식 규정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 따라 구약에 금지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담배도 피울 수도 있고 피우지 않을 수도 있다. 공식 석상에서 예의상 술 한 잔 한 것을 놓고 술을 마시지 않는 신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정죄하는 것이나, 다른 나라 신학자나 선교사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지나치게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술 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신자가 그렇지 않는 신자를 보고 믿음이 약한 신자라고 비난하면서 그 앞에서 대범하게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더욱이 술 담배를 못하는 ‘약한 신자’를 교육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술 담배를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바울은 이런 의미의 ‘믿음이 약한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포도주나 고기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구약에서 금지된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인터넷). 결론적으로 이 신학자의 결론은 술 담배가 몸에도 해롭고 가정에도 해롭다는 인식에 비추어 사랑과 건덕의 원리[근본적으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관용의 원리(인터넷)]를 적용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술 담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답하기보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인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란 말씀 중심으로 한 3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나 “독주”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잠언 기자 솔로몬 당시나 구약 당시에 “포도주”와 “독주”를 우리 시대에 “술”과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구약 당시 “포도주”와 “독주”가 지금 우리 시대의 술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생각에도 동일시 할 수가 없다고 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포도주”란 그 옛날 당시에는 최고로 취하게 만드는 술(음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모든 포도주는 라이트 와인, 즉 오늘 말로 하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농도가 강한 알코올은 중세 시대에 아랍인들이 증류(법) (distillation)을 발명한 후부터 알려졌다고 합니다[“증류”란 술을 만들 때 증기를 모으고 액체를 배출하여 원래 술보다 알코올 도수를 더 높게 하는 것임(인터넷)]. 그리고 “알코올”이란 단어도 아랍어라고 합니다. 그 중세 시대 때부터 “리큐어”(liquor) 또는 독한 술(독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대에는 20% 강화된 포도주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Vine). 그러므로 성경 시대에 술 취함(drunkenness)란 우리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alcoholism)과 달리 그리 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Harri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술 취함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에서 “포도주” 외에 “독주”(strong drink)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여기서 “독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독주”란 보리나, 대추나 혹은 석류로 만든 술로써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사 28:7).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제사장들(레 10:9)과 나실인(민 6:1-3 그리고 다른 사람들(사 5:11)도 마시는 것을 금했습니다(Walvoord). 그 한 예로 이사야 28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에 실수하는 모습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술 취해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9절에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술들이 많고 그 술들을 마시므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폴란드의 스피리타스라는 보드카라고 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무려 96도로 대부분 수순 알코올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불이 붙은 듯한 강한 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롯데칠성의 신제품 '하이주(HI-CHU)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이주에는 알코올 5-6%와 과즙 1%가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맥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4%짜리 맥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일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지금 미국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천오백만 명(15 million people)이라고 합니다(인터넷). 한국은 성일 알코올 중독자가 220만 명에 이르고, 알코올 중독의 전단계인 알코올 의존성 환자도 성인 5명중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슬로베니아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합니다(인터넷). 그렇다면 성경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싸우게 하는 것이라 …"입니다(박윤선).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를 거만케 하며 또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술이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 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3절) 자그마치 180일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4절).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면서 참석한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3절)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왕궁 후원에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5절) 그 때에는 잔치에 참석한 자들로 하여금 금잔

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어주가 한이 없이 풍부하였고(7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들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게했습니다(8절). 그러다가 제 칠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자기 내시 일곱 사람에게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여 그녀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다가(10-11절) 왕후가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여(12절) 결국에는 왕후를 폐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술잔치 베풀어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까지 자랑하려다가 아내가 말 안 들으니까 진노하여 아내와 이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술취하게 되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호 4:11) 자신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들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노함도 들어냅니다(참고: 사 16:6). 그러기에 술좌석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잠 20:1). 그 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잠언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실제로 술좌석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나 싸움이 그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에서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lead astray)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되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길로 이끕니다. 미련한 길로 이끌되 우리로 하여금 당장 분노를 나타내어(12:16) 다툼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20:3)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듭니다(14:9). 결국 포도주와 독주란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포도주나 독주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1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다른 악영향은 우리의 수치를 들어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술 취한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거만하게 하는 포도주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독주에 미혹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1)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멀리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만을 우리 또한 미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에 미혹되어 미련한 길을 걷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약 1:5).

(2)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엡 5:15-16).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16절). 그러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17절)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18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술 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조차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사 5:12).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11절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악한 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악한 때에 지혜롭게 행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 부흥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개역한글).

(3) 우리는 술을 즐거워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23장 20절을 보십시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술을 즐겨하는 것, 즉 연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여 낙을 누리게 해 보려고 쾌락(pleasure)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1-2절). 그래서 그가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이 바로 “술”이였습니다(3절). 그는 술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 술 마심에 있어서도 솔로몬 왕은 자기의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즐겼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키레네 학파의 주장처럼 술을 즐기되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 지혜로서 술을 지배하면서 솔로몬 왕은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키레네 학파의 주장처럼 솔로몬 왕은 술의 쾌락을 자신의 지혜로 지배하는 가운데 술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취하여서”(embracing foll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술 취함으로 쾌락을 누려보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술을 즐거워하는 자처럼 그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술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사귀데 그 목적은 그의 영혼은 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왜 신약 성경에서 모든 신자들이 술에 취하지 말도록 금지하였는지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박윤선): (1) 사람이 취한 정신으로 거룩한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사람이 취함으로 인하여 많은 다른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3) 사람이 술에 인박혔으니만큼 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딤후 3:4).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마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로 인하여 죽은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술 집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집 경비원에서 총 맞아 죽고 또 다른 사람은 술좌석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경비원에게 총 맞아 죽은 친구의 장례식 후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도 또 하나 잊지 못하

는 기억은 또 다른 친구의 장례식 때 그 친구의 삼촌이 우시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셨을 때 친구 잘 못 사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전도 대상자 친구들에 술좌석에 함께 할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안전입니다. 혹시나 술 취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면서 특히 술 취하고 나서 운전대를 잡지는 않을까 신경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추억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 말씀을 생각할 때 술이란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술이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술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이란 바로 우리 자신의 거만함을 나타내며 또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을 삼가하고 결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잠언 20장 3-7절]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때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뉴스에서 범죄 사건들을 들을 때에 사람의 악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죄악 된 일이 쌓인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없는 자이고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자(17절)는 세월을 허송합니다(16절). 그리고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17절). 그러기에 그는 술 취하며 방탕합니다(18절).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합니다(18절). 그리고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17절). 그러므로 그는 세월을 아껴(16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3-7절을 보면 성경은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명철한 자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3절을 보십시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는 이미 잠언 20장 1절에서 술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지 말자고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술로 인하

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미련함이란 우리 자신의 거만함과 또한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7장 14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8절을 보십시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면 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영광임을 모르기 (또는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오늘 본문 잠언 20장 3절에서 성경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11절에서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한 후 이렇게 20장 3절에 와서 성경은 "다툼을 멀리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두 구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3).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다툼을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툼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20:3). 우리가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당장 분노를 내지 말고 수욕을 참아야 합니다(12:16).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해야 합니다(19:11).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 할 때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수 있습니다(15:18, 17:14, 29:22).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영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19:11).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는 게으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4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미 잠언 책을 묵상해 오면서 게으름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의 요점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10:4). 그 이유는 게으른 자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의 손을 게으르게 놀리고 있기 때문에(10:4)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만 그는 자기의 머리를 부지런히 돌립니다. 특히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잠언 15장 19절에서 묵상했듯이 악인은 꾀를 많이 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게을러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며 수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에는 동서남북으로 가시와 같은 어려움들로 둘러싸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고 우리는 이미 잠언 18장 9절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자와 패가하는 자가 형제라는 말은 게으른 자는 큰 낭비자(a great waster)란 말입니다. 그 말은 게으른 자는 마치 방탕 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웃기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 말입니다. 실제로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인데(1:32)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기 여기니 결국 게으른 자는 교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4절에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가을"이 아니라 "겨울"(winter)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겨울"이란 달력으로 말하자면 11월이나 12월을 가리킵니다(Swanson).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추위 때문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하리라"(박윤선). 여러분, 11월이나 12월이 따뜻합니까 아니면 춥습니까? 당연히 춥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북쪽으로부터 주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MacDonald). 이렇게 바람 불고 추운 겨울 날씨에 게으른 자는 밭을 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가 추운 날씨에 밭에 나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추수 때에 게으른 자는 거둘 것을 아무리 찾아도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밭을 갈지 않았으니(plowing) 아무 것도 심을 수 없었을 것이요 아무 것도 심지 못하였으니(planting) 당연히 아무 추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MacDonald)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합니다(잠 12:27, 15:19).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되 우리는 개미처럼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6:7). 그리고 우리는 개미처럼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되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8절). 마치 개미가 추수하는 여름 때에 겨울철 먹을 것을 미리 모아들이므로 겨울

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할 것들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명철한 자입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명철한 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도 표면으로 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다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철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모략을 길어 내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 안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길러 내듯이 하나님께서 상담케 하시는 지체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밖으로 끌어내는 지혜를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5절을 보면 명철한 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도 표면으로 들어낸다고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철한 자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생각이나 의도(목적)를 표면으로 끌어낸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 판결내린 재판입니다. 그 재판은 "창기 두 계집"이 그에게 와서(16절) 살아 있는 한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쟁론할 때(22절) 내린 판결입니다. 그 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24절)하여 "산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25절)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기의 진정한 엄마나 누구인지 분간하여 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 진짜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 왕에게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26절).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26절). 그 말들을 들은 솔로몬 왕은 산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주고 결코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27절). 즉, 그는 누가 진짜 아기의 어머니 인줄을 지혜롭게 판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28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판결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여러분, 어떻게 명철한 자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생각이나 의도(목적)를 표면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잠언 18장 4절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즉, 명철한 자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표면으로 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의 충만한 지혜의 입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지혜의 충만함 속에서 말을 하는 명철한 사람은 상대방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 등을 표면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만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명철한 자는 충성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6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12절)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20장 6절 하반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말씀을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저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6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충신의 충고를 잘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은 악을 행하는 간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가운데서도 충신들을 자기 옆에 두고 그들의 충고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충신들의 입술은 "의로운 입술"이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정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16:13). 왠지 저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이러한 충성된 신하들이 그리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만일 그에게 충신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

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을 때(왕상 11:4) 그 충신들이 솔로몬 왕에게 정직을 말하였을 것이며 그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20장 6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왠지 그에겐 자기의 인자함(unfailing love)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충성된 신하들이 아니요 말로만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는 간신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고 탄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언제가 이 말씀 중심으로 충성된 증인이었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 대해서 3가지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3가지를 우리 각자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1) 충성된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2절). 즉, 충성된 증인인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은 바로 그가 본 천국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1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가리킵니다(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2)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 운

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장차 반 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천국(나라)에 이르는 길이요, 참음은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입니다(박윤선).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 ."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들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명철한 자는 온전하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7절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인은 순전히 행하나니 그의 후에 그의 자손들이 매우 복되도다"(박윤선). 즉, "온전하게 행하는 자"란 "순전히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전히 행하는 자"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욥이란 인물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욥이란 사람은 "순전(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개혁한글). 이 사실은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순전함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절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결심이요 고백이었습

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27:5). 오늘 본문 잠언 20장 7절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 곧 “순전히 행하는 자”란 말씀에서 ‘완전하다’ 또는 ‘순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내부적으로 온전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리고 “완전히”(순전히)란 말은, 신앙생활(혹은 경건)에 있어서 그 내부적 동기가 온전하여 순수 무잡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외식하지 않으며 변절하지도 않는다. 그는, 순전하여 단순히 하나님만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이며(마 6:24), 쟁기를 잡고 뒤를 돌보지 않는 자이다(눅 9:62)”(박윤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단순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살전 2:13). 왜 우리가 그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입니다(잠 30:5).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9절을 보십시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의로운(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행 24:16).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한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자가 되기보다 명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미련한 자이며 누가 명철한 자인지를 배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며 또한 게으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도 표면으로 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됩니다. 또한 명철한 자는 온전히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명철한 자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잠언 20장 8-12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몇 주 전 주일에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비판하지 마십시다”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심판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란 제목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8절을 보십시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흩어지게 하느니라”는 동사는 영어로는 “winnows out”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이 번역이 원래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입니다(Gesenius). 그 문자적 의미는 “(곡식에서 쭉정이 등을 가려내려고) 까부르다 또는 키질하다”라는 뜻입니다(네이버 사전). 또 다른 문자적 의미는 “(원치 않는) 무엇인가를 체로 걸러내다”란 뜻입니다(네이버 사전)[영어로는 “sifts”(MacArthur)]. 여러분, 키질하다(winnow)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키로 곡식 등을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인터넷).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결국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지혜로워서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선과 악을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 그 왕은 원치 않는 악을 걸러낸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구절 한두 군데가 생각났습니다:

(1) 첫 번째 생각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행하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곡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을 가리키고 쭉정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곳간은 한 마디로 말하면 천국이고 쭉정이인 악인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은 바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2) 두 번째로 생각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33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 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시되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심판 자리에 앉으신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염소와 같은 악인들은 영벌(eternal punishment)에, 그리고 양과 같은 의인들은 영생(eternal life)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마태복음 25장 4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 자리에 앉으시사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의인들 가운데서 걸러내서 영원히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

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앞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느 누가 ‘내 마음을 내가 정하게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33장 9-11절을 보면 욥의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만일 욥의 친구의 말대로 욥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과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새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4절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과연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같은 눈으로(계 2:18) 우리를 살피시되(창 16:13)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살피시는(잠 20:27)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정결하시사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고후 5:21).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하기 위해서입니다(시 51:2).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사(blot out all my iniquity) 우리 속에 정한 마음(pure heart)을 창조하시기 위해서(9-10절) 죄도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하셨습니다(롬 4:25).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고후 5:21).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란 깨끗하고 거룩하여 아무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the bride, the wife of the Lamb)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아내 또는 신부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19:9).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장차 오실 심판 자리에 앉으신 왕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자리에 앉으신 왕 중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깨끗케 하셨습니다'(I am clean and without sin)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0절을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잠언 책에 한 두 군데 더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23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11:1). 이 석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것(부정직)(dishonesty)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정직에 대해서 말하였을까요? 아마도 솔로몬 왕 당시에 상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울추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객들의 눈을 속여 물건의 품질이나 중량이나 분량을 속여서 (박윤선)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서 갈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인들이 고객들을 속인 방법은 '이중 저울'과 '이중 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정직한 상인들은 곡식을 팔 때에 가벼운 저울추와 작은되를 사용하여 곡식을 적게 주었고, 곡식을 살 때에는 무거운 저울추와 큰되를 사용하여 곡식을 많이 받았습니다(인터넷). 그래서 성경 신명기 25장 13-16

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상상이 좀 되십니까? 부정직한 상인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어서 이중 저울을 사용하여 고객을 속이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레위기 19장 35-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다면서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가 경찰에 걸린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인데 한국산이라고 속여서 팔면서 불의한 이익을 남기다가 경찰에 걸린 상인들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어떤 부정직한 상인들은 원산지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의 중량도 속이고, 심지어 미터기를 개조하여 불의한 이익을 고객들에게서 갈취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왜 상인들은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여 고객들로 부터 불의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부정직한 상인들은 불의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20장 11절을 보십시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품행을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행이 청결(pure)하고 정직(right)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미워해야 합니다(10절). 즉, 우리는 부정직을 미워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크리스천 상인들이 상업 행위에 있어서 부정직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업 행위를 다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불의한 이익을 얻고자 부정직하게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업 행위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시 51:10).

마지막 넷째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

신 것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귀와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또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MacArthur).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8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십니다(시 7:9).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잠 15:3). 그러나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시 10:4, 13). 그러므로 심판 자리에 앉으신 왕이신 주님께서는 마음에 미워하시는 악인을(11:5)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 하는 자들을 저항하신다(against)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시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사 악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마 25:46).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마 25:31-46, 계 20:11-15)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더라." 그 날에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심판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딤후 4:1, 벧전 4:5, 눅 14:10, 요 5:26~27, 행 10:42, 고전 3:12~15, 고후 5:10). 또한

산 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롬 8:1)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자들(요 5:24)에 대한 심판이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태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신자들의 은밀한 죄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고전 4:5, 고후 5:9~10). 따라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히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잠언 20장 8-12절 말씀 중심으로 심판 자리에 앉으신 왕에 대하여 네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앞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3)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 부정직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4)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감찰하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1)

[잠언 20장 13-18절 말씀 묵상]

몇 달 전 1구역 성경공부 때 디도서 2장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다'는 식으로 나누셨는데 나중에 성경공부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때 저는 그 말의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는지 할 말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sound doctrine)을 잘 배우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바른 말"(sound in speech)을 하지 못하고 있고 (8절) 더 나아가서 바른 삶(sound in life)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0장 13-18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란 제목 아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4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교훈들을 받아 힘써 지켜 행하므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미 우리는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잠언 6장 9-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20장 13절과 연관

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네 눈을 뜨라", 곧 '깨어 있으라'(stay awake)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해야 할 때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6장 6-11절에서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8절) 개미처럼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일을 해야 할 때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깨어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양식이 족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와 많이 연관된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와 또 다른 연관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되 성경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방식이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깨어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새찬송가 330장 "어둔밤 쉬되리니"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1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2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

러분, 이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되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할 때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방식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4절을 보십시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백화점이던 시장이던 물건을 사러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seller)하고 어떻게 흥정(bargain)하십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2003년 12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장인 어르신과 함께 차를 사러 Buena Park 지역에 있는 차 딜러 몇 군데를 다닌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때 '아 차는 이렇게 사야 하는 것이구나'란 생각이 든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장인 어르신이 세일즈맨에게 가격을 물으신 후 비싸다는 인상을 받으신 것처럼 하시더니 '다른데 가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일즈맨이 차 가격을 좀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Honda 차를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몇 주 전 세차하러 갔다가 거기 일하는 사람이 제 차는 SUV래서 $15을 내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그 사람에게 나는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에 $12.99 받았다고 확신 있게 말하니까 $13로 종이에 적더군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국 아주머니에게 그 종이를 주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12.99을 내라고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4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자(buyer)자가 물건을 파는 자(seller)와 협상(bargain)을 하는데 그 물건을 가격을 의도적으로 깎으려고 그 물건에 대하여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자는 가격을 내려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산 후 자기의 영리함(cleverness)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MacArthur).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여러 다양한 종류들의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물건을 사는 자로서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야 하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수입을 많이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가가 서로 흥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정해진 가격에서는 사는 자가 파는 자나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사는 물건들은 그런 것 같음(경매하는 사이트 외에는). 그러나 그 외에 물건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는 자나 파는 자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수입을 올려야 하는 파는 사람과의 협상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순수하고 정직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말을 했다가는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기에 과장된 말도 해야 하고 어쩌면 거짓말까지 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세일즈맨들은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0장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맛이 좋은 듯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마치 입에 모래를 먹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말입니다(Walvoord). 달리 말한다면, 처음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나중에는 자신에게 화가 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9장 17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남을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나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맛이 좋지만 나중에는 그 부정직한 행함에 결과(consequence)는 결코 맛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중에 우리의 잘못된(죄악 된) 선택의 결과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되 우리의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5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지식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말해야 하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야 합니다. 말하되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며 또한 적합한 때에 접합한 말을 해야 합니다(Walvoord).

셋째로, 우리는 바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6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만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잠언 6장 1-5절에서 이웃을 위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의 요점은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담보 또는 보증하였다가(1절) 우리가 그 이웃의 손에 빠졌을(2-3절), 즉 우리가 그 이웃의 채무 이행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Deliver yourself)는 것입니다(5절). 여기서 잠언 기사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데 그 어리석은 행동이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 불이행(defaults)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것, 즉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증을 서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웃이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그 이웃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어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 왕이 경고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은 만일 보증을 선 것이 사고가 생길 때에 실제로 책임질 것을 각오하지 못한 보증인이나 혹은 남에게 속아서 보증인이 된 사람 또는 책임을 이행할 경제적 실력이 없는 보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잠언 20장 16절에서 또 다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사람들의 보증 행위에 있을 수 있는 실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 실수란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외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므로 그 외인에게 아무 것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 박윤선 박사님은 “경제적 험”이라고 말했습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큰 경제적 모험입니까?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하여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던 보증을 서는 것이든 이러한 행위는 돈을 빌려줬던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사채업자들처럼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므로 모든 방도를 사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갚게 하되 이자도 엄청 많이 붙여서 돈을 받아낼 때에는 그것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에는 여러 번이나 모험적 보증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

니다(6:1-5, 11:15, 17:18, 22:26-27). 박윤선 박사님의 말입니다: "사람들이(특별히 신자들이) 경제적 모험을 하면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나친 경제 모험이 일종의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런 모험은 내일 일을 인간의 힘으로 주장할 듯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이다(약 4:13-17)"(박윤선). 여러분, "지나친 경제 모험이 일종의 불신앙"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혜의 책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제 삶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좀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론에서 잠시 나눴지만 교회 1구역 성경공부 후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런 저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점 몇 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가족 식구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우리 마음에 큰 상처와 상실 속에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나눈 것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이웃에게 내 마음의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하게 제 삶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언젠가 성경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를 읽다가 들릴라 라는 여인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라고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15-16절) 결국에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So he told her everything)는 말씀(17절)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받은 교훈을 그 집사님과 나누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진심을 다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절제할 필요가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절제 가운데에서는 "아니오"해야 할 때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오"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오"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증을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설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선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사랑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빚을 져서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 준다는 것은 결코 이웃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모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박윤선 박사님의 말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기보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참고: 신 15:1-15; 19:17) 또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참고: 레 25:35-38; 28:8)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바른 사랑이란 주님 안에서 사랑이요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랑은 결코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잠언 2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타인(외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보증서는 것에 실수를 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보증서는 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바른 경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8절을 보십시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한 월마트(Wall Mart)를 아시죠? 그런데 그 월마트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배경으로 세계 곳곳에 진출했는데(한국에는 1998년) 왜 한국 시장에서는 큰 참패를 당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낮은 가격만을 앞세우다 보니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들은 대형 할인점의 대표적인 형태인 창고형 매장 형태를 굉장히 싫어하고, 대형 할인점이라도 백화점과 같은 형태로 제품이 진열되어 있기를 원하는데 월마트는 이런 고객들의 성향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월마트는 이마트와 같은 한국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였고 급기야 이마트에 한국에서의 사업을 전부 매각하고 철수하였다고 합니다(인터넷). 이 결과와 오늘 본문 잠언 20장 18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경영함에 있어서는 "의논함"(advice)과 "지략"(guidance)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기 18장 17절 부터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준 자문(충고)입니다. 그 자문한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13절). 그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는 그들 모두가 필경 기력이 세하고 또한 모세가 홀로 이 중한 짐을 혼자 할 수 없는 알고(18절)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및 십부장을 세워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케 한 것입니다(22절).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의 백성의 우두머리인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 자신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24-26절). 이렇게 경영함에 있어서는 의논함(자문이나 혹은 충고)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 잠언 20장 18절 외에도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5장 22절에서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말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but many advisers make victory sure)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제학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어떠한 경제학 교과서보다 경제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경제와 경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무려 1만 5천 6백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탁월한 경제학 교과서요, 경영 교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성경적 경제와 경영의 모델로 토라 경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경제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소유와 경영을 처음부터 분리합니다. 그렇다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경영을 위임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물질을 위임받아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인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성경적인 생활관', '성경적인 직업관'). 즉, 성경적인 재물관이란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제가 일반 경제와 다른 점은 일반 경제가 '버는 것'을 주로 공부하는데 반하여 성경은 '바르게 쓰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여러분, 잠언 16장 1절과 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바른 생활 방식, 바른 말, 바른 사랑 그리고 바른 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2)

[잠언 20장 19-25절]

우리는 지난 이 주 동안 잠언 20장 13-18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란 제목 아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 4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네 가지란 바른 생활 방식, 바른 말, 바른 사랑 그리고 바른 경영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방식이란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교훈이었고(13절), 바른 말이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교훈(14절)과 속이는 말(거짓)을 하지 말라는 교훈(17절), 그 대신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교훈(15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랑이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서는 것을 조심하되 이웃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교훈(16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경영에 있어서는 의논함(advice)과 지략(guidance)가 필요하다는 교훈(18절)을 받되 특히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므로 오직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경영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잠언 20장 19-25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바른 삶(2)**"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그리그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5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람 사귐이 버거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간관계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의 어려움이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일이 주는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일이 주는 어려움보다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 하면 저는 우리가 이미 잠언 3장 27-25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한 "지혜로운 자의 인관관계"를 다시금 복습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3 가지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1)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첫 번째 원리는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27-28절을 보십시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에게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9-30 절을 보십시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까닭 없이 시비 걸로,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면 아니 됩니다.

(3)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세 번째 원리는 우리는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1절을 보십시오: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고(32절), 저주하시며(33절), 비웃으시며(34절) 또한 부끄럽게 하실 것(35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9-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은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9절을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을 많이 사람’이란 바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인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바로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되 특히 남의 비밀(confidential information)을 누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루 한담하는 자”를 “gossiper” 즉 수다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수다쟁이와 어울리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쟁이와 어울리지 말고 피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입니다(19절, 11:13).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다쟁이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외에도 잠언을 읽다 보면 수다쟁이를 왜 피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 유란 수다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 20절을 보십시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또 다른 이유는 수다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8절을 보십시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수다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친구를 이간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어디 친한 친구만 이간시키겠습니까? 형제도, 자매도 이간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부관계도 다투게 만들고 이간시킵니다. 어떻게 수다쟁이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시킵니까? 바로 거짓 증언하므로 수다쟁이는 사람들을 이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9절을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혹이 여러분 마음에 아니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저주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저주”란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저주”라는 의미 외에도 ‘하잖게 만드는’(경시하는, 과소평가하는)(belittle)이란 의미도 있습니다(Vine).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란 말씀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잖게 만드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이젠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식은 좀 없을 수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하잖게 만드는 자식들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경시하는 자식들, 부모님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업신여기는 자식들, 부모님을 얕보고 과소평가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영어 성경에는 부모님을 ‘curses’(저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비방하는 것,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저주하던지 하잖게 만드는 자는 십계명 중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출 20:12).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고: 레20:9). 어느 주석에서는 이 말씀을 부모님을 “저주”(cursing)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rebelling against)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Walvoord). 오늘 본문 잠언 20장 20절 하반절에서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는 말씀도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Walvoord).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분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하잖게 여기지 말고 그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경시하며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 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3) 우리는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입혔으면 우리 사람의 심리는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 그 사람에게 갚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pay back).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마 5:43)는 말씀보다 실제로 우리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43절)을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데 우리는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상 대

방에게 갚아주고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4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또한 오늘 본문 잠언 20장 22절에서도 성경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 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 상대방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그 달라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잠 20:22).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을 봐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우리가 친히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복 때에(렘 51:6)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바른 상속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인터넷 위키 백과를 보니까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20장 21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국 성경에는 “처음에 속히 잡

은 산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산업"이란 영어로 "inheritance", 즉 "상속"(또는 유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처음에 속히 잡"았다는 말은 아마도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Walvoord).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20절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12절).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12절). 그 나눠준 재산을 받았을 때 그 둘째 아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의 재산 중 여러분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물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13절). 결국 그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 잠언 20장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 상속(유산) 그에게는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 그는 오늘 본문 21절을 20절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하셨는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를 가리켜 "불량자"라고 말하면서 20절과 21절은 그 불량자가 재산 문제로 그 부모를 거스려 거역함에 대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불량자들은 주로 금전 문제로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되 자기들 책임 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권리만 강요하여 부모님과 충돌하며 심지어 악담과 저주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박윤선).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 분배로 인하여 분쟁하는 모습이 참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 마 전 한국 뉴스에 한국에 큰 기업들 회장들이 그리 재산이 많으면서도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유산) 문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본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0장 21절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처음에"란 단어만 나오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at the beginning"("처음에")라는 단어와 더불어 "at the end"(나중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결국 부모님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받을 때 처음에는 물질의 복을 받은 것 같아 행복해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엔 그 유산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제 생각을 말한다면 나중엔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형제들끼리 분쟁하므로 형제 관계도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22일) 인터넷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미국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0일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한 거부 15명을 소개한 내용이 나와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이들을 가리켜 "상속을 거부한 거부"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15명 중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 몇 사라만 언급한다면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르, 마이클 블

룸버그 뉴욕시장 그리고 홍콩 액션 배우 재키 찬 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좌우명은 '물려받은 재산이 인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유 거물 피켄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벌고 기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 하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이 보통 이롭기보다는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홍콩 액션 배우 재키 찬은 "아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돈을 벌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그저 내 돈을 낭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만큼 재산을 주고 싶지,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유산(재산) 물려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상속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합니까?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속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속관이란 무엇입니까?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속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란 누구입니까? 유업을 이어 받는 자가 아닙니까?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의 재산상속권자"라는 뜻입니다(인터넷).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엡 3:6).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상속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 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늘에 예비된 상속인 영광스러운 새 몸과 하늘의 처소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요 14:1-3)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장차 우리에게 상속될 영광의 몸과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4)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지혜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언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 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는 상속(집이나 재물)도 귀하지만 그 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 부터 말미암은 지혜로운 아내가 더 귀한 상속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아내라기보다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상속은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부모님에게 받는 집이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바른 사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3절을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가 “저울”하면 이미 묵상한 잠언 16장 11절을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서 “간칭”, “명칭”, “추돌들”은 다 “저울”(measures)을 가리킵니다. 저울을 가리키되 정확히 측량하는 저울을 가리킵니다. 즉, 이 저울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한결 같은 저울”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3절 외에도 10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한결 같지 않은 저울을 자기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 속이는 것을 자기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정직하지 못한 것(부정직)(dishonesty)을 우리도 미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것처럼(11:1) 우리 또한 공평한 추를 기뻐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 11장 1절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아마도 솔로몬 왕 당시에 상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울추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객들의 눈을 속여 물건의 품질이나 중량이나 분량을 속여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서 갈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인들이 고객들을 속인 방법은 '이중 저울'과 '이중 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정직한 상인들은 곡식을 팔 때에 가벼운 저울추와 작은되를 사용하여 곡식을 적게 주었고, 곡식을 살 때에는 무거운 저울추와 큰되를 사용하여 곡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적용한다면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바른 사업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른 사업관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추구하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정직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크리스천 상인들이 상업 행위에 있어서 부정직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업 행위를 다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불의한 이익을 얻고자 부정직하게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업 행위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른 사업관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4장 13-17절에 나와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

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배)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만일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낙심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시편 49편 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성경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후 10:17),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11:30).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자기들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되 주님 안에서 자랑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자랑하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3)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사업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항상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줄을 알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마음 자세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15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마음 자세와 습관을 갖는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는 저는 안개 낀 날 운전하면서 안개를 볼 때 나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이 야고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더욱더 죽음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리할 때 그리스도인 사업가들도 죽음의 관점을 가질 때 무슨 이익을 남겨야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돈의 이익 외에도 좀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3-17절 외에도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꼭 알아야 할 성경구절은 신명기 8장 17-1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 .”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바른 사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사업관이란 정직하게 사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선을 행해야 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줄을 알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마음 자세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재물을 얻었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재물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바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향하여 추진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참 사람 일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데로 잘 되지 않는데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 한대로 이루고자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게 어찌 우리 계획한(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쩔 때는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이 잘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므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할 수가 없다"란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무도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되어 갈 때 기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행복감을 누리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실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하여 걸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시 23:2, 4) 성경은 "생각하라" 혹은 "되돌아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전 7:14).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곤고한 일,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데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과거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건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비록 아직 어려운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변하였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행복)만 주시지 않으시고 곤고한 일 또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전 7:14).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의 장래를 알면 분명히 하나님께 더욱더 죄를 범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면 분명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양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게을러 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면 될 때로 되라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래는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축구 게임도 이미 다 끝나 점수를 알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좀 모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몰라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같으냐? 나서서 말해 보아라. 누 가 처음에 장래의 일을 미리 들려주었느냐?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공동번역). 여러분, 어느 누구 앞으로 될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장래의 일을 미리 들려 줄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묵상한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곤고할 때에도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확신하면서 장차 그 주님 앞에 서서 회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히 13:8).

다섯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바른 헌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5절을 보십시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여러분, 서원 기도 하면 성경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한나"하면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으로서(5-6절)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19절) 한나를 잉태케 하시사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셨습니다(20절).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기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그를 실로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24절) 하나님께 그 아이를 평생 드렸습니다. 그녀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26-28절). 한나란 여인은 자기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받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받아야 할 헌신입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또 다른 헌신의 좋은 예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야기입니다(요 12:3). 여기서 "마리아"란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의 동생이요 또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에 오

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여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합니다 (4-5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과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못된 헌신관을 가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3가지로만 생각해 봅니다:

(1)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입술로만 헌신자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말로만 주님께 헌신하고 말로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섬김, 이러한 입술만의 헌신자는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습니다.

(2)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탐심을 품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에 탐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헌신자들은 교회에 해를 끼칠 위험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3)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경솔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경솔하게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여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치겠다고 말은 해 놓고 다시금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전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My vow was a mistake). 예를 들자면 부흥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

고 은혜를 받아서 부흥사 목사님이 헌신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하여 나아가서 헌신했다가 부흥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헌신할 것 같이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23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민수기 30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1) <u>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하되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입니다.</u>

(2) <u>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입니다.</u>

시편 110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하되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정직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3) <u>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겸손히 주님께 받치는 자입니다.</u>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솔히 헌신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께 헌신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 헌신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신중하게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거이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한 5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 바른 상속관, 바른 사업관, 바른 미래관 그리고 바른 헌신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실천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왕”

[잠언 20장 26-30절]

이미 우리는 잠언 20장 8-12절 말씀 중심으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란 제목 아래 한 4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 교훈을 복습을 한다면 첫째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합니다(8절). 둘째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앞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없습니다(9절). 셋째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10절). 넷째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12절).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왕”하면 이미 묵상한 잠언 16장 10-15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이란 제목 아래 받은 3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그 교훈을 복습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10절).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합니다(12절).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충신의 충고를 잘 받습니다(13절). 또한 우리는 잠언 19장 12절과 20장 2절 말씀 중심으로 “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상적인 대통령”이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2가지란 이상적인 대통령은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잠언 20장 26-30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왕**”이란 제목 아래 지혜로운 왕은 누구인지 한 5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왕은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분리한 후 악인을 벌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6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여기서 “키질”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0장 8절에서 배운 것처럼 '곡식에서 쭉정이 등을 가려내려고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혜로운 왕은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듯이 선인과 악인을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작하는 바퀴"는 '소가 끄는 탈곡기'를 말하며, 보통 3-4개의 바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탈곡기는 돌아가면서 곡식을 눌러서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왕은 농부가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껍질을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마치 농부는 알곡과 껍질을 구별한 후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껍질은 바람에 날리거나 불에 태워 버리듯이 지혜로운 왕도 공정한 심리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고, 악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인터넷).

만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 2주전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 여기 저기 기관장들이 임명이 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일에 차질이 많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왜 기관장들이 임명이 빨리 되고 있지 않나 들어보았더니 아마도 정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기관장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그리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기관장 공무원들은 한 1주일 걸리고 장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한 후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서 사람을 잘못 세워 문제가 된 인사들을 생각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한국 정부가 장관이나 기관장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제대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중요한 직책에 악한 사람들을 세워 놓는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지만 저는 이 원리가 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당회가 일꾼들을 세워 임명함에 있어서 제대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람을 잘못 세워놓으면 그 잘못한 결과의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가정에서 우리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적용을 한다면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 자녀의 친구들을 알고 잘 파악해서 좋은 친구들과 나쁜 친구들을 분별하여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부모가 자기 자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인지 나쁜 친구들인지도 분별 못하고 그러므로 분리하지도 못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왕상 3:4)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5절)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11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나라를 섬기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악인을 벌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때 우리 나라에는 질서(order)와 공의(justice)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레 10:10).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separate) 할 수 있을 것입니다(느 13:3).

둘째로,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얼마 전 한국에 사는 어느 목사님이 제 facebook 메시지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 목사의 일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썼습니다: “… 저는 목사로서 저의 일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설교하기 전에 한 사람의 신자로써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고 먼저 한사람의 진실한 교인으로 ,사람으로 서시고자 애쓰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읍니다 ….”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인 것 같다고 쓴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달리 말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양심(the

conscience of man)을 가리킵니다(MacArthur).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란 말씀이 잠언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13:9),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24:20). 무슨 뜻입니까? 악인의 등불은 분명히 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고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의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므로 악을 행하는 악인의 어두움을 들춰내되 그 악인의 깊은 속까지도 살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은 공의로 그 악인들을 벌하므로 악인의 등불을 끕니다.

성경 시편 7편 9절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을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했습니다(행 24:16).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니니아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등 앞에서 말하였습니다(23:1).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가 그리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취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벧전 3:16). 그러나 만일 지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있다면 (고후 8:7)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은 어떠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벧전 3:16).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의 욕이니 비방에 할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길거리에 모든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빨간 불이 들어와야 할 때 녹색 불이 들어오고, 녹색 불이 들어와야 할 때 빨간 불이 들어오면 교통이 어찌 되겠습니

까? 아마도 대 혼란이 올 것입니다. 차 사고도 많이 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할 것이며 심지어 교통 사로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면 그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악인들이 득실거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의 양심이 굳어졌다면 그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비췰 것이며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제가 전도사 때 2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 중에 하나는 타주에 몇몇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 본당 강대상 앞에서 동그랗게 앉아 (혹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입니다. 그 후에 나중에 함께 기도했던 한 학생의 아버지인가 어머님께서 자기의 자녀가 자기에게 한 말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 전체를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때 배운 점은 '학생들이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교역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물론 그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일부러 보이려고 행동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본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부족하나마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은 자기들의 대통령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면 시민들은 자기들을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대통령이 선거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약속을 했으면서 만일 대통령이 되어서 그 약속한 말들을 지켜 나아가지 않으면 시민들은 그 대통령을 결코 존경하며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만큼 지도자에게는 사랑과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8절을 보면 성경은 지혜로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지혜로운 왕은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위도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은 사랑과 진리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며 또한 견고케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지켜 행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

니까?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면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진실성이 있는 왕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요 또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실성이 있는 지혜로운 왕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시 40:11). 즉, 그는 주님께서 맡기신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백성들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주님께서 자기를 항상 보호해 주시길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은 기도와 실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자기의 보좌를 견고케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지혜로운 왕은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9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우리가 젊은이를 생각하면 그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늙은 자를 생각할 때는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바로 많은 경험을 통한 지혜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왕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즉, 지혜로운 왕은 힘도 있지만 많은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신명기 17장 15-20절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18-19절). 왕은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아니 되고(16절) 또한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아니 된다(17절)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율법 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은 왕은 병마를 많이 둬서 국력을 강화하며 또한 아내를 많이 둬서 정력을 강화하기보다 말씀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왕은 평생에 율법 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때에 악을 미워하며 악을 멀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는 지혜의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24장 5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로운 왕은 젊은이처럼 힘도 있고 늙은이처럼 경험을 통한 지혜도 있는데 그는 곧 말씀의 힘이요 지혜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지혜로운 왕은 징계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30절을 보십시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매를 맞아야 정신차린다'라는 말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만큼 우리 사람들을 매를 맞기 전에는 정신을 못차린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0장 13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으니라." 또한 잠언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 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 된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미련한 자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 만큼 매가 미련한 자식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마음에 얽힌 미련함을 멀리 쫓아내고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얽힌 미련함을 쫓아내고자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또는 딸로 여기고 계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있"기에(잠19:18)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13장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연단하시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편 89편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고 벌하시고자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왜 회초리와 채찍입니까? 그 이유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잠 29:15).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며 회개하므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결과 심지어 우리는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합니다(23:14).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왕도 자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합니다. 징계하되 그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없애고자 매를 들어 상하게 때립니다. 그가 그리하는 이유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20:30).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분리하여 악인을 공의로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나라의 시민을 보호하며 나라의 질서를 세웁니다. 만일 징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면 징계를 받으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징계를 받는 자가 미련한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1) 징계를 받으므로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던지[(잠 19:25)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니면 (2) 징계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던지[(17:10)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분리한 후 악인을 벌하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며, 힘과 지혜가 있으며 그리고 징계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십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잠언 20장 29절).

지난 주 수요일 오전, 한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뉴스란 플로리다에 사는 한 50대 한국 사람이 80이 넘는 어머니를 전기도 나오지 않는 헛간에 가두고 약 2주 동안 밥과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충격적 이였던 것은 경찰이 그 노모를 발견했을 당시에 지렁이와 구더기가 그 노모의 목과 얼굴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뉴스에는 그 노모가 벌레를 먹고 살았던 것 같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힌 그녀의 아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변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집을 개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숙을 주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사용하던 방에서 창고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주제와 본문을 바꿔 "노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왠지 이사야 3장 5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이들이 일어나 노인들을 학대하는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학대 방지하기"란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노인의 인구가 지난 37년간 약 3배 이상 증강하고 있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약 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즉, 경제적인 이유로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신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4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방임, 신체, 경제, 유기 등의 사례와 성 학대를 호소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현황을 보니까 학대행위자 유형에 "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전체 노인학대자 숫자인 3,019에서 1,544가 아들 이였습니다(그것

에 비해 딸은 342였음)(인터넷). 이렇게 노인들이 학대 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노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 개의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인터넷): (1) 첫째 단어는 "자켄"(Zaken)란 단어로서 그 뜻은 '수염이 희다'입니다. 이 단어는 60세 노인을 칭하는 단어로서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노인을 가리켜 쓰이는 것으로 년 수를 다한 사람, 나이 많은 장로나 아버지로 쓰인다고 합니다. (2) 둘째 단어는 "셉바르"(Seybah)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흰 머리"란 뜻으로 70세 노인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백발이나 은발의 사람, 정말 늙다란 뜻이 있습니다. (3) 셋째 단어는 "야시스"(Yases)로서 80대 노인을 가리킵니다. "후들거린다", "나이든", "노쇠 한"을 의미하며 "야시스"는 나이 들어 존경할만한, 덕망이있는 이라는 뜻으로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노인을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기력이 쇠퇴하여 지는 60-80대를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0장 29절 말씀 중심으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노인 어르신들과 또한 우리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지만 늙은 자에게는 젊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 이젠 없습니다. 더 이상 늙은 자는 젊은 자처럼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백발입니다. 여러분은 백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3주 전 미장원에 머리 짝으로 갔다고 머리 깍는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깎으면서 '새치가 많네요'라고 하시더군요. ㅎㅎ 여러분과 비교하면 별로 없지만 저는 작년보다 갑자기 하얀 머리카락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아는 한두 분 목사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2-3살 젊은데도 머리카락이 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머리카락을 염색 하니까 백발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리 중요시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인이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받을 백발의 면류관은

이 땅의 왕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영광이 백발에서 나타나며, 거기서 참다운 인생의 과정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시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시기이며,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때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의 시기는 고통이나 소외의 시기가 아닙니다(인터넷). 비록 성경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신체의 노쇠에서 오는 연약함과 우울한 모습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은 “장수와 축복과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인터넷).

그러므로 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백발의 의미인 평생 하나님을 섬기므로 이젠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것을 기억하고 이젠 영원하신 하나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백발의 노인들은 노인이 다시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십시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백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백발의 노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7장 6절을 보십시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여기에 나오는 '손자'(베네 바님)는 원래 "아들들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넓은 의미로 '후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으로 번역된 말(제케님)도 원래는 "노인들"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 말은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손들은 노인들(조상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손은 부모와 조상에게 해와 고통을 안겨주지만, 지혜로운 자손은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인터넷). 그 한 예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4-15절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에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여인들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사랑하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녀의 노년에 봉양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손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벳에게 있어서 그의 손주인 다윗을 생각할 때 손자 다윗은 노인 오벳의 면류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러므로 노인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힘(능력)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그의 후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길 원했습니다(16절). 그의 혀는 종일토록 주님의 의를 말씀하였습니다(24절).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날아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때문입니다(15절). 시편 기자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늙은이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늙어 백수가 되기까지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하므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 후손들에게 진술하며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행한 일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어르신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혜의 상징인 늙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혜로우신 노인들에게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옛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옛날의 산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처럼 그 부친 솔로몬 왕의 생전에 충성했던 노인들의 충고를 받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12:8) 나라를 잘못 인도하고 결국 쇠퇴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늙은 자들을 버리(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71편 9절을 보십시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언젠가 저는 시편 71편 9절 중심으로 “아름다운 늙은이”란 제목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아름다운 늙은이를 한 세 가지로 묵상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름다운 늙은이는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71편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름다운 늙은이는 시편 기자처럼 어릴 때부터 주님께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17절) 그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항상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많고 심한 고난”(20절)을 당할 때에 더욱더 소망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늙은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주님을 의지하므로 소망합니다. 과연 늙은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므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앉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며 또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름다운 늙은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시 71:14). 그들은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더욱 찬송할 뿐만 아니라(14절) 숨질 때 되도록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60대에서 8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므로 이젠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것을 기억하고 이젠 영원하신 하나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하므로 여러분이 평생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 후손들에게 진술하며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생에 행한 일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업으시고 그 사랑의 품에 앉으실 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잠언 21장 1-4절]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비춰볼 때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근심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양약"(good medicine)일 것입니다(17:22). 그러나 만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할 것입니다(22절). 만일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15:13).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1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비록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21장 1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마음"이란 꼭 솔로몬 왕 자신 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왕의 마음"이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이방인 왕들의 마음도 가리킵니다. 그 말은 "왕의 마음"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들의 마음도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왕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 왕의 마음만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도 인도하시되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표징들을 그와 그의 신하들 중에 보이기 위해서였고 둘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인도하시사 그로 하여금 모든 창고지에게 조소를 내려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게 하였습니다(에 7:21).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를 에스라 7장 27-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으므로 그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시사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되 오늘 본문 잠언 2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로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방향을 트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16:9),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33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19:21),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20:24). 이 말씀들을 보면 요점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부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왕상 11:4).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 잠언 2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 말

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을 돌려 자기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왕상 11:6). 이러한 솔로몬 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굽은 마음(perverse heart)입니다(잠 11:20).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양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행위가 모두 정직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행위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 중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가서(삼상 16:4)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6절)를 알아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중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하였을 때(6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7절).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사람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은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 알았지만 그 조차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를 잘못 분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4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 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되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밝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도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인간은 미련하여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인간은 미련하여 어디까지나 자기의 죄인 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원인을 박윤선 목사님은 한 5가지로 말하였습니다(박윤선): (1) 자기의 과거의 죄악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며, (2) 장차 지을 죄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은 막연하게라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4)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원인 줄 알지 못하는 까닭이며, (5) 그 마음이 거짓되어 자기의 잘못을 변호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사람을 속임 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욥 13:9). 그리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엔 주님이 감찰치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시 10:13).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4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창 16:13).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십니다(시 33:13).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십니다(욥 28:24).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잠 15:3).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감찰하십니다(시 130: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감찰하십니다(애 1:9).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욥 34:21).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시 7:9).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드려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박윤선).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마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3절을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 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는 말 기억나시죠?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라고 말

하였습니다(22절).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드는 생각은 우리 또한 사울 왕처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일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후 한 6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를 수 없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3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시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 가서 큰 산당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었지만(왕상 3:4)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일천 명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11:3-4)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은 그의 1,000명의 종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1번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제사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제물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 윤리적 순종입니다. 그 종교 윤리적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받치면서(사 1:11)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11절), “… 기뻐하지 아니하노라”(11절), “…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12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13절),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13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13절), “내 마음이 …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14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등한히 여기면서 제사하는 것은 범죄 생활에 안심을 주려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렘 7:8-10)(박윤선). 예레미야 7장 8-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하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

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10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한번 구원 받은 것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면서 매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죄를 범해도 이미 구원 받았기에 안전하다 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바른 예배,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잠언 21장 3절에서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시 99:4).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106:3).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4절을 보십시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3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눈이 높은 것"(haughty eyes)입니다.

여기서 "눈이 높은 것"이란 "사람이 자기 정도보다 지나치는 것을 얻으려고 바라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는 마음이 부허하여 자기가 벌써 그런 높은 존재인 듯이 자처하기까지 합니다(박윤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개역한글)(시131:1). 다윗은 자기 마음에 교만치 아니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이 높지 아니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일과 자기가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큰일을 믿음으로 행한답시고 모험 아닌 모험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야망을 이루고자 하

는 욕심 표출 밖에 되지 않습니다.

(2) “마음이 교만한 것”(a proud heart)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교만한 것이란 참으로 더 무섭고 위험한 죄인 것은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 밖에 나타나지 않고 잠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은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박윤선). 여러분,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큰일에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분수에 지나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민 16:7).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3,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롬 12:6).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은 앞잡이”기 때문입니다(잠 16:18).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18:12).

(3) “악인의 형통한 것”(the lamp of the wicked)입니다.

악인들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는 것만큼 위험한 죄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면(시 73:5) 그들은 얼마나 더 눈이 높아지고 교만해 지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7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12절) 힘이 강건하다면(4절) 그 악인들은 얼마나 더욱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그 악인들의 종말은(17절) 파멸(18절)이요 황폐와 전멸입니다(19절).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과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십니다(잠21:4).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16:19).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합니다(빌 2:3).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기 때문입니다(잠 15:33; 18:12).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3:34, 약 4:6, 벧전 5:5).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욥 22:29).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빌 2:5).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마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언 21장 3절).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 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는 말 기억나시죠?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라고 말하였습니다(22절).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드는 생각은 우리 또한 사울 왕처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일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후 한 6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를 수 없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3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시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 가서 큰 산당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었지만(왕상 3:4)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일천 명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11:3-4)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은 그의 1,000명의 종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1번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제사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제물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 윤리적 순종입니다. 그 종교 윤리적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

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받치면서(사1:11)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11절), "… 기뻐하지 아니하노라"(11절), "…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12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13절),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13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13절), "내 마음이 …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14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등한히 여기면서 제사하는 것은 범죄 생활에 안심을 주려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렘 7:8-10)(박윤선). 예레미야 7장 8-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하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한번 구원 받은 것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면서 매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죄를 범해도 이미 구원 받았기에 안전하다 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바른 예배,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잠 21:3). 여러분, 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시 99:4).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106:3)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마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

[잠언 21장 5-8절]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죄의 철학”(The Philosophy of Sin)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산 이유는 물론 책 제목도 주목을 끌었지만 그 보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오스왈드 챔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 된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란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모든 죄의 공통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의 공통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그분이 정하신 목표가 아닌 자기가 세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세상의 사조(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및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공통적인 속성이다”(챔버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및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공통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자기기 세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사단의 역사 중 하나는 바로 ‘바꾸는 것’(exchange)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표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 로마서 1장 23, 25,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23절).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꿉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25절).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26절). 사단은 남녀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1장 5-8절 말씀 중심으로 한 4가지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5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은 조급한 자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조급함이 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인터넷 페이스 북으로 알게 된 한 지체하고 “조급함”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체에게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더니 그 말씀을 보고 그 지체가 자기는 여태껏 조급함이 죄인 줄 몰랐다고 말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급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21장 5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조급하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못하기에 직장이나 사업함에 있어서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박윤선). 성경은 형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조급한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기보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여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하여 조급하게 일을 하다보면 오히려 일을 그릇 칠 때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왜 성경은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어쩌면 그 이유는 발이 급한 사람은 지식 없는 열정(“소원”)으로 조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함에 있어서 조급한 사람은 지식 없는 열정으로 조급하게 행동하기에 돈을 벌어 풍부해 지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망하게 하여 궁핍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잠언 2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은 빈궁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 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우리는 속도위반을 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 지면 하나님의 속도를 추월하여 우리 속도대로 일을 추진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위험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마음이 조급하며 속히 부하고자 하면 그는 분명히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 충성되이 일하기보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하여 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필 것입니다. 그 때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되는 문제는 그렇게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면서 사업을 하는데도 처음엔 내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이 잘 안되어 가면 우리는 그래도 한번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꾀를 부리고 요령을 펴서 사업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한번쯤은 생각해 볼 텐데 사업이 잘 되어 가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역시 사업은 이렇게 꾀도 부리고 요령도 펴야 한다고 자기의 행동의 합리와 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 지는 것을 경계하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는 바로 부지런함(잠 21:5)과 충성됨 또는 성실함(28:28)입니다. 그 이유는 조급함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풍부함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21:5). 그리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28:20).

둘째로, 우리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6절을 보십시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생각엔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잠언 21장 6절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불려 다니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려는 것은 결국 불려 다니는 안개처럼 있다가 금방 없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덫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을 순식간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23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스스로 재물이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 전 인터넷 조선일보를 보니까 "김민종 차압, '투자-사기, 사인했는데 25년간 모은 돈 날려 …' 고백"이란 제목의 기사가 있어 잠깐 읽어 보았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더라. 벌어놓은 게 있었는데 어쩌다보니 다 사라졌다"(인터넷). 성경 잠언 2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해서 모든 재물은 영원히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해서 번 재물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1:6).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은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요 8:44)(박윤

선). 다시 말하면,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자가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욕심 속에서 방법을 가지지 않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기에 결국에는 자신에게 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는 인간들에게 화를 주려고만 위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잠 10:2). 또한 성경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3:11). 무슨 뜻입니까? 비정직하게 모은 재물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무익하며 또한 줄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일을 하여 의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사 재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신 8:18).

셋째로, 우리는 악인의 강포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인의 강포를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악인의 강포를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 질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충분히 부러워하여 질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재정 상활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아니라 자기 주위에 불신자 사업가들은 부정직하게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점점 더 많이 버는 모습을 본다면 그 부러워하는 마음과 질시하는 마음이 더 발전되어 결국에는 남의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갈취하는 강도질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7절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들의 강도 행위는 자기 자신들을 멸망시키나니, 그 이유는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니라"(박윤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21:12).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 즉 사람들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재정적인 수입을 독식했습니다. 그 한 예로 성전을 운영하던 사두개파들은 짐승 시장의 판권을 자기 파 사람들(사두개판 사람들)에게 내준 후 그들을 통하여 성전 중심으로 엄청난 재물을 끌어 모았습니다(인터넷).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12절). 그리고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13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집이여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로 변질돼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재물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부하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약 1:15). 오히려 우리는 정의 행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잠 21:8).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로서 정의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15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시대처럼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을 에워쌓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합 1:4). 그러므로 지금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4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정의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녀야 합니다(잠 8:20).

넷째로, 우리는 구부러진 길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8절을 보십시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구부러진 길 하면 생각나는 길은 세계에서

가장 꼬불꼬불한 길인 샌프란시스코 롬버드 스트리트(Lombard Street)가 생각납니다. 이 길은 400 meter 정도의 길에 5 meter 간격으로 8번의 헤어핀 코스(hairpin course)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길을 한번 천천히 운전해서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차 속도를 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길이 꼬불꼬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샌프란시스코에는 이 꼬불꼬불한 길 외에도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언덕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사가 져서 운전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게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직선으로 된 길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는 꼬불꼬불한 구부러진 길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길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정도)과 삐뚤어진 길, 즉 구부러진 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올바른 길, 즉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구부러진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구부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부러진 마음으로 구부러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입니다(빌 2:15).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르고 곧은길로 가지 않고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부러진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인(거부)하고 거짓을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에 말과 행동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8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개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걸머진 사람의 행위는 구부러지고 또 이상스러우나 깨끗한 자의 행위는 솔직하니라"(박윤선). 물론 여기서 "죄를 걸머진 사람"이란 거듭나지 않는 자연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 인간은 어두움에 속하였기 때문에 거짓됩니다(렘 17:9). 그러므로 그는 자기 행위를 감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부러진" 행동입니다(박윤선). 이렇게 구부러진 길로 걸어가면서 구부러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경 잠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음녀"입니다. 잠언 5장 6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현대인의 성경). 음녀는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녀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성경 이사야 5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의가 없는 굽은 길로 걸어가면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굽은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면 평안하겠지만 굽은 길로 행하면 평안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잠 10:9). 우리는 곧은길로 행해야 합니다(21:8). 우리는 깨끗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깨끗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솔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크게 범하는 자처럼 죄악 된 행위를 감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바른 길로 행하는 깨끗한 자들로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자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생각한 모든 죄의 공통적인 속성, 즉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그분이 정하신 목표가 아닌 자기가 세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을 것이며 또한 악인의 강포를 본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부러진 길로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5-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조급하지 말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지 말고, 악인의 강포를 본받지 말며 그리고 구부러진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며 또한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 곧은길로 행하고 솔직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

[잠언 21장 9-20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견고히 서 가는 말씀 중심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신사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개혁한글),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현대인성경). 여기서 "신사적"이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로 "신사적"이란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정직하게 예절을 지키며 대하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유상섭), 즉 귀족 출신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신사적"이란 말의 의미는 베뢰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러면 '고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 이였다는 말씀은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사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11절).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은 "모든 열심으로"(박윤선) 혹은 "모든 자원함으로"(유상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유상섭).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베뢰아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유상섭).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빨아들이듯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력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를 꽉 누른 후 물통에 넣으면 물을 빨아들이듯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수용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쏙쏙 귀에 그리고 마음에 잘 들어오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므로 지식이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란 제목 아래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더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한 5 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더하는 지식은 다툼보다 화목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9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큰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작은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작은 집은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큰 집은 여러모로 편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다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큰 집에서 살면서 편안함이 있지만 부부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당신의 배우자와 자주 다투는 반면에 작은 집에서 살면서 불편함이 있지만 부부 관계가 화목하다면 여러분은 다툼이 있는 큰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집에서 살지만 부부관계의 화목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큰 집"보다 "화목"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큰 집보다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말씀들 중 "화목한 가정"이란 제목 아래 잠언 17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툼을 멀리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지 한 4가지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1)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거듭 말해서는 아니 된다고 배웠습니다(9절). (2)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충고를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의 충고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10절). (3) 화목한 가정은 악으로 선을 갚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선으로 선을 갚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13절). (4) 화목한 가정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칩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14절). 다시 이 4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 가정, 특히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볼 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잘 덮어 주고 있습니까? 서로의 충고를 받고 있습니까? 선으로 선을 갚고 있습니까?

다투기 전에 시비를 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1장 9절을 보면 성경은 “다투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9절에 가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투는 원인이 분노는 참지 못하고 성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but a patient man calms a quarrel)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절).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분노하면 과격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1절). 그래서 “다투는 여인”이나 “다투며 성내는 여인”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잠언 19장 13절을 보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a quarrelsome wife is like a constant dripping)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27:15).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다투는 습성이 있는 아내는 평안한 날이 별로 없을 만큼 자주 남편과 다투고, 또 다툼이 시작되면 그녀는 연거퍼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말을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렇게 연거퍼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다투며 성내는 아내가 계속에서 분노 가운데서 말을 쏟아낸다면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21장 9절 19절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이나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큰 집에 편안하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움막이라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교훈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투기보다 화목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고후 5:18).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교회나 어디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더하는 지식은 악인의 마음은 악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마음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2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마음은 방탕한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11

절). 여기서 방탕을 따르는 악인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은 공상과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의 것을 약탈합니다. 그의 생각은 비뚤어져 있어서(8절) 자기의 손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11절) 남의 것을 약탈할 생각만 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3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악인의 마음은 궤사하다(craving for violence)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악인의 마음은 불성실하여 강포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강포를 갈망하는 악인은 강포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입술도 궤사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0절을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악인의 마음을 악을 갈망(crave)한다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원어 히브리어를 더 잘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마음이 악을 갈망한다는 것은 거의 악에 중독되었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Walvoord). 그래서 잠언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악인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악에 중독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악인은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전도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이 악에 중독되다시피 하여 악을 갈망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가 하면 악인의 마음은 이웃의 재앙을 원하데 결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잠언 21장 10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잠언 21장 12절을 보면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을 환난에 던지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14:11).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2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의 속전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박윤선). 그 한 예가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악인이 의인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그 자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에 6:1-7:10).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각양 모략을 꾸미는 것은 너무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간섭하셔서 심판하신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마음처럼 악을 갈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자들로서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를 갈망한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롬4:25)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잠 21:10).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처럼 우리 이웃을 우리 몸 같이 사랑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더하는 지식은 징벌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1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계할 것들 중에 오늘 본문 잠언 2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툼'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을 갈망하는 것' 외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만함'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마음이 거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거만해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정도로 오만해 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잠언 29장 1절을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이 거만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랑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되 어느 누구의 책망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책망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2절 말씀처럼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9장 8절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9:8).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거만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까지 오게 되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the simple)란 마음이 개방된 자로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거만한 자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른 지도를 받으면 바로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박윤선). 문제는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에 지혜로운 판단력이 부족합니다(lack judgment)(7:7; 9:4, 16). 그러므로 그들은 "온갖 말을 믿"음으로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지 못합니다(14:15). 그 결과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여인”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9:4, 16).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보면서도 숨어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22:3; 27:12).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21장 11절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 잠언 2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란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매를 맞아도, 즉 벌을 받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목을 곧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4:6). 그 결과 거만한 자는 결국에 가서는 패망을 당할 것입니다(29:1). 그 거만한 자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적어도 그 패망 당하는 거만한 자의 모습을 보고 지혜(바른 분별력)를 얻어 더 이상 거만한 자를 따르지 않고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거만한 자의 패망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21:11) 견책도 받으므로(19:25)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지혜를 얻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지혜로운 자가 얻는 지혜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견책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지혜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견책을 받았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삼하 12:13)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회개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지혜 외에 또 다른 지혜는 오늘 본문 잠언 2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는 말씀은 미련한 자는 자기 집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과 같은 모든 것들을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낭비하되 미련한 자는 자기의 사치스러운 삶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낭비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저축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는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박윤선).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잠언 6장 6-8절에서 “개미”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6절)고 말하면서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8절)고 말하

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개미처럼 추수 때에 부지런히 일을 하여 예비하고 물질을 저축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21:20).

여러분, 성경 잠언 9장 9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면 그는 더욱 지혜로워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the simple), 즉 마음이 개방된 자로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거만한 자를 따르는 자도 거만한 자가 징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21:11). 지혜를 얻되 그는 회개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개미의 지혜도 얻어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예비하여 물질을 지혜롭게 잘 저축해 놓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기원합니다.

넷째로,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더하는 지식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5절을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1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정의(공의) 행하기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악인은 정의 행하기를 거절하며 싫어합니까? 그 이유를 잠언 19장 2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즉, 악인의 입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로 죄를 추구하기에 악인은 결코 정의를 좋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악인은 정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죄를 추구하는 악인이 과연 정의(justice)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죄를 추구하는 악인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바로 불의(injustice)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잠언 21장 15절 말씀의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이렇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패망이니라"(박윤선).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잠언 21장 7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기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의한 자들이 정의 행하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가 하면 그들은 의를 행하는 것이 마치 멸망("패망")으로 빠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습니다(박윤선).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닙니까? 불의한 자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 마치 멸망으로 빠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불의한 자들의 괴로움은 정의(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의한 자들의 즐거움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2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와 반대로 의로운 자들, 즉 의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입니다(21:15). 그리고 의인들에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즐거움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즐거움이 정의(공의)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정의(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21: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정의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정의(공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인 행함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한 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 죄인들의 대신하여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만족함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공의)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유다 왕 아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14:2-5). 여러분 아사 왕은 누구입니까? 아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한(6절) 그 환난 때에(15:4) 이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8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게 하였습니다(14:2-5). 어느 정도로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15:13)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14절).

그들이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15절). 결국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14:5).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던 것입니다(6절). 이렇게 아사 왕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1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평안하려면, 그리고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려면 우리는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찾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죄악된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더하는 지식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과 연락을 좋아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6-17절을 보십시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결말을 좀 알게 되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광고에서 담배를 계속해서 피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전에 담배 피던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목 쪽에 구멍이 난 사람도 나오는 등 그러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광고를 여러 번 보면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광고를 TV에서 내보낼까 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TV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담배 피던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보고 담배 피던 습관을 끊는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2012년 3월에 그러한 광고를 TV로 낸 후 한 3개월 만에 약 200,000 담배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정도로 그 TV 광고들이 효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3개월 만에 이십만 명이나 담배를 끊은 것을 보면 가치가 있는 광고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6-17절을 보면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16절). 이들은 의도적으로 명철의 길, 즉 지혜의 길에 등을 돌려서 떠난 사람들입니다(Walvoord). 박윤선 박사님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배교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들은 의도적으로 경건한 삶의 길을 떠났으므로 그 결말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결말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연락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17절). 이들은 한

마디로 말하면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쾌락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게 애착하여 떨어질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박윤선). 쉽게 이해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세상 쾌락에 중독된 자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 결코 부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성경은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궁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잠언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경건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 쾌락을 좇으며 방탕을 따를 때에 우리는 궁핍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경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훈계를 저버리므로 궁핍(poverty)과 수욕(shame)에 이른다고 성경 잠언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열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행 17:11).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교훈을 부지런히 받아 지식을 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잠 21:11). 결코 우리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19:27).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떠한 지식을 얻는지 한 다섯 가지로 배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더하는 지식은 다툼보다 화목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더하는 지식은 악인의 마음은 악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더하는 지식은 징벌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이 더하는 지식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그들이 더하는 지식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과 연락을 좋아하는 자의 결말은 사망이요 궁핍해 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교훈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지식들이 더욱더 충만해지길 기원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잠언 21장 21-31절]

2013년 12월을 맞이해서 이 한 해를 뒤돌아보는 가운데 얼마 전 새벽기도회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이 한해를 이렇게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한해를 헛되게 하였다(실패하였다).’ 한국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와 동역자가 그 교회에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실패하지 않았다’(was not a failure)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수 없이 패배한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 한 해를 실패했다’는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인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3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만함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4절을 보십시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자를 가리켜 오늘 본문 잠언 21장 24절에서 성경은 "망령된 자"(Mocker)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우리가 이미 21장 11절에서 묵상한 "거만한 자"로서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15:12)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29:1).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9:8). 이렇게 거만한 자, 망령된 자는 책망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계속해서 넘치는 교만으로 주님을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넘치는 교만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물론 입술로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모든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처럼 될 가망이 많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념비를 세우고(삼상 15:12)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죄를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를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여달라고 청했습니다(3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사울처럼 교만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높임 받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넘치는 교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 즉 망령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Walvoord). 다시 말하면, 무례하고 교만한 망령된 자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만일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18:10-11).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교회 안에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비교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심지어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까지 한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넘치는 교만으로 주님을 행하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훈계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고(잠 13:1)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13절). 그리고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은체하고(12:9) 또한 스스로 부한 체 합니다(13:7). 이러한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잠언 2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쫓아내면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며 수욕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적 우월감이 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들지 않도록 교만함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는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으로 교만함과 싸울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수 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1) 지금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는 내 입술로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지금 나는 내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지금 나는 주님의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지금 나는 나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혹시 마음으로는 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함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잠 16:5).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만함의 결과는 패망이요 멸망입니다(18절; 18:12).

둘째로,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5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만 재물을 원합니다(13:4). (2) 게으른 자는 불의의 이를 탐합니다

(12:12). (3) 게으른 자는 불의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남은 것을 약탈합니다(12절). (4) 게으른 자는 아무 가치도 없고 헛된 방탕한 것을 좇습니다(13:11). (5) 게으른 자는 큰 낭비자(a great waster)입니다(18:9). (6) 그 결과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4). 오늘 본문 잠언 21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의 간절한 소망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여러분, 게으른 자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놀고먹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 잠언 21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게으른 자는 놀고먹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도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26절). 즉, 게으른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하긴 싫어하면서 마음으로는 재물을 원하고(13:4) 불의의 이를 탐하기만 한다(12:12)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것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빈둥거리면서 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재물을 원하고 불의의 이를 탐하기만 하니 이 얼마나 웃깁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깃든다. 탐식과 정욕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서 더 강하게 움직인다. 그 이유는, 그는 그의 정신과 정력을 노동에 기울여 붓지 않고 쾌락에만 집중시키기 때문이다"(박윤선). 여러분, 탐심과 정욕이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서 더 강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게으른 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서도 자기의 머리는 부지런히 돌립니다. 즉, 악하고 게으른 종은 꾀를 많이 부린다는 말입니다(15:19). 그러면서 그는 게을러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며 수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쾌락에만 집중하면서 자기의 정신과 정력을 노동에 기울여 붓지 않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결말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1:25).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1) <u>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마음에 탐심과 싸워야 합니다.</u>

그 이유는 게으름의 근본 문제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마음의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탐심과 어떻게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빌 4:11-12).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한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탐심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탐심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오늘 본문 잠언 21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의인처럼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탐심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가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일하기 싫어하면서 집 안에서 빈둥거리면서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밥 먹지 말게 합니까? 사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1절).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명하고 권했나하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12절)고 하였습니다.

(3) 우리는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선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잠 6:6).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협력하여 일합니다(7절). 또한 개미는 서로 사려가 깊고, 상부상조하며 크기에 따라 전문 직종을 나눕니다. 그리고 개미는 추수하는 계절인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을 위하여 먹을 것은 예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미에게로 가서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8절).

셋째로,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7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여러분, 이번에 북한 장성택씨 숙청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새로운 사자성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바로 그의 숙청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고 하여 주목하여 들어보았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바로 “양봉음위”(陽奉陰違) 입니다. 여기서

양봉음위란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 배반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2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이 어느 면으로 보면 양봉음위를 일삼는 자입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을 마음속에 그래도 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즉, 양봉음위를 일삼는 악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박윤선 박사님은 "겉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니, 일종 아첨이다"라고 말했습니다(박윤선). 이렇게 아첨하는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께 받쳐지는 악인의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1:27). 그런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겠습니까? 계획적으로 자기의 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사 행위를 취하는 악인의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가증한 것입니다(박윤선).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받치면서(사 1:11)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11절), "… 기뻐하지 아니하노라"(11절), "…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12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13절),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13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13절), "내 마음이 …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14절).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했습니다(렘 6:10).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욕이 아니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귀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깨우치는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17절). 그리고 그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7:13). 아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13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6:13)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말(14절) 듣기를 속히 하고 또한 즐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 것입니다(7:8). 그리고 그들은 거짓 신들을 좇았습니다(9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6:19)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7:28).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6:16)고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16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

했습니다(15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습니다(15절).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7:2) 하나님의 집(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We are safe)라고 말하였습니다(10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많은 죄를 범하다가 몇 가지 의식을 거행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것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위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한 것입니다(10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외식적인 종교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19절) 악한 행동입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6:15). 이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을 마음속에 그래도 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아첨하는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께 제물을 받쳤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자기의 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는 죄악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예배를 그저 일주일 동안 범한 죄를 위안 삼고자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8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곱 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된 혀"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상대방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 내 뱉는 망령된 증인, 그 거짓된 증인의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십니다(12:22). 이러한 거짓 증인은 궤휼한 입을 벌립니다(6:12). 즉, 그는 자기의 구부러진 입으로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합니다(12:17). 그는 진실 된 말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거짓을 그의 입에서 내뱉습니다(참고: 19:28). 특히 사업에 있어서 구부러진 입으로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하는 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읍

니다(21:6). 그래서 처음엔 재물을 많이 모아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입니다(6절). 그리고 거짓된 혀는 인간관계에서도 “미움”이 개입 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28절을 보십시오: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의 거짓된 혀로 상처 입힌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기에 거짓말 하는 자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해하려고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꾸며서 증거 하는 것이 자기의 영업이다. 그는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이(딤전 4:2) 자기의 거짓말에 대하여 가책을 못 느낀다. 그는 거짓말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셈이다”(박윤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이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 하는데 결코 즐거움을 느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는 사실입니다(잠 21:28). 잠언 19장 5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참고:9절).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남의 말을 유심히 듣데 증거가 확실한 진리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유심히 듣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유심히 들을 때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의 유혹에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진실 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잠 14:25).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주님의 참된 신실한 증인이 돼야 합니다(12:17, 14:5). 잠언 12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지혜로워 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 인격화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헛된 세상에 들어내는 살아갈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참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러한 참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1절을 보십시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로 행함을 가리키고, "인자"는 사람을 사랑함입니다(박윤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로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로 행하는 이웃 사랑하는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1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인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않는 모습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26절). 바로 방탕한 것을 따르는(12:11) 악인의 마음에는 이러한 탐심이 있어(12절) 종일토록 탐하기만 합니다(21:26). 우리는 이러한 죄악 된 옛 본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로 행하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로 행하시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1:21).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러분 생각엔 전쟁에 있어서 "지혜"가 낫습니까 아니면 "힘"이 더 낫습니까? 전도서 9장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 전도서 7장 19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혜는 지혜로운 자에게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2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전쟁을 하여 적군 용사들이 의지하고 믿는 견고한 성의 방벽을 허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힘보다 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말씀의 배경 이야기는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대적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 세바라 하는 자를(21절) 치러 벧아마가 아벨에(14절) 있는 성읍에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때 요압은 모든 백성과 함께 그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였을 때(15절)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벽에서 요압에게 내어던지므로(21-22절) 결국 그 성읍을 요압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므로 성읍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7:15).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16).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 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뱀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2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 나눔니다:

(1) <u>첫째 해석:</u>

"뱀이라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감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느낌도 좋지 않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교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뱀은 교활할 뿐 아니라 또한 지혜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뱀을 그들의 상용문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주님께서 뱀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뱀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심성 있게 대처하여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동물이 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빨리 예견하여 회피하는 능력을 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위협과 그리고 협박에 대하여서 지혜와 분별력과 경계심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해를 끼칠 것을 미리 알아차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교회를 해하려는 무리로 말미암아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 지혜로움의 힘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 그리고 뱀이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씀합니다. 뱀의 지혜로움은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뱀과 같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생각하여 화를 자처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여 갈 곳까지 가고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인터넷).

(2) 둘째 해석: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보낼 때 하신 말씀이 바로"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지혜롭게 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뱀은'지혜'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갈라진 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혀가 하나인데 뱀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혀'라는 신체 기관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으므로 혀가 하나보다는 둘인 것이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토라를 인용해서 지혜롭게 말을 잘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말은 생명을 담은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로 말하는 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뱀으로서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복음이었습니다(인터넷).

두 해석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왠지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합니다. 이김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23절을 보십시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미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잠언 13장 3절에서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을 지키되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되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의 입술이 궤사하여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궤사한 입술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5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길도 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3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뱀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두 번째 해석 중 우리 입술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더 추가 설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인터넷).

(1) <u>첫째 추가 설명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u>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아루브(arub)]은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교묘하게 잘 숨는다는 표현에서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arub)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 하는 행동이나 말 또는 생각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하와를 설득하는 뱀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뱀이라는 이미지는 다른 사람을 말로써 꼬이고 현혹하는 이미지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이 뱀은 다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데 역시‘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 뱀이 가장 말 잘하는 지혜로운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2) <u>둘째 추가 설명은 바로 마태복음 3장 7절과 23장 33절 말씀입니다:</u>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7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33절).

세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근본적인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토라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진정한 율법을 따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이르러 죽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지혜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간교한 말로 꼬여 결국은 죽게 만든 뱀이 했던 것과 같은 간교한 말이며, 그 간교함을 통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 잘하는 것이 에덴동산의 뱀과 동일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추가 설명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 잠언 21장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처럼 말로서 다른 사람을 현혹하고 꼬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또한 마태복음 3장 7절과 23장 33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잘하면서 그 말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성경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그물에 걸리는 입술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잠언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미련한 자"처럼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진리를 말해야 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시 나눴지만 금년 2013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나는 이 한해를 실패하였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날 새벽기도회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나는 이 한 해를 실패하고 헛되게 하였지만 나의 언약의 하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해도 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케 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저는 제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번번이 지고 또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은 온전하고 기쁘고 선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잠언 21장 21-3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 4가지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 3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만, 게으름, 악 그리고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우리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또한 입을 지키라는 주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 영적 싸움을 하되 이김은 주님께 있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임하므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부자

[잠언 22장 1-16절]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기도회 때마다 성경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진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복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신 것을 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창 12:2)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24:1).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26:3; 참고: 24절).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므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13절).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28:1, 4)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수고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매우 번창"케 하셨습니다(30:43).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32:10).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사 축복해 주신 것을 묵상할 때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창세기 28장 15절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진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임을 다시금 재확인하며 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2장 1-16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부자"**란 제목 아래 과연 지혜로운 부자는 어떠한 자인지 6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부자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1절을 보십시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 올바른 선택이란 그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재물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선택하셨습니까? 여기서 "명예"(a good name)란 "좋은 이름"(a good name)을 가리키는데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전도서7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제가 전도서 7장 1절을 상반 절만 읽지 않고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이름"과 "죽는 날"과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관은 결국 죽는 날에 우리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을지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날에 조문객들이 우리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평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판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1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란 훌륭한 성품으로 인한 명예로운 평판입니다 (Walvoord). 솔로몬 왕은 이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명예보다 많은 재물이

더 낫다고 믿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재물이 명예보다 더 낫다고 믿고 여태껏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은 모았는데 만일 그리도 열심히 모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안 좋다는 평판을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까지 했다면 우리의 장례식은 그리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명예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하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재물을 얻었다면 우리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22장 1절 하반절에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grace or favor)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금은보다 은총, 즉 "호의, 친절, 은혜"(favor)를 더욱 택하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금은과 같은 재물보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돕는 일이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더욱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는 죽는 날에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 좋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조문객들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명예를 얻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은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은 우리의 명예를 망칠 것입니다(Walvoord).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자의 바른 선택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부자는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란 오늘 본문 잠언 2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이던 부한 자이던 그 모두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명예와 은총보다 많은 재물을 선택한 미련한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교만합니다. 교만하되 그 미련한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난한 자들을 주관함에 있어서(7절)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대하 25:19) 또한 자기의 영광을 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시 31:18) 행합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119:51).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심히 압박합니다(10:2). 이렇게 미련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사

랑하지 않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겔 16:49). 오히려 그들을 학대합니다. 성경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미련한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부자가 주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부자는 미련한 부자와 달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잠 19:17) 그들을 구제합니다(28:27).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부자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또한 그는 궁핍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구제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 잠언 2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 모두 다 만드셨다는 이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부자는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올바른 자세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u>지혜로운 부자의 올바른 자세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u>

오늘 본문 잠언 22장 4절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미련한 부자는 거만합니다(10절). 그래서 그에게는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치지 않습니다(10절).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는 결코 거만하지 않습니다(10절). 오히려 그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4절).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2장 7절을 보면 성경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부자는 겸손한 자세로 가난한 자를 주관합

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4절). 지혜로운 부자는 비록 자기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2절) 그 주님께서 자기와 가난한 자를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그는 겸손히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이자 윤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중요한 원리는 상전들도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고 중요한 윤리는 그러므로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이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와 윤리를 지켜 행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riches, honor and life)입니다(잠22:4).

(3) <u>지혜로운 부자의 또 다른 올바른 자세는 바로 부지런함입니다.</u>

잠언 22장 13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미련한 부자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 잘못된 자세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즉, 미련한 부자는 게으름입니다. 어느 정도로 게으른가 하면 미련한 부자는 사자가 밖에 있으므로 자기가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임을 당한다는 변명으로 집 밖으로 나아가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MacArthur). 즉, 게으른 자는 실제로 밖에 사자가 있어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일하러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MacDonald). 이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는가 하면 비슷한 말씀인 잠언 26장 13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정글의 왕인 사자가 뭐 하러 사람들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 와서 길에 어슬렁거리겠습니까? 어쩌면 게으른 자는 길 밖에 있는 고양이 소리를 듣고 사자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집 밖으

로 나아가 일하러 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 을 하려고 할 때 겁을 집어먹고 자신이 없을 때 핑계를 대는 구실을 만들기 바쁩니다. 이렇게 미련한 부자는 게을러서 손으로 열심히 일하기보다 머리만 열심히 굴려서 꾀를 부려 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는 미련한 자로서 '자기 살을 먹는다'라고 전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미련한 자는 게을러서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고 다만 멸망을 자취하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박윤선). 그와 반대로 지혜로운 부자는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지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미련한 부자처럼 이런 저런 핑계나 변명을 되면서 일하러 가지 않고 놀고 먹지 않습니다. 그의 일 철학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If a man will not work, he shall not eat)입니다(살후 3:10).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자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을 것입니다(잠 13:4).

넷째로, 지혜로운 부자는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말은 한 4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지혜로운 부자는 재앙을 보면 피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3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무조건 그 위험한 일을 부딪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피신해야 하면 피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다윗을 질시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은 용맹스럽다고 하여 사울 왕 에게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듯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피신하여 여기 숨어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3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숨어 피한다'는 것은, "신자가 환란 중에 주님을 위한 목적 없이 생명이 희생되거나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지혜롭게 처신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런데 왠지 가끔 기독교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일들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에 순교할 각오를 한다고 하면서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에 가서 선교를 무모하게 하다가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희생을 당한다면 과연 이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오늘 본문이 우리 신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해준다고 말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위하면서도 적당한 시기가 오기 전에는(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지혜 없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복음을 위하여 무모하게 반대자들의 반발을 일으킴으로 핍박을 초래하지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박윤선). 그런데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 얼마나 무모하게 안티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일이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용"하고 "용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맹종"과 "순종"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맹종과 만용은 결코 우리 신자들의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지혜로운 행동은 위험할 때 피신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부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위험할 때에 잠시 그곳을 피신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2) <u>지혜로운 부자의 올바른 행동은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영혼을 지킵니다</u>.

오늘 본문 잠언 22장 5절을 보십시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기서 "패역한 자의 길"이란 마 음이 구부러진(crooked) 자의 길을 말합니다(박윤선). 마음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그의 길 또한 구부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시와 올무에 찔리고 걸리지 않기 위해선 아예 그 길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잠언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녀의 .. 깊은 함정"입니다. 이 음녀의 함정에 지혜로운 부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그 음녀의 패역한 길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5절). 그 리고 그가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하므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그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11절). 그러나 미련한 부자는 그 음녀의 패역한 길을 가까이 하여 그녀의 집 쪽을 걸어갑니다. 잠언 7장 7-8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로 잠언 4장 14-15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므로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새겨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며 악인의 길로 다닙니다.

잠언 7장에 나오는 한 지혜 없는 자가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갈 때(8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오히려 돌이켜 떠났어야 했습니다(4:15). 그러나 그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의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걸어가되 그 음녀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해가 저물고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7:9). 왜 대낮이 아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소년은 음녀의 집으로 향했을까요? 그는 아무도 자기를 보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리석은 소년은 남에게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은밀히 깊은 밤에 창녀에게로 간 것입니다(박윤선).

(3) <u>지혜로운 부자의 올바른 행동은 그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u>

성경 잠언 2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미련한 부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악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탐심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약 2:6). 그리고 미련한 부자는 법정에서 악한 판사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도록 하며 가난한 자의 권리도 박탈합니다(사 10:2). 또한 미련한 부자는 자기보다 더 큰 부자에게 선물들을 줍니다(잠 22:16). 그 선물들이란 바로 뇌물성이 있는 선물들입니다. 그가 이러한 뇌물성 있는 선물들을 자기보다 더 큰 부자에게 주는 이유는 더 큰 부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리석은 부자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온가족 식구들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리고 미련한 부자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진리는 바로 잠언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결국 미련한 자가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 잠언 14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8절을 보십시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결국 미련한 부자는 악을 뿌리므로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부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탐하다가 결국에는 재앙을 당하지만 지혜로운 부자는 결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고(29:7) 그를 불쌍히 여겨(시 72:13) 그를 구제하며 (잠 28:27) 도와주며 또한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줍니다(시82:4). 그가 그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가난한 자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고전13:5)].

(4) <u>지혜로운 부자의 올바른 행동은 그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u>.

성경 잠언 22장 9절을 보십시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지혜로운 부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generous man"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그 뜻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친절한 눈을 가진 사람 또는 자비로운 눈을 가진 사람'[a man of a kind eye or of merciful eye(Gesenius)]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때문입니다(9절).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부자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무력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자기의 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주되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 바로 지혜로운

부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히13:16).

다섯째로, 지혜로운 부자는 올바른 입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1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올바른 입술이란 바로 덕이 있는 입술을 가리킵니다.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덕이 있는 입술’이란 바로 ‘은혜로운 입술’입니다. 즉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22장 11절 하반절에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고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바로 임금의 충성된 신하라 생각됩니다. 즉, 충성된 신하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로서 자기 입술로 임금에게 덕이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충성된 신하가 섬기는 임금에게 덕이 있는 말을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편 15편 2절을 보면 성경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신하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임금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임금에게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의 임금에게 정직하게 해야 할 말을 하므로 잘못하고 있는 왕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현대인의 성경)(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러나 간신과 같은 신하는 어떠합니까? 그는 결코 마음에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하고 있는 왕에게 정직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왕에게 아부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나 하는 말은 오늘 본문 잠언 22장 12절에서는 “사악한 사람의 말”(the words of the unfaithful)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겉보기와 달리 위험한 [treacherous(Walvoord)]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왕을 바로 세워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아부는 덕을 세우는 말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는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스러운 말들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는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지혜로운 부자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합니다.

과연 지혜로운 부자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합니까? 물론 그는 올바른 선택과 지식과 자세와 행동 그리고 입술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면도 있지만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과 15절에서 2가지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을 우리는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올바른 2가지 자녀 양육 방법이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6절)과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15절).

(1) 먼저 첫 번째 자녀 양육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과연 나는 저의 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녀양 육을 잘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여태껏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마다 나 자신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3가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했었습니다. 그 3가지란 바로 바른 가치관(Right Value), 뚜렷한 목적관(Clear Purpose), 그리고 영원한 인생관(Eternal View of Life)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왕상 8:36; 대하 6:27).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해서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꽃이 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아야 합니다.

(2) 또 다른 자녀 양육 방법은 오늘 본문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 육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2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기서 솔로몬 왕이 대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주인에게 유업을 나눠 얻는다는 말을 지금 솔로몬 왕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그의 주인에게 아들처럼 유업을 나눠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종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종(또는 슬기로운 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언16장 20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지혜”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란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 19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7:2). 그 좋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17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주인의 아들처럼 자기도 유업을 나눠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요 그 어미의 고통이라고 잠언 1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므로 그의 아버지의 근심이요 그의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미련한 자를 낳는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또한 미려한 자식을 둔 아버지는 낙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식은 둔하고 멍청할 뿐만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예민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므로 부끄러운 짓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근심이요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하게 된 부자, 즉 지혜로운 부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여섯 가지로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지식이 있고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부자는 올바른 입술이 있고 또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지혜로운 부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잠언 22장 5절).

야후 인터넷 뉴스에 "'쓰레기 만두' 누가 찾았나? ... 한 경찰의 휴일 낚시 덕"이란 기사가 있어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 경찰청 경사가 휴일 경기 파주시 봉암으로 낚시를 갔다가 낚시꾼들과 주민들로부터 "공장 때문에 낚시터 물이 더러워졌다",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듣고 탐문수사에 들어갔다가 으뜸식품 공장을 급습해서 보니 "폐우물과 연결된 파이프와 불결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만두소가 만들어지고"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한 경사의 경찰 본능인 탐문 수사로 말미암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쓰레기 만두"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지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 혹은 마음에 "쓰레기"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것을 과연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지 한 번 질문을 던져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 마치 쉽게 돈을 많아 벌려고 하여 썩은 중국 무말랭이를 만두소에 집어넣은 것처럼 쉽게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음을 과연 알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영혼 지키기 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힘을 쓰고 있는지 적어도 한번쯤은 심각하게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5절을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올무"란 패역한 자, 즉 마음이 구부러진 자(crooked)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인 역경과 난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올무와 우리 옆구리에 가시를 둘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의 열매, 즉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마음이 구부러진 자가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upright)라고 잠언 16장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지키는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악을 떠나는

자, 그러므로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지키는 마음이 정직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한 7가지로 그의 잠언 주석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잠언 24:12)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2)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잠언 8:36) "나(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에 영혼을 해하는 자라."

(3)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19: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4)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11:17)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5) 하나님의 훈계(징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잠언 15:32)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6) 입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21:23)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7) 영혼을 해롭게 하는 특별한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간음, 탈취, 압제, 노를 품는 것, 울분 하는 것, 도적과 짝지는 것(잠 22:24-25, 29:24).

"쓰레기 만두"는 한 경찰관이 찾았지만 우리 영혼의 "쓰레기"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깊숙이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고는 냄새조차도 맛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데도 정직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영혼의 썩어 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 낼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먹는 음식도 잘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각자의 영혼을 지키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혼, 정직한 영혼, 악을 떠나는 영혼, "가시와 올무"를 멀리할 줄 아는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장6절).

북한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 참사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후폭풍과 유리 파편으로 눈에 심한 부상을 입어 수많은 사람들이 실명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룡천 소학교에서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 대부분이 안구를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이 룡천 소학교 어린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은 시인 김용택씨는 그의 시 "룡천 소학교 아이들아"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 룡천의 아이들아! 언 땅을 뚫고 돌아나는 새 풀잎 같은 이 땅의 아이들아! 학교를 잃어 버린 아이들아 동무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아 돌아갈 집과 부모 형제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아 뜨거운 불길에 덴 얼굴들아! 아! 이 느닷없는 죽음, 고통, 슬픔, 추위, 배고픔, 이 공포를 어찌 할까나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란 부분에 도전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만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육의 안구가 아닌 "영의 안구"가 부상을 입어서 "영적 실명"에 놓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 말이냐"라는 탄식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녀들이 "영적 실명"에 놓여 있음을 보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의 "영적 실명", 이것은 곧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기에 앞서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3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Right Value)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과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정 삶 속에서 보여 주고 있는지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줄 압니다. 과연 신앙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하 가치성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 가정의 믿음 생활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눅 16:15)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우리가 값지게 여기는 혹은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졌던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보화를 더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보화"를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뚜렷한 목적관(Clear Purpose)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삶을 방화하며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목적관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제 1문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뚜렷한 목적관은 참 우리가 배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관점에선 기회인데 그는 마다한 이유는 그의 뚜렷한 목적관,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에 그의 삶을 환경을 초월하여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인생관(Eternal View of Life)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 여기지 않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쉽게(?) 자기의 귀한 생명을 앗아 갑니까? 영원한 인생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위로는 바로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간 보이다가 없어질 짧은 인생,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인생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관문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나라의 관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기쁨과 면류관"인 영혼들에게 삶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빌 4:1)이라고 바울은 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인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 많은 사람은 참 영원한 인생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람에게 온 삶을 바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안구를 다쳐 실명 위기에 놓인 룡천 소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탄식한 한 시인처럼 우리는 과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의 눈이 실명을 당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과 갈등과 기도 가운데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잠언 22장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린 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른 가치관, 뚜렷한 목적관, 영원한 인생관. 이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연 나는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장 6절).

과연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딜런, 예리, 예은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만한 가르침을 나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여태껏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마다 나 자신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3가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했었다: 바른 가치관(Right Value), 뚜렷한 목적관(Clear Purpose), 그리고 영원한 인생관(Eternal View of Life).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한 5가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되었다.

첫째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좋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은이나 금이나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favor)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노아가 생각난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favor)를 입은 자였다(창 6:8).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였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9절). 나는 딜런, 예리, 예은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길 원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인정하는 좋은 이름(good name)을 가진 딜런, 예리, 예은이가 되길 기원한다.

둘째 교훈은, 주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다 지으셨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이나 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 풍부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한 궁핍하게도 살아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풍부함이나 궁핍함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빌 4:11). 다시 말하면, 빈부가 섞여 사는 이 세상에 딜런, 예리, 예은이가 살아가면서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기원하는 것이다.

셋째 교훈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악을 분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숨을 때는 숨어야 하고 피할 때는 피할 줄 아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싶다. 다윗처럼 사울에게 피하면서 굴에도 숨을 줄 아는 자들로 말이다. 무모하게 자기 자신을 해하며 생명을 위기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양육하고 싶지 않다.

넷째 교훈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크리스천 덕목에 있어서 겸손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길 원한다. 그러한 가운데 딜런, 예리, 예은이도 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 있길 원한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딜런, 예리, 예은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마지막 다섯째 교훈은,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는 것이다.

잠언 22장 5절을 보면 성경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를 징벌하신다. 그 징벌은 바로 가시와 올무이다. 나는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가 가시와 올무 같은 길을 걷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그 세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자들로 양육하고 싶다. 나는 그들이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패역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도를 걷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주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세 자녀인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에게 그들이 늙어서도 떠나질 않을 마땅히 행할 길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많이 들춰졌다. 그 아이들이 늙었을 때에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텐데, 죽기 전에 딜런, 예리, 예은이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쳐야겠다. 재물보다 명예를, 빈부보다 주님을, 어리석음보다 슬기로움을, 교만과 악보다 겸손함과 하나님 경외함을, 그리고 패역한 자보다 영혼을 지키는 자로 잘 양육하여 그들이 늙어서도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17-29절]

얼마 전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린 후 저는 그 다음 날 월요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Tuscon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거기 계신 분들에게 폐 끼치기가 싫어서 아내에게 부탁하여 예약한 shuttle bus를 타고 나왔습니다. 말이 shuttle bus이지 조그마한 차를 몰고 한 70대 넘으신 수염이 긴 아저씨가 와서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1시 15분 정도 운전 거리를 그 분하고 대화하면서 왔는데 유아 세례로 받았다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기에 쭉 들어보았더니 그 분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것은 "I AM"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심지어 최면 상태와 같은 무아지경에서 화성도 몇 초 안에 갔다 올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하여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들으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저런 질문도 해 보다가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 제가 이 경험을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 말로는 지금 법적으로 연방 판사들은 더 이상 보이 스카우트에 연계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아내 말대로 앞으로는 판사들이 교회에도 연계될 수 없을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급진적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생각나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현실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약 1:5) 오직 믿음으로(6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란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으로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sayings of counsel and knowledge)이요 또한 "진리의 확실한 말씀"(true and reliable words)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20-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성경은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충고(counsel, advice)의 말씀입니다(Swanson).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지혜 있는 자의 진리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입니다(21절).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하여 물어볼 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신앙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되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장 20-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충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믿을 만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5가지로 오늘 본문 잠언 22장 22-29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약하고 곤고한 자를 탈취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22절을 보십시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번 묵상한바 지혜로운 부자는 궁핍한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19:17) 그들을 구제한다(28:27)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주관함에 있어서(22:7)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며 자신을 자랑하는 가운데(대하 25:19) 그들에게 완악한 말로 무례히 행하며(시 31:18) 조롱하며(119:51) 심지어 압박(압제)한다(10:2)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22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은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걸하는 가난한 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문이란 민사상의 문제나 법적 사안을 다루는 곳이었는데(참고: 31:23) 그곳에서 곤고한 자들이 공의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입니다(MacArthur).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악한 사람들(예를 들어 악한 부자들은) 그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오늘 본문 잠언 22장 22절에서 그리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행 20:35).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것을 탈취하면 아니 됩니다.

(2)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24절을 보십시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우리가 이미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교훈 중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12:16),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14:17), "분을 쉽

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15:18),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19:11)요 "크게 명철"한 것이다(14:29),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19:19), 등등. 오늘 본문 잠언 22장 24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우리에게 "노를 품는 자" 또는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며 동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2장 25절을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 이니라."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고 함께 동행을 하면 우리도 그의 행위를 본받으므로 결국에는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5절과 14절에서 배웠듯이 패역한 자의 길이나 음녀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 즉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멀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는 노를 품는 자, 울분 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사귀어 동행하다 보면 우리 또한 다툼을 일으키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9:22).

(3)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미 우리는 잠언 6장 1-5절에서 이웃을 위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의 요점은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담보 또는 보증하였다가(1절) 우리가 그 이웃의 손에 빠졌을(2-3절), 즉 우리가 그 이웃의 채무 이행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Deliver yourself)는 것입니다(5절). 여기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데 그 어리석은 행동이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 불이행(defaults)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것, 즉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없는 자가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7:18).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경제적 실력 없이 남의 빚에 보증이 된다는 것도 그 빚진 자의 마음에 헛된 위로를 주는 것뿐이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파산을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오늘 본문 잠언 22장 26절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4) 선조가 세운 옛 지계 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28절을 보십시오: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성경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조상(선조)이 세운 옛 지계 석, 즉 조상이 정한 우리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남의 소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7장 17절을 보십시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유는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오늘 본문 잠언 22장 28절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 국가들의 영토를 분배하였은즉(신 17:26, 32:8)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영토를 침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소유를 존중히 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이 원칙을 생각할 때 지혜 있는 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5)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29절을 보십시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능숙한 사람”이란 부지런하고 숙련된(diligent and skilled)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속히 일 처리를 잘 하여서 심지어 왕 앞에서 그를 섬기지 결코 천한 자를 섬기지 않는다고 지혜 있는 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일을 신속히 잘 처리하는 능숙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 제가 담임 목사로 승리장로교회를 섬기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주일 오후 성경공부 시간에 제이

아담스 교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라는 책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때 그 책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한 이유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듯이 성도님들은 설교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들을 준비 중 하나는 바로 성도님들의 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 중심으로 교제를 만들어서 성경공부를 인도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우리들의 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3-4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제 개인적으로 이미 이러한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간지러운 자기 귀를 긁어주는 허탄한 이야기들과 같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랬기에 그 때 아담스 교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란 책을 제가 먼저 읽고 성경공부 교제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한 것입니다. 다시금 그 책에서 도전 받은 점을 뒤돌아 볼 때 이렇게 제 개인 홈페이지 올린 글이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간절한 기대감이다. 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성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행17:11)라고 말한다. 기대감이 있어야 잘 들리게 된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한가지에만 신경을 쓰라. ‘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 어린아이다움이 있어야 한다. 순수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들리게 된다. 성경을 살필 때에도 진리를 발견하려는 간절함 때문에 성경을 살펴야 한다. 편견 가지고 가면 아무 것도 못 얻는다. 흠이 있나 없나 하는 꼬투리 잡는 듣기는 병든 귀이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고 말씀한다. 듣는 것이 둔한 귀가 있다는 말이다. 설교 듣기는 ‘트집 잡기’가 아니라 ‘진리 찾기’이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병든 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흠이 있나 없나 하는 꼬투리 잡고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생각에도 듣는 것이 둔한 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 대학교 때 함께 룸메이트 했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 식구들과 함께 만나 식사하고 기도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때 대화를 하면서 한 형제가 자기 초등학생 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지 그 형제가 말하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그 형제의 아들이 아마 듣지를 않고 책만 읽는다고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왜 자기 아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책을 읽는지 그 이유가 저에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귀로 잘 배우는 청강생이 아니기 때문(not a good auditory learner)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귀로 잘 배우는 청강생이 아니다 라고 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럼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형제가 귀로 잘 배우는 청강생이 아닐지라도 보는 것으로 잘 배우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 그 형제하고 대화한 후 생각이 든 것은 귀로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공부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지만 적어도 성경공부 시간에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성경공부에 관한 자료들을 보여주므로 성공공부를 인도해 볼 수가 있겠지만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스크린에다가 성경구절을 보여주던지 또한 설교 요약,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설교에 관한 동영상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를 기울여"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listen obediently(Harris)]는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할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로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 마음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세상에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때에 지혜 있는 자가 사랑으로 책망을 해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또한 잠언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지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지혜)에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합니다. 오늘 본

문 잠언 22장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apply your heart to what I teach). 지혜 있는 자가 가르쳐 주는 지식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 말씀에 두데 헌신의 자세로 둬서 그 말씀에 몰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잠언 24장 3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I applied my heart to what I observed and learned a lesson from what I saw).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한다는 말은 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관찰해야 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3)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교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훈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그 말씀이 우리 심비에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시 119:56).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이유입니다:

(1) <u>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Keeping His words in our hearts)</u>.

오늘 본문 잠언 2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현대인의 성경)](for it is pleasing when you keep them in your heart and have all of them ready on your lips).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정신을 다 기우려 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하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절).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 그 말씀을 자주 인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외우고 아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해야 합니까? 왜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전도서 7장 12절을 보십시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돈보다 지식(지혜)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전(간직)해야 합니다.

(2) 그 이유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rusting the Lord in our hearts).

오늘 본문 잠언 2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So that your trust may be in the LORD, I teach you today, even you)[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온 정신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몰두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편 118편 8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둘수록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습니다(32:10).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사 30:15).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충고의 말씀은 약하고 곤고한 자를 탈취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라는 것,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 선조가 세운 옛 지계 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자의 진리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데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 말씀에 두데 헌신의 자세로 둬서 그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잠언 23장 1-8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 3주에 걸쳐 3만 3,000여명이 참가한 페이스 북 설문조사를 통해 ‘당신이 뽑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선’을 내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개 중 1위에서 10위까지가 모든 동양권 음식이었습니다. 1위와 2위와 6위가 인도네시아 음식이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모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인 일본 음식 스시(Sushi)와 라면은 3위와 8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음식 파타이(Pad thai)는 5위였습니다. 한국 음식으로는 김치와 불고기가 12위, 23위였고 월남 국수 포(Pho)는 20위, 멕시코 음식인 타코(Taco)는 27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배가 고프시면 먹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섭취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고픔은 크게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혈당이요 또 다른 하나는 위장이 비어있을 경우라고 합니다. 만성피로, 해독, 비만 및 임상 영양치료의 최고 권위자라는 차의과 대학교 항노회연구소 김상만 교수라는 사람은 “우리 뇌는 혈액 중의 당이 떨어진 것을 감지하게 되면 식욕중추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복감”이라고 합니다. 이 공복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경우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위장이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상만 교수는 “그렇게 되면 위가 수축을 하게 되면서 그렐린이라는 장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것이 뇌에 전달되면 공복감을 느끼게 되면서 먹을 것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과식을 하는 것인가 입니다. 왜 우리가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과식하는 것일까요? 김상만 교수는 과식을 부르는 최대 주범으로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직장상사한테 받는 그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은 모두 다 내 몸에 알게 모르게 스

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관계어서 다투던지 해서 분노를 하면 그것은 분명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 저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저혈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즉각 보내고 이때 필요한 것은 지방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닌 바로 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오로지 당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과식을 부추기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호르몬에 얽힌 비밀이라고 합니다. 김상만 교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물질도 나와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 물질의 대표가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살기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매운 음식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술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상만 교수는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어도 스트레스를 이기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게 된다."고 밝히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탐하게 된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23장 3절과 6절을 보면 성경은 두 번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한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맛있는 음식을 탐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3장 3, 6절에서 잠언 기자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말은 "음식을 탐하는" 것(gluttons)을 말합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란 영어로는 "gluttons"로서 한국 번역으로는 "폭식, 과식"입니다. 이 단어의 라틴어 "gluttire"는 "to gulp down or swallow," 즉 '한 입에 꿀꺽 집어삼키다', 그것도 빨리 그리고 시끄럽게 음식을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은 음식을 "탐닉하다"(over-indulgence), 너무나 과도하게 먹는다(over-consumption)란 의미입니다. 유대교의 토라 안에 613 계명(613 commandments)이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명 중 169번째 계명을 보면 과식이나 과음은 금한다고 써있다고 합니다(Wikipedia). 성경을 보면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49-50절 상반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범한 죄 중에 "음식물의 풍족함"(overfed)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너무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는 "태평함이 있"다(unconcerned)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너무나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생각할 때 지난 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신명기 31장 20절과 32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할 줄 알았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성경은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땅"(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9절), "옥토"(10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12절) 거기서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했습니다(13-14절). 그 염려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17절).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맛있는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어 배부르고 살찌고 비대해 져서 결국에는 마음도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탐하는 것과 마음의 교만함과 연관돼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다가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배만 살찌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이 쪄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의 본능은 헛된 것에 육체적인 보안(carnal security)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경은 멸망을 당할 악한 사람의 신은 "배"(stomach)라고 말씀하고 있습니

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은 음식을 탐하여 먹는 것에 중독돼 있다는 말입니다(Torrey). 여러분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에 중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중독"하면 주로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중독"하면 인터넷 중독도 있고 또한 쇼핑 중독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음식 중독이 있을까요? 캐나다 의학회 저널(CMAJ)(2010년 3월 9일)에는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21세기 유행병인 비만에 '음식중독(Food Addiction)'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다뤘다고 합니다. 비만의 원인은 몸에서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인데 칼로리 섭취과잉(과식)이 '강박적'이고 본인의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라면 그 상태를 가리켜 일부학자들은 '음식중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인터넷). 결국 오늘 본문 잠언 23장 3,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음식에 중독이 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문안하다 생각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누구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3장 3절과 6절에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즉, 성경은 "관원"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원"이란 그냥 보통 "관원"이 아니라 호화로운 부자 관원(the luxuries of a wealthy ruler)입니다(MacArthur). 그리고 이 호화로운 부자 관원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an influential person)(MacDonald). 그런 사람이 연회(banquet)를 베풀었을 때 그가 준비한 맛 있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호화로운 부자 관원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성경은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란 히브리어 원어로도 올바른 번역인데 영어 성경에는 "a stingy man"(인색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에서 "악한 눈"이란 단어는 여기 잠언 23장 6절 외에 딱 한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잠언 28장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눈"과 반대되는 말은 "선한 눈"(a good eye)으로 잠언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A generous man will himself be blessed, for he shares his food with the poor). 여기서 "선한 눈

을 가진 자"는 영어 성경에는 "a generous man"(너그러운 사람)으로 변역돼 있는데 그 이유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눈을 가진 자"는 그와 정반대로 자기의 풍족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악한 눈을 가진 자는 구두쇠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구두쇠는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그가 말로는 너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원"은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인색한 자가 연회를 베풀어서 음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위선적으로 자신이 너그럽다는 것을 가장하는 것입니다(Walvoord). 그의 마음을 결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7절). 이러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까지 하며 자기보다 더 큰 부자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뇌물까지도 줍니다(22:16).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구두쇠, 즉 자신의 풍족한 양식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는 호화로운 부자를 생각할 때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생각납니다. 나발은 누구입니까? 나발은 유다의 갈멜에 살던 사람으로서 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면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나발"의 뜻은 '미련하다'(Fool)입니다(25절). 즉, 그는 자기 아내가 보기에게도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의 말을 빌리자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wicked man)이었습니다(25절). 심지어 나발의 하인들도 자기들의 주인에 대해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17절).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인들조차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한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습니다(3절). 그래서 그는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21절). 즉, 다윗은 나발을 매우 선대하되(15절)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의 하인들에게 담이 되어 밤낮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과 그들이 지키는 양 떼들을 다 보호해 주었습니다(15-16절). 그러므로 그들의 것이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7절). 그러나 나발은 불량하고 완고하여 행실이 악하여 다윗이 보낸 사환들을 괄시하고 박대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사환들이 찾아 와서 "내 소년들에게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8절)고 말하면서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8절)고 말했지만 나발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10절).

여러분, 우리는 인색한 사람하고 식사할 때 우리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왜 성경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3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 관원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음식은 우리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속이는 미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 한국 드라마에 호화스럽게 사는 인색한 부자가 정치인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주로 그러한 장면의 모습들은 부자가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뇌물을 제공하므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그 때 그 정치인은 그 부자에게 그 뇌물을 받고자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부자는 정치인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돈이라는 미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속셈이고 정치인은 그 돈의 미끼에 넘어가서 그 부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볼 때에 둘 다 다 탐심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식사는 음식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그 음식 식사를 같이 하는 두 사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불순한 동기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같이 식사하다가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뇌물을 주면서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현대인의 성경) "결국 그들은 악한 짓을 한 그 댓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정 대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까지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지키지 않는 거짓 선생은 음식을 탐하되 그는 우리와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까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나중에 그의 속임수이 우리가 넘어간 것을 깨달을 때에 그 먹었던 것을 토할 만큼 마음에 불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잠 23:8)(박윤선). 그리고 그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한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갈 것입니다(8

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짓 선생의 맛있는 음식을 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속이는 음식입니다(2절).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속이는 음식"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악한 눈을 가진 부자의 미끼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궁핍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꼭 필요한 데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절박한 상황일 때 악한 부자가 던지는 돈의 미끼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돈의 미끼는 충분히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잠언 23장 4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탐심 가운데서 "부자 되기를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악한 부자가 던지는 돈의 미끼에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자 되기를 애쓰고 있다면 무엇에 주목하겠습니까? 재물이 아닙니까?(5절)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그 래서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1절).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23장 4절을 보면 성경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현대인의 성경)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사로운 인간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박윤선). 여기서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란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이 번역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는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제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한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u>자제하는 지혜란 생각하는 것입니다.</u>

생각하되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1절).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한다면 생각의 날개를 펴서 상대방의 대해

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되 상대방의 말만 무조건 듣고 다 믿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의 동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제하는 지혜란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우리는 생각의 절제도 해야 하지만 음식의 절제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식의 절제란 특히 문맥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시 62:10). 마음의 절제란 어떠한 종류의 탐심의 유혹이라도 뿌리치고 자족하는 마음을 지키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제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약 1:5) 우리는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절제"(self-control)를 간구해야 합니다(갈 5:23).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재물을 탐하는 것은 허무한 것임을 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5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현대인의 성경)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벌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딤전6:17)(현대인의 성경).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로 과식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뚱뚱보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김상만 교수는 그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습관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식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식은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상을 먹기 때문에 쓰고 남은 에너지는 어디에든 축적이 되어야 한다. 축적을 하는 곳은 지방세포다.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먹고 또 먹어서 들어온 영양분을 저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포가 이들 영양분을 저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방세포가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때 그 영양분은 혈관 내에서 떠돌면서 갖가지 만행을 저지른다. 혈관에 지방이 쌓여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관에 당이 쌓여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혈관 내 출혈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식은 21세기를 주도하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 우리가 먹은 음식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필연적으로 불안전하게 연소되는 산소가 남게 된다. 그것이 활성산소다. 이러한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또 우리 몸속 장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원흉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무법자 활성산소도 덩달아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김상만 교수는 '과식을 막는 것은 노화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과식을 막는 생활 실천 법 4가지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도록 하는 것, 당성분이 많이 든 음식을 삼가는 것, 그리고 감칠맛에 버릇을 들이지 말 것입니다. "과식하지 않으려면 생활 속에서 MSG를 먹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감칠맛의 유혹을 끊어내는 비결이고, 과식을 막는 첩경이다. 김상만 교수는 "오늘날 우리 주변 곳곳에는 짭짤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의 천국과도 같다."고 밝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되도록 맛없게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라고 당부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잠언 23장 1-8절은 우리에게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색한 호화로운 부자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은 우리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제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탐심의 유혹이라도 뿌리치고 예수님 한분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가지 교훈

[잠언 23장 9-14절]

여러분 생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근거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그칠 날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앙을 자기 개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5절).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논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시기와 다툼)과 비방(모독하는 말)과 악한 생각(좋지 못한 의심)을 합니다(4절). 그러면 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했을까요? 그 원인은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3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3장 9-14절 말씀 중심으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4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4가지 교훈을 겸손히 잘 받아서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교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9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우리가 잠언을 쭉 묵상해 오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조

심 없이 말을 합니다(10:8). 특히 그는 분노 가운데 과격한 말을 함부로 하므로(15:1)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18:8). 그러면서도 미련한 자는 분노 가운데 자기 입으로 쏟아낸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하는 순간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상처 입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킵니다(18:6). 그리고 그의 입은 매를 스스로 자청합니다. 즉,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6-7절). 특히 미련한 자는 거짓말을 합니다(19:5).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합니다(2절).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3절). 미련한 자는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며(10:2)또한 게으릅니다(4절).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미련하게 행합니다(14:24). 그 결과 미련한 자는 마음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10절). 또한 미련한 자는 닫힌 마음(closed mind)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입은 열려서(open mouth)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18:2).

오늘 본문 잠언 23장 9절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자는 우리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히브리어로 “미련한 자”란 말과 “어리석은 자”란 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란 말은 그 마음이 개방되어 어떤 교훈이든지 따라갈 위험성을 지닌 유치한 자를 가리키는 반면에 “미련한 자”란 말은 어둡고 악한 생각으로 강퍅하여지고 또 교만하여진 자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미련한 자는(14:9) 어느 누구의 책망도 듣기를 싫어합니다(1:25). 여러분, 죄로 마음이 강퍅하여진 교만한 자의 귀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하여도 그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말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마음에서 당신을 낮추어(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므로 성경 잠언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는 미련하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훈은,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0절을 보십시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잠언 22장 28절에서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상(선조)이 세운 엣 지계석, 즉 조상이 정한 우리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남의 소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신 27:17). 박윤선 박사님은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국가들의 영토를 분배하셨기 때문입니다(32:8, 17:26).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영토를 침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소유를 존중히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소유를 존중히 하되 특히 오늘 본문 잠언 23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아들의 소유를 존중하여 그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로서(시 68:5) 고아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의 지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뿐만 아니라 과부의 지계도 정하셨습니다(잠 15:25).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다보면 특히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괴롭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사야 1장 23절이나 10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1:23);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10:2).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뇌물을 사랑하는 재판장이 고아를 신원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한 고아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고아의 밭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까지 약탈합니까? 시편 94편 6절을 보면 성경은 심지어 과부와 고아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기서 "구속자"란 영어로 "Defender"(방어해주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구속자란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Walvoord). 그러면 여기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고아들의 구속자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성경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십니다(신 10:18). 외로운 고아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고아들을 도우십니다(시 10:14).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렘 7:6, 22:3) 해하지 말고 (출 22:22, 슥 7:10)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신 14:29, 24:19-21, 26:12).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약 1:27).

셋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2절을 보십시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훈계"나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지금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하며 또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붙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였기에 그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습니다(신 17:19).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의 모든 말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데 헌신합니다(19절).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들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20절).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우리는 순종하려는 자세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시편 116편 1-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

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교훈은, 아이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3절을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잠언 23장 13절에서 성경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불순종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잠언 13장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징계는 매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불순종하는 자녀를 매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훈계(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의 삶 속에 얽힌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십시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9장 17절을 보십시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할 때 그들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기에 그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징계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입니다(Walvoord). 또한 우리 자녀를 생명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10:17).

성경 히브리서 12장 6-8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10절). 여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10절).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11절).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5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4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4가지 교훈이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는 것,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대로 실천에 옮기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 (1)

[잠언 23장 15-23절]

이번 한국의 여객선(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사망한 학생들 중에 고 정차웅(17잘)이란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도 3단의 유단자로 체육학도 꿈을 키웠던 정 군은 사고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 쪼기를 친구에게 벗어주는 등 다른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생일을 하루 앞두고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 때 최고등급 수의 가격은 400만원이 웃돌았는데 정군의 유족은 최하등급인 41만 6천 원짜리 수의를 정군의 마지막 길에 입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군의 유족이 국민의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비싼 것을 쓸 수 있느냐 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장례용품 담당자에 의하면 "정 군의 유족이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르자 옆 빈소의 정 군 친구 유족도 같은 장례용품을 주문하며 정 군 유족의 뜻에 동참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그 학생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부모님들은 아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우리가 묵상한 잠언 23장 9-14절 말씀 중 13-14절 중심으로 우리는 네 번째 교훈인 “아이를 훈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훈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13:24).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얽힌 미련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22:15),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29:15), 우리 자녀를 죽음에서 건져(23:14) 생명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10:17)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징계할 때 그들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29:17)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5-16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만일 우리 자녀의 마음이 지혜롭고 우리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옳은 말을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정말 유쾌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입술도 옳은 말을 하는 자녀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지혜로운 부모에게 받은 진리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의 유일한 기쁨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 그대로 사는 데 있다"(인터넷).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3장 15-23절 말씀 중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무슨 진리를 받아 그대로 사는지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이 진리를 받아 그 진리대로 살아가므로 우리 자녀에게 본을 보이므로 우리 자녀도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첫째 진리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7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별로 듣기 안 좋아하는 말이 한두 개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채팅이나 사람들이 리플 달 때 그 두 마디를 쓰는 것을 종종 보는데 그 두 마디는 바로 "덕분에"라는 말과 '부럽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말할 때 '당신 때문에'란 말보다 '당신 덕분에'란 말이 듣기는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사람들이 '덕분에'란 말을 할 때 그냥 인사치레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럽습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할 때 저는 '왜 부러워할까, 부러워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들곤 합니다. 언젠가 그룹 채팅을 하는데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23장 17절에서 성경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이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만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며 물질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인은 계속해서 형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의인이 형통하는 죄인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편 73편 아삽의 시가 기억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교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3절). 여기서 악인의 형통함이란 “그들은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4-5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6-7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합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는 백성이 많습니다(10절). 이 모습을 보는 의인 아삽은 악인과 달리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 아삽의 입장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었을 때 충분히 그 악인을 부러워 할 만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는 악인을 부러워했는가 하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허사구나”라고 말할 정도까지였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잠언 23장 17절에서 성경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죄인에게는 장래가 없고 희망(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죄인의 장래, 즉 악인들의 종말을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시 73:17).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18-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7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종말(최후)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멸망이요 전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23:17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녕히 장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18절). 여기서 "장래"란 말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종말은 내세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4장 32절 하반절은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잠 14:32). 바라기는 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에게는 장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둘째 진리는,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한 예로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듣고 지혜를 얻"어야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과 연관해서 묵상하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련하면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것입니다(1:7). 여기서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8:13).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23:17).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악 된 본능대로 죄를 지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악 된 본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 마음의 죄악 된 본능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한 3구절만 읽겠습니다: (1)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마 15:19), (2)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 5:19-21), (3)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 3:2). 여기서 우리의 죄악 된 본능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돈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눅 6:14).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었습니다(14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므로 탐욕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잠언 4장 10-1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겸손히 듣고 배우며

또한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잠언 4장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듣고 받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진리는,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0절을 보십시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제가 2011년 11월 즘에 주일 예배 때 설교한 말씀 중 “사귀지 마십시오”란 제목 아래 고린도전서 5장 9-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욕설을 일삼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하는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헬라어 원의 문자적 의미는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우상 숭배자나 욕설을 일삼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과 친밀하게 또는 가깝게 어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깝게 어울리지 말라고 말한 대상인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자, 욕설을 일삼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죄를(11절) 회개치 않고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으므로 온 교회에 그 죄의 악한 영향을 끼치는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고(12절) 그들과 가까이 어울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교제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러한 교인들과 사귀지 말고 관계를 끊되 그 악한 사람을 아예 교회에서 내어 좇으라(13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까지도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13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교회의 순결성을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잠언 기자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

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연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성경은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잠언 20장 1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왜 우리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술은 거만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떠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만하게 하며 떠들게 하는 술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잠언 23장 29-30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할 것”(33절)이며 또한 “감각이 없”어지고 술에 인박혀서 못 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35절). 오늘 본문 잠언 23장 2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왜 성경은 술 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은 가난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술 취하는 자들디 가난해 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은 방탕생활을 하면서(엡5:18)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낭비할 뿐만(참고: 눅 15) 아니라 게을러서 잠자기를 좋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잠 23:21).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엡 5:18, 롬 13:13, 고전 5:11, 6:10).

그러면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음식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탐식하는 자들입니다. “탐식”이 무엇입니까? 탐식은 음식에 대한 무질서한 섭취로 생각하는 일을 둔하게 만들고, 이성의 통제를 약화 시키며 인간이 품위를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술 취하는 것이나 고기(음식)를 탐하는 것이나 과도하게 섭취하므로 결국에는 사람을 나른하게 만들므로(drowsiness) 졸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난하게 만듭니다(Walvoord). 그러므로 성경은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탕의 길로 걷지 말고 바른 길로 걸어야 합

니다.

넷째 진리는, 아버지에게 청종(순종)하고 어머니를 경히(업신)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자녀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할 때 기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불순종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심지어 여러분을 경히 여기면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특히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멸시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3장 15-16절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녀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요 입술이 정직을 말(옳은 말)을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19, 22절). 그 부모님의 말씀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는 겸손히 듣습니다(25:12). 그리고 그는 더욱더 지혜를 얻어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23:19). 결코 그는 자기 자신을 방탕의 길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20절).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는 자기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22절). 그러나 부모님이 늙었다고 업신여기는 자녀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11:12). 즉,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녀가 부모님을 멸시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3:13).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녀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도 업신여겨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23:9).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14:21).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잠언 17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녀는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여 고통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조롱하며 부모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30:17). 그래서 그는 부모의 훈계와 법도를 떠나(참고: 1:8, 6:20)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릅니다(수치를 줍니다)(19:26).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합니다

(10:1, 15:20). 그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엡 6:1-2).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신 28:2).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진리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고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3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보통 사업하는 사람의 심리는 물건을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웬만하며 돈을 들내고 물건을 사려는 것(값싸게 물건을 사려는 것)과 또 하나는, 진정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투자를 해서라고 구하려는 심리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3절에서 성경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값어치가 그 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7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어떠한(모든) 값을 치러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왜 성경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살되 팔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진리를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은 "돈 없는 자도 오라 ..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내지 않고라도 진리를 우리 소유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거저 받은 것입니다(박윤선). 이렇게 거저 받은 진리를 우리는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를 제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더욱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참고: 약 1:5).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순종하여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

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잠23:15-16).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는 다섯 가지 진리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섯 가지 진리란 (1)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17절), (2)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19절), (3)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20절), (4)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22절) 그리고 (5)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고팔지 말라는 것입니다(23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므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잠언 23장 17절).

'과연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대형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부러운가 아니면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어느 교회 모 목사님과 또한 그의 교회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도 던져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원인 중에 비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부함을 부러워할 수가 있고, 그 풍부함을 누리는 부자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진 이들과 그들의 환경을 충분히 부러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자기는 없는데 자기 친구들이 무엇인가 있으면 충분히 부러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은 예수님 믿는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충분히 의문을 품게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저희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형통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지 안타가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은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즉,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 성경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인들, 행악 자들의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24:20).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19절). 죄인들과 행악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기에(시 73:17-20)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잠 23:17).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정로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 (2)

[잠언 23장 24-35절]

우리는 지난 주 수요기도회까지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란 제목으로 잠언 23장 15-23절을 묵상했었습니다. 제가 그리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15-16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내 아들아,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네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만일 우리 자녀의 마음이 지혜롭고 우리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옳은 말을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정말 유쾌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입술도 옳은 말을 하는 자녀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지혜로운 부모에게 받은 진리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지혜로운 자식”이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의인으로써 지혜롭게 살아드리는 것인가요? 26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

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받치며) 또한 주님의 길을 쳐다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받쳐 그 분이 보이시는 길을 쳐다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한 두 길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쳐다보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은 음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7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우리가 잠언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잠언 기자가 음녀에 대해서 몇 번이고 경고하고 우리를 권면하였습니다. 그 중에 잠언 2장 16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언 기자는 지혜가 우리를 음녀들로부터 보호해 주며 건져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들이란 말로써 사람을 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 잠언 5장 3-4절을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신앙을 앗아 갈 수 있는 무서운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잠언 7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혜가 없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깊은 밤에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젊은이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14-20절). 이 음탕한 여인은 그 젊은이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그 젊은이는 곧 그녀를 따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절).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어떻게 요셉처럼 뿌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잠언 7장 1-5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 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

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말로 우리를 호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만이 우리를 그녀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며 건져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녀들은 정조가 없습니다. 잠언 2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는 자기의 결혼 파트너인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창 2:24)을 파괴한 자들입니다. 한 마디로, 음녀는 정조가 없습니다. 음녀는 이 남자 저 남자와 잠 자리를 같이하는 자신의 순결을 헌신짝처럼 버린 자입니다. 이러한 음녀의 집은 잠언 2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그녀는 "사망으로, 그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음녀를 따라간다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잠 2:19)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지혜가 우리를 음녀에게로부터 보호해 주며 건져줍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음녀의 길에 참여하지 않게 만들므로 우리를 보호해주며 건져줍니다(12절).

음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떠나 구부러진 악한 길을 걷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혹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하게 탐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으로 음녀들의 길을 보게 합니다. 그 결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음녀의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게 할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함께(동행)하지도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7절에서 잠언 기자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미 잠언 기자는 22장 14절에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녀는 깊은 함정을 파 놓고 오늘 본문 잠언 2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녀는 참으로 강도 같이 매복해 있다가(23:28)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 없는 한 사람("젊은이")를 보고(7:7) 그를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유혹하되 그 음녀는 한 사람만 유혹하여 깊은 함정에 빠트리게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합니다(23:28). 무슨 말이니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특히 많은 유부남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외도하게(unfaithful)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도 불충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불충하게 만듭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꽃뱀"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관계를 미끼로 유혹하면서 남자들에게 다가와 나중에 이를 구실 삼아 돈을 우려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7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음녀는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넘어가게 되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23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23절). 성경은 그녀의 집은 “스올의 길”이요 “사망의 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7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음녀의 길을 쳐다보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잠언 7장 1-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 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계명)을 지켜 행하므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7정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성경 잠언 7장 24-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현대인의 성경) “내 아들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너희는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가 음녀의 길을 아예 쳐다보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걸어가지 말길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해야 하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5:7). 그리할 때 우리는 그 길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5장 8절을 보십시오: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유혹이란 것은 매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피함으로만 이기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라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 생각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던 요셉(창 39:6)을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되(7절)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도(10절)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동침하기를 거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10절). 그러나 하루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게 되었을 때(11절) 그녀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말했을 때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12절). 그러므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는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요셉처럼 성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마음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죄악의 사슬에 매여 성적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과 달리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 외에 삼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딤나에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삿 14) 가사에 가서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고(16:1) 또한 그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 하는 여인을 사랑하므로(4절) 그녀의 꾐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결국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성적 유혹을 이기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래 전 들은 이야기는 창녀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결국에는 죄를 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 제가 아는 어느 한 여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창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을 직접 들은 기억도 납니다. 참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과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기의 집 문에도 아예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되 창기의 말을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므로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쳐다보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은 술에 잠긴 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30절을 보십시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잠언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잠언 기자가 술에 대해서 몇 번이고 경고하고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지난번에 묵상한 잠언 23장 20-21절 중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연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는 자들 또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술주정꾼과 대식가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성경은 술 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은 가난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술 취하는 자들디 가난해 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은 방탕생활을 하면서(엡5:18)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낭비할 뿐만(참고:

눅 15) 아니라 게을러서 잠자기를 좋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잠 23:21). 또한 잠언 20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싸우게 하는 것이라 …"입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를 거만케 하며 또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술이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 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3절) 자그마치 180일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4절).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면서 참석한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3절)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 후원에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5절) 그 때에는 잔치에 참석한 자들로 하여금 금잔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어주가 한이 없이 풍부하였고 (7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들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게 하였습니다(8절). 그러다가 제 칠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자기 내시 일곱 사람에게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여 그녀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다가(10-11절) 왕후가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여(12절) 결국에는 왕후를 폐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술잔치 베풀어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까지 자랑하려다가 아내가 말 안 들으니까 진노하여 아내와 이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호 4:11) 자신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들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노함도 들어냅니다(참고: 사16:6). 그러기에 술좌석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잠 20:1).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잠언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실제로 술좌석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나 싸움이 그칩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lead astray)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되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길로 이끕니다. 미련한 길로 이끌되 우리로 하여금 당장 분노를 나타내어(12:16) 다툼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20:3)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듭니다(14:9). 결국 포도주와 독주란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일단 술을 어느 정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끊기 어렵다는 것입니다(31-35절). 그 이유를 박윤선 박사님은 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1)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술에는 뱀의 독과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 모양은 유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31-32절을 보십시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술에 취하면 독사뱀에게 물린 것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만큼 술 취함의 결과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아예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술에 위하면 음란한 마음을 품고 또 허황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33절을 보십시오: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기서 “괴이한 것”이란 말은 창기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하면 창기가 보인다는 말은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부러진 말”(괴상한 소리)을 한다는 말은 취한 자가 허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3)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위험한 것을 느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34-3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 술에 취하면 자기가

위험해 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도 운전하여 사고를 내므로 생명을 잃던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4)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술에 인박혀 그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3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엄청 마시고 그 다음 날 술에 깨고 나서 다시금 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에 인박혀서가 아닙니까?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3장 24-35절에서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의인으로써 지혜롭게 살아드리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받쳐서 주님의 길을 쳐다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길을 쳐다보고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길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길은 음녀의 길과 술에 잠긴 자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두 길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길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잠언 24장 1-9절]

여러분, 유태인의 생활 규범인 "탈무드"에 대해서 들어보 셨죠? "탈무드"는 구약성서가 쓰인 뒤 유태교의 법률, 전통적 습관, 축제, 민간 전송, 해설 등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성서 다음으로 유태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태인들의 종교적 생활만이 아니라 법적 규정이나 판례법 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유태민족의 생활양식은 물론 기독교와의 관계를 아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이 탈무드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첫째는, 유태인들은 이 탈무드를 흔히 큰 바다로 비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다는 거대하고 모든 것이 거기 있고 그러나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탈무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공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를 연구한 어느 목사님에 의하면 그 이유는 탈무드는 항상 밤이나 낮이나 반복하여 평생 읽는 책이지 시작과 끝이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나 연구하여 기록해 넣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이 유태인들의 탈무드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한 4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1)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2)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3) 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4) 지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현대인의 성경) "지혜 있는 자가 힘 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무력을 쓰는 자보다 강하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란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우리는 이미 잠언 23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에게는 장래와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8절).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17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는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즉, 그는 시편 92편 7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1)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은 흥왕하데 신속하게 흥왕합니다. 시편기자가 악인들을 풀과 비교하면서 "생장"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들은 수고도 들이지 않고 간교함 속에서 신속하게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2) 악인들의 형통은 마치 들풀의 무성함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악인들이 그들의 흥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풀과 같은 악인의 형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3) 악인들의 신속한 형통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기 위해 잘 먹여서 살을 찌우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의 목적은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D.L. Moody 목사님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필경 풀처럼 연료가 되기 위하여 생장한다." 실제로 시편 73편 17-20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의 종말은 파멸과 황폐와 전멸 및 멸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 이유는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한다는 뜻입니다(인터넷). 이렇게 마음으로 멸망을 연구하는 악인들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악한 자”들(the schemers)요 이들은 (항상) 악행하기를 꾀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9절에서 성경은 “미련한 자”들(folly)이요 또한 “거만한 자”들(mocker)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죄”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강포는 자기 자신들을 소멸한다고 잠언 2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참고: 사 29:20). 또한 잠언 13장 21절은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성경 잠언 2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예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집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3절을 보십시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2008년 5월 가정의 달에 역대상 17장 16-27절 중심으로 "주여, 저희 가정을 세우소서!"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내 가정이 되게 하소서!'(16절). (2)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권위가 되게 하소서!'(23절). (3) '주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가정이 되게 하소서!'(25절).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다시금 생각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권위인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4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며["패역하게 행하는 자"(2절)], 교만하며(3절) 또한 거만하여(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지식이 없다(7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자신을 속이며(8절) 또한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9절). 그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기에 그녀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기 범한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할 능력을 그녀는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모르며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미련한 여인은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10:23). 그러기에 미련한 여인은 죄로 마음이 강퍅하여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미련한 여인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러한 미련한 여인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헙니다(14:1).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1절). 어떻게 그녀는 자기 집을 세웁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합니다(2절). 그녀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고(7절) 또한 부지런합니다(4절).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갈 길을 압니다(8절).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가 할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합니다(고전 7:17). 그 하나님의 뜻 중 하나는 바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주님께 충성하며 부지런히 노력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3절에서 성경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견고하게 건축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업자는 집을 지으면서 집의 주추(its foundation)를 반석 위에 놓습니다(25절). 여기서 "반석"하면 생각나는 개념은 '든든하다, 견고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의 상징적인(figuratively) 의미는 바로 '견고함, 단단함'(firmness) 또는 '안정성'(stability)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미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그 교회의 영적 주초는 바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집의 주초를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4장 4절을 보십시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과연 이 말씀의 뜻이 지혜로 자기 집을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견고히 세울 때 그 집이 풍부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 보배로 채우게' 된다는 사상도 물질이 풍부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잠언 기자는, 사람이 지혜(하나님을 경외함)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풍부한 재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이 말씀은 비유이니, 진실한 신자에게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을 보여준다"(인터넷).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겠습니까? 하늘 아닙니까? 미련한 자들이나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둡니다. 이렇게 지혜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위에

집을 견고히 세우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보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므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립니다. 결국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각자의 집이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견고히 세워지므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지혜 있는 자는 전략(지략)으로 싸워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잠언 기자가 승리의 비결은 전략(지략)으로 싸워야 할 교훈을 몇 번이고 교훈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잠언 20장 18절을 보십시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또한 잠언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말씀들의 요점을 정리한다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지략의 많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무기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잠언 기자는 오히려 지략이 많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전도서 9장 18절 상반절에서 찾았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전략(지략)으로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도 전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거짓을 많이 퍼뜨려 진리를 부인하고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된 전략이다"(맥아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은 비복음적이며 비진리인 거짓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란 시대의 흐름 아래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동하고 있으며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들을 이미 묵상했었습니다. 한 2가지만 나눕니다: (1) 출애굽기 14장 3절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가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과 우리를 코너에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2) 사도행전 21장 27-36절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입니다. (a)그 사단의 전략이란 첫째로 “충동”(질)입니다(27절). 뭔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그저 추측 가운데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장을 피므로 결국 주위 사람들을 충동하여 자기편을 만들어 그룹을 형성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b) 또한 그 사단의 전략은 “소동”입니다(30절). 사단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소동을 일으킵니다. (c) 사단의 전략은 “소문”입니다(31절).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악성 소문을 퍼트립니다. (d) 사단의 전략은 “폭행”입니다(35절).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적군의 전략을 파악해야 우리도 전략을 바로 세워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세우되 중요한 것은 잠언 21장 31절 말씀처럼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삼하 15:31). 여기서 아히도벨이란 사람은 다윗 왕의 모사였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반할 때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15:31). 그가 베풀었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16:23).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20절)고 말하였을 때 아히도벨은 그에게 좋은 계략 두개를 베풀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푼 첫 번째 계략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21절). 그 이유는 “그러면 왕의 부친(다윗)이 왕(압살롬)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며 왕(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21절, 현대인의 성경).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푼 두 번째 계략은 자기에게 병력 12,000명만 주시면 그날 밤 다윗을 추적하여 그가 지쳐서 피곤할 때 그를 기습하여 다윗만 죽이고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압살롬에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17:1-3). 이 얼마나 좋은 계략입니까? 이 두 번째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아히도벨의 말을 좋게 생각하였습니다(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또 다른 지혜로운 자인 아렉 사람 후새의 말도 듣기를 원했습니다(5절). 여기서 아렉 사람은 후새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대상 27:33). 그는 다윗의 명대로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33절) 오히려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34절). 그 목적은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삼하 15:31)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34절). 그가 압살롬에게 베푼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자기 자신과 12,000명의 병력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과 달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여 압살롬이 직접 그 군대를 지

휘하여 친히 전장에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17:11). 또한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다윗만 죽이는 것)과 달리 압살롬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 기습 공격을 하여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만일 다윗이 어느 성으로 도망가면 그 성까지도 무너뜨려야 한다고 것이었습니다(13절). 이 후새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새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14절). 그런데 실제로 과연 후새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나은 것이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16:23)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새의 계략보다 훨씬 저 좋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후새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여 아히도벨에게 병력 12,000명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날 밤 다윗을 추적하였다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후새의 계략을 선택한 결과) 오히려 다윗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말대로 다윗만 죽임을 당하였으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이렇게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새의 계략을 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15:31)를 들으시사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17:14).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 전쟁에서 많은 전략(지략)으로 싸우되 하나님께 사단의 전략을 물리쳐 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한고 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집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전략(지략)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승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잠언 24장 10-20절]

여러분, 지난 주 유 권사님 옆에 앉아 있었던 꼬마 아이 기억나시나요? 그 꼬마가 유 선교사님 부부의 손주인데 아마 유 권사님께서 그 손주에게 집에 가셔서 나중에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경책을 읽어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아이에게 수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한 내용 중 무엇이 기억나는지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하더랍니다. 하하. 그 말씀은 우리가 묵상한 전도서 9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묵상한 잠언 24장 1-9절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잠깐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잠언 24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지 한 3가지로 이미 받은 교훈을 좀 복습하고자 합니다: (1)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1절), (2)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집을 견고하게 세웁니다(3절), (3) 지혜 있는 자는 전략으로 싸워 승리합니다(6절).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4장 10-2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 6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6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어려움이 우리 홀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벅차므로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분이 주

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듯 해보일 때 우리는 더 큰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눅 18:1). 이렇게 낙심하고 또 낙심할 때 우리의 힘도 많이 약해져서 우리는 심신이 지쳐 자포자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목동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기서 "그"는 바로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가리킵니다(23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24절)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32절). 여러분은 이 다윗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의 말을 듣고 골리앗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지도 않으면서 낙담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33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소년인 다윗과의 싸움은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은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게 본능입니다. 그 이유는 싸움에서 질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37절 상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다윗이게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낙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시 42:5, 11; 43: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소년 다윗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엡 3:12) 앞으로 전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 하려고 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들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4월 15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습니다. 이후 수십 명이 탈출하여 지금은 약 219명이 아직 붙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아직도 나이지리아 정부가 그 219여명의 여학생들을 구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인터넷 신문(7월 9일)을 보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나이지리아 당국이 밝혔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주지사, 의회 지도자 등으로 이뤄진 나이지리아 국가위원회의 고드윌 아크파비오 의장이란 사람이 기자들에게 " 치안 요원들이 소녀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녀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들 외에도 지금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악한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감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세상 여기저기서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이 성노예(sex slave)를 팔리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국제정의선교회(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Australia) 호주 지부에 의하면 필리핀 세부(Cebu) 지역에서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이 성노예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역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선교회는 성노예로 팔려간 아이들을 구출하는데 필리핀 정부와 경찰과 검찰에 도움을 주어 5년간 사역을 통해 성노예로 팔린 220명의 아이들이 구출되었고 아이들을 착취한 90명이 넘는 어른들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또 다른 예는 미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2012년 5월 21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법대와 노스웨스턴 법대가 법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뒤 복역 중에 뒤늦게 무죄로 확인된 사례가 최근 23년간 무려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렇게 이 세상

엔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4장 11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들을 구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속히 그들을 구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을 10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11절) 그들은 충분히 낙담(낙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10절). 만일 우리가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다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힘의 미약함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억울하게 죽게 된 미약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억울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속히 구출해 주길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여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그 상황에서 속히 건져 주길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보면 속히 그를 구출하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4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현대인의 성경)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피하지 말아야 할 참으로 중요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33장 7-9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물론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자기의 죄악으로 죽으면 우리의 생명은 보전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겔 33:11).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자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며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계나 변명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잠 24:12).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3-14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꿀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 아내가 인삼차를 타줄 때 설탕대신 꿀을 넣어서 저에게 줘서 마시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꿀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꿀은 혈당 농도를 조절해 주어 몸의 피로를 없애 주고 칼슘, 마그네슘이 있어 불면증 신경통 관절염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고 각종 염증(고름)에 좋다’고 기록되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나 12세기 유태인 마이 모니드의 ‘무병장수론’을 보면 꿀은 최고의 보약이며 변비에 좋고 목욕한 뒤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좋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꿀은 벌이 미리 소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되고, 또 여느 당분과는 달리 신장이나 위의 내벽을 자극하지 않아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며, 또한 칼로리가 우유의 여섯 배나 되고 칼슘, 아연, 구리 등 무기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어느 웹사이트를 보니까 벌꿀이 왜 좋은지 그 효능을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인터넷): (a) “제독작용: 해독과 함께 종창에도 이용한다. (b) 조변작용: 설사나 이질에 좋고, 만성이 된 상습 변비에도 이용된다. (c) 진통작용: 가슴앓이나 근육통, 치통, 유방염 등의 통증에 이용된다. (d) 치해 작용: 기침이나 기관지염 등에 이용된다. (e) 안신작용: 노이로제나 놀란 데에 응용되며 불면증, 야뇨증에 좋다. 어린이가 정서불안증을 보이고 눈꺼풀이나 입 가장

자리가 경련을 일어날 때 이용된다. (f) 생기·소염작용: 새살을 돋게 하며, 종기나 편도선염, 중이염, 인후염 등 화농성 질환에도 이용된다. (g) 자음 작용: 음위, 즉 발기부전을 치료한다. (h) 윤피 작용: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고, 습진이나 소아단독(열기에 의한 독성으로 피부가 벌겋게 되면서 화끈거리고 열이 나는 병증)에 이용된다. (i) 부인과에 대한 작용: 난산이나 대하증 등에 이용한다. (j) 보위작용: 비위장 소화기의 기능을 좋게 하고 위를 보호한다. (k) 장수에 대한 작용: 소련에서 110~120세의 고령자 200명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양봉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거나 늘 꿀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l) 살균작용: 박테리아, 디프스, 파라티프스 균을 살균하는 작용이 있다. 즉 꿀 속에서는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없으며, 디프스 균은 48시간, 파라티프스균은 25시간, 티프스 바이러스는 5시간,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균은 4일, 적리(급성 전염병인 이질의 한 가지)를 일으키는 아메바는 10시간 안에 모두 사멸된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24장 13-14절 상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 지금 잠언 기자는 꿀이 좋으니까 먹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송이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송이꿀이 더 달다"고 말하면서 지혜도 송이꿀같이 달콤하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이꿀"은 다양한 종류의 꿀 중 벌통에서 막 흘러내리는 것을 채취한 꿀이라고 합니다. 이 꿀은 가장 달콤하고 순수한, 티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꿀로 통한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지혜"를 "송이꿀"에 비교한 이유는 송이꿀이 가장 달콤하고 순수하고 티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처럼 지혜도 가장 달콤하고 순수하고 티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송이꿀과 같은 지혜는 순수하고 티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을까 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꿀은 반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꿀이 반석에서 나오듯이 지혜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혜는 가장 달콤하고 순수하고 티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는 잠언 기자의 말대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지혜(깨달음)를 얻어야 합니다. 그 만큼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꿀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30:5)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또한 주야로 묵상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송이꿀을 먹듯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24장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것(지혜)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를 얻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밝은 미래(장래)가 있고 소망(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3장 17-18절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시 73:24). 그래서 성경 잠언 14장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송이꿀과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5-16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한 자들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한 2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리 저리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지므로 낙심하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의 경우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여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등등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러워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교회 34주년 기념 말씀 집회 둘째 날에 강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25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증인”이란 제목 아래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 내용 중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만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요? 아니잖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지금 사단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데서 돌이켜 세상의 넓은 길을 걷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뜻을 생각게 하여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엿보아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여러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만 근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지되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일곱 번, 아니 무수히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넘어지므로 말미암아 실망도 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오뚝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뚝이를 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금방 일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탄과 악인들이 우리를 쳐서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뚝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오뚝이는 아래 부분이 가장 무거우므로 우연히 윗부분이 아래로 기울어지더라도 중력의 영향 때문에 가장 무거운 부분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결국 언제나 똑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위치해야만 안전하고, 외부의 영향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인터넷). 저는 우리 그리스도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중심을 잡고 서게 해주는 “무게중심”은 바로 반석이신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수 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되 수 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다시금 소성시키시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속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한)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원수가 망할 때 그 모습을 보던지 또는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내 대신 복수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24장 17절에 적용해 본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입니다(겔 33:11).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잠24:17,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 본문 잠언 2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 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던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의 원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의 넘어짐(망함)을 보고 기뻐하면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 지도(돌이키실 지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4:18). 무슨 뜻입니까? 원수의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자신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인터넷).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잠언 17장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지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잠언 기자의 말대로 우리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우리는 행악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행악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눈물 나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을 보면 매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악한데도 잘 먹고 잘 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서 동시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부럽지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형통함을 은근히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24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행악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잠언 24장 1절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17절에서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받았

습니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반복적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잠언 24장 19절에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24장 20절을 보십시오: "대저 행악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고 희망의 등불도 꺼질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평생 그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3장 18절을 보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녕히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잠언 24장 14절을 보면 송이꿀과 같은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정녕히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분명한 장래(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를 얻은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행악 자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 않고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행악 자들에게 분을 품지 말고 장래의 소망이 없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0-20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6가지를 배웠습니다: (1)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출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4) 우리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5) 우리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우리는 행악 자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낙심 될 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잠언 24장 10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어려움이 우리 홀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벅차므로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분이 주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듯 해보일 때 우리는 더 큰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눅 18:1). 이렇게 낙심하고 또 낙심할 때 우리의 힘도 많이 약해져서 우리는 심신이 지쳐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목동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기서 "그"는 바로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가리킵니다(23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24절)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32절). 여러분은 이 다윗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의 말을 듣고 골리앗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지도 않으면서 낙담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을 접하고 또 접하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지쳐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어려움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관계된 큰 어려움이면 우리는 더 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큰 낙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잠 24:10).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좀 철저히 깨달을 때에서야 우리는 소망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새찬송가 543장 1절과 후렴을 보면 가사가 이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려움은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져도 믿음만을 강해져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통하여 근심, 걱정,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 밖에 없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시 42:5, 11; 43: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낙심 될 때에 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원아,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때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저의 영혼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경험을 합니다(시 19:7). 마치 오뚝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요 6:1-15)으로 저의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사 다시금 저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금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소년 다윗은 용사인 골리앗을 보고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삼상 17:33).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소년인 다윗과의 싸움은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은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이유는 싸움에서 질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다윗

이게 있었기에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낙심도 하지 않았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소년 다윗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엡 3:12)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잠언 24장 15-16절).

이번 주 뉴스를 통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환자인 미국인 의료 선교사 켄트 브랜틀리(33살)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앰뷸런스에서 내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브랜틀리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지난 달 7월 31일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경을 헤매던 그가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작별 전화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습니다. 그가 2013년 라이베리아로 의료선교를 떠나기 석달 전 “힘든 날이 오면 저는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되새길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해 7월 미국 인디애나 주 사우스 이스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한 말이 음성 파일로 페이스 북에 최근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어린 아들과 딸, 아내(사진)와 함께 라이베리아로 의료선교를 떠난다’며 ‘2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20년 동안 폭력과 파괴에 시달린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사역하겠다고 결심한 이유에 대해 브랜틀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인용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라이베리아로 의료선교를 떠나 죽음의 바이러스라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던 브랜틀리 의사가 이렇게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하여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다시 일어나 그가 소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충실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엿보며 틈만 보이면 우리를 넘어트리고 우리의 집을 헐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잠 24:15).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마 16:23)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23절). 사도 베드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을 때(21절)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22절)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향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건만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로 우리의 취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감염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행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데서 돌이켜 세상의 넓은 길을 걷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뜻을 생각케 하여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취약점인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로 감염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에 우리와 우리 식구들이 감염이 되면 우리는 소명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육정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보다 우리 가족 식구들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엿보아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여러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만 근거해서 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지되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일곱 번, 아니 무수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넘어지므로 말미암아 실망도 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오뚝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뚝이를 치며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금방 일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탄과 악인들이 우리를 쳐서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오뚝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오뚝이는 아래 부분이 가장 무거우므로 우연히 윗부분이 아래로 기울어지더라도 중력의 영향 때문에 가장 무거운 부분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결국 언제나 똑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위치해야만 안전하고, 외부의 영향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중심을 잡고 서게 해주는 "무게중심"은 바로 반석이신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수 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되 수 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다시금 소성시키시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서현교회 이종미 자매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화상으로 비록 육신의 몸은 "미라처럼" 붕대로 온 몸이 감겨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워 승리한 종미 자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

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의 시민은?

[잠언 24장 21-26절]

얼마 전 미국 CNN 뉴스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이 아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문제 삼는 것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공화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2010년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고 합니다(인터넷).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반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행정명령으로 도입했으며 오는 9월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그래서 지난 달 7월 30일,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5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에 우리는 이 미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미국 시민이 아니라 한국 시민이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구절 중 하나는 아마 로마서 13장 1-2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만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정권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정권에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제도화 하여 모든 시민들로 따르라고 명할 때 우리는 그러한 명령에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로 동성의 결혼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동성의 결혼을 나라의 법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법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말씀)에 어긋나는 나라 법인데 그 나라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에 복종하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 안에서 나라 법을 우리는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2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행하는지 한 2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민은 자기의 대통령을 경외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 성경은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상적인 왕을 가리킵니다(잠 21:1)(박윤선).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대통령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상적인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상적인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묵상한 말씀들을 뒤돌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왕은 이렇습니다: (1) 먼저, 시편 101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한 “이상적인 왕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a) 이상적인 왕의 마음은 인자와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b) 겸손한 마음, (c) 이상적인 왕의 마음은 사특한 마음(간사한 마음,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2) 그 다음에 묵상한 말씀은 시편 72편 중심으로 “이상적 왕”입니다. 2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a) 이상적 왕은 주님의 판단력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b) 이상적 왕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력으로 판단하므로 주님의 백성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3) 그 다음에 묵상한 말씀은 잠언 16장 10-15절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한 3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a)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리고, (b)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며 (c) 그는 충신의 충고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4) 그 다음에 묵상한 말씀은 잠언 19장 12절과 20장 2절 중심으로 "이상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2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a) 이상적인 대통령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과 (b) 이상적인 대통령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왕입니다. 그런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실 때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6) 이 말씀들 외에도 한군데 더 보고 싶은 성경구절은 바로 신명기 17장 19-20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왕은 한 3가지입니다: (a) 하나님의 율법(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b)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c) 또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2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 경외해야 할 왕은 바로 공의를 세우는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23-26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잠언 기자는 공의를 세우는 왕은 어떻게 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의를 세우는 왕이 행하지 않는 것은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던지 또는 악인에게 "네가 옳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3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창기 두 여자를 재판할 때 한 여인 보다 다른 여인의 낯을 더 보아 주던지 또는 가짜 어머니에게 '너가 진짜 어머니이니 살아있는 아기를 네가 가지고 가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겠습니까?(왕상 3:28) 만일 솔로몬 왕이 그렇게 잘못 재판을 했더라면 오늘 본문 잠언 24장 24절 말씀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았을 것이요 또한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심리하며 올바르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는 산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가짜 어머니와 분별하여 그 진짜 어머니에게 산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왕상 3:26-27).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듣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습니다(28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28절). 성경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은 재판할 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잠 17:15).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5절). 성경 잠언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또한 성경 잠언 2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공의로운 왕은 재판할 때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을 두둔하지 않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왕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4장 25절을 보면 공의를 세우는 왕은 악인을 견책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악인을 과감하게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만일 왕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면 반드시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욥 13:10). 특히 하나님께서는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던지 빼면서 불공평하게 재판하는 왕을 책망하십니다(잠 30:6).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공의로우셔서 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계 3:19).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시 39:11) 또한 악인을 책망하십니다(유 1:9). 그러므로 공의로운 왕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처럼 악인을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하되 과감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그는 공의를 나타내므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공의를 세우는 왕은 "적당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잠 24:26). 즉, 그는 "정직한 대답"(현대인의 성경)을 합니다. 즉, 공의를 세우는 왕은 재판 석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리는 정당한 판결은 공의에 입맞춤과 같이 그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공의를 세우는 왕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또한 좋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잠언 24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을 공정히 벌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박윤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14,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

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존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잠언 24장 21절 말씀의 관점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경외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경외하고 존대해야 할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 대통령이 아닙니다. 바로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입니다. 성경은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행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민은 반역자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1절)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왕권을 빼앗는 반역자들과 합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반역자들이나 그 반역자들과 합치는 자들은 속히 재앙이 임하여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2절).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그 한 예로 시리아라는 나라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란 사람입니다.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의 주간지 "퍼레이드"에 의하면 바샤르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 순위에 12위에 선정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통치하는 시리아는 반 이스라엘 정책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노골적으로 지원해, 서방 국가들에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지금 시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정부군과 반정부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시민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인 바샤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를 독재자로 여기고 싫어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시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오늘 본문 잠언 24장 21절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들은 그 대통령을 경외하고 존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대통령도 아니요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도 아닐진대 과연 그들이 그 대통령을 경외하고 존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기들의 대통령이 독재자요 악한 통치라라고 해서 시리아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크리스천들이 반정부군에 합류해서 정부군과 싸워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도 되는 것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 주제에 관하여 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1) 옳지 않은 정부에 대한 신자의 신앙 양심 문제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21절에서 악한 통치자, 혹은 불의한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역을 금하였으나 그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무제한 순종을 명령함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요구(예컨대 신앙을 유린하는 명령 같은 것)라면 신자로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국가 관련에 있어서 신본주의로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국민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불의한 정치에 대한 기독신자의 태도입니다. 개인 자격으로써 군왕(비록 폭군이라도)을 폭력으로 제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위층 공무원들이나 혹은 부속 관원들로서 군왕의 방종을 막아 국민을 보호하며, 필요하면 그들이 그런 악정의 원천을 제거시킬 책임을 가졌습니다. (3) 정부의 과오를 막기 위한 기독교회의 할 일입니다. 기독교회는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만큼 국가를 위한 책임 이행을 할 때에는 간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국민과 공무원들의 양심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에 간접적 감화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양심이 기독교 정신대로 될수록 국가는 종교와 도덕에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법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적 감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H. Meeter): (a)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 생활 전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말씀의 교훈에는 물론 정치 생활의 원리도 포함합니다. (b) 기독자들은, 교육 기관에서 국민 생활에 관계되는 성경의 원리들을 해명하여야 됩니다. (c) 기독교는 신문이나 모든 선전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인의 환심을 얻으며, 또 그들을 감화시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경 구약을 읽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하는 족속”(겔 12:2)라고 말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신 9:7, 31:27, 사 30:9, 겔 2:3, 5, 7, 8; 3:9, 12:25; 26; 24:3, 12:9). 신명기 9장 2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또한 모세는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31:27).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항상 거역하였습니다. 항상 거역하되 그들은 심지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삼상 8:7).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5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19-20절). 그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7절).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호14:4).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역자들과도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잠언 24장 21-2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민들로서 우리들의 대통령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보고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27-34절]

여러분, 이 세상은 보고 배울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냥 무심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쯤은 다시 보고 관찰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배울 점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한 예로, 바로 개미입니다. 요즘 저는 개미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저희 집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 개미들을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 개미들이 들어왔는지를 발견하여 그 틈이나 구멍들을 막느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6장 6-11절에 나오는 개미에 대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때 우리는 개미보다 못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지혜를 게으른 자는 얻어야 합니까? 바로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게으른 자는 배워야 합니다(7절). 또한 그는 개미에게로 가서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8절).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합니다(10절). 그 결과 게으른 자에게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오되 마치 피해자가 강도를 만나 압도당하는 것처럼 가난이 온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미를 보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고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32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보고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란 제목 아래 우리가 보고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고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할 것은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27절을 보십시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보통 집을 짓는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경제적 준비일 것입니다. 만일 집을 짓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집 지을 때 들어가는 재정 예산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할 것은 집 지을 땅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해서 매입비를 명확히 하고 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가와 부지를 체크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한 후에 부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선 신중하게 건축가를 선택하여 집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 즉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인터넷). 비슷한 말씀이 성경 누가복음 14장 28-30절에도 나와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시작만 해 놓고 끝내지 못했군’하고 비웃을 것이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그 망대를 완성할 만 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공사)을 시작하면 망대를 짓다가 돈을 모자라서 기초만 쌓고 완성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완공을 하지 모하고 기초공사만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중국 시안에 처음 갔었을 때 비행장에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좀 놀랐고 동시에 의아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택시 타고 가면서 보고 또 본 것은 여기 저기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그 주위에 빌딩 꼭대기 위로 서 있는 크레인들을 여기저기서 보았습니다. 그저 그런 모습을 한두 개 보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완공된 대형 빌딩들을 많이 본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인터넷을 뒤져 보았더니 크게 한 2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동에 의한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은 정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원인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후속자금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즉, 개발회사의 출자계획에 차질이 생겼거나 은행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라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24장 27절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집을 세우기 위해선 먼저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잠언 기자는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경제적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여러분, 결혼할 남녀가 결혼 준비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면서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커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겠습니까? 아마 결혼식을 올려도 그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기혼 직장인 278명을 대상으로 부부 싸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25.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인터넷).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5년 해 상담소를 방문한 이혼상담자 3천 537명 가운데 별거중인 1천 304명(여성 1천102명, 남성 20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갈등이나 생활 무능력, 빚 등 경제문제(33%)가 별거 사유 1위였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잠언 24장 27절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 잘 세우기 위해서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6장 7-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베짱이"이를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동안 베짱이는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개미들을 조롱합니다: "어이, 개미들,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짱이는 매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며 살다가 겨울에 되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밥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이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개미처럼 되어야지 베짱이처럼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베짱이처럼 게으르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 이솝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저 개미처럼 근면성실해야 한다는 교훈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잠언 6장 8절에서 성경은 개미보다 못한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도 성경은 개미를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즉 자기들의 음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개미들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여름"에 겨울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여름이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개미들은 겨울철 먹을 것을 모아 들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미들은 추수 때에 자기들이 겨울철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미처럼 추수할 시기에 미래(장래)를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눅 12:47).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14:27).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박윤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망대를 건축하는 자의 비용 예산(28절)과 전쟁하려는 임금의 군사력 강화의 준비(31-32절)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준비를 하는 가운데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회계하실 텐데 그 때 잘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마25:21).

둘째로, 우리가 보고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거짓 증거로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28-29절을 보십시오: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본능은 상대방이 나에게 뺨을 한 대 때리면 나도 그 상대방의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대방을 한 때 때리면서 우리의 본능대로 상대방에 갚아준 것을 이렇게 합리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 21:23-25). 우리가 상대방에 나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합리화 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뺨을 한 대 때렸으면 나도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는 본능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능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발이란 사람에게 자기기 친히 복수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리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윗이 나발을 매우 선대하였지만(15절) 나발은

다윗을 선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모역하였기 때문입니다(14절). 다윗의 소년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을 헤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발의 양들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7절). 즉, 나발의 목자들이 나발의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의 소년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밤낮 그들에게 담이 되었으므로(16절) 그들이 다치거니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15절). 그런데 다윗이 자기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5절) 그들로 하여금 나발에게 은혜를 얻게 하려고 했는데(나발의 손에 있는 대로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에게 주기를 원했는데)(8절)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10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윗에게 아무 것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 모역하였습니다(14절).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고 명한 후 한 400명을 데리고(13절) 나발의 집으로 가서 자기가 친히 복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았습니다(26, 31, 33절). 그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31절상). 무슨 말입니까? 만일 다윗이 나발에게 친히 보복을 하였다면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발에게 복수한 일로 인하여 그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바가일을 통하여 막으셨기에 그럴 염려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 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33절). 결국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26절).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원수 갚은 것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친히 갚아 주실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 24장 29절을 보면 성경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복(복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선히 대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모욕을 줬다면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분노 가운데 나에게 말을 막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우리는 까닭(이

유) 없이 우리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친히 보복(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이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요 8:44).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의 황금률(The Golden Rule)대로 행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핵심 원리입니다(22:39). 그 원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나는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해 주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실을 원하듯이 우리가 먼저 그 상대방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거짓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거짓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진실 된 증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보고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30-34절을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게 속도가 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을 빨리 빨리 속도 있게 처리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쁜 생활 속에서 할일이 너무 많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과연 바쁜 것이 부지런한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꼭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게 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게으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일들을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미루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30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the sluggard)의 밭과 "지혜 없는 자"(the man who lacks judgment)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의어(synonym)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 없는 자"란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판단력이 부족한 자'란 의미입니다. 과연 게으른 자가 부족한 판단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33). 그런데 학개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보다 먼저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바빴습니다(학 1:4, 9).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하게 되도록 놓아두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만 바빴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란 무엇입니까? 학개 1장 6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6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9절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농작물에 흉년(한재)이 들게 하시사(11절) 그 수확을 빈핍하게 하셨습니다(6, 9절)(박윤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재정에 가뭄을 들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는 판단력이 부족하여 해야 할 일을 미룹니다. 예를 들어 성경 잠언 6장 10절과 오늘 본문 잠언 24장 33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더 자고 졸고 누워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깨야할 시간에 깨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다른 것(상황, 사람 등등)을 탓합니다. 즉, 게으른 자는 책임을 질 줄을 잘 모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6장 11절과 오늘 본문 잠언 24장 34절을 보십시오: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오되 마치 피해자가 강도를 만나 압도당하는 것처럼(24:33) 가난이 온다는 뜻입니다(MacArthur).

성경 잠언 6장 9절은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면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지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또한 성경 잠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들은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들은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11-13절을 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젊은 과부는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폄론을 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므로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26:16)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3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게으름의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개미처럼 추수할 시기에 미래(장래)를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깨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찬송가 330장 "어둔밤 쉬되리니"라는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1절)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2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오되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할 때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생각을 깊이하면서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27-34절에서 우리는 보고 훈계를 받아야 할 3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할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거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보고 또 보면서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주시는 훈계를 겸손히 받고 받은 훈계대로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언 25장 1-7절]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 개혁가였던 칼빈(Calvin)의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람 데오(Coram Deo)’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란 라틴어로 ‘Coram’ 즉 ‘앞에’라는 뜻과 ‘Deo’ 즉 ‘하나님’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in front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coram hominibus)' 잘 보이고 '세상 앞에서(coram mundo)' 명예롭고 잘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롬 12:2)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했던 말입니다. 아울러 이 말은 동시대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내세웠던 Sola Scriptura(오직 말씀으로만) Sola Fide(오직 믿음으로만) Sola Gratia(오직 은혜로만)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라는 다섯 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인터넷).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코람 데오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의'-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일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왕 앞에서”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왕 중의 왕이신“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받은 교훈을 적용하여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왕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절을 보십시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

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모든 사람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계시되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지식(시 92:5; 전 3:11)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신 하나님(욥 5:9; 시 145:3)은 어느 누구에게도 조언(counsel)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기에 일을 숨기신다는 말입니다(MacArthur). 예를 들어 욥기 5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고난을 겪게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나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3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새찬송가 620장 2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사 40:28)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시145: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숨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자신에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입니다(잠 25:2). 그러나 왕은 어떻습니까? 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25장 2절 하반절에서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고 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한 나라(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를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자 살펴야(찾아보아야)하기(search) 때문입니다(MacArthur). 그 한 예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을 보면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왜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대하 1:7)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wisdom and knowledge)을 주시길 구했습니다(10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11절)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사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였습니다(11절). 결국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셔서(왕상 3:10)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12절).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창기 두 여자의 재판을 잘 심리하여 판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의 속에 있어 바로 판결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28절).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잠 25:2). 이렇게 일을 살피는 왕의 마음은 오늘 본문 잠언 25장 3절을 보면 마치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왕에게 알려(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숨기시듯이 왕도 그의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은 헤아릴 수 없도록(unsearchable) 숨긴다는 말입니다(Walvoord).

그러면 이러한 왕 앞에서 무엇을 하라고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까? 한 2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두 교훈을 겸손히 받아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4-5절을 보십시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어떻게 제하는 줄 대충 아시죠? 은을 용광로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하여 불순물인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여러 번 높은 열로 제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대장장이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높은 열과 싸우고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원하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인터넷).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치 대장장이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높은 열로 은을 제련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자 "고난의 풀무 불"(사 48:10)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육신적이고 이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처럼 들어 있을 때에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제하고 이에 대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연단의 불인 시련과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인터

넷).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25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쓸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셔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5절 상반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5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왕의 신하들 중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위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다보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왕 밑에 신하들이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즉, 그 중에는 충성된 신하들도 있지만 악한 신하들이 있어서 간교하게 행하여 권력을 최대한 키워서 왕까지 컨트롤 하여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바로 치리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자는 간신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인터넷): “마음을 반대로 먹고 있는 음험한 자, 말에 사기성이 농후한데 달변인 자,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고집만 센 자, 뜻은 어리석으면서 지식만 많은 자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며 해택만 누리는 자.” 만일 이러한 여러 유형의 간신들이 득실거린다면 그 왕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고 교활한 간신배들에게 권력을 농락당하여 결국 부정부패가 성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5장 5절에서 솔로몬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합니다(8:13).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도 경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신하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신하들을 제거합니다. 특히 그는 자기 신하들 중에 간사한 악인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 간신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왕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은 단호하게 간신들을 척결합니다. 그리하므로 그는 자신의 왕위(보좌)를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견고히) 서있게 합니다(16:12). 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왕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서있게 하고자 충성된 신하들을 자기 옆에 둡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충고를 잘 받습니다. 잠언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여기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나 "의로운 입술"은 충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충신은 왕에게 정직하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이러한 충신들을 자기 옆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고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충신들의 입술은 "의로운 입술"이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정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13절).

저는 이 교훈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악을 제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악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입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것처럼(삼상 7:4) 우리도 재물이던 무엇이던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악은 바로 "굳은 마음"(heart of stone)입니다.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참고: 겔 11:19).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36:34). 우리의 강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부서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노력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저희 집 잔디에 물을 주고 잘라 주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처럼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말씀과의 씨름에 애써야 합니다. 애쓰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32:37).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며 황무한 땅과 같은 마음을 부지런히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all our sins)를 제거해야 합니다(호14:2).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십니다(대하 19:7).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딤후 2:19).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아야 합

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6절을 보십시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만일 있으셨다면, 그 상대방에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체를 할 때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 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끝도 없이 자화자찬을 듣노라면 피로가 몰려오고, 때로는 울컥 울컥 짜증도 납니다. ‘제발 그만해. 너 혼자 잘난 너만의 섬으로 돌아가 버리라’고 하고픈 마음이 목구멍 위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인터넷). 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심리는 겉보기에는 잘난 척을 하니까 자신감이 많아 보이는데, 어쩌면 실제로는 누구보다 겁이 많고 자신감도 없고 또한 자격지심이 커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타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또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잘난 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인터넷). 그리고 우리가 잘난 체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눌려서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면 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은 체 하는 것일까요? 성경 잠언 12장 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종을 거느린 자는 잘난 체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여기서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란 말씀은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겸허한 위치에 두며 결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는 생활 자세를 가리킵니다(삼상18:23, Delitzsch). 이러한 비천이 여김을 받는 자가 종을 부린다는 말은 자신을 섬기는 종을 부릴만한 지위와 여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Delitzsch). 이러한 자가 스스로 높은 체 하지만 음식이 핍절한 자, 곧 절대적 빈곤해 처한 자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높은체하고”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를 말합니다(Fleisher).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은 체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남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빈곤해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소유한 것처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내용은 별로 없는데 사람들 보이기에는 뭔가가 많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겉모양을 꾸미는 것은 비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잠언 30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만일 미련하게도 잘난 체하였거나 악한 일을 계획했다면 네 손으로 입을 막아

라"]. 성경은 스스로 높은 체 하는 자는 미련하다 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합니까? 시편 14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 스스로 높은 체 하는 자가 미련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시편 10장 4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결국, 스스로 높은 체 하는 자는 미련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6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새번역)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배울 때에 경험한 두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성도님 부부의 집에 심방을 좇아갔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소파에 앉으시니까 그 옆으로 수석 부목사님, 그리고 순서대로 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 때 저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정문에서 교역자들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 바로 옆에 서 있는 교육 전도사님에게 저쪽으로 가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마 사진을 찍을 때도 서열(?)로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25장 6절에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스스로 높은 체(잘난 체)하면서 높은 정치인들이 앉는 자리에 우리도 끼어 앉아 있다가 그 정치인들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 자리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오, 저리로 내려가서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가 그 정치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므로 밑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리로 올라와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8-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성가 중 “주님 앞에 섭니다”란 찬양이 있어 그 가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사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게 하시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주님의 천국 보좌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잠언 25장 8-10절]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문안합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과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못)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그 쓴 열매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쓴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다툼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그 이유 7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1) 미련함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6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20장 3절을 보십시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2) 욕심입니다.

성경 잠언 28장 2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3) 미움입니다.

성경 잠언 10장 12절을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4) 분노입니다.

성경 잠언 15장 18절을 보십시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성경 잠언 29장 22절을 보십시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30장 33절을 보십시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5) 거만/교만입니다.

성경 잠언 13장 10절을 보십시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2장 10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6) 패역입니다.

성경 잠언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잠언 16장 28절을 보십시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7) 싸우는 정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존 멕스웰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

였습니다(맥스웰): “다른 이들이 호감을 느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들을 편하게 해 줘야한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다음 일곱 가지 특징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따뜻한 가슴입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 나님의 따뜻한 가슴(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진정으로 나의 생명보다 낮다는 진리(시63:3)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서는 은은히 배어 나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

(2) 개인차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장점만을 의지하고 은근히 상대방의 단점을 깔보는 사람과는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그저 다를 뿐인데도 자기의 이기적인 기준에서 상대방을 틀렸다는 느낌을 뾰족하게 심어주려는 자와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른 점들 가운데 내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왠지 편안함을 느낍니다.

(3) 기분의 일관성입니다.

죤 멕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종 일관된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안정되어 있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볼 때마다 항상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예측하기 쉽다." 우리의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좋았다 나빴다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안정감이 없게 되면 참으로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대방 감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편한 사람은 상대방 기분이 자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 채고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에 맞추어 알맞게 반응을 조절합니다(멕스웰). 알맞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편한 사람은 나의 감정을 이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 주면서 자신의 감정 또한 진실 되게 또한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리할 때 상대방은 편안한 사람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5) 자기 결점을 스스럼없이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시종일관 항상 완벽한 척하는 사람만큼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다"(멕스웰).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왠지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려는 완전주의자에게서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서 정직할 수가 없기에 편안한 인간관계, 인간미를 느끼는 인간관계보다 뭔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인간관계임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6) 쉽게 용서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가가기 편한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 결점도 스 스럼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다. 겸손하기 때문에 빨리 용서를 구하고 또 쉽게 용서한다"(멕스웰). 편안한 인간관계는 서로가 완벽해서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한계와 허술함",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잊지 않으므로 서로를 용서하는데 기쁨을 누리는 인간관계가 참으로 편안한 인간관계라 생각합니다.

(7) 진실성입니다.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 솔직해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면 또한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걱정하고 있다면 결코 인간관계를 단순하고 순수하고 진실 되게 유지하기가 힘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네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주는 교훈 한 2가지 중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고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25장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서둘러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너무 성급하게 고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갈등이 있는 우리 이웃을 고소하므로 우리가 그 이웃에게 욕을 보게(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고소한 후 그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면 고소한 사람이 고소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이상적인 상황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서 아무 다툼(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관계에서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왜 바람직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마 19:19, 22:39).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 이웃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와 다투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만일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웃이 우리를 고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송 문제도 전혀 없으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 해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송사 문제는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는 그 때에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야만 하는가 하면서 항상 포기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997년 2월 2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벌률센타가 개최한 제1회 '화해와 성결을 위한 법률 세미나"에서 "크리스천의 법정 송사에 대한 성경적 이해"란 제목아래 세미나를 인도하신 목사님이자 변호사인 주명수란 분의 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 보아야 할 질문들" 13가지가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

(1) 이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나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고전 10:31)

(2) 만약 내가 앞으로 6개월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소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시 90:12)

(3) 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 나의 진실한 동기는 무엇인가, 보복은 아닌가?(고전 13, 마5:38-48)

(4) 내가 하는 소송이 다른 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가, 내가 하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신자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가?(롬 14:13, 딤전 4:12)

(5) 내가 하는 소송이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내가 하는 소송으로 인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가?(고전 6:1-8, 10:32-33)

(6) 내가 하는 소송이 상대방 앞에서나, 상대방의 변호사 앞에서나 나의 변호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가? (롬 15:1-3)

(7) 나는 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가?

(8) 나는 이 소송을 이기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9) 내가 하는 소송이 무죄한 제3자에게 해를 주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가?(막 9:42)

(10) 나는 이 소송을 하는 중에도 나의 가족과 가사와 나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11) 다른 해결책은 적절했는가? (a) 용서는 적절했나? (b) 화해와 타협은 적절했는가? (c) 상대방을 만나 그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d) 화해를 도와줄 변호사나 다른 중재를 찾아본 적이 있는가?

(12) 나의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 열성을 내는 만큼 화해나 용서를 하기 위해서 열성을 낸 적이 있는가? (마 6:12-15)

(13)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에 따라 판결된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할 것인가?'

한 3년 전(2011년 11월 달)에 "소성해도 되는 것입니까?"란 제목아래 고린도전서 6장 1-11절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분쟁들을 중재인(arbitration)을 둬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Hodge).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분쟁들을 은밀히(privately) 해결하던지 아니면 회당 법정 안에서(in a synagogue court)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들을 이교도 법정(pagan court)에 가지고 가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제들을 이교도 법정에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적 원리들로 그의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MacArthu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들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소송)를 하였던 것입니다(1절). 그래서 바울은 충격과 비통함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How can it be?)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송사할 엄두까지 냈느냐?(How dare you sue each other?)라고 말한 것입니다(1절).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불공평한 공판을 받을까봐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염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별로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MacArthur).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5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형제들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인 세상 법정에 소송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염려대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별로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존중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서로 소송을 걸며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의 분쟁뿐만 아니라 노회 안에서의 분쟁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서로 소송을 걸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세상 법정에 불신자 재판장과 변호사들과 맡기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더 이상 너무 성급하게 우리 이웃을 고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은 우리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가까운 우리 배우자와 충분히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부 싸움은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가 다투다가 감정적이 되어서 제 3자까지 개입시키므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제 3자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만일 부부가 다투면서 자기 자녀들을 개입시킨다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네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라는 말씀은 8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뜻은 두 사람이 다툴 때에 법정까지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고 두 사람이 조용히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생각할 때 “합의”(settlement)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정 밖에서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

과 서로 합의를 보므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정에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에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다툴 때에 누가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까? 잠언 11장 13절과 20장 19절을 보십시오: "수다쟁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 둔다"(현대인의 성경) (11:13);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현대인의 성경) (20:19). 누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수다장이" 또는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일 우리가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게 될 때 그 이웃이 수다쟁이라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을 다 보여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우리 이웃과 다둘 때에 남의 비밀(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 두 사람이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잠언 25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네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다툴 때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그 남의 비밀을 듣는 사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평판이 안 좋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다투다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왜 그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그 다툼의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한 말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떠나서 상대방의 은밀한 단점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인신공격이다. 언제든지 인신공격은 진리를 분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야비한 행동인 것이다. 상대방의 은밀한 일은 그의 사적인 문제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그는, 평생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상대방의 미워함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득이하여 다투게 될 때에는 침착한 마음으로 문제점에 대하여서만 증거 해야 된다"(박윤선).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다툴 때에 남의 비밀을 말(누설)하지 말고 그 다툼의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한 말만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다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문제를 상대방이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

고 그렇게 상대방을 인신공격 까기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desires that battle within us)이 있기 때문입니다(약 4:1).

여러분, 우리는 이 싸우는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 육체의 정욕 중 하나가 바로 싸우는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우는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이웃과 싸우거나 다툴 때에 문제를 두 사람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항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악 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다툴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25장 8-10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이웃을 너무 성급하게 고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교훈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므로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우에 적합한 말

[잠언 25장 11-15절]

언제가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혹시 미국에 "에티켓"에 관한 책들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이유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인 에티켓이 부족한 것 같아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책을 쓰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때 그 분이 그러한 책을 쓰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셨다는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 에티켓에 대해서 그리 중요시 여겨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그 때 그 분이 그런 책을 쓰시려고 하신다고 할 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보다 더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책이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자극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대표"인 이영숙 박사가 "이민 사회 자녀교육"이란 칼럼에서 "에티켓이 바로 성품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면서 그녀는 그 칼럼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서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생각이 좋은 버릇으로 길들여져서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티켓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첫째로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녀야 할 에티켓을 한 5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제가 2014년 2월 12일에 제 개인 블로그에 "나누는 몇 마디"에 이런 글을 올린 것

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도 자주 해야 할 듯 ….” 그런데 이 글을 다시금 읽을 때 제 머리에 딱 든 생각은 ‘아 ..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였습니다. 즉, 저는 제가 적은 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특히 잠언에 “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18:6), “의인의 마음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니라”(15:28),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10:19),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25:9). 그 말씀들 중에 저는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현대인의 성경) “대답 한 마디 잘해서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제때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때에 맞는 말”, 즉 “제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시므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므로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이 상대방을 위로했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 상대방을 면책하므로 마음(양심)에 찔림을 주므로 뉘우치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15장 23절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 “제때에 적절한 말”이 참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1절에서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경우에 합당한 말”(a word aptly spoken) 또는 “경우에 적합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현대인의 성경)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경우”란 말의 히브리어는 “바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은 “그 때 형편과 경우에 잘 조절하여 돌아감”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그 때 형편과 경우에 잘 조절하여 한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이 그만큼 큰 가치(great value)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과연 “경우에 적합한 말”(적절한 말, 합당한 말)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우의 합당한 말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2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금 귀고리나 순금 장식과 같다”]. 여러분은 칭찬 듣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책망 듣는 게 좋으십니까? 당연이 우리 모두의 본능은 칭찬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된 옛 본능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인지 결코 책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 시대에 한국식 자녀양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주마가편”(走馬加鞭) 입니다. 즉, 저는 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해야 하는지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식 자녀 양육이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국식 자녀 양육이란 특히 부모가 자녀를 칭찬(격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칭찬이 사랑이 없이 그냥 겉치레로나 아부적언 것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책망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책망 듣는 것이 그런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잠언 27장 6절을 보면 “책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짧은 글 2개를 써서 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만 마디의 칭찬보다 사랑으로 말하는 한 마디의 면책을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주님 안에서 진정한 우정은 친구의 아픈 책망도 겸허히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친구나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고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랑하는 친구로 부터 받는 상처는 신뢰할 만하다(can be truste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슬기로운 자(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1절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지금 성경은 경우에 적절한(합당한) 책망은 그 책망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 고리와 정금 장식”같이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경우에 적합한 책망을 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책망을 청종하는 사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경우에 적합한 책망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적합한 상황과 적절한 시기(타이밍)에 적합한 책망을 한다는 것이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충고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 여려가지를 고려하여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 4자기 조언을 했습니다: (1) 충고하는 자 자신이 사랑과 화평을 지니고 있을 때에 말해야 되며, (2) 능욕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아야 되며, (3) 성급하게 말하지 않아야 되며, (4) 예의 없이 말하지 않아

야 된다"(박윤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할 때 나 자신이 사랑과 화평을 지니고 있을 때 말하는지,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생각해 볼 때 어쩔 때는 너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말한 적도 있었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을 겸손히 잘 경청하는 사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아무리 맞는 책망의 말이라도 듣기 싫은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9장 7-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책망을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게 거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만함은 진리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며 거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만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리석음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를 너무나 속히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하는 책망이라 할지라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책망을 겸손히 잘 경청한 사람을 생각할 때 시편 기자 다윗이 생각납니다. 시편 141편 5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 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난관 속에서도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책망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본능은 난관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 받기를 원할진데 ... 다윗에게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난관과 고통, 역경을 눈이 주님께 향하여 고정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낮췄기에 그는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고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지혜자의 채찍질이 미련한 자의 칭찬(격려)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우매자의 노래"는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기 때문입니다(6절). 한 마디로, 우리가 우매자의 노래, 즉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해야 할 이유는 그 위로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거짓되고 헛된 위로보다 지혜의 채찍질과 같은 책망 듣기를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채찍의 말로 맞아 양심이 가책을 느낄 그 당시에는 괴롭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양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러 신학교 김세윤 교수님은 "고린도전서 강해"란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비판도 칭찬도 결국 '설익은 판단'(prejudice)에 의한 것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입

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 따라서 복음 선포 자들은 교인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또 교인들은 우리 모두의 심판관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적 심판을 삼가야 합니다"(김세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세윤 교수님이 말한 “인간의 비판도 칭찬도 결국 설익은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칭찬”이다는 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책망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책망보다 경우의 합당한(적합한) 지혜로운(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겸손히 듣데 ‘어쩌면 주님께서 그 지혜로운 형제(자매)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는가 보다’라고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말씀(엡 5:11)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딤후 3:16).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므로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걷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책망을 받아 회개하므로 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경우의 합당한 말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의 말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제가 저희 집에서 좀 신경 써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빈 물통에다가 마시는 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는 일입니다. 제가 그리하는 이유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통 한 4, 5개에서 정수기를 물을 받아다가 냉장고에 넣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제가 집에 가서 찬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면 찬 물병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 세 아이들이 다 마셔버리기 때문입니다. ㅎㅎ 자기들도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것, 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물 한통은 냉장고 서랍에 숨겨 놓곤 하였는데 이젠 그것마자 아이들 중에 누가 찾아내서 마시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좀 포기한 상태입니다. ㅎㅎ 문제는 아이들이 물을 마신 후 빈 물통에다가 정수기 물을 받아다가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둥이 예은이는 가끔 저처럼 빈 물통에 물을 받아다가 냉장고에 넣곤 하긴 하지만서두요. 저는 지금도 좀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물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냉장고에 넣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도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을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5장 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므로(8:13, 16:12)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도 경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신하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신하들을 제거합니다. 특히 그는 자기 신하들 중에 간사한 악인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 간신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은 단호하게 간신들을 척결합니다. 그리하므로 그는 자신의 왕위(보좌)를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견고히) 서있게 합니다(16:12). 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왕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서있게 하고자 충성된 신하들을 자기 옆에 둡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충고를 잘 받습니다. 잠언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여기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나 “의로운 입술”은 충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충신은 왕에게 정직하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이러한 충신들을 자기 옆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고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자기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란 히브리어는 “추수하는 날에 눈의 찬 것과 같으니라”라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추수하는 때가 가장 더운 때라고 합니다(박윤선). 그 때에 눈의 찬 것을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충성된 사자가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충성된 사자는 어떻게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바로 자기를 보낸 주인을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므로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며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박윤선). 여기서 사명을 완수한다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드린 사명을 다한 충성된 사자(일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두 명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2절). 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위하여

아내(3-4절)인 리브가(15절)를 택하여 그녀를 데리고(61절)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어 드리므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3장 4-10절에 나오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6절).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3절)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하려 바울의 그의 동역자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고자 바울은 참다못하여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5절). 디모데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충성되이 사명을 잘 완수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6절).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잘 생각하여 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말해주고(6절) 그들의 믿음을 말해주므로 그는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7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 이렇게 보냄을 받은 디모데는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던 충성된 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는 오늘 본문 잠언 25장 14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듯이 결코 "거짓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4절을 보십시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현대인의 성경)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은 당장 비가 쏟을 것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말로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해(떠벌려) 놓고 선물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을 낙심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자에게 적용해 볼 때 충성된 사자는 결코 그는 거짓 자랑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한 불성실하고 불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결코 그는 자신의 주인을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충성된 사자는 거짓 자랑하지 않고 진실되이 그 주인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한 후 실제로 그 맹세한 대로 실행에 옮겨 그의 주인의 명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사자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 그 주인에게 맹세(또는 서약)한 것을 실천으로 옮겨 그 주인이 자기에

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므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내신 이의 마음을 제일 시원케 하신 분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야 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시원케 하시고 또한 제일 기쁘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1:11).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께 충성되어야 합니다(딤후2:2). 그리고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 4:2).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완수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경우의 합당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드러운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끔 과격한 말도 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상상이 되십니까?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하는데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화가 난 사람에게 과격한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우리가 성미가 급하여 화를 쉽게 내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분노 가운데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되 과격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15:4).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우리의 입을 좀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에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 말하기를 더디 해야 합니다(약 1:19).

저는 요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을 잘 하지 못했다기 보다 무슨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치 혀를 잘 놀려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제 짧은 혀로 하는 말이 상대방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 짧은 혀로부터 나오는 말의 결과를 과소평가하면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우리 혀로부터 나오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큰 상처와 좌절과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인터넷 상에 글을 남기므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현대인의 성경)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댓가를 받는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5절을 보십시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오늘 본문 성경 잠언 25장 15절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부드러운 혀는 힘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Walvoord). 그러면 부드러운 혀가 무슨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부드러운 혀는 “관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말은 재판관과 같은 고위층의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뜻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옳은 판결을 청구하는 자는, 그 재판관의 태만한 것 때문에 분개하기 쉽지만 그가 끝까지 온유한 태도를 지키면 그 재판관도 감동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혀로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내력 있는 설득”으로 가능합니다(15절).

여러분, 우리는 인내력 있는 설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부드러운 혀로, 온유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바라기는 경우의 합당한 말인 설득력 있는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6-28절]

성경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 하는 때”에(1절) “사람들이”(2절) “절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러 육체의 소욕(욕망)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갈 5:17, 19).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육체의 일중에 특히 “음행”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19-21절)이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22-23절). 저는 여기서 특히 “절제”(self-control)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현대인의 성경)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자제해야 합니다**”란 제목 아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한 9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꿀을 구하면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 여러분, 과식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을 일정한 량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식하게 되면 비만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인터

넷). 인터넷 헬스조선에 “알면 유용한 … 과식 습관을 바꾸는 방법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식사 12분 전, 애피타이저부터 먹자.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인체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이 식욕중추에 신호를 보내 포만감을 느끼면 음식을 그만 먹게 된다. 렙틴이 분비돼 식욕중추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려면 최소 12분이 걸린다. 본격적인 식사 전에 가벼운 애피타이저로 렙틴 분비를 앞당기자. 미리 렙틴 분비를 유도하면 식사할 때 포만감을 빨리 느껴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

(2) 렙틴 저항성을 막자.

“과식을 습관화하면 인체가 렙틴 신호에 무감각해지는 렙틴 저항성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렙틴이 많이 분비되어도 인체가 포만감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해 많이 먹게 되고 비만이 된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렙틴 농도가 높다. 렙틴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도 있다.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이 대표적이다. 스트레스도 렙틴 저항성을 초래한다. 평소 음식 조절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쌓아 두지 않도록 하자.”

(3) 운동으로 ‘연비’를 높이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을 높이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진다. 미토콘드리아는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발전소다. 특히 걷기나 달리기, 등산, 수영 같은 유산소운동이 효과적이다.”

(4)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자.

“세로토닌은 뇌 신경전달물질인데, 부족하면 몸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우울해지고 식욕이 늘어 폭식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세

로토닌 분비가 늘어나면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며, 기분이 좋아지는 동시에 식욕이 억제된다. 따라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과식을 예방하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려면 햇볕을 자주 쬐고, 심호흡하며 산책하거나 밝은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일부러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음식을 삼키기 전에 30번 이상 씹는다. 단백질 섭취도 잊지 말자. 단백질은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같은 각종 호르몬의 주원료이다."

(5) 식사시간엔 식사에만 집중하자.

"밥 먹을 때 TV나 신문을 보는 등 다른 일을 하면 뇌가 식사 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허기를 빨리 느낀다. 반면 뇌가 인식할 수 있게 음식에 집중해서 식사하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6)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먹자.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든 음식을 가장 나중에 먹는다. 채소는 포만감이 금세 느껴지고 오래 지속돼 다음 순서에 먹는 음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채소 다음에 먹어야 할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같은 크기의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키고,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7) 접시는 작게, 재료는 크게.

"시각 효과를 이용하자. 작은 접시에 식재료를 크게 썰어 담으면 시각 대비로 음식이 실제보다 많아 보인다."

(8) 먹기 전에 양을 정하자.

"음식이 맛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더 먹게 된다. 과식을 막으려면 먹을 양을 미리 정해두자. 밥 2/3 공기가 목표라면 나머지 1/3은 미리 다른 그릇에 덜어 놓고 먹는다. 남들보다 적은 양을 먹으려면 식사 속도를 맞추기 위해 오래 씹게 되는데, 저작운동은 침 분비를 촉진해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

(9) 심리적 요인을 살피자.

"화나거나 우울할 때 과식이나 폭식하는 경우가 있다. … '현재 자신이 배가 고파서 먹는지, 특정 감정을 잊기 위해 먹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심리적인 이유로 과식한다면 음식을 대체할 활동을 찾아야 한다. 평소 화날 때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면 '다음에 화날 때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사우나에 가야지'하고 미리 자기와 약속하는 식이다. 운동이나 평소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좋은 대체 방법이다. 심리 문제를 과식으로 해결할 경우 악순환이 계속된다. 몸이 비만해져 외모에 자신이 없어지고 패배감이 들 수 있다. 심리 문제로 생기는 과식을 끊기 힘들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자."

오늘 본문 잠언 25장 16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솔로몬 왕은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식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잠언 24장 13절에서 "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잠언 기자는 꿀이 좋으니까 먹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송이꿀"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송이꿀이 더 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꿀이 몸에 왜 좋은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예로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꿀은 혈당 농도를 조절해 주어 몸의 피로를 없애 주고 칼슘, 마그네슘이 있어 불면증 신경통 관절염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고 각종 염증(고름)에 좋다'고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25장 16절에서 솔로몬 왕은 꿀이 몸에 좋으니까 족하리만큼 먹으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과식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꿀이 먹되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27절) 과식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먹는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웰빙에 대한 강박관념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 적당히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면서 꼭 섭취해야 할 것에 대한 균형 감각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태선 교수는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과하게 섭취하지만 않는다면 때로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콜라나 도넛 등을 정크 푸드라고 정의내리고 무조건 기피하거나 비만을 고려해 칼로리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몸에 나쁜 음식이라도 좋아한다면 적당히 먹

어라. 몸에 좋다는 말에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낫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이다"(인터넷).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즐겁게 먹되 절제하여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몸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식을 하지 말고 절제하여 적당히 먹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7절을 보십시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현대인의 성경)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롭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

여러분, "명예"란 무엇입니까? 엣센스 국어사전에 명예는 이렇게 풀이돼 있습니다(인터넷):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름 (예) 명예를 회복하다. (2) 도덕적 존엄에 대한 자각 또는 도덕적 존엄이 남에게 승인되고 존경·상찬되는 일. (3)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 또는 가치. (4) 지위나 직명을 나타내는 말위에 쓰여서,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그 공로를 찬양하기 위해 증여되는 칭호. (예) 명예 총재 / 명예시민. 김만풍 목사님이란 분은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인터넷): "명예란 '의로운 목적으로 선한 일을 바른 방법으로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성경 잠언 2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이나 금이나 많은 재물보다 명예(good name)와 은총(favor)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와 "은총"을 생각할 때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란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였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세 아이들인 딜런, 예리, 예은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인정하는 좋은 이름을 가진 딜런, 예리, 예은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평생을 잘 살았는지는 못 살았는지는 죽은 후에야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장례식 때에 내 이름 석 자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칭찬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속담에 모든 사람은 세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1)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2)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름(one others call us), 그리고 (3) 우리가 얻은 이름(one we acquires ourselves). 과연 우리가 얻고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내 이름 석 자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 10장7절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의인의 이름은 죽은 후에 기념할 때에 칭찬이 있다는 말씀 입니다. 그 이름은 축복된 이름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름다운 이름”(a good name)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a good ointment)보다 낫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의 부(wealth)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5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현대인의 성경)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명예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욕”(desire for honor)입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식욕, 수면욕, 성욕 등과 함께 주신 선물로서 만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른 방법이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명예욕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참고: 신 26:19-19).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명예탐욕(greed for honor)’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7절에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헛되니라)는 말은 바로 명예탐욕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가 명예탐욕에 빠질까요? 명예탐욕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평소에 부모나 형제자매, 선생님, 친구 등 자기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듣지 못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여 욕구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내온 이들이 흔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명예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자화상을 관찰해 보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배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자

신의 위치를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분노와 불평으로 그늘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예탐욕에서 벗어나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예탐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자화상을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그려야 합니다. 명예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그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선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으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인터넷).

셋째로, 우리는 이웃집에 가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이웃이 너에게 싫증을 느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몇 번 올 때에는 반갑고 기쁘다가도 여러분도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의 이웃이 계속해서 자주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너무나 자주 집에 찾아가는 것은 그 친구에게 민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7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선 자주 만나고 집에도 자주 놀로 가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결코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집과 왕래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정을 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는 바로 "자주"(too much of you)입니다. 즉, 이웃집에 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주" 가는 것은 이웃이게 민폐가 되는 것이기에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16절에서도 꿀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많이 먹는 것(과식하는 것) (too much of it)은 오히려 몸 건강에 안 좋은 수 있는 것처럼 이웃집에 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자주 가는 것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7절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당신의 발(걸음)을 귀중하게 만드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귀중하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집에 다니는 것을 지나치게 해서는(overdo it)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웃집에 가서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overstay) 아니 됩니다(Murphy).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네 이웃이 너(우리)에게 싫증을 느껴 너(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집에 다니는 것을 자주하기보다 오히려 드물게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귀중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드문의 원리'(principle of rarity)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The Bible Knowledge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 person should refrain from frequently visiting his neighbor, to avoid being a nuisance, but he should visit enough so that his visits are valued(사람은 그의 이웃에게 성가신 사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는 이웃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방문이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필요한 만큼은 방문해야 합니다)(Walvoord).

우리의 이웃집 방문이 잘 절제되어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집 방문이 가치가 있고 소중이 여길 수 있는 방문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는 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6-28절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입에 대하여 4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뽀족한 화살이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4장 28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우리는 까닭(이유) 없이 우리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친히 보복(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

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이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요 8:44).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의 황금률(The Golden Rule)대로 행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나는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해 주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실을 원하듯이 우리가 먼저 그 상대방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거짓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거짓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진실 된 증거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8절에서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의 핵심 내용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망이나 칼이나 화살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무기들이 아닙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 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는 아니 됩니다.

(2) <u>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지 말아야 합니다.</u>

오늘 본문 잠언 25장 20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성경 잠언 10장 32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입술은 경우에 적합한 말을 하므로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 25장 11-15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11절), 또는 경우에 적합한 말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경우"란 히브리어로 "바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은 “그 때 형편과 경우에 잘 조절하여 돌아감”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즉, 그 때 형편과 경우에 잘 조절하여 한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경우에 적합한 말인가요?’ 아마도 아무도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잠언 2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현대인의 성경)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할 때에도 때를 맞추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시기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잠언 기자 솔로몬왕은 오늘 본문 잠언 25장 20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영어 성경에는 “a heavy heart”(마음이 무거운 자)라고 번역돼 있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마음이 슬픈 자”(a sad heart)입니다(Gesenius).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마음이 슬픈 자에게 노래하는 것을 두 가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a) 마음이 슬픈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 유난히 춥고 또한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추운 날에 어느 누가 옷을 벗고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옷을 더 두텁게 입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슬픈 자에게 노래하는 것이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마디로, 그 뜻은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11절). 여러분의 마음이 슬픈데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기쁘게 노래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b) 마음이 슬픈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마치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다”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natron”의 의미는 고대에 '천연탄산 소다'(an alkali mineral)로 알려진 물질을 말합니다. 이 물질은 당시 동방에서 세척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Swanson).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 소다 물질 위에 식초를 부으면 즉시 부글부글 끓어 오르며 발효 효과가 나타난다

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슬픈 자에게 아무 동정(sympathy)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픈 마음을 더욱더 뒤흔드는 것(agitation)이라는 말입니다(MacArthur).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슬픈 자에게 노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슬픈 자(의 연약함을)를 동정하여(히 4:15)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롬 15:17).

(3) 우리는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3절을 보십시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여기서 "참소하는 혀"란 현대인의 성경에는 "험담하는 혀"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원래 문자적으로 "은밀한 혀"(a tongue of secrecy)란 말입니다. 즉, 참소하는 혀는 "중상 모략하는 혀"(a slanderous tongue)란 말입니다(Walvoord).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상대방 몰래 그 사람의 흉을 보고, 그 사람의 흠을 들추어 헐뜯다가 그 상대방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터무니없는 말로 상대방을 헐뜯거나 그 사람을 해치려고 속임수까지 써서 일을 꾸며 결국에는 그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기까지 한다면 그 상대방에 우리에게 분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중 가이오란 인물에게 쓴 요한삼서 1장 9-10절을 보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9절) 악한 말로 그를 "비방"(gossiping maliciously)하였습니다(10절). 그는 사도들을 망령되이 폄론하였던 인물로서 지금 말로 한다면 그는 목회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크게 잘못된 영혼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디오디레베와 같이 영혼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상호간에 절대로 중상모략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중상모략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분란에 휩싸여 교회에 분열을 일어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의 형제들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일은 망령된 일입니다(10절).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0장 18절을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한글을 보면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 19장 16절은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 고 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또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나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특히 그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잠 11:13). 그러므로 그는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4)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5절을 보십시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현대인의 성경) “멀리서 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지혜로운 자는 남에 대해 험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슬픈 자에게 노래하지 않으며 또한 결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입술로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5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현대인의 성경)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이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갈해 준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이 죄악 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뉴스 등을 통하여 날마다 듣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나쁜 소식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벧후 2:8). 그러므로 우리의 상한 심령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신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므로 심신이 지쳐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너무나 잘 해주는 사람

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뢰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잠언 2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자를 신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9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현대인의 성경) "위기에 처한 때에 신실치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흔들리는 이로 음식을 씹거나 위골된 발로 걷는 것과 같다"]. 여기서 그는 "진실하지 못한 자"(신실하지 못한자, the unfaithful)를 의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러진 이"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위골된 발"을 의지하여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환난 날에, 즉 우리가 위기에 처한 때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9절).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시편 125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시온 산처럼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란 "부동과 안식의 표상"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산처럼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과 죽을 일이 쌓인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산처럼 요동치 아니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2절). 예루살렘은, 지리상으로 많은 산악들로 포위되어 있다고 합니다(박윤선). 이렇게 많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뢰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시 50:15).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 날에 진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사(20:1)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고후 1:4).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시50:15)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15절).

여섯째로, 미워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을 뵈러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녀들보다 손주들로 인하여 더 기뻐하신다고 말하시는 어느 어르신의 인터뷰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예수님의 이 중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므로 가정 천국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가정 안에서는 사랑보다 미움이 싹트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의 불화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사랑보다 미움이 더 싹트고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옛 본능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신 19:21). 우리는 죄악 된 본능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되 우리의 죄악 된 본능은 원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잠 24:29). 또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성경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우리가 친히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1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44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본능은 우리 “이웃은 사랑’하고 우리 ‘원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지만(마 5:46)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웃”이란 ‘우리의 원수’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훈이란 우리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절). 나타난바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잠언 25장 21절에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5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John MacArthur 목사님에 의하면 옛날 이집트 문화에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친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하면 숯불이 담긴 화로를 그의 머리에 놓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숯불”은 그 사람의 수치심과 죄책감의 타오르는 고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MacArthur). 그러면 지금 잠언 기자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 증오, 적개심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MacArthur). (2)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면 그들의 차갑고 강퍅한 마음이 불에 녹듯이 변하여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0절에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므로 우리 원수들의 마음도 녹여서 주님 안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요일 5:12-13) 천국 백성 답에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일곱째로, 다투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계명처럼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며 심지어 미운 사람들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투는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싸우는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 육체의 정욕 중 하나가 바로 싸우는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우

는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4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다투는 여인” 또는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는 그녀의 남편과 다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상상이 되십니까?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하는데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화가 난 사람에게 과격한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성경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우리가 성미가 급하여 화를 쉽게 내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분노 가운데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되 과격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15:4).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우리의 입을 좀 다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에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 말하기를 더디 해야 합니다(약 1:19).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5장 23절에서 아내가 그녀의 남편과 다투는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북풍이 비를 일이키는 것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아내가 그녀의 남편과 다투는 이유는 “참소하는 혀”(험담하는 혀)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소하는 혀”란 “은밀한 혀”란 뜻인데, 남을 해롭게 하며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아첨하는 자의 말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남편은 분을 일으키기에 부부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참소하는 혀를 가진 여인, 남편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여인, 자신의 유익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여인과 다투면서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1장 9절과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

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성경 잠언 21장 9절을 보면 성경은 "다투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9절에 가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투는 원인이 분노는 참지 못하고 성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절).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분노하면 과격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1절). 그래서 "다투는 여인"이나 "다투며 성내는 여인"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잠언 19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27:15).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다투는 습성이 있는 아내는 평안한 날이 별로 없을 만큼 자주 남편과 다투고, 또 다툼이 시작되면 그녀는 연거퍼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말을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렇게 연거퍼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다투며 성내는 아내가 계속에서 분노 가운데서 말을 쏟아낸다면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이나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큰 집에서 편안하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움막이라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목한 부부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여덟째로, 우리는 굴복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6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여기서 '굴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실패하다'(fail), '넘어지다'(fall) 혹은 '비틀거리다'(stagger)이란 뜻입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되 그 이유는 불충분한(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be in an inadequate state)(Swanson).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특히 믿음이, 이런 저런 신앙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4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가 이겼다는 것과 자기가 흔들릴 때에 그의 원수가 기뻐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려 마지못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의하며 또한 그들의 것을 받아들일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시 55:22).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22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해야 하지 말 것과 굴복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에 굴복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굴복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2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악인 앞에 굴복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악인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리게 하고 샘을 더럽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26절, 현대인의 성경). 상상이 좀 되십니까? 깨끗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마시는데 그 물에 더러운 물질이 들어가 그 우물이 더럽혀 졌다면 어느 누가 그 우물에서 다시금 물을 길러다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이란 바로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결코 후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에게 굴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현대인의 성경)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다”]. 여러분, 무너진 성읍과 성벽이 없는 성읍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적군이 공격해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무너진 성읍과 성벽이 없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태에서 적군의 공격에 무방비(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을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력이 없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문제(trouble)와 유혹(temptation)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절제할 수 없는 자, 즉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문제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14장 17, 29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 분노를 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과 이웃집에 가는 것과 입과 신뢰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다투는 것과 우리 마음을 자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절제를 맺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미련한 자

[잠언 26장 1-12절]

95세 이상이 된 노인 50명을 상대로 “당신들에게 이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란 질문의 3가지 답 중에 첫 번째 답이 바로 ‘날마다 반성(I would reflect more)하는 삶을 살겠다’였습니다(인터넷).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오늘 영적 거울인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반영해(비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반영이란 과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한 5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1) 지혜로운 자에게는 듣는 귀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15장 31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10:8), 권고를 또한 듣습니다(12:15).

(2) 지혜로운 자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지식을 전합니다(15:7).

(3)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성경 잠언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을 향 합니다(15:24).

(4)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23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14:3, 현대인의 성경).

(5)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합니다.

성경 잠언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영적 우매한 자로서 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성경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를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4장 9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3) 성경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장 22-25절을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4) 성경은 영혼(내세)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자를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6-21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잠언26장 1-12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인지 한 9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야구 역사상 제일 안타를 많이 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트 로즈(74살)라는 사람으로서 그는 1963년부터 1986년까지 23년 동안 빅 리그에서 3천 562경기에 출장해 역대 최다인 4천 256 안타를 쳤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면 4천 안타 고지를 밟은 것조차 타이 콥(4천 191안타)이 유일한 정도로 독보적인 타격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이라면 그는 충분히 미국프로야구(MLB)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설 수 있는 기록이지만 그는 도박으로 벌써 30년 가까이 야구계에서 축출 당했습니다(인터넷). 여기서 미국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이란 “야구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

인데 거기에 이름을 올리려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최소 10년 이상 뛴 선수 중에서 은퇴 후 5년이 지난 선수를 대상으로 미국야구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투표로 헌액자를 선정하는데 75% 이상 득표하게 되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확정된다고 합니다(인터넷). 그가 신시내티 레즈 감독으로 재직하던 1989년에 신시내티의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메이저리그에서 관련 조사를 하는 중에 협의를 극구 부인하던 로즈는 메이저리그에서 영구추방 당하되 관련 조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합의하고 야구계를 떠났습니다. 그런 후 15년 뒤인 2004년에 자서전을 출간해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미국프로야구 커미셔너가 바뀌면서 신임 커미셔너인 롭 만프레드라는 사람이 로즈의 명예의 전당 입회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생각엔 이 사람이 미국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5장 27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현대인의 성경)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롭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 여기서 우리는 명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예욕”(desire for honor)과 ‘명예탐욕(greed for honor)’입니다. 그리고 성경 잠언 25장 27절에서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헛되니라)고 말씀하였을 때 잠언 기자가 말하였던 “명예”는 바로 명예탐욕이었습니다. 명예탐욕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한 예로,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 생각납니다. 그는 “심히 부여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나 있었습니다(2절). 그런데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그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기에(21절) 다윗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고(22절) 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7절). 그 때 그의 지혜로운 부인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24-25절). 이런 미련한 자에게 과연 “영예”(honor)각 적당(적합)(fitting)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26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추수 때에는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추수 때에 비가 온다면 농작물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적당(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Walvoord). 또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돌을 물매에 매는 것처럼(8절) 적합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물매에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던져질 수가 없습니다(박윤선). 이와 같이 나발 같이 미련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에게 영예를 준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일 나발과 같은 다른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영예를 준다면 마치 추수 때에 비가 와서 농작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에서 피트 로즈라는 야구 선수가 미국프로야구 명예전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프로야구 역사상 제일 안타를 많이 친 전설적인 야구선수라 할지라도 그가 감독하면서 자기 팀 야구 게임을 도박한 사람을 만일 명예전당에 올려놓으면 그 명예전당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명예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후배 야구 선수들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오직 말씀' 역사 배경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 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의 명예욕을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명예탐욕을 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명예탐욕을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예탐욕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명예는 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명예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명예 욕구는 하나님께서 식욕, 수면욕, 성욕 등과 함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른 방법이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명예욕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참고: 신 26:19-19). 우리는 이러한 정당하고 바람직한 명예욕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honor)해야 합니다.

지난 주 인터넷 페이스 북에 올려 진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전에 비슷한 기사를 어느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던 것 같았지만 잘 생각이 안 나서 다시금 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다 읽은 후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참 귀한 분들이다.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나

도 그 분들을 본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누군가 하면 한국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보살펴 온 외국인 수녀 마리안(71) 그리고 마가레트(70)입니다. 마리안 수녀는 1959년에, 마가레트 수녀는 1962년에 소록도에 첫 발을 디딘 후 약 43년간 장갑을 끼지 않은 채 환자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 장애교정 수술을 해 주고, 한센인 자녀를 위한 영아원을 운영하는 등 보육과 자활정착사업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3년간 헌신해서 70인 된 이 두 분은 이른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란 제목의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소록도 섬을 떠나 고국이 오스트리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편지에서 그들은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 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빈다"고 했답니다. 그 두 수녀의 귀향길엔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해진 가방 한 개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질 까봐, 요란한 송별식이 될까봐 조용히 떠난다고 합니다. 두 분은 배를 타고 소록도를 떠나던 날, 멀어 지는 섬과 사람들을 멀리서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방문 앞에는 그분의 마음에 평생 담아두었던 말이 한국말로 써 있다고 합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인터넷). 이런 분들에게 영예가 적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honor)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미련한 자의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유 없이 그냥 누군가가 미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까닭 없이 그 사람이 괜히 밉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혹시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는 까닭 없이 미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편 69편 4절을 보십시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죄 없는 나를 죽이려는 내 원수들의 세력이 막강하므로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을 물어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 시편 38편 19절도 보십시오: "내 원수들의 세력이 막강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유 없이 그의 원수들에게 미움을 당하였습니다(애 3:52).

오늘 본문 잠언 26장 2절을 보면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 또는 "이유 없는 저주"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절을 보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물론 2절에는 “미련한 자”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1절과 3절에 “미련한 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2절에서 “까닭 없이 저주”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누군가를 까닭 없이 저주할 때 그 저주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평한 저주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저주는 공의롭지 않은 저주(an unjust curse)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미련한 사람의 공의롭지 않는 저주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참새가 “떠도는 것”은 ‘목적이 없기’(aimless)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 없이 하늘에서 떠도는 참새는 어디에 착륙(landing)해야 할지 몰라 그냥 허공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바로 까닭 없는 저주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즉, 목적이 없다는 것은 저주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는 …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롭지 않은 저주는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골리앗이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 하였으나(삼상 17:43-44), 다윗은 도리어 승리했습니다(48-50절).

만일 미련한 자가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편 119편 78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한 일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묵상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주의 교훈을 묵상할 것입니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묵상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까? 현대인의 성경 시편 119편 86절과 161절을 보십시오: “주의 계명은 모두 신뢰할 만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 권력 있는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님의 계명을 신뢰하였고 또한 권력 있는 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누군가 우리를 까닭 없이 힘들게 하고, 까닭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한대로 실제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 없는 저주”를 묵상할 때 저주의 나무(신 21:23)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신성모독 죄(마 26:65)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영원히 저주 받아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나무에 죽으실 아무 이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돌이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신 23;5, 느 13:2, 엡 1:3ff). 이 영생의 축복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까닭 없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며 심지어 저주를 받을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며 심지어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그 저주를 소리도 다 들어야 합니다(삼하 16:5ff.).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반역이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였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그 저주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16:5ff). 그리고 그는 그 저주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사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자기에게 갚아 주실 줄 믿었습니다(12절). 이러한 믿음으로 까닭 있는 저주인 던 까닭 없는 저주이든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입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체벌 반대 공익광고에 엄마가 아이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마 아이가 식탁에서 음료를 쏟아서 맞았는지 아니면 아이가 시끄럽게 굴어서 엄마에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 그 뉴스의 초점은 유럽에서 요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지를 놓고 국가별로 논쟁이 뜨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최고 인권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프랑스가 이미 어린이 보호를 약속한 유럽사회헌장에 서명하고도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지 않고 있자 프랑스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 독일 등 27개 나라는 체벌을 금지했는데, 프랑스와 영국 등은 체

벌을 용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체벌 논란에 프란체스코 교황도 가세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를 때리지만, 얼굴은 절대 때리지 않는다는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며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적절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는 아동학대가 10건의 8건 이상이 가정 안에서 발생할 정도로 부모의 자녀 체벌이 심각하기에 최근에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인터넷). 얼마나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이 심각하기에 아동학대가 10건의 8건 이상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지 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정도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결코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란 말의 정의가 무엇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얼마 전 미국 CNN 뉴스에 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자기 자녀를 체벌한 것 같은데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뉴스를 보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문제로 뉴스에서 삼고 다루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진짜 아동학대하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조차도 이젠 법적으로 제지를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훈계함에 있어서 Tedd Tripp이란 목사님이 그의 책 "Shepherding a Child's Heart"에서 한 2가지로 말한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1) Rich, full communication(대화를 충분히 하는 것)이고 (2) The rod(회초리) 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은 회초리보다 대화를 우선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화를 우선시 하다가다 자녀들이 정 말을 안 듣고 죄를 범한 후에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에 부모로서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현대인의 성경)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또한 잠언 13장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성경구절들

은 사랑하는 자녀를 성실히 징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0장 13절 하반 절에서는 "…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강퍅한 자("미련한 자"의 신분)를 벌과 재앙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러면 왜 성경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련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또 다른 이유는, 미련한 자의 미련한 짓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막대기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현대인의 성경)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미련한 자의 영혼을 죽음(스올, 음부)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는 막대기로 징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23장 13-14절을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자식을 훈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 이 성경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든 회초리이든 징계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성경 시편 89편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현대인의 성경)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벌하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심에 있어서 앗수르란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남쪽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로 사용하시사 유다 나를 징계하셨다는 예레미야 50-52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앗수르나 바벨론이 미련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기에(사 10:12-16, 14:24-25; 렘 50:29)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와 회초리를 꺾으시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련하여 미련한 죄를 범한 후에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 사랑의 막대기(매)를 드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는 우리의 미련함을 멀리 쫓아내시며(잠 22:15),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14:3) 또한 우리에게 지혜(29:15)를 주십니다. 성경 잠언 29장 15절을 보십시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선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히 12:5).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6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기에(7절)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10절)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징계 받을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11절).

넷째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강퍅한 자와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대화해 보신 적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강퍅한 자하고 대화를 하면 여러분은 말이 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이 교만하고 강퍅한 자에게 바른 교훈을 하고 심지어 사랑으로 책망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마음이 교만하고 강퍅한 자하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고 강퍅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잠 12:15). 즉, 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26:12) 그는 "계명을 받"지 않습니다(10:8). 오히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1:7). 실제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미련하여 제 마음이 교만하고 강퍅해져 있을 때에는 누구의 말도 잘 안 듣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러한 때에는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말도 잘 안 듣는 제 자신을 모습을 봅니다. 그와 같이, 저 또한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고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는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옳은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가도 말해 보았자 그 사람이 듣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4-5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두 성경 구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4절에 말했다고 5절에 가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2가지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침묵입니다.

미련한 자가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4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만일 상대방이 진리가 아닌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상대방은 그 왜곡된 말을 진리로 믿고 확신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그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만일 우리가 '예, 당신 말이 맞아요'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미련함을 따라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미련함에 동참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만일 우리가 그 미려한 자의 왜곡된 말에 '아니오. 당신 말이 틀립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4절). 그 때는 오히려 우리가 침묵하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2) 미련한 자가 무식의 원인으로 무지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대답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5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만일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미련한 자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5절).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무지한 것이요 그의 영혼이 매우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는 그 어두워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8장 19-24절을 보면 예수님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진 대제사장에게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23절). 그 때에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22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진 대제사장에게 바른 말을 하시므로 "곁에 섰던 한 경비병"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미련한 자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되 우리는 그 미련한 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듣던지 아니 듣던지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미련한 자 앞에서 침묵함과 바른 말로 가르쳐야 함을 생각할 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마 26:59-60):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6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62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63절). 이때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27:12). 그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13절). 그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1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어리석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침묵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미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현대인의 성경). 그러시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6:63)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64절).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실 것과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다 고 말했습니다(65절). 그 때 온 공회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66절, 현대인의 성경).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27:22, 23). 그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고(26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35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을 할 때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미련한 자 앞에서 침묵하므로 그의 미련함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섯째로,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폭탄 등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한 병사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TV 장면은 그런 병사들을 돕고자 어느 한 사람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어느 높은 산(이름을 잊어버렸음)을 정복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저는 두 다리이던 한 다리이던 절단하고 의족을 끼고 그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한 한 6-7명의 군인들을 TV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고 또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놀랜 이유는 두 다리도 멀쩡한 나 같은 사람도 저렇게 추운 날씨에 저렇게 높은 산을 정복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의족을 끼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군인들의 인터뷰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자 이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렇게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낀 상태에서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여러 군인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등으로 강화시켜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군인들은 미국 군대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되어 싸우다가 원치 않게 자신들의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다쳐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다리를 원치 않는다고 스스로 절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 군인으로서 충성되이 싸우다가 그렇게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다쳐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6절을 보면 성경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같다[(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과연 정신이 멀쩡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스스로 자기의 발을 절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마치 자기 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6:6). 무슨 뜻일까요? 왜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발을 스스로 베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걸어서 우편을 배달하는 우체부 아저씨가 다리 하나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다리 하나로(의족이 없이) 우편을 제대로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오늘 본문 잠언 26장 6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독을 마신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스스로 해를 당하게 하며 스스로 자멸하는 소식을 전한 미련한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다윗에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한 아말렉 사람(8절)이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4절)라고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 다윗은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청년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5절)고 물었습니다. 그 때 그 청년은 길보아 산에서(6절) 사울이 자기에게 "나를 죽이라"(9절)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사울 왕이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가져왔다고 대답했습니다(10절). 그 대답을 들은 다윗은 옷을 잡아 찢으며 사울과 요나단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11-12절). 그런 후 그는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14절)라고 말한 후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은 죽습니다(15절). 여러분은 이 죽임을 당한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죽인 후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이 외국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미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아말렉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인 후 그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줄 모르

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어쩌면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다음 왕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다윗에게 상급을 기대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아말렉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며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소식을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스스로 해를 당하게 하며 스스로 자멸하는 소식을 전한 미련한 자들이 사무엘하 4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입니다(5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는 "밀을 가지러 온 체하고" 이스보셋의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5-7절).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도망쳐 나와서(6절, 현대인의 성경) 헤브론에 도착하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면서 "왕의 생명을 해라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되신 왕의 원수를 사을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8절). 그 때 다윗 왕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9-11절)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 가에 매달았습니다(12절). 이것이 바로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한 미련한 사람인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해가 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좋은 소식인 줄 착각하고 다윗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미련한 사람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self-damaging)가 될까요?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스스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소금이 맛을 잃은 듯 세상

의 복음의 능력과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이 세상에 나아가 전한다는 것은 스스로 교회에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개혁한글 성경 시편 19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우둔해졌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trustworthy) 말씀, 완전한(perfect) 말씀을 사랑하므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므로 지혜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둔해졌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길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현대인의 성경)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여섯째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힘이 없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입니다. 그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1, 7절). 어떻게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모든 밭을 다 그에게 도로 주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7, 11, 13절). 즉, 다윗이 두 발 다 저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자기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11, 13절). 저는 여태껏 이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두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자기상에서 먹게 한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은총을 베푼 것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하 5장 8절 하반 절을 말씀을 겸하여 묵상할 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긷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미워하였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므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자 중 하나처럼"(9:11) "항상 왕의 상

에서 먹"게 하였습니다(13절). 이것은 다윗이 두 다리 저는 므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두 다리 저는 므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을까요?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삼상 18:3, 20:16-17) 또한 다윗은 자신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준 요나단의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삼하 1:26)기에 그와의 맺은 언약의 책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감당하고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두 다리 저는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으신 언약(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이미 베풀어주셨고(7:8-9) 또한 장차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큰(21절) 은총(15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7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절름발이에게 덜렁덜렁 달려 있는 다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미 묵상한 6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마치 자기 발을 베어 버림과 같다'고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두 발을 베어버린다는 그 자체가 바른 정신이면 그러지 않을 것이요 또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제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끔찍한 일이요 제대로 소식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잠언 기자는 7절에 와서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름발이에게 덜렁덜렁 달려 있는 다리가 쓸모가 있습니까? 그 힘없는 두 다리를 걷고 뛰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절름발이에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다리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잠언["가르쳐서 훈계하는 말"(네이버 사전)]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의 잠언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자의 잠언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가 입을 열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잠언)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지혜롭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미련한 줄 모르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훈계를 한다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도

그 훈계를 언제, 어디서 혹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 훈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에 그 잠언이 힘이 있겠습니까?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잠언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못하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지혜로운 자가 잠언을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한 후 우리에게 그 잠언을 말해 줄 때 그 잠언이야 말로 우리에게 유익되고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 잠언 26장 9절에서도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에 대해서 또 다시 말합니다. 그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달리 질문한다면, 만일 술 취한 사람의 손에 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시에 자기 자신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미련한 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나오는 잠언을 듣는 사람에게도 아픔(고통)을 주며 또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자는 잠언을 잘못 적용하며 또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MacDonald).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적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며 왜곡하므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 왜곡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므로 그들에게도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영적 민감함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련한 자의 잠언과 지혜로운 자의 잠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리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9:9).

일곱째로,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지만 한국 양궁이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잘합니다. 특히 여자 양궁은 1984년 올림픽부터 2004년 올림픽까지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한바다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한국 양궁 선수가 잘하냐면 몇몇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선수가 쏜 화살이 표적 정 중앙에 있는 설치된 카메라를 박살내었을 정도라고 합니다(인터넷). 만일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 닥치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활을 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6장 10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마치 닥치는 대로 활을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궁술 가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치명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궁술가가 지금 닥치는 대로 활을 쏘고 있는데 그 화살을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화살을 맞지 않고자 피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치명적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배웠듯이 미련한 자 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다리를 자르는 것과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나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스스로 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나 사람을 고용하려고 할 때 원서를 써 내는 사람들에게 이력서를 써서 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사람 고용하는 담당자가 그 단체에 지원한 사람의 원서와 이력서 등을 보고 이 사람을 고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를 써서 내면 당회에서나 청빙위원회에서 그것을 본 후 관심이 있으면 인터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사람 교회에 잘못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몇 년 전에 동부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 몇 분이 저희 교회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는 여기 남가주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그 동부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이력서 등을 내었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저까지 만나러 동부에서 비행기 타고들 오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느 교회들은 꼼꼼하게 목사님을 청빙할 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라면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콩가루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11년 3월에 사사기 17장 1-2절과 18장 19절 중심으로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교회”란 제목 아래 말씀 묵상을 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콩가루 집안”은 바로 미가라 이름 하는 사람의 집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콩가루 교회”란 콩가루 지파인 단 지파를 생각하고 그렇게 제목을 적어본 것입니다. 제가 미가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말한 이유는 미가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소견대로 아들이 자기의 은 1,100을 도둑질했다가 어머니에게 저주를 받을까봐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미가가 복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17:2). 아니, 어떻게 도둑질한 아들을 면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빌어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머니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 일천 일백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은 이백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게 하여 아들에게 줍니다(3-4절). 참 어이가 없는 어미의 행동입니다. 아들 미가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머니로 부터 받은 그 신상을 자기의 집에 두었습니다(4절). 놀라운 것은 어머니로 부터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는 축복을 받은 미가에게는 신당(a shrine or house of gods)까지 있었습니다(5절). 이렇게 어머니나 미가나 다들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이게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단 지파를 콩가루 지파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5절). 그런데 그는 심지어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 소년(7절)이 거할 곳을 찾고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왔을 때(8절) 미가는 그에게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레위 소년을 자기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10절). 그리고 나서 미가는 이제 레위인이 자기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13절). 그러다가 단 지파가 라이스란 땅(18:7)을 기업으로 삼고자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 단 자손 육백 명을 데리고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러(13, 15절) 그 집에 들어갑니다(17절). 그리고 그들은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한 후(17절) 레위 소년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19절)고 말합니다. 그 때 그 레위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단 지파) 중으로 들어”갔습니다(20절). 그 결과 단 지파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콩가루 지파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시대의 많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제는 우리 목사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게 큰 문제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볼 때 신학교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령 신학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신학교들은 신학교 운영을 위하여 재정 압박 속에서 질적으로 자격이 너무나 미달되는 사람을 신학교에 입학하게 허락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함이 그리했습니다. 그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왕상 13:33). 이와 같이, 지금 여러 신학교에서는 누구든지 지원하면 대충 시험 보아서 신학교에 입학 허가해서 신학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0절에서 성경은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닥치는 대로 활을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궁술 가와도 같다"(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잠언 기자는 "닥치는 대로 활을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궁술 가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와 일꾼의 자격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나 채용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라는 말입니다(박윤선). 만일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고용한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미련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그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오늘 본문 잠언 26장 6-10절에 근거하여 "미련한 교역자"에 대해서 한 4가지로 말했습니다: (1) 미련한 교역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시 14:1).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교역자는 영감은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계적 지식에서만 생각합니다. (2) 미련한 교역자는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잠 14:9).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미련한 교역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지 않습니다(히12:4). (3) 미련한 교역자는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1:20-33). 성경은 책망을 귀하게 여기는데 미련한 교역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참고: 27:5-6). (4) 미련한 교역자는 영혼(내세)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습니다(눅 12:16-21). 미련한 교역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 뿐입니다(고전15:19). 잠언에서는 이러한 미련한 자는 징계의 대상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 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 된 것이니라"(잠 19:29);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26:3).

인터넷 페이스 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직원을 고용할 때의 단 한 가지 원칙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위해 직접 일해 줄 사람만을 고용할 것이"다(I will

only hire someone to work directly for me)라고 합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페이스 북은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팀은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현대 기술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큰 회사는 거품이 낀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한 회사에 고용주라면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서 오늘 잠언 26장 10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는 사람을 고용할 때 될 수 있는 데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추천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원자를 꼼꼼히 잘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2) 우리는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품인 진실 되고 신실한 자, 등등 이러한 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을 보셨습니까? 상상만 해도 좀 역겹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한 번도 본 기억은 없지만 개가 똥을 먹는 것은 본적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구역질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개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러한 개는 참 미련한 개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겠습니까? 그 예로 구약 출애굽기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 거듭 되풀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거듭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26장 11절에서 성경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RETURN)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REPEATS) 행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를 개와 같은 자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박윤선 박사님은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박윤선):

(1) “미련한 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유치한 자)”가 아니라 “죄를 업으로 삼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죄를 짓는데 있어서 양심에 가책을 전연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주로 '양심이 마비된 자'라곤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개역개정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거짓말하는 위선자들"(현대인의 성경)]이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절). 이러한 미련한 자는 불결한 것을 문제시하지 않기에 그 점에 있어서 그는 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마7:6), 그것은 개는 거룩한 것을 몰라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2) <u>"미련한 자"는 "강퍅하여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그것을 범"하는 자를 가리킵니다</u>.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는 열 가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간간이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강퍅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번복하여 범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언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12:23),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며(15:14) 또한 "미련한 것을 쏟"으며(15:2),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13:16). 또한 성경 잠언은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14:24)라고 말씀하면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16:2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련한 자가 거듭 행하는 "미련한 것"(미련한 짓)은 무엇일까요? 그 한 예로 잠언 17장 9절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구하므로 친한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겠지만 미련한 자는 그것을 거듭 말하므로 그 친구를 이간합니다. 또 다른 예는 시편 78편 4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과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어떻게 시험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만족 속에서 불평(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 거듭 행하는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듭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시 78:41).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하여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거듭거듭 노엽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5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종들을 "끊임없이"(부지런히)(again and again) 보내십니다. 보내주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5절)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REPEATEDLY)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야(RETURN)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련함을 자복하고 버리며 회개(REPENT)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을 또 다시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더 이상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째로,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캠퍼스에 1주일에 한번 씩 오셔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선배님이 살고 있는 학교 아파트에서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면서 5가지 확신에 대한 성경공부를 하면서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Fact(사실), Faith(믿음), Feeling(감정)이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때 저는 사실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때 감정에 이끌림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없을 때가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 때 배운 5가지 확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인도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인도의 확신에 대한 성경구절은 바로 잠언 3장 5-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그 때 이 말씀을 배운 후부터 여태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종종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누렸었는데 그렇게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2011년 2월 17일에 잠언3장 1-10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1)”란 제목 아래 수요기도회 설교를 했었는데 그 때 제가 잠언3장 5-6절에 중심으로 설교하면서는 이렇게 말한 기록을 다시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신뢰)합니다(잠언 3:5-6).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독점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이런 의뢰심을 가리켜 “동심의 신뢰(childish confidence)” 라고 합니다(박윤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단순성 있는 신뢰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동심의 신뢰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 3장 7절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다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일을 경영하여 그 경영하던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 일이 잘 된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기 여기는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 분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헛된 믿음입니다(14:16).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는 이러한 헛된 믿음의 원인은 높은데 마음은 둔(롬12:16) 교만입니다. 왜 우리가 높은데 마음을 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친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잠3:7)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합니다(롬 12:16). 이러한 교만함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우준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1:21-22).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

로 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일으켜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눈으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네가 보느냐 그이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박윤선). 여러분,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일까요? 물론 그 원인은 교만이지만 저는 그 교만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의 교만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데 왜 우리가 그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19-23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믿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믿는 자에게는 희망(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6장 12절 하반 절에서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장래와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24:14).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 중

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정녕히 장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잠언 26장 3, 11절).

"미련한 자"란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는 무엇을 행합니까?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란 말의 히브리어는 보통으로 어리석은 자(유치한 자)와 달라서 죄를 업으로 삼는 자입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미련한 자"란 말은 죄로 강퍅하여져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란 마음이 강퍅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잠 14:9)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잠1:25).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한 죄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책망을 듣고도 양심에 찔림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자라면 우리 마음에는 이미 쓴 뿌리인 교만함이 싹터서 자라나 열매를 맺어 마음이 강퍅해져 있고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되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행하는 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입니다(26:11).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거듭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불만족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족하였을 때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더 깊은 원인은 바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기에 불만족하였고 불만족하였기에 불평하며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생각나는 것은 바로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거듭 거듭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으며 심판 받아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어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평함을 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범죄 -> 심판 -> 간구 -> 구원 -> 망각).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반복하여 거듭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까? 사사가 살아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함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은 후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보면 범죄의 원인은 바로 풍부함과 태평함 속에서 싹튼 교만함(겔 16:49)이라 생각합니다. 풍부하고 태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고 망각할 때 우리 안에 쓴 뿌리인 교만함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납니다. 로마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 형제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듭 거듭해서 범한 죄를 바로 교만함 속에서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지금 우리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마 7:21) 마음으로는 교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대기”입니다(잠 26:3).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과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만하고 마음이 강퍅하여 죄를 심상히 여기고 책망 듣기를 싫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벌과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히 12:6). 즉, 하나님의 막대기는 공의의 막대기요 또한 사랑의 막대기였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

[잠언 26장 13-16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중에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헌신도(commitment)와 간절함(earnestness or desperateness)과 긴박감(sense of urgency)을 말하겠습니다. 주로 1세 어른들이 그들의 자녀들인 2세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헌신도"가 부족하다고들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1세 어른들 뿐만 아니라 2세를 목양하는 2세 목사님도 그리 말하더군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헌신도가 부족한 것인 꼭 2세 형제, 자매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세나 1.5세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도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신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함”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회 때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읽다가 1장 6절에 제 시선이 좀 멈췄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좀 놀랬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4-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바냐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헌신도와 간절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긴박감"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있기 전까지는 너무나 태평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서 긴박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긴박감이 없습니다. 그저 여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타성에 많이 젖어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헌신도와 간절함과 긴박감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원인이 이기주의와 안락주의와 게으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하겠습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점점 더 교회를 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데 힘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않)고 있습니다. 헌신도 뿐만 아니라 간절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안락(comfort)을 추구하지 뭐 하러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며 고통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쾌락주의도 위험하지만 안락주의도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요나서 4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더위를 피하게 하셔서 편안하게(comfort)해 주시고자["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to ease his discomfort)]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6절). 그 때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다가 2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내가 불편하다고 하여(요나 4:6 - discomfort) 불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분노해서는 아니 됩니다(9절). "Our discomfort may be an opportunity to learn lesson from God - His concern."[우리의 불편함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교훈(그 분의 아끼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욘 4:6, 11)]. "게으름"도 이기주의와 안락주의와 더불어 우리의 헌신도와 간절함과 긴박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란 "이기주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관이란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김남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결코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또한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게으름이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이다"(인터넷). 그 글을 쓴 문요한이란 정신과 전문의는 게으름의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완벽주의형(우유부단형) 게으름 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들은 자신들의 성향 때문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세부적인 준비에 만 급급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겉으로는 늘 바빠 보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장 시험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꼼꼼하게 책상 정리하고 다양한 색연필로 멋있는 시간계획표 짜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이다.

(2) 자기회의형 게으름 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미루는데 능합니다. "자기회의-불안-미룸-불완전합리화(다음에는 좀 더 준비해서 꼭 해야지!)-자기비난"이라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3) 수동공격형 게으름 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예: 부모)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거나 승화시키지 못하고 늘 수동적으로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구되어지는 일에 대해 늘 꾸물거리고 비능률적으로 행동하는 식으로 무의식적인 공격성을 표현합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의 인생을 서서히 실패로 몰아감으로써 상대를 화나게 하고 상대의 삶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유형에 비하면 오히려 태연해 보입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게으른 자"란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규율(훈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를 말합니다[a person who is habitually lazy and inactive, suggesting he has no discipline or initiative, as a moral failure(Swanson)]. 그러나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란 그저 이런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5장 19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게으른 자"를 "정직한 자"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5-26절을

보면 성경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를 “의인”(the righteous)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게으른 자”를 “해태한 사람(an idle man), ‘나태하여 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Walvoord). 이것을 볼 때 게으른 사람이란 그저 습관적으로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규율도 없고 계획도 없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란 의미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란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48장 10절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는 것(마25:18)은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26절)이라는 책망을 받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3-16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를 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3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현대인의 성경). “길과 거리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사자가 있다면 그런 곳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겁을 집어먹고 자신이 없을 때 핑계를 대는 구실입니다”(인터넷).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비춰보았을 때 겁을 집어먹고 자신이 없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 핑계 중 하나는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한 핑계로서 ‘내가 그 일을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꺼야’라는 식으로 생각하여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제가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그 원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 것입니다(3:5). 믿음이 없었기에 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였고, 믿음이 없었기에 실패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습관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한 핑계는 ‘나는 모험심이 없다’였습니다. 용기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것인데도 말입니다.

중국 고전 “회남자”에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못한다”는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인터넷). 실제로 우리는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자주 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핑계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닌지 적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 찰스 램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가 인도의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책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을 하는 날, 더 이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쓰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년퇴직을 한 후 깨달은 것은 “바빠서 글 쓸 새가 없다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생각도 일이 바쁜 가운데서 떠오른다는 것을 그 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 일 없이 빈둥대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인터넷).

성경 전도서 4장 5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매자, 즉 미련한 자는 ‘손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손을 거둔다’는 말은 ‘미련한 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잠언 21장 25절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즉, 게으른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를 가리켜 성경은 우매자, 즉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책임인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미련한 자는 핑계를 되면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 지금은 그 죄를 핑계 할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도 핑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잠언 26장 13절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겁을 집어 먹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일을 미루던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핑계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면 핑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핑계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5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나를 따르라“(59절)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59절)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

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61절). 그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60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62절). 우리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저런 핑계(변명)를 대면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머뭇거리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더 이상 겁을 집어 먹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4절을 보십시오: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문짝이 돌쩌귀에서만 돌듯이 게으른 자는 침실에서만 뒹군다”]. 이것은 게으른 자는 잠자리를 맴돈다는 말입니다. 즉,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굴면서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13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게으른 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일하러 가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싶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은 잠언 6장 9-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참고:24:33):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

여러분, 하루에 잠을 몇 시간씩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잠은 소아의 경우 12시간, 청소년은 9시간, 어른은 7시간 30분 이상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인터넷).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수면 시간이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수면 부족은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4시간을 못자면 반응 속도가 45%가량 느려지고, 하룻밤을 전혀 안자고 꼬박 세면 반응 시간이 평소의 두 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부족은 무엇보다 정신적인 활동을 흐리게 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나 창의력, 재치, 순발력 등을 요하는 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생기가 없고 둔감해지며, 기분이 가라앉아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며칠 잠을 제대로 못자면 쉽게 우울해지고 짜증이나 화를 잘 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자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과다는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나 일을 하기위해 수면시간을 무조건 줄이거나, 피로를 푼다고 수면시간을 무조건 늘리는 것 보다는 자신만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찾아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수면시간과 습관이야말로 몸에 꼭 필요한 보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적군과의 전쟁 속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로 한다면, 군대에서 보초서는 군인들이 깨어 서서 보초를 서지 않고 누워 있으며 잠자기를 좋아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파수꾼들의 역할은 깨어 있어서(시 127:1) 밤낮으로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느 4:9). 그리고 그들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겔 33:6).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은 파수꾼들이 잠자기를 좋아한다면 그 성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잠자기를 좋아하는 파수꾼들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잠언 23장 21절을 보면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현대인의 성경)"술주정꾼과 대식가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잠언 기자는 술 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은 가난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술 취하는 자들이 가난해 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술 취하는 자들은 방탕생활을 하면서(엡 5:18)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낭비할 뿐만(참고: 눅 15) 아니라 게을러서 잠자기를 좋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잠 23:21).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엡 5:18, 롬 13:13, 고전 5:11, 6:10).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자들처럼 잠자기를 좋아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게으른 자는 깨야할 시간에 깨지 않고,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서는 아니 됩니다. 좀 더 자고 나중에 일하자라는 자세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다른 것(상황, 사람 등등)을 탓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깨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새 찬송가 330장 "어둔 밤 쉬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할 때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셋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5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똑같은 말씀이 잠언 19장 24절에도 나와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베짱이"이를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동안 베짱이는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개미들을 조롱합니다: "어이, 개미들,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짱이는 매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며 살다가 겨울에 되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밥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이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개미처럼 되어야지 베짱이처럼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근면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베짱이처럼 게으르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 이솝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저 개미처럼 근면성실해야 한다는 교훈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를 보면 엄마가 음식을 숟가락에 담아서 그 아이의 입에 음식을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자라나서 이젠 어느 정도 자기 혼자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엄마에게 음식을 받아먹었다고 하여 계속해서 엄마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서 먹여주겠지 하고 자기 입만 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잠언 21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

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들은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는 마음은 원하는데 손을 게으르고 놀리기 때문이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12:27)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19:24, 26:15). 웃기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마음으로만 원하고 실제로 사냥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또한 어느 누가 배가 고픈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까? 아니 그러면 아기처럼 누군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여줘야 합니까? 이것은 게으름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사냥도 하지 않고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게으름 중의 게으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 성경 잠언 19장 15절은 "태만한 사람"(an idle man), 즉, 나태하여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21:25). 그 결과 게으른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오되 마치 피해자가 강도를 만나 압도당하는 것처럼 가난이 옵니다(24:33)(MacArthur).

오히려 게으른 자들은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1-13절을 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젊은 과부는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폄론을 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므로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 사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들었습니다(3:11). 이들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들었던 이유, 즉 이들이 미련하게 게을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지 않고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중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삐뚤어진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것

은 잘못된 종말론 뿐만은 아닙니다.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회피하는 책임 중에 하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즉, 만일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도 회피한다는 말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충성한답시고 일하지도 않고 놀고먹으면서 분주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주님의 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섬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임마누엘 믿음으로(학 1:13, 2:4, 5) 주님의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2:4) 두려워하지 말고(5절)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잠언 두 구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1) <u>첫째 구절은 바로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u>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다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일을 경영하여 그 경영하던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 일이 잘 된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기 여기는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7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일으켜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2) 둘째 구절은 바로 잠언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눈으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네가 보느냐 그이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박윤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6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또 다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 대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게으름과 교만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함이 교만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12절) 이렇게 게으름도 교만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잠언 26장 16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게으른 자는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잠언 26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와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를 볼 때 게으른 자가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그가 교만할 뿐만 아니라 미련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미련해서 분별력이 없는 게으른 자에 대해 죤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ignorant are ignorant of their ignorance"(무지한 자들은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무지한 게으른 자는 성경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면 "미혹된 자"["are going astray"(NIV), "misguided"(NASB)]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지한 게으른 자는 미혹을 받아 잘못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무지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우리는 미련한 게으른 자가 되어서 분별력이 없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지혜로운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필 것입니다(잠 28:11,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교훈을 계속해서 얻을 것입니다(1:5, 현대인의 성경). 그리할 때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2:11, 현대인의 성경).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회계(결산)를 해야 합니다(마 25:19). 주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15절). 우리는 주님께 각자 달란트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16-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라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21, 23절). 결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아 …"(You wicked, lazy servant!)라는 책망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26절). 오늘 우리는 본문 잠언 26장 13-16절 말씀 중심으로 게으른 자의 특징 4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는 핑계를 잘 되며(13절), 잠자기를 좋아하며(14절), 일하기를 싫어하며(15절) 또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16절)고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게으른 자의 특징이 없길 바랍니다.

멀리해야 할 다섯 부류의 사람들

[잠언 26장 17-22절]

지난주에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 글 내용의 초점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이지만 저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두 가지로 적어 보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진실한 사람"(잠12:22)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약3: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쟁이"를 멀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쟁이" 외에 우리는 누구를 멀리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6장 17-2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다섯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7절을 보십시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현대인의 성경)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개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의 귀를 잡으면 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강아지는 귀를 잡아주면 좋

아하나요?"란 인터넷 기사가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러한 답변들을 하였습니다(인터넷):

(a) "귀가 모든 동물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b) "귀 잡으면 무지 싫어하고 아파해요"

(c) "절대 안 됩니다. 강아지는 귀가 민감하기 때문이죠. .. 꼬리도 그렇고요 ..."

(d) "개를 귀잡으면 어떤 개는 물어요. 함부로 잡지 마세요 ..."

(e)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강아지는 귀 잡는 것 싫어해서 물어요.
저도 우리 집 개한테 물려봤어요. 진짜 아파요 ㅠㅠ"

오늘 본문 잠언 26장 17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개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현대인의 성경). 죤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잠언 기자 당시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지금처럼 개들이 길들인(domesticated) 개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의 귀를 잡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dangerous)고 합니다(맥아더).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개귀를 잡아당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바로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섭하다'(meddles)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인하여 흥분시키다'(excites himself over)란 뜻입니다(Walvoord). 이 문자적 의미를 생각할 때 잠언 기자가 오늘 본문 잠언 2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남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흥분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보고 끼어들어 다툼을 부채질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3가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박윤선):

(1) <u>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u>

여러분 혹시 한국 속담에 "내닫기는 주막집 강아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 의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뛰어들어 참견을 하는 사람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가 남의 일에 잘 뛰어들어 참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에 열심히 참견하는 사람이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남의 참견 말고 제 발등의 불 끄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인터넷). 실제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와 상관없는 싸움에 간섭하여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싸움에 참견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아닙니다.

(2) 우리는 남들의 다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남의 일에 간섭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담까지 하게 만들어서 남들의 다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두 형제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지나친 관심을 갔다보면 왜 그 두 형제들이 싸우는지 궁금해하다가 알고 싶어 간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두 형제들의 말을 듣다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가담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져 한 형제와 같은 편이 되어서 다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다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롬 5:10).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고후 5:18).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19절).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2:18).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남들의 다툼에 가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난 승냥이 코침 잘못 주다 되물린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이 말은 북한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성이 난 사람에게 섣불리 참견하였다가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말"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혹시 성이 난 사람에게 섣불리 참견하였다고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에 대

한 한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가지란 (a) 우리는 재물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영적인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과 (b)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 보 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돌이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룻 4장)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6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저의 "손해"에 관한 생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가담하므로 불필요한 손해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손해요 더 나아가서 만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교회 공동체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아무 유익이 없는 손해는 일부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된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해를 돌이켜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룻 4장). 그러나 우리에게 무익한 손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가담하므로 보는 불필요한 또는 쓸데없는 손해입니다(잠 26:17). 우리는 손해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가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그 개에게 자신이 물릴 것을 뻔히 알면서 개귀를 잡아당기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 26장 17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다보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다가 그 횃불을 집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여러분은 전쟁할 때 병사들 중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화살에 불을 달아서 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불화살을 적군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에게 쏘는 것입니까? 적군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잠언 26장 18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

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8-19절을 보십시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는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여기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란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불덩이, 화살,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화살에 불을 달아서 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인명을 가볍게 보고 살인을 도모하는 미친 사람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뉴스에 총기 난사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인명을 가볍게 보고 살인을 도모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며 여러 젊은 학생들의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총기 규제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뉴스 앵커가 말하면서 그 법 중에 하나가 총을 팔 때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던지 등등?)이라면 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신병자에게 총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는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난 15년간 미국에서는 소아양극성 장애(조울증)가 40배나 증가했고 자폐증 진단도 2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불과 한 세기 전 6가지에 불과했던 정신장애는 이제는 200여개가 이른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지 않고 조울증 환자에게도 총을 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지금 인명을 가볍게 보고 살인을 도모하는 미친 사람이 총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 또는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현대인의 성경)가 바로 그 미친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9절). 이러한 사람은 남을 속이되 기탄없이 속이며 또한 무자비한 마음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을 속이고도 그것을 후회하거나 한탄하지는 않고 도리어 즐거워합니다(박윤선). 상상이 되십니까? 남을 속이고도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얼마나 잔인하고 미친 짓입니까? 남을 속이므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또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비록 우리 사람의 혀가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큰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혀로 사람을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레위기 25장 14절을 보면 “...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 서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4장 28절을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5장 18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친히 보복(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이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요 8:4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쟁이 또는 수다쟁이입니다.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말 많은 ‘수다쟁이 직장동료’ 퇴치법”이란 글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기사에 의하면 “많은 직장에서 갈등의 원천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직장 동료의 끊임없는 수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및 기업 근로자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3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직장 동료가 한 명 이상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다쟁이들은 동료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잦으며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경력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0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수다쟁이가 없으면 싸움이 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쟁이 또는 수다쟁이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주로 우리는 말/수다쟁이하면 “말 많은 사람”(gabbler)을 생각합니다. 또한 말/수다쟁이 하면 우리는 “소문내는 사람”(gossiper)을 생각합니다(인터넷). 동시에 이 단어는 “비밀을 지껄여 대는 사람”(blabbermouth)이란 의미도 있습니다(인터넷). 만일 이런 말/수다쟁이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피곤할 것 같습니까?

이미 잠언 기자는 잠언 11장 13절과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다쟁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 둔다”(11:13, 현대인의 성경);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20:19,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수다쟁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일 우리가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게 될 때 그 이웃이 수다쟁이라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수다쟁이는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비밀을 누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다쟁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을 그 수다쟁이에게 다 보요 줘서는 아니 됩니다. 왜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잠언 26장 20절에서 수다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수다쟁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은밀한 일)을 누설하기 때문입니다(11:13, 20:19). 또한 그 이유는 수다쟁이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며(딤전5:13)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실제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28절에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니라”[“... 수다쟁이는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현대인의 성경)]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다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26:20).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다툴 만한 문제가 있을 때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잠언 2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네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다툴 때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그 남의 비밀을 듣는 사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평판이 안 좋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

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다투다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왜 그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그 다툼의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한 말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떠나서 상대방의 은밀한 단점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인신공격이다. 언제든지 인신공격은 진리를 분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야비한 행동인 것이다. 상대방의 은밀한 일은 그의 사적인 문제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그는, 평생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상대방의 미워함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득이여 다투게 될 때에는 침착한 마음으로 문제점에 대하여서만 증거 해야 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다툴 때에 남의 비밀을 말(누설)하지 말고 그 다툼의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한 말만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다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문제를 상대방이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인신공격 까기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약 4:1).

여러분, 우리는 말이 많은 말쟁이/수다쟁이를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의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말쟁이를 가까이 하면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수다쟁이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넷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년에 두 번 야유회를 공원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 때 교회 형제님들이 고기를 구울 때 숯을 올려놓고 거기에 lighter fluid를 뿌려서 불을 붙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기를 굽다가 숯불이 다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숯을 쏟아 부어서 고기를 굽습니다. 나무불도 마찬 가지입니다. 나무에 불을 붙여서

태우다가 나무가 다 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나무를 더 넣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1절을 보십시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숯이 깜부기불을 일게 하고 나무가 타는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채질 한다"]. 잠언 기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마치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아 싸움을 부채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이 입은 옷에 불이 붙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불을 끄고자 불붙은 옷에 물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물을 뿌리지 않고 휘발유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물을 뿌려야 하는데 만일 휘발유를 부은 다면 그 두 사람의 다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불붙듯이 더 크게 다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집 안에서 식구들 중 둘이서 다투고 있는데 미련하게 끼어들어서 오히려 두 사람의 다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가 다투고 있을 때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본이 아니게 그 다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투는 두 사람의 감정에 개입되어 자기도 분노할 때 그리 다툼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분을 쉽게 내는 자(성미가 급한 사람)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5장 24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다투는 여인” 또는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는 그녀의 남편과 다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상상이 되십니까?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혀야하는데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화가 난 사람에게 과격한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내가 그녀의 남편과 다투는 이유는 바로 “참소하는 혀”(헌담하는 혀)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25장 23절을 보십시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현

대인의 성경) “북풍이 비를 일이키는 것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여기서 “참소하는 혀”란 “은밀한 혀”란 뜻인데, 남을 해롭게 하며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아첨하는 자의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남편은 분을 일으키기에 부부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1장 9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성경 잠언 21장 9절을 보면 성경은 “다투는 여인”(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9절에 가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가 다투는 원인이 분노는 참지 못하고 성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을 쉽게 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18절). 우리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 말한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3절).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다툼)이 있었던 원인은 허영심이었습니다(3절). 교회 안에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불평과 다툼이 일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 때문입니다. 그 허영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 습관인 싸우는 정욕대로(약 4:1) 행하기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일을 원망(불평)과 시비(다툼)가 없이”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는 너희(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빌 2:15).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바르고 곧은길로 가지 않고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에 말과 행동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15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다툼이 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마지막 다섯째 부류의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있으시다면, 결코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여 나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다니면서 퍼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어서 그 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들이 찾아와 저에게 그 소문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두 분과 함께 교회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저 자신보다 저와 연관시켜서 거짓된 소문에 연루된 그 두 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기에 마음이 많이 미안해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 대신 제가 사과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2절을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아직도 잘 잊혀지지 않는 말씀 묵상 중 “사단의 전략(4)”이란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36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한 QT인데 그 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소문”(rumor)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31절). 그 말씀의 요점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나실인을 서약 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각종 희생 제물을 비용을 치러주고 그들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고 경건한 유대인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날이 눈앞에 있을 때 오순절 절기를 위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유상섭).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서슴없이 펴므로 모든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저 추측 속에서 성전 안 이스라엘 남자의 뜰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을 충동시켜 바울을 붙잡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이고니온에서도 겪었습니다(행14). 그는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에 가서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도 경험하였지만(1절) 그 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므로(2절)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5절) 이러한 고난과 핍박도 겪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악감을 품게 하였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 NIV을 보면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라고 적혀있습니다(2절). 즉,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독을 넣어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거짓된 주장을 펴서 교인들을 충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그저 추측 가운데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장을 피므로 결국 주위 사람들을 충동하여 자기편을 만들어 그룹을 형성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10:19) 교회 안에서 말쟁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자꾸만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충동시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충분히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꾸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부각시키며 충동질하여 다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남의 말을 하다보면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고(잠 18:6, 26:20) 또한 “친한 벗을 이간”할(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16:28). 그래서 성경 시편 101편 5절에서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말을”(함부로 지껄이지 말)아야 합니다(마 12:36). 또한 우리는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이나 헌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딤전 5:13)(Nelson).

위선자는 …

[잠언 26장 23-28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때 들춰지는 위선으로 인하여 고민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저 같이 말씀을 맡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들춰지는 자신의 위선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종 늦게나마 말씀을 선포한 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들춰내실 때 양심에 찔림 속에서 위선적인 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고 옥한음 목사님이 그의 책 "옥한음 목사가 목사에게"란 책에서 쓴 글을 다시 한 번 찾아서 읽어 보았습니다: "사실 목회자만큼 위선자가 되기 쉬운 직업도 없습니다. 목회자만큼 위선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이 악습으로 몸에 배면 양심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위선이 악습으로 몸에 배면 양심도 없어진다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양심이 마비된 목회자, 양심도 없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죤 칼빈은 위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자들은 열심이라는 가면으로 그럴듯하게 자기의 자만심을 감춘다.' 열심의 가면으로 자기의 자만심을 감춘 위선,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4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아첨하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개역개정)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위선자는 …**"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잠언 26장 23-28절 말씀 중심으로 한 가지로만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위선자에 대한 그 한 가지란 바로 위선자는 그의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 하면 우리는 주로 "외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히브리어 의미는 '자기를 감추는 자' 또는 '위선자'입니다.

즉, 위선자는 자기를 감추는 자란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원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서 연출하는 배우를 가리킨 것으로서, 후에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 '휘포크리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종교인들에게 상용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된 태도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경우가 바로 외식의 적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외식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신앙적 과시욕 또한 대단해서 외식(外飾), 허식(虛飾), 가식(假飾)의 전형으로 비쳐졌습니다. 거짓으로 꾸미고 자기 의(self-righteous)를 과시하는 위선자들 이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배우들이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과 모든 인간 생활에서 본래의 자기 모습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려는 모든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배우라고 말했습니다(인터넷).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이자 신학자, 저술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그의 책 "회개"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위선자들에게 필요하다. 위선은 성결을 위장하는 것이며, 위선자 또는 무대 연기자는 도덕가보다 한 술 더 떠 종교의 의상으로 몸치장을 하고 있다. 그는 경건의 형식은 자처하지만 능력은 부인한다(딤후 3:5). 위선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안은 어둡다. 그는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썩은 기둥이며, 그는 신앙고백의 가면 밑에 자기의 전염병의 상처를 감춘다. 위선자는 얼굴을 화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거룩을 꾸미는 화장을 한다. 그는 겉으로 선하기 때문에 정말로 악할 수 있다. 위선자는 그의 눈을 하늘나라에 못박아놓고 있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불순한 육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의 양심에 역행하여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오로지 귀뿐이다. 그는 교회 헌신에 열심이며 그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과 골방 기도를 등한시한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서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그는 믿음을 방패로 삼기보다 오히려 가면으로 삼아 이용한다. 그는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말씀의 촛대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속을 조사해서 혹시 거기서 아무 회개거리도 찾아낼 수 없을지 살펴보라"(인터넷).

그러면 위선자의 입술과 마음은 어떻게 다른지 한 6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선자의 입술은 온유하지만 그의 마음은 악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3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

힌 토기니라"[(현대인의 성경) "친절한 말에 악한 마음은 유약을 입힌 토기와 같다"](Like a coating of glaze over earthenware are fervent lips with an evil heart). 여러분, 혹시 크리스피 크림 도넛츠를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그 도넛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도넛츠를 먹으면 입이 녹는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문을 듣고 크리스피 크림 도넛츠 가게에 가서 금방 만들어진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츠를 먹어보았는데 참 맛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 아내가 저의 풀러 신학교 Th. M. 논문을 다 수정해 주었을 때 제가 아내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츠 12개(dozen)를 원한다고 하여 사 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도넛츠 가게에는 여러 종류의 도넛츠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글레이즈 도넛츠입니다. 여기서 "글레이즈"란 도넛츠 위에 얇게 씌운 것으로 설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글레이즈"란 꼭 도넛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선에도 "글레이즈"를 하는데 여기서 글레이즈란 "생선을 냉동하여 저장할 때, 건조나 변질을 막기 위하여 생선에 덮는 얼음 피막"을 가리킵니다(네이버 사전). 생선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색을 입힐 때에 보통 글레이즈를 사용하는데 나무에 글레이즈를 입히면 윤기가 나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글레이즈는 토기에도 입힙니다. 글레이즈 질그릇을 보면 윤기가 나고 더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질그릇에 글레이즈를 입히는 것을 영어로 "coating"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글레이즈를 질그릇에 칠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란 말씀은 '토기에 글레이즈를 칠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은 악한데 그 악한 마음에 '온유한 입술'을 칠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마음은 악한데 그 악한 마음을 "친절한 말"로 윤기나게 입히면(덮으면) 어찌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외식이요 위선이 아닙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친절한 말로 잘 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온유한 입술"입니다. "온유한" 입술이란 "매끄러운 말"(smooth talk), "비위를 맞추는/아첨하는 말투"(flattering speech) 또는 "불타는"(burning) 입술이란 뜻입니다(Swanson). 이것은 위선자는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매끄러운 말을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되 자기의 악한 마음을 매우 따뜻한(열렬한) 사랑의 말로 가장합니다(Gesenius).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외식자(아첨하는 자)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도 뜨거운 친절미 있게 표현함을 가리킨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도 뜨거운 친절미 있게 표현하는 외식자의 말이 좀 상상이 되시죠?

저는 성경에서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 마음을 열렬하고 친절한 사랑의 말로 덮어서 포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할 때 먼저 잘 포장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입니다. 창세기 31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자기의 마음을 잘 포장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야곱이 보기에도 라반의 안색은 전과 같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라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야곱을 향한 자기들의 마음을 잘 숨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야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만나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말을 들을 줄 몰랐겠지만 진짜 자기의 안 좋은 마음을 잘 숨기는 자들은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잘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변한 자기의 안색을 잘 포장하지(숨기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 또한 야곱에 대하여 말을 잘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악한 마음을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잘 포장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여자를 미혹한 뱀이 생각났습니다. 그 뱀이 그 여자를 미혹하는 말들을 들어 보십시오. 그들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

여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2-3절),

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4-5절).

이 뱀의 말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달콤한 말을 들은 그 여자는 다시 보지 말했어야 할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6절).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아

담)에게도 주"었습니다(6절). 이렇게 사단은 자기의 악한 마음을 친절(온유)한 말로 잘 칠하고 잘 포장합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주리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3절),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4절),

그랬더니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6절),

예수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7절),

그 때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9절),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10절).

여러분, 위선자의 마음은 악합니다. 그런데 위선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을 잘 숨기고, 잘 포장합니다. 어떻게 그는 포장합니까? 마치 질그릇에 은을 칠해서 윤기 나게 하듯이 위선자는 자기의 악한 마음을 온유한 입술로 포장하여 윤기 나게 합니다. 특히 그는 상대방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로 친절미 있게 표현하므로 자기의 악한 마음을 윤기 나게 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u>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u>.

자아 성찰하는 가운데 혹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위선적 이 모습을 들춰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외식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2) 만일 우리 주위에 이러한 위선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친절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의 열렬한 말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기까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3) 우리는 예수님처럼 위선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선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위선자의 말을 어떻게 답변하고 그 달콤한 유혹의 말을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참으로 달콤하게 들리는 설득력이 강한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99% 성경 말씀에 1%로 추가되었던지 아니면 1%로 뺀 비성경적인 말이다. 100%로 성경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 우리 모두 100% 성경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다. 우리 모두 말씀 충만하여 위선자의 온유한 입술을 통해서도 그의 악한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위선자의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둘째로, 위선자는 자기의 미운 감정을 아첨으로 숨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미워지는 감정이 들 때에 그 미운 감정을 잘 숨겨집니까? 그러면서도 그 미운 사람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성경 창세기 37장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았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들 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한 미운 감정을 잘 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5, 8절).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한 미운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를 죽이기를 꾀하기까지 하였습니다(18절). 또 다른 예는 다윗 왕의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여(삼하13:4) 그녀를 강제로 동침한 후(14절) 그녀는 "심히 미워"하였는데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이란 매우 강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표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미운 감정이란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4절을 보십시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현대인의 성경) "위선자는 아첨하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성경은 위선자는 이러한 살인적인 미운 감정도 아첨하는 말로 숨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선자는 그러한 미운 감정도 숨기면서 오히려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위선자의 "감정"이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열린 적대감과 갈등(문제)라는 뜻으로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Swanson). 즉, 위선자는 원수 된 사람을 속으로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서도 그 미운 감정을 아첨하는 말로 숨긴다는 것입니다. 숨기되 위선자는 항상 그 마음에 그 원수 된 사람을 배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속임을 품습니다(Spence-Jones).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입술로는 그 원수 된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47절)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로 왔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말하면서(48절) 예수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49절).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과 예수님께 왔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춘 가룟 유다, 이 얼마나 간교한 위선자의 모습이요 행동입니까. 그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말과 위선적인 입맞춤 뒤에 숨겨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0인경을 보면 오늘 본문 잠언 26장 24절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원수는 자기의 입술로 눈물의 약속

들을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속임을 교묘하게 궁리(고안)한다'(An enemy weeping promises all things with his lips, but in his heart he contriveth deceits"(Spence-Jones). 즉, 위선자는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자기의 미운 감정을 숨기고 교묘하게 그 사람을 속이고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약속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선자의 눈물에 웬만한 사람이면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자신의 미운 감정을 속이는 위선자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선자처럼 자신의 미운 감정을 숨기려고 아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 시편 1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는 아첨을 하기보다 오히려 경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잠 28:23). 우리는 위선자의 아첨하는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의 미운 감정을 숨기려고 입술로 꾸미는 아첨하는 말을 조심히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6장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미운 감정은 표출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아첨하는 말로 숨기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운 감정을 눈물까지 흘리면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선자의 아첨의 말과 눈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선적인 아첨의 기도와 눈물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셋째로, 위선자는 그의 말을 좋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추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십니까? 왠지 저는 누군가 저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인사차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만일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제 귀에 좋게 들려도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6장 25절을 보십시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

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그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5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위선자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4절에서 이미 묵상한대로 위선자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미운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우리의 귀에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만일 우리가 그 위선자의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한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위선자의 듣기 좋은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미련한 사람은 바로 성경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제가 아합 왕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는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예언이 자기에 대하여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7절). 대신 그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좋게 말하는 거짓 예언["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11절)]을 듣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싸우러 가기 전에(3절)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 보소서"라고 말하였을 때(4절)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의 좋게 말한 예언을 들은 후(5절) 여호사밧이 "우리가 물어 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6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물으니까 아합이 자기에게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미가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는 자기에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에 자기가 그를 미워한다고 말하였습니다(7절). 그 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런 말씀을 마소서"(7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미련한 사람들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렘 26:5)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예언하는(27:10, 14-16)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즉, 그들은 참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재앙(26:3, 13, 19)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평화(28:9)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코 평화가 있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6:14, 8:11)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28:15).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 예언했습니다(27:9, 14).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

언(10, 14, 15, 16절)한 말을 유다 백성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백성입니까.

저는 지금도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하였듯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가지 욕심을 따르며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우리는 그 교사들이 위선자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좋게 들리는 말들에 "아멘"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성경 잠언 26장 25절은 그 위선자들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는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바른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그 바른 교훈이 우리에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좋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바른 교훈을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며 경책하는 성령의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던 안 좋게 들리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보배롭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시 139:17-18).

넷째로, 위선자는 속임으로 자기의 미움을 감출지라도 반드시 그의 악은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6절을 보십시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현대인의 성경) "그가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숨겨도 그의 악한 행위는 대중에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잠언 26장 24절에서 "위선자는 아첨하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는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란 미운 감정을 말합니다. 즉, 위선자는 자기의 미운 감정을 아첨으로 숨깁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6절에서는 "아첨하는 말"(24절)이 아니라 "속임으로" 그 미운 감정을 감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신의 미운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고 오히려 어떠한 모양으로

도 표출하는 사람보다 미운 감정을 어떤 모양으로도 표출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이 더 무섭고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살인적인 질투로 다윗을 질투하므로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정도로 표출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도 자기 동생인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창 27:41)을 생각할 때 에서 또한 자기의 미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비해 압살롬이란 인물은 자기의 미운 감정을 2년 동안이나 표출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누이 동생인 다말이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여 욕되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는 암논을 미워하였지만 자신의 미운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이나 자신의 미운 감정을 숨겼습니다(삼하 13:22-23). 그러다가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잔치를 베풀어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여 결국에는 암논을 죽였습니다(23-29절). 이렇게 마음속에 숨겨둔 미운 감정이란 무섭고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미운 감정은 더욱더 쌓여서 우리가 그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더 큰 죄를 범하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므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성경 창세기 4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창 37:4)이 생각납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4:8). 그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7절)[(현대인의 성경)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죄가 그의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발톱을 지켜 세우고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마귀는 먹잇감인 가인의 마음 문 앞에서 그를 미혹하며 악을 행하게 하고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로 하여금 자기를 다스리게 하여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현대인의 성경)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 5:8). 특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미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즉,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 요한일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현대인의 성경).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살게 만들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여 혼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속임으로 감추고 있는 우리의 미운 감정조차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현대인의 성경) “그가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숨겨도 그의 악한 행위는 대중에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죄악 된 본능은 우리의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포장하고 또 포장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1-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but rather expose them)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우리가 몰래하는 짓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다 들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몰래 우리아의 아내인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현대인의 성경) “너는 그 일을 몰래 해치웠으나 나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행할 것이다'”](삼하 12:12).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히 범하는 죄를 들춰내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추어 놓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대중 앞에 들춰내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속임으로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미운 감정을 숨긴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회중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일까요?(잠 26:26) 저는 그 이유를 요한일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깊이 숨겨 놓은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회중 앞에 들춰내시므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살인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죄가 들춰져도 숨기고 덮고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즉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위선자는 함정을 파지만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란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군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군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저는 어릴 때 교회 유년주일학교에서 이 찬양을 종종 불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노래에는 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노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시편 124편 7-8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면"(124:1)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일어났을 때(2절)

그들을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3절), 엄몰하였을 것이며(4절) 또한 그들의 영혼이 잠갔을 것(4-5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환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가운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구원)을 받아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탄은 마치 사냥꾼처럼 우리에게 올무를 놓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올무에 걸려 새장에 가두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올무를 끊으시사 우리를 그 올무와 같은 새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성경 시편 12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행23:12) 동맹한 40여명의 사람들이(13절) “매복”하고 있었습니다(16절).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조카)를 통하여 그 음모를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기의 생질은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여(16-17절) 결국에는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할 때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명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하였습니다(23절). 그 결과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33절).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종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주님의 종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주님의 종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트리려고 얼마나 각오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40여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던 것처럼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얼마나 결심과 각오가 대단하지 모릅니다. 그들은 작전을 짜고 매복까지 하면서 오직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트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함정입니다. 그들은 함정을 파고 겉으로는 그 함정을 가리우려고 잘 포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놓습니다. 그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아 약하여 그 사탄

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케 만드시사 결국에는 우리를 그 함정에서 건져내시고 함정을 판 그 사탄의 무리를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7절을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현대인의 성경)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남에게 돌을 굴려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함정"이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사자를 잡으려고 판 구덩이(pit)란 뜻입니다(Brown).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다니엘의 사자굴이 생각났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 그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므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단 6:1-3). 그 때 다른 두 총리들과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원들의 꾐으로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 굴에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습니다(23절).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소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 굴에 넣게 만든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의 처자와 함께 그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가 사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24절).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 잠언 26장 27절 상반절 말씀대로 자기들이 판 함정인 사자 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을 보면 "제가 제 무덤을 판다"는 말 아시죠? 그 말의 뜻은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인터넷).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2장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허탄한 것"(5절) 또는 "무익한 것"(8, 11절)을 좇았습니다. 그 허탄하고 무익한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곧, 우상숭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그들의 얼굴은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향했습니다(27-28절). 이렇게 배도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19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림과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고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7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4절)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는 다윗의 대적 자들을 생각할 때 위선자는 자신의 미운 감정을 감추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해하고자 함정까지 팝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굴려 내려서 상대방을 치려고 해도 그 돌에 자기가 치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6:27; 참고: 시 35:7, 현대인의 성경).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굴려 내리려면 먼저 그 돌을 언덕 위로 굴려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돌을 굴려서 언덕 위로 올라가다가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을 굴려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치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치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위선자는 남을 망하게 하려는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 때문에 마침내 자기 자신도 망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안에서 깊은 바다 속에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욘 2:4)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같은 함정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9절).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쳐해 있는 상황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행 27:20),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시 141:9).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행 27:23-25).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함정을 파놓은 위선자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그 위선자를 그 함정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위선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6장 23절에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속임으로" 자신의 미운 감정을 숨기는(감추는) 것인데, 이것은 거짓이 아닌가요?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그 미운 감정을 감추고자 웃고 친절하게 말하고 등등 하는 것은 상대방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함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진리화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거짓이 침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28절을 보십시오: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가져온다"]. 오늘 성경은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 하는 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해한다(해친다)는 것입니다. 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여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어떻게 상처를 입힙니까? 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중상모략(slandering)하므로 그의 평판(명성)(reputation)에 해를 끼칩니다(Walvoord).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여러분을 헐뜯거나 나쁜 소문을 퍼트려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거짓말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첨까지 해서라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속여서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면 될 수록 우리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딤전 4:2). 그러나 성경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골 3:9). 그

것은 옛 사람의 행위입니다(9절).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미워해야 합니다(잠 13:5).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약 3:14).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요일 2:4).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4:20).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도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잠 14:5).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위선자는 …”이란 제목 아래 과연 위선자는 입술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 6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1) 위선자의 입술은 온유하지만 그의 마음은 악합니다, (2) 위선자는 자기의 미운 감정을 아첨으로 숨깁니다, (3) 위선자는 그의 말을 좋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추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4) 위선자는 속임으로 자기의 미움을 감출지라도 반드시 그의 악은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5) 위선자는 함정을 파지만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 (6) 위선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현대인의 성경). 또한 위선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막 7:6).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위선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과 입술이 다른 불일치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당연히 진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잠 28:18).

자랑, 칭찬, 분노, 질투, 책망

[잠언 27장 1-6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디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참고: 딛 1:16).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딤후 3:5). 우리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7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한 다섯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 주제란 "자랑", "칭찬", "분노", "질투" 그리고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다섯 가지를 주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고 안희숙 사모님이 작사한 복음 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 가도 끝은 없

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는 고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서 고 안 사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인터넷). 그녀가 31살 때인 일제 말엽인 1939년 전교생이 합동으로 신사에 가서 행했던 신사참배시 의연히 꼿꼿하게 하나님 이외의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보이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고 또한 제 74회 일본제국회의 때 의사당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을 전하고 그 자리에 체포 투옥돼 평양 형무소에서 6년 옥고를 치루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주님의 참사랑을 몸소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색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키셨던 놀라운 사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에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란 복음성가를 작사한 고 안희숙 사모님은 1945년 사형집회 몇 시간을 앞두고 8.15 광복과 함께 8월 17일 출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분이 작사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여 하루하루 살아요 …'란 복음성가 가사가 그녀의 삶 속에 체험해서 나온 가사라는 것을 우리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장래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 전도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 일을 말해 줄 수 있겠는가?"(현대인의 성경)[(개혁개정)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성경은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장래 일을 알아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장래 일을 말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점쟁이(fortune-teller)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예언의 기도를 받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도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일이 잘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므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일이 잘되어가는 것)과 곤고(어려움)를 병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예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이 생각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은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창 39:2, 3, 23). 이렇게 형통했던 요셉의 삶 속에 유혹이 있었고(7-12절) 그 유혹을 뿌리쳐 도망갔었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13-20절). 즉, 요셉에게는 형통한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었습니다(전 8:14).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형통하였던 요셉의 삶에는 곤고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17살 때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창 37장)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팔렸습니다(39:1). 그리고 그는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곤고한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당한 요셉, 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요셉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헤아릴 수 없는 요셉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은 그의 나이 39세 때(약 22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의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였습니다(45:5, 7).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 한 예가 누가복음 12장 16-21절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밭에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그는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부패한 부자들이 합법적인 은행 구좌들 외에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하고자 돈을 더욱더 많이 모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한 후 그 부자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습니다(16-19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 둔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20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부자를 가리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21절). 또 다른 예는 야고보서 4장 13-1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16절). 특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에게 적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시 49:6, 렘 9:23) 또한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시 49:6).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후 10:17),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11:30). 우리는 우리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되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3-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자랑하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자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사실입니다(약 4:14).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마음 자세와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15절).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잠 27:1).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2절을 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망정 네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자성어 "자화자찬"(self-praise)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의 뜻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네이버 사전).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상대방이 자꾸만 자화자찬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한 생각이 드나요? 혼자 잘난 척 하는 게 피곤한가요? 어느 웹사이트를 보니까 어느 사람은 '제발 그만해. 너 혼자 잘난 너만의 섬으로 돌아가 버리라"고 하고픈 마음이 목구멍 위로 스물스물 올라온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면 왜 우리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하는 것일까요? 잘난 척 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자격지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스스로 잘난 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자기 자신을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많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겁이 많고 자격지심이 큰 경우가 상당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잘난 척 자화자찬이 심한 사람의 심리는 알고 보면, 불안하고 여린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인터넷).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합니다. (1)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 하반절을 공동번역은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우리 사람들은 칭찬에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기분이 좋고 기쁘지만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돌릴 위험(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인들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칭찬에 컨디셔닝이 되면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칭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잠언 27장 21절 하반절인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2) 저는 제 자신이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15년 전인가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섬겼던 새 가정부 커플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다섯 가지 적어오라고 교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 부부도 집에 가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 다섯 가지 씩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어도 아직까지 한 가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제일 첫 번째로 저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appreciation"(감사)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도 부족했기에 감사 표시도 인색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감

사 표현도 부족하지만 칭찬도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칭찬이 인색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한 변명은 제 자신이 자라나면서 아버님께 그리 칭찬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님 세대의 어르신들은 "주마가편", 즉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자녀 양육 방법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어색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아버님의 칭찬에 그리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미국 아빠들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뭔가를 잘했을 때 'Good job!'(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뭔가 잘 못했을 때에도 'It's okay. You can do better next time'(괜찮아, 너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위로/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저는 가정 식구들에게 칭찬을 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잠언 3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현숙한 아내를 남편이 칭찬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은 그러한 어머니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저희 가정에서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하루는 실천신학 반에서 각자가 읽은 책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이동원 목사님의 "가정 행전"이란 책을 읽고 교수님과 같은 반 신학생들 앞에서 발표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후 저의 발표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이 듣고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어느 목사님이 저의 발표에 대해서 한 마디 하셨는데 저는 그 한 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한 마디는 다름 아닌, 저의 발표가 교만하게 들렸다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저의 발표에 대해서 비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좀 놀랬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은혜 받고 도전받은 것을 같은 반 신학생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한답시고 발표했는데 첫 비평이 저의 발표가 교만하게 들렸다고 하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문화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클래스에서 발표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교만하게 들리지는 않을 텐데 아마 한국에서는 그리 교만하게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 때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발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저는 그 때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감보다 그 읽은 책에 대하여 열정과 확신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정에 대해

서 관심이 많고 또한 이동원 목사님의 “가정행전”의 책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때 그렇게 그 목사님이 말하니까 좀 섭섭했습니다. 이해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2절을 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망정 네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망정 네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칭찬하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잠언 27장 2절에 나오는 “칭찬”이란 단어와 1절에 나오는 “자랑”이란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1절)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칭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면 아니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하므로 지혜가 없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정한 표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지혜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랑(칭찬)하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개혁개정을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잠언 기자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고후 8:18). 또한 우리는 주님의 종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고전 11:2).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경건한 사람”들로서(행 22:12)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할뿐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행 6:3). 칭찬을 받되 우리는 교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 (혹은 단련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벧전 1:7).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

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미련하게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3절을 보십시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현대인의 성경)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가 화내는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분노"에 대한 잠언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2장 16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한 잠언 15장 1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들 외에 저는 "분노"하면 잠언 17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난다는 것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 전 2016년도 오스카 시상식 때 남우주연상을 받은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레버넌트"(죽음에서 돌아온 자)란 영화를 보면 곰이 자기 새끼 곰을 지키려고 주인공인 디카프리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곰이 얼마나 무섭고 사납게 주인공을 공격하는지 그 주인공은 거의 죽게 됩니다. 호세아 13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끼 잃은 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염통 꺼풀을 찢고 그들을 삼키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잠언 17장 12절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합니까? 그 이유는 John MacArthur 목사님 말에 의하면 미련한 사람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분노할 때 들 합리적(이성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Fools are less rational in anger than wild bears(MacArthur)].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련한 자가 비이성적으로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잠 12:16)이 상상이 되십니까? 미련한 자는 비이성적으로 당장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오랫동안 삐뚤어진 생각으로 분노를 품고 있다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들 수가 있습니

다. 그는 자기의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죽이고자 2년 동안 분노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분을 오래 동안 품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잠언 27장 3절을 보십시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현대인의 성경)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가 화내는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품은 사람이 오래 동안 상대방을 유쾌하지 않게 만들며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의 분노가 그렇습니다(박윤선). 그러한 분노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거운 돌이나 무거운 모래주머니(sand bag)를 나르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하는 미련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이 돌이나 모래보다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좋다고 그러한 분노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우리는 그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기 때문입니다(10:23). 그리고 행악으로 낙을 삼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만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남을 해롭게만 하므로 우리는 그를 가까이 하지 말뿐 아니라 만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4절을 보십시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현대인의 성경)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먼저 저는 사울 왕이 분노했던 것을 생각할 때 사무엘상 20장 30-3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네가 네 자신의 수치와 네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1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므로(17절) 그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4절)고 말하였을 때 다윗은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5절).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찾거든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기를 허락을 간청한 것을 사울 왕에게 물을 때에 만일 그가 "좋다"하면 자기는 안전할 것이지만 만일 사울 왕이 화를 내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할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6-7절). 그리고 초하루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었지만(25절) 사울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26절).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으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찌하며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고 물었습니다(27절). 그 때 요나단의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모여서 제사드릴 일이 있다고 그 곳으로 오라는 형의 명령을 받았다기에 내가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28-29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 미친놈아! 네가 네 자신의 수치와 네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30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잠언 27장 4절을 보십시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분노는 오늘 본문 잠언 2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잔인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잔인하고 파괴적인 분노도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질투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u>첫 번째 종류의 질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좋은 질투입니다. 그 질투는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u>

그 좋은 예가 바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My jealousy)으로 질투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을 뿐만 아니라(1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바알브올에게 가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1-3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 태

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매어 죽임을 당하고(4절) 이스라엘 백성 중 24,000명이나 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9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6절)인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14절)가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6절)인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인 수르의 딸 고스비(15절)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습니다(6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든 창으로(7절) 시므리를와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8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진노를 돌이키므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으셨습니다(11절). 이러한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위로부터 난"것(약3:17)으로써 성경적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투심입니다.

우리도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아내를 보호함에 있어서 질투해야 합니다. "결혼 개혁"(Reformed Marriage)이란 책을 보면 저자 더글라스 윌슨(Douglas Wilson)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의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질투해야 하며 또한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출 34:14). 여기서 말하는 남편의 "질투"는 죄와 섞여서는 아니 되는 경건한 질투를 가리킵니다.

(2) <u>두 번째 종류의 질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말고 멀리해야 할 나쁜(죄악 된) 질투입니다. 그 질투는 바로 살인적인 질투입니다</u>.

그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살인적인 질투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주목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NIV)를 보면 '질투의 눈으로 계속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를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The New Strong's Dictionary of Hebrew and Greek Words에 의하면 'to watch with jealousy eye'(질투의 눈으로 보다)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본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날", 즉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삼상 18:6) 뛰놀며 창화하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

은 만만이로다"(7절)고 하므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8절)라고 말한 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의 주인공 이였던 사울 왕,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므로 조연출도 아니었던 목동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극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1, 3절) 또한 사울의 딸 미갈도(20, 28절)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다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16절).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던 사울(12, 14, 28절)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힘 있게 내리므로(10절)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윗을 벽에 박고자 손에 든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10-11절). 실패로 돌아갔지만 사울은 그 때부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질투는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므로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29절). 그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된 질투심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7장 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현대인의 성경)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분노와 질투를 비교해 볼 때 분노보다 질투가 더 잔인하고 파괴적이란 말씀이지만 저는 분노와 질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드는 생각은 분노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노보다 질투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잠언 6장 34절을 보십시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현대인의 성경)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복수하는 날에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질투하는 남편은 분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편은 복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질투하며 분노하는 남편의 복수극을 가끔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현대인의 성경)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죄악 된 질투심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시편 73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여(3절) 거의 실족할 뻔 했지만(2절)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어(17절) 죄악 된 질투심을 극복했습니다. 즉, 아삽은 그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깨닫고(17-20절) 또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25절) 그는 죄악 된 질투심을 극복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되고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살며시 스며드는 세상 적이고 정욕 적이며 마귀적인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투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5-6절을 보십시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잠언 27장 5-6절 말씀을 묵상할 때 마다 마음이 좀 고민이 되고 심지어 죄책감도 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숨은 사랑보다 나은 면책(책망)을 잘 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저로서는 그보다 나은 사랑의 면책은 더욱더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특히 목회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 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면책했어야 했을 때 하지 않았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저는 그 때 제가 이 말씀에 불순종한 제 자신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면책해 보았자 듣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의 면책을 하길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7장 5-6절을 대할 때마다 고민이 듭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제 마음은 마음에도 없는 만 마디의 칭찬보다 사랑으로 말하는 한 마디의 면책을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제 주위 사람들의 "입맞춤"과 같은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범죄하고 있을 때 저의 죄를 덮어주므로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보다 저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하고자 저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면책해 주는 친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17절)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 잠언 27장 5-6절을 보십시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오늘 본문 잠언 27장 5절을 보면 성경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 맞대 놓고 책망한 사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다윗 왕을 맞대놓고 책망한 나단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죄를 덮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결국 자기의 충성된 군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에(삼하11:27)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한 성에 있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면책하셨을 때(12:1-4) 다윗은 크게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5절). 죄를 덮고 덮으려다가 자기 양심마저 덮어버려서 그랬던 것인지 다윗은 자기가 그 "마땅히 죽을 자"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책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면책입니까? 다윗 자신은 분명히 자기 자신은 그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면책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가 내가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 우리의 양심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도서 7장 5절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우매자의 노래"는 바로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한 마디로, 우리가 우매자의 노래, 즉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해야 할 이유는 그 위로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헛됨을 솔로몬 왕은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가시나무가 탈 때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솥의 물을 끓일 수 있는 열은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가시나무”는 종종 악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삼하 23:6; 나1:10)(Jamieson) 솔로몬 왕은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 내는 악인의 거짓된 위로의 소리는 그 순간에는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곧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악인의 위로는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우매자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지혜자의 책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지혜자의 채찍질이 미련한 자의 칭찬(격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맞대 놓고 책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엔 우리가 익숙한 것은 사람을 맞대고 책망하는 것보다 물래 숨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숨은 사랑보다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27장 6절을 보십시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숨은 사랑보다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비록 친구가 우리를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되겠지만 그 상처는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6절). 이것이 원수의 거짓된 입맞춤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기에 거짓된 입맞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무너트리고자 하는 반면에 친구는 우리는 사랑하기에 진실 된 면책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가 우리를 사랑하므로 면책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의 사랑의 면책으로 오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상처까지 우리는 우리 친구에게 사랑의 면책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하는 친구의 면책을 겸손히 듣고 그 면책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 잠언 27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한 5가

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1절), (2)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2절), (3) 우리는 미련하게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3절), (4) 우리는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4절), (5) 우리는 사랑으로 책망해야 합니다(5-6절). 이 교훈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지 말며, 미련하게 분노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며 또한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잠언 27장 7-10절]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백년 만년을 산다한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도서를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전 2:24, 3:13, 8:15).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3:13) 또한 이것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18).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감을 누려야 합니다(18절). 그 이유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잠언 14장 11절부터 보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지 한 7가지로 우리는 이미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우리의 장막이 흥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14:11). (2)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14:14). (3) 우리가 주님만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14:15). (4)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14:16). (5)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14:19). (6)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14:21). (7)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14:23).

오늘 본문 잠언 27장 9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란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 잠언 27장 7-10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

다.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7절을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현대인의 성경)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먹는 즐거움입니다. 특히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즐겁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입이 즐거우면 기분도 좋고 뇌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식은 비만을 만들고, 건강을 해치고 각종 질병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7절을 보면 “배부른 자”와 “주린 자”가 나옵니다. 잠언 기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지만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배가 부르면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을 먹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배가 너무 고프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맛없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배부른 자의 즐거움과 배고픈 자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배부른 자의 즐거움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배고픈 자의 즐거움은 음식으로 배가 채워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고플 때 음식으로 채워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오늘 본문 잠언 27장 7절에서 “배부른 자”를 교만한 자를 비유한 것이고 “주린 자”는 겸손한 자를 비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만한 자는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겸손한 자는 “쓴 것”, 곧 고난도 달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흥미로운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 해석이 맞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박윤선 박사님과 달리 오늘 본문 잠언 27장 7절을 좀 달리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핵심이 배부름이 아니라 주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기자는 꿀이라도 싫어하는 배부른 자 보다 쓴 것이라도 달게 여기는 주린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린 자는 쓴 것도 달게 여긴다면 하물며 그 주린 자에게 진

짜 단 꿀을 준다면 그 주린 자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린 자가 쓴 것이 아닌 꿀을 먹으므로 그의 주림이 채워질 때 얼마나 마음이 즐거울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는 주린 자처럼 꿀을 사모하여 그 꿀로 우리가 채워지므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모하고 채워져야 할 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4장 13-14절 상반절을 다시 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꿀이 좋으니까 먹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송이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송이꿀이 더 달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기자는 지혜도 송이꿀 같이 달콤하니 지혜를 얻어라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는 주린 자처럼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지혜(깨달음)를 얻어야 합니다. 그 만큼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꿀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잠 30:5)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또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지혜를 얻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Big Bear에 있는 cabin으로 영어사역 연합 수련회 갔었을 때 일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저는 밖에 나와 의자에 앉아 산과 나무 등을 쳐다보면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새들 두 마리 정도가 날라 다니다가 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때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마 10:29-31).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 새도 다 먹이시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 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8절을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철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절을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철새를 생각할 때 전에 신문인가 인터넷에서 본 "철새 교인"이란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집 교회(home church)가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갑기도 하고 또한 염려도 됩니다. 동시에 저는 내 집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집과 같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영적 가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잠언 27장 8절에서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를 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을 말하고자 그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하면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나이 17살 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하다 강제적으로 고향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39살 즘 되어서야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 등 가족 식구들과 재회하며 애굽에서 함께 삽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결국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죽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지금 이북이 고향이지만 남한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어르신들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 아마 "실향민"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실향민은 고향을 떠난 후 고향에 자유로이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이다. 난민도 포함된다"(인터넷). 인터넷 중앙일보를 보니까 금년 추석인 2016년 9월 14일에 "실향민 5000명이 그린 '그리운 내 고향' … 북녘 보이는 오두산 전망대 벽화 완성"이란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았더니 5000이나 되는 실향민들과 국내 이산가족 및 탈북자들이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화폭에 그린 북녘 고향의 그림 5000개를 모아 벽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그리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5-16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개혁개정)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옛 고향을 떠나 하늘에 있는 새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새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 앞서 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3.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후렴]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슬픔 많은 이 죄악 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인 천국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John H. Walton & Tremper Longman III이란 저자들이 쓴 "How to Read Job"이란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금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친구인 욥에게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참하게 만드는 위로자들(miserable comforters)이었습니다(욥 16:2). 우리 주위에 이러한 위로자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든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힘들고 어려워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위로자 친구를 경험해 보시진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 잠언 27장 9절을 보십시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이"란 말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9절상)을 가리킵니다. 즉,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란 히브리어로 "영혼의 권고"란 뜻입니다. 이 영원의 권고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친구의 권고는 말 뿐아 아니고 영혼으로 (간절하게) 권면하는 사랑이다"(박윤선).

여러분을 이렇게 영혼으로 간절하게 권면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종종 들어가는 기독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웹사이트에 종종 들어가서 관심이 가는 기사가 있으면 읽고 기사 내용이 좋으면 우리 교회 영어사역 페이스 북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기사 중에 얼마 전에 나눈 기사는 "진정한 친구"(TRUE FRIENDSHIP)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의 핵심 성경구절은 바로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

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글을 쓴 사람은 우리가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같은 친구를 보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같은 친구에 대하여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사랑으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당신을 세워주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당신에게 상처 입힐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넷째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들도 초대하십시오.
마지막 다섯째로, 사랑으로 상처 입는 사람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친구를 위하여 기도도 해야겠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길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충고를 우리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십시다. 비록 그 충고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상처 주는 주님의 충고를 겸손히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충고를 겸손히 받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신실한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습니까? 식구인 형제나 자매보다 더 자주 보면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다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그 이웃이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이웃이라면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이웃이 불성실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나 몰라라 하는 형제나 자매보다 낫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0절을 보십시오: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네 친구나 네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네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은 먼 형제보다 낫다"]. 여기서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란 "네 친구, 곧 네 부친에게 신실히 행한 친구"란 뜻입니다(박윤선). 즉, 부친 때부터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은 아들 된 자로서 그를 귀히 여겨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친구 분들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러분의

부모님 때부터 신실한 분으로 인정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있다면, 이러한 신실한 부친의 친구 분을 알고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신실한 친구 분이 살아 계시다면 그 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 분을 대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부친 때부터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된 분을 우리는 아들 된 자들로서 그런 분을 귀히 여겨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잠언 27장 10절 중반절에 주는 교훈은 우리는 어려움(환난)을 당할 때 우리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현대인의 성경)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네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할 때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영혼)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9절)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지도 않는 형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10절상).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내 형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여태까지 신실하게 대해줬으니 내가 도움을 청해도 분명히 나를 도와줄꺼야'라는 확신이 든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형제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내 형제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불성실하니 내가 지금 힘들어서 도움을 청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꺼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더 정확한 답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즉, 성경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 형제가 "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형제와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고 오히려 멀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형제가 생각나서 그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힘들고 찾아가 도움을 청할 때가 없으면 마지못해서라도 형제를 찾아가겠지만 과연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형제의 관계가 더 멀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와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바로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영혼)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형제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선 그 관계에는 사랑과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과 신실함이 없는 형제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진 형제에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오히려 성경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즉, 사랑과 신실함이 없는 먼 형제의 관계보다 사랑과 신실함이 있는 가까운 이웃의 관계가 더 낫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즐거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슬픈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천국과 충성된 친구의 권고와 가까운 이웃으로 인하여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잠언 27장 11-14절]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엡 5:10). 제가 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69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두 번의 짧은 묵상을 했었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십니다”란 제목 아래 이러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시 69:1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겨주시사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5절).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이 “나의 우매함”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

심을 내야 합니다(9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야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30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저는 시편 69편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란 제목 아래 이러한 글을 써 보았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29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근심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20절). 그 때에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20절).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32절, 현대인의 성경)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29-30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31절)."

오늘 본문 잠언 27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 이 성경 말씀은 잠언 기자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로서 그는 자기 아들이 지혜를 얻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잠언 27장 11-14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한 3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위험을 보면 피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2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위험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일 지금 여러분이 산에 캠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멀리 있는 곰을 발견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 곰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곰이 있는 쪽으로 일부러 걸

어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뻔 하잖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곰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이 여러분의 자녀를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곰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한 줄 알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 잠언 27장 12절을 현대인 성경을 보면 잠언 기자는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기자가 22장 3절에서 이미 말한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은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은 환란 중에 주님을 위한 목적 없이 생명이 희생되거나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면서도 적당한 시기가 오기 전에는(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지혜 없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모하게 반대자들의 반발을 일으킴으로 핍박을 초래하지 말"아야 합니다(박윤선). 그런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모하게 반대자들의 반발을 일으켜 무의미한 고난과 핍박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그리 인도하신 것일까 라는 의문과 더불어 그 분들이 좀 더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몇 몇 선교사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은 해야겠지만 무의미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빌 1:29) 무의미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면서까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자초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오늘 본문 잠언 27장 12절 하반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어리석으면 우리는 위험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해)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건지심)을 구해야지 어리석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가 위험해 쳐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만 어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기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여 행동에 옮기다가 어려운 상황을 처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위험을 보면 피해야 합니다(12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험(재앙)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위험을 보고 피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의 아내와 함께 피하였습니다(창 19:12-18)(박윤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려 멸망시키셨나요? 그 이유는 무법한 자들의 불법한 행실과 음란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벧후 2:7, 8).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6절).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법한 자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던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습니다(7-8절). 그 때 롯이 행한 것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창19:16-17).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왕으로부터 피하여 숨고 도망가고 그리했습니다(삼상 20:19, 23:19, 26:1)(박윤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무법한 자들의 불법한 행실과 음란한 행실이 가득 찬 도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도시를 심판하시사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 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무법한 자들의 불법한 행실과 음란한 행실을 본받지 말고 그러한 모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다가오는 재앙이나 위험을 보고 지혜롭게 피하여 불법한 자들과 함께 멸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3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현대인의 성경)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우리는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이미 잠언 기자가 보증에 대하여 말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잠언 6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웃을 위하여 담보나 보증을 섰다가 우리가 그 이웃에 손에 빠졌을 때 스스로 구원하라(deliver yourself)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이웃의 채무 이행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이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 불이행(defaults)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것, 즉 보증을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MacArthur). 물론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을 아예 금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박윤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혹여나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을 선 여러분이 실제로 책임질 각오를 하지 못하였던지 또는 상대방 이웃에게 속아서 보증인이 되던지, 보증을 선 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이행할 경제력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의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설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선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의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다른 예는 잠언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 얼마나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경제적 실력 없이 남의 빚에 보증이 된다는 것도 그 빚진 자의 마음에 헛된 위로를 주는 것뿐이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파산을 가져오기 쉽다.” 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파산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무모하게 이웃의 보증을 선다는 것, 그것은 헛된 위로를 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3절에서 잠언 기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취하라”는 말씀이나 “볼모 잡을 지니라”는 말씀은 “남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가 마침내 쓴잔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적어도 우리는 이미 남을 위하여 보증이 되었다가 쓴잔을 맛본 사람(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 남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을 삼가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보증을 설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남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3절 말씀은 이미 잠언 기자가 잠언 20장 16절에서 한 말입니다. 두 구절을 보면 똑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보증 행위에 있을 수 있는 실수를 경고하고 있는데(박윤선) 그 실수란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외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므로 그 외인에게 아무 것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서는 아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 친척 식구라 할지라도 보증을 서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일까요? 그런 행위를 가리켜 박윤선 박사님은 "경제적 모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큰 경제적 모험입니까?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는 행위이던 보증을 서는 것이든 이러한 행위는 돈을 빌려줬던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기에 경제적 모험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말입니다: "사람들이(특별히 신자들이) 경제적 모험을 하면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나친 경제 모험이 일종의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런 모험은 내일 일을 인간의 힘으로 주장할 듯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이다(약 4:13-17)."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1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현대인의 성경) "남의 보증을 서는 사람은 쓰라린 고통을 당하여도 남의 보증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평안하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남의 보증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당하여 쓰라린 고통을 받는 것을 마다할 수 있다면 남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생각엔 그렇게 당하는 손해나 고통은 그리 큰 의미가 없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웃이 보증을 서 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보증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11:15).

마지막 셋째로,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웃을 올바르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 지나 월요일 이른 아침에 전화 소리가 좀 크게 울리던지 카카오톡 소리가 크게 울리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누구에게 들은 말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 제가 들은 말은 목사님들은 월요일 이른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즘에 전화를 하는 게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때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월요일 이른 아침에 전화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곤한데 일은 나가야 하고, 좀 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려서 잠에서 깬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월요일 날 이른 아침에는 어머님의 전화도 받기 좋아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든 회사 상관이든 친구든 간데 큰 목소리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우리를 칭찬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 이른 월요일 아침에 큰 목소리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 칭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적절한 때에 상대방을 칭찬할 때에 그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25장 11절을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현대인의 성경)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때 형편과 경우에 잘 조절하여 한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윗절인 11절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경우에 적절한(합당한) 책망은 그 책망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 고리와 정금 장식”같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경우에 적절하지 못한 책망을 했다가는 서로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현대인의 성경)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른 아침부터”라는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이른 아침에는 전화를 받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 아침에 전화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잠을 더 자고 싶고 피곤해서라기보다 새벽기도회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바로 “큰 소리로”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큰 소리로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이른 아침에 말입니다. ㅎ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 그는 여기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상대방을 축복, 즉 칭송(adulation)하는 것은 “지나친 성의를 가지고 아첨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전화 와서 큰 소리로 여러분을 지나치게 칭찬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듣기에도 상대방이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아부성이 있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이른 아침에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올바르게 칭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적합한 때(타이밍)에 적합한 말로 우리 이웃을 칭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이웃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우리 이웃을 칭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이웃이게 칭찬의 말을 하게 만드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칭찬하되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7장 11-13절에 근거해서 한 3가지 일에 대하여 우리 이웃을 칭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우리 이웃의 지혜를 칭찬해야 합니다(11절).

특히, 우리 이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적절한 타이밍에 칭찬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 이웃이 슬기롭게 위험(재앙)을 보면 피하는 것을 칭찬해야 합니다(12절).

만일 우리 이웃이 어리석은 자처럼 위험을 보고도 나아가는 것을 보면 해(어려움)를 당할 것을 알고 사랑으로 책망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칭찬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우리 이웃이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을 칭찬해야 합니다(13절).

결국 우리가 우리 이웃을 적절한 타이밍에 칭찬해야 할 것은 그들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칭찬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성경 누가복음 6장을 읽다가 32-35절 말씀 중심으로 짧게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 묵상 제목은 "우리의 칭찬 기준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입니다.

"우리의 칭찬 기준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 주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은혜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6:32-35).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험을 보면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잠 27:12).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13절).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르게 칭찬해야 합니다(14절).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잠언 27장 15-19절]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디에 우선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행함입니까 아니면 존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함보다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가 행하는 일보다 제가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being)가 "행함"(doing)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존재에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27장 15-1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5절을 보십시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현대인의 성경)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보신 적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비가 오는 날이면 저희 예배당 지붕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저희 교회 히스패닉 사역 목사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방수 공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리모델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오랫동안 지붕에서 물이 새서 교회 예배당 천장의 나무들일 썩어져서 조근만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면 무너질 수도 있

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공사하는 분에게 듣고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9장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남편과 다투는 습성이 있는 아내는 연거퍼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녀는 남편과 다툼이 시작되면 말을 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런 집안에는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자녀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붕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새는 것을 볼 때에 저렇게 계속해서 놓아두었다간 천장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날마다 다투는 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은 저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어떠한지 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불안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5절에서도 성경은 “다투는 여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투는 여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로서 가정에서 남편과 다투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까. 물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다툴 때에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다투는 습관이 있는 남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부는 서로 다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부부가 서로 다투는 원인은 각자 안에 싸우는 정욕 때문이요, 습관적으로 다투는 원인은 그 싸우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부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를 하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다투는 것이요 습관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되 특히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시비를 그치지 않고(잠 15:18) 다투고자 분노 가운데 과격한 말을 합니다(1절). 그래서 성경 잠언 21장 9절을 보면 성경은 “다투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9절에 가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투는 원인이 분노는 참지 못하고 성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15:18).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칩니다(18절). 그래서 성경 잠언 21

장 9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이나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큰 집에서 편안하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움막이라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목한 부부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되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되 우리는 먼저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우리는 3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1)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고 서로 덮어줘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을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허물을 더욱 더 잘 보게 하고 그 허물을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말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하므로 부부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한 다투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우리 생각에 기록해 놓게 만들어서 그 잘못한 것들을 서로에게 말하게 만들되 거듭 말하게 만들므로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과 불화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2) 우리는 부부의 화목을 위하여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잠언 17장 14절을 보십시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에 주로 무슨 일로 다툽니까? 큰 일 때문에 다툽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일로 다툽니까? 부부는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시비를 그쳐야 하는데 시비를 그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작은 일로 시작한 싸움이 점점 확대되어 더 큰 싸움이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이 시작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3) 우리는 부부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막9:5),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8:34) 겸손하며(9:34-37)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41절).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화목케 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화목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마 5:9).

둘째로,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Paul David Tripp이란 목사님은 그의 책 "What did you Expect?"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No, what we are getting is something we desperately need, the uncomfortable grace of personal growth and change"(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의 불편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 등 모든 면으로 다른 두 남,여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불편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두 다른 남, 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함께 많이 부서지고 또한 많이 깎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부가 서로 많이 깎이기 위해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잠 27:17, 현 대인의 성경).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두 철들이 잘 부딪혀야 합니다. 그와 같이 부부가 서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주님 안에서 잘 싸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싸우는 부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 서로의 차이를 옳고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그저 다를 뿐이야’라는 자세로 그 차이들을 오히려 서로의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서로 보완하는 계기로 삼으므로 더욱더 부부가 함께 온전해져 갑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오히려 감사해 하며 존중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절실히 필요한 개인의 성정과 변화의 불편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7절을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여기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우므로 상대방 형제, 자매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여 빛나게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박윤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형제, 자매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여 빛나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친구 형제, 자매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u>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친구에게 비춰야 합니다.</u>

오늘 본문 잠언 27장 19절을 보십시오: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 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비춰 준다”]. 시냇가 물에 우리의 얼굴을 들이대면 우리의 얼굴이 비취듯이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마음과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 친구를 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고 정직하며 또한 진실되게 우리 친구에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친구와 마음이 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계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친구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실 때 우리는 서로를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u>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해야 합니다</u>.

잠언 27장 9절을 보십시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 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친구에게 투명하게 비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를 권고케 하십니다. 권고케 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를 권고케 하십니다. 여기서 적합한 때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권고한다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축복이라도 아침에 큰 소리로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사 그 분의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를 권고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하십니다.

(3)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칭찬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2절을 보십시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찌니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망정 네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친구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친구를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 안에 장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게 하십니다. 칭찬케 하시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칭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칭찬에 인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를 칭찬하므로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3)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면책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5-6절을 보십시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면책보다 숨은 사랑을 하는 것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원수의 거짓된 입맞춤보다는 충성에서 말미암은 친구의 통책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의 통책”이란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the wounds of a friend”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친구의 통책이란 친구가 주는 상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원수의 거짓된 자주 입맞춤보다 낫습니까? 그 이유는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기에 거짓된 입맞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무너트리고자 하는 반면에 친구는 우리는 사랑하기에 진실된 면책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친구가 우리를 사랑하므로 면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의 사랑의 면책으로 오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에게 유익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상처까지 우리는 우리 친구에게 사랑의 면책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친구의 장점들을 보고 진심으로 우리 친구를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를 면책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친구를 날카롭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우리 모두가 지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일 것입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우리 부모들의 본능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되기 쉬운 너무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 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잠언 27장 18절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무화과나무를 보살피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잘 보살피는 사람은 영화를 누린다"]. 여기서 "시중드는 자"란 "지킨다"는 뜻으로서 "자기 주인을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숫군의 직무를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래서 18절 상반절에서 성경은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무화과는 매우 고상한 열매"이며 "무화과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잘 맺도록 하려면 주의 깊이 그 나무를 돌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무화과나무는 땅을 잘 갈아주어야 열매를 맺고, 묵은 무화과나무는 잘 가꾸어 주어야 그것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박윤선).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나무로 하여금 매우 고상한 열매를 잘 맺도록 땅을 잘 갈아주고, 잘 가꾸어 주고, 잘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자들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잘 돌봐주며, 잘 지켜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파숫군이 되어"야 합니다(박윤선). 저는 이번에 교회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무지한 가운데서 제가 묵상하고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과 불일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범한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느 누구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에스겔 36장 21-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시편 121편 3-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3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잠 4:23).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길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보다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7장 15-1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15절). (2)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17절). (3)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18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방법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4가지 방법을 오늘 새벽기도회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친구에게 비춰야 합니다.

성경 잠언 27장 19절을 보십시오: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 시냇가 물에 우리의 얼굴을 들이대면 우리의 얼굴이 비취듯이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마음과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 친구를 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고 정직하며 또한 진실 되게 우리 친구에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친구와 마음이 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친구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실 때 우리는 서로를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9절을 보십시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친구에

게 투명하게 비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를 권고하게 하십니다. 권고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를 권고케 하십니다. 여기서 적합한 때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권고한다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축복이라도 아침에 큰 소리로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사 그 분의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를 권고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칭찬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2절을 보십시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찌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친구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친구를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 안에 장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게 하십니다. 칭찬케 하시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칭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칭찬에 인색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를 칭찬하므로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면책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27장 5-6절을 보십시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는 면책보다 숨은 사랑을 하는 것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잠언 기자는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의 거짓된 입맞춤보다는 충성에서 말미암은 친구의 통책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의 통책”이란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the wounds of a friend”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친구의 통책이란 친구가 주는 상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원수의 거짓된 자주 입맞춤보다 낫습니까? 그 이유는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기에 거짓된 입맞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무너트리고자 하는 반면에 친구는 우리는 사랑하기에 진실 된 면책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가 우리를 사랑하므로 면책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의 사랑의 면책으로 오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에게 유익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상처까지 우리는 우리 친구에게 사랑의 면책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친구의 장점들을 보고 진심으로 우리 친구를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를 면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친구를 날카롭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벗겨지지 않는 나의 미련

[잠언 27장 20-27절]

제가 몇 달 전부터 발 무좀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만나서 약 처방을 받아 약도 바르고 있는데도 이번엔 왼쪽 발가락 사이에 난 무좀이 좀 오래갔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부터는 같은 발 외쪽 뒤꿈치 피부가 갈라져서 저는 무좀인 줄 알고 같은 무좀약을 바르곤 했는데 제 아내가 보더니 이것은 무좀이 아니라 때가 많아서 피부가 갈라진 거라고 하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후 때를 벗겨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말대로 그 다음 날 운동하러 가서 운동 후 제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좀 있다가 샤워를 하면서 제 왼발 뒤꿈치에서 때를 밀어내려고 했더니 그렇게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발 뒤꿈치에 때가 오랫동안 밀지 않아 많이 굳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저의 마음과 양심도 많이 굳어 있지 않나 자아성찰해 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완고하고 강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겔 36:26). 하나님께서는 저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26절). 하나님께서는 저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11:19).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 마음 관리를 게을리 해서 제 마음의 미련함의 때가 많이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기보다(골 4:5) 미련하게 행하여 세월을 허송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대상 21:8).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저의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제 발 뒤꿈치에서 때가 잘 벗겨지지 않듯이 그만큼 저는 제 미련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은 곡식을 절구 안에 넣고 방망이처럼 생긴 절구공이로 절구 안에 곡식을 쳐 찧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왜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유는 곡물로부터 껍데기를 분리하거나 알곡을 찧어서 곱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인터넷). 결국 공이질을 하는 목적은 알곡을 껍데기와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찧으면 그 안에 있는 곡식은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곡과 껍데기를 체로 쳐서 껍데기를 날려 버리고, 곡물을 가려냅니다(인터넷).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7장 22절에서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없애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벗겨지지 않는 나의 미련**"이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7장 20-2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러면서 저는 나의 미련 4가지를 말씀에 비춰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인 4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아 알아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세움 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미련은 만족함이 없는 나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20절을 보십시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생각을 몇 번이고 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교회에 있다가 점심 식사 음식을 사러 식당을 향하여 가다보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 때문인지 자주 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 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만일 저 사람들처럼 눈이 안보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1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눈의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눈의 욕심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더 이상 눈의 욕심을 부리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눈의 욕심” 또는 “안목의 정욕”하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 여자인 하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뱀의 미혹을 받아 에덴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보기에 아름다우며”(현대인의 성경)]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여겼습니다(6절). 그녀는 그 나무를 보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안목의 정욕(눈의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므로 그도 먹어(6절)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안목의 정욕”(눈의 욕심)하면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밧세바를 범하게 된 성경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유부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삼하 11:2)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3절)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동침했습니다(4절).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니까(5절)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그의 집으로 내려가 밧세바와 동침케 하여 그 아기가 그 두부부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6-13절). 그러나 이 시도가 안 되니까 다윗은 결국에 가서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14-17절).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자도 지나가는 멋진 남자를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을 그와 간음한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전도서 7장 7절 말씀 중심으로 왜 사람들이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모세의 10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이 적혀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왜 우리는 탐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잠 5:19). 그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그녀에게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아무리 많은 여자를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으로 꾀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벧후 2:18). 죄를 짓게 하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여인을 탐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사 56:11). 그러므로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잠 5:19) 우리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만듭니다(출 29:17).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시 119:36).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골 3: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눅 12:15).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광명”에서 ‘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존스): "여러분의 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 만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 여러분의 눈이 어떤 것들을 탐하지 말게 하십시오. 똑바로 앞만 바라보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 여러분은 눈과 언약을 맺고 앞만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거룩과 하늘만 주목하고 나가십시오." 성경 욥기 3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현대인의 성경) “내가 내 눈과 서약하였으니 어찌 처녀를 정욕의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눈과 약속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여자/남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맺은 약속(서약)대로 정욕의 눈으로 다른 이성을 쳐다보지 않는데 헌신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눈으로(잠 27:20) 눈의 욕심(요일 2:16)을 따라 음란의 죄를 끊임없이 범할 것입니다(벧후 2:14).

만일 우리의 미련함이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미련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히 12:2). 그리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안목의 정욕(눈의 욕심)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의 미련은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는 말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요? 켄 블랜차드란 사람이 쓴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칭찬의 위력과 칭찬을 필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이 책은 가정과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고민하던 웨스 킹슬리라는 영업 회사 중역이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서 씨 월드 해양 관에서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고 무개 3톤이 넘는 범고래를 어떻게 훈련 시켰는지 알고 싶어 조련사를 찾아가서 그 훈련비법을 듣고, 자신의 가정과 회사에 적용시킴으로써 가정의 화목과 목표한 영업실적을 훌륭하게 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웨스 킹슬리가 범고래 조련사인 데이브는 웨스를 통해서 깨달은 점은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 사이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며, 멋진 쇼를 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어느 누구도 칭찬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은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인터넷). 어느 한 설문 조사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라고 물었더니 45%가 '칭찬 받을 때'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인터넷). 물론 그 칭찬이 지나쳐서 아부로 들리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런데 좀 웃긴 것은 우리 안에 본능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므로 그 칭찬이 우리의 귀에 아부같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는 제 자신이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무

슨 뜻입니까? 도가니와 풀무는 은이나 금을 단련하는 도구인데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는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인터넷): (1) 하나는,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터에서 올라오는 사울 왕 일행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며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다윗이 사울보다 전쟁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칭찬한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이란 칭찬 받는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칭찬”이란 단어의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칭찬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내는 시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7장 21절 하반절을 공동번역은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을 들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칭찬에 굶주려서 칭찬을 받고자 애쓸 때에 한 마디의 사랑의 면책도 크게 상처를 입고 실망하여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잠언 27장 2절에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운 교훈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화자찬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21절을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7장 21절 하반절 말씀인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우리 사람들은 칭찬에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 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기분이 좋고 기쁘지만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돌릴 위험(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인들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칭찬에 컨디셔닝이 되면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 받기를 좋아하기보다 주님께 칭찬 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다 주님 앞에 서서 회계할 때가 올 텐데 그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마 18:23, 24; 25:14-30).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24:45).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입니까?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벧후 3:1)과 진실한 입술(잠 12:19)을 가지고 진실한 청지기(눅 12:42)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책임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수 22:3).

(2) 우리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바로 가서" 사용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17절을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저는 "열매"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19절에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한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a)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14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21절). (b)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님의 열매 중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를 순종하므로 천국 생활을 합니다. (c) 저와 여러분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the good fruit)란 바로 선행(good deeds)입니다. 에베소서 2장 8-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마 25:4, 8. 9, 13)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나의 미련은 게을러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예를 들어 양 떼와 소 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 떼나 소 떼를 부지런히 보살피며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자기들의 가축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보살피고 돌봤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인 라반에 집에 있으면서 라반의 가축을 쳤습니다(창30:29). 그 결과 야곱이 오기 전에 적었던 라반의 소유가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는 가축이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습니다(30절).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30절).

오늘 본문 잠언 27장 23절을 보십시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현대인이 성경) “너는 네 양떼의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항상 네 소떼에 마음을 두어라”]. 무슨 뜻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사람이 마땅히 부귀와 권세를 의지하여 살지 말고 다만 자기의 실업에 부지런히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라”는 권면입니다(박윤선). 잠언 기자 당시 흔히 있었던 목축업에 종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잠언 기자는 그들에게 부귀와 권세를 의지하여 살지 말고 자기의 실업에 부지런히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라는 식의 말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즉, 그 이유는 부귀영화는 영원히 있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도 부귀영화를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각자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 중에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들었습니다(11절). 이들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들었던 이유, 즉 이들이 미련하게 게을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지 않고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중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삐뚤어진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11-12절)[(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잠언 26장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또 다른 성경구절은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들은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는 마음은 원하는데 손을 게으르고 놀리기 때문이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12:27)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19:24, 26:15). 웃기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마음으로만 원하고 실제로 사냥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또한 어느 누가 배가 고픈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까? 아니 그러면 아기처럼 누군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여줘야 합니까? 이것은 게으름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사냥도 하지 않고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게으름 중의 게으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 성경 잠언 19장 15절은 "태만한 사람"(an idle man), 즉, 나태하여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21:25). 그 결과 게으른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오되 마치 피해자가 강도를 만나 압도당하는 것처럼 가난이 옵니다(24:34)(MacArthur).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이러한 게으름이 있다면 오늘 본문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한 미련함을 다 벗겨버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무엇을 생각하고 씨를 뿌릴까요? 분명히 농부는 가을의 추수 때를 생각하고 봄에 씨를 부지런히 뿌릴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수고하는 이유는 바로 가을 추수 때에 곡식(참고: 딤후 2:6)이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약 5:7). 우리는 이러한 농부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질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있다고 오늘 본문 잠언 27장 25-27절은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25절을 보십시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할 때 마치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new growth)이 있을 것입니다(25절). 그 뿐만 아니라 마치 "산에서 꼴을 거둘 것"처럼 우리 또한 수고한 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25절). (2) 26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마치 '어린 양의 털은 우리의 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면 우리의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마치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한 수고의 열매로 돈을 벌어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6절). (3) 27절을 보십시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마치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모든 식구에게 음식이 되어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우리 집 안에는 넉넉함(풍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고후 9:8). 그리할 때 우리의 넉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너그럽게(후하게) 헌금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11절).

마지막 넷째로, 나의 미련은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물"하면 중요시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저는 신명기 8장 17-18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

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개혁한글).

모세에게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구원의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 나서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염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서 … (17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18절)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재물을 얻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족함을 누릴 때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풍족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합니다. 결코 풍족함을 누릴 때 이 세상이 우리 집 인줄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16절).

(2) 저는 "재물"하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물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시 52:1, 7, 8).

(3) 저는 건강을 잃는 것보다 재물을 잃는 게 더 낫고(전 5:13, 14), 재물을 잃어서라도 영적인 재산(신앙)을 되찾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재물 때문에 신앙을 잃었다면 그 재물을 손해보고 나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7정 24절을 보십시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현대인의 성경)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며 면류관도 대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귀영화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관의 혼동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치관의 혼동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히 11:24-26).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가신 골고다의 길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길, 애굽의 넓은 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혼동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혼동된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혼동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입에서 자기들에게 외치는 말들은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부귀영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순간적인 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대하 2:1-5:1)이 성전 건축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집”이 란 “성전”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혜롭게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재물”과 “지혜” 둘 중의

어느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8장 10-11절에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얻을 때 우리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기에 재물 자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19절을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21절) 곧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지혜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하게 영원하지도 않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딤전 6: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

[잠언 28장 1-7절]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저의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성경에 있는 지혜의 책들을 몇 년 전부터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혜의 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저의 미련함이 더 들춰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 “깨달음”이란 글을 찾기(search)에 적어서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2006년 4월 2일에 쓴 글이 떠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 내용은 제가 주일 한국어 예배 설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사도행전 7장 9-16절 말씀 중심으로 “요셉의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설교를 했었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다가 귀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창 39:2, 3, 23)는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요셉의 환경에 변화라기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환경은 애굽 군대장관 보디발을 섬기는 종이였고(2-3절) 또한 나중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습니다(23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요셉을 우리는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문제 해결,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의 환경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

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 아니면 요즘에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잠언 28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이란 제목 아래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의인은 담대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선교지에서 현지인 일군들에게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까지 가르친 후에 경찰 등 사람들이 들이 닥쳤던 그 때 그 상황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좀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제 마음에 생각난 말씀은 그 현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겁먹어서 되겠는가. 담대해야 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행동한답시고 제가 머무르고 있었던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자는 척 하다가 경찰이 들어왔을 때 '미국 여권을 보여줘서 미국 시권자임을 영어로 밝히면 그 사람들이 떠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제 여권을 보여주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에 나오라는 말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오늘 본문 잠언 28장 1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잠언 기자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악인의 도망함과 의인의 담대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도망할까요?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왜 악인은 도망

할까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를 지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 죄를 숨기고 그 범한 죄의 댓가(형벌)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거하기에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릴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릴 뻗고 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맞아봐서 다릴 뻗고 잠을 잤지만 저를 때린 사람은 저를 때리고 나서 그 날 밤 다릴 뻗고 잠을 잘 잤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ㅎㅎ 성경 레위기 26장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 잠언 28장 1절 상반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의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란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레26:14-15).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26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징벌 중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겠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자처럼 달아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자처럼 달아"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합니다(잠 28:1).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지은 죄가 없기에 양심이 떳떳한 가운데서 악인처럼 두려움 속에서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하기 위해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사 쉽게 놀라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행 24:16). 또한 우리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23:1).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사자 같이 담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 지는 원인이 한 2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1)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강함을 느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 자신의 연약을 느낀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연약을 느끼고 하나님만 믿을 때에 우리는 의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10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어 강해지고 담대해 집니다. (2)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강하고 담대해 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여주시므로(요 14:21, 23)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약할 때 강함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총명 있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부족하나마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특히 우리는 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만큼 한 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한 교회의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 자신뿐만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품(character)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있어서 저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만일 그 대통령 후보가 선거철 때 이런 저런 공약을 시민들에게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지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에 입장에선 충분히 그 사람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

은 그 이전에도 그 대통령 후보가 과연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계속 하는 사람인지 좀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적어도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실성 외에도 우리가 종종 우리 나라 대통령과 그의 지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길 기도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스러운 지도자들일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보이지 않고(우리가 보기엔?) 성품도 과연 그들이 진실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실망스러운 현실은 정치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등등 그러한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한 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당파들이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을 돌보면서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지 우리는 희망을 잃게 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2절을 보십시오: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현대인의 성경)[“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2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2절).

나라 안에 어떠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과 악행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나라 지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본문 잠언 28장 3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관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이 관리는 “가난한 자를 학대 하는 가난한 자”라고 개혁개정 번역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그 관리는 지난날에 자신도 가난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리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체휼하여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총명하고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결코 아입니다(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지도자 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현대인의 성경) “농작물을 휩쓰는 폭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가 한국 뉴스를 보다보면 폭우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다 망가져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관리가 마치 농산물을 망치는 폭우와 같다는 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 지도자들이 많으면 그 서민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8장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 저는 이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 변역인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란 말씀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죄가 있으면 한 나라에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번역과 정권이 자주 교체된다는 번역을 비교해 볼 때 그 의미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자가 많이 진다는 의미나 정권이 자주 교제된다는 말이나 둘 다 다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적이지(stable)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한 나라의 지도부가 얼마나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당파 싸움을 하겠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나라에 당파가 많은 것은 그 나라에 벌써 있었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박윤선). 그 예로 박윤선 박사님은 열왕기상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우상 섬긴 죄 값으로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두 번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이 하나님의 벌로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왕상 12:15, 24).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내란이나 당파가 일어나서 평안하지 못할 때에는 통치자를 위시하여 모든 국민은 그 나라의 죄악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박윤선). 여러분은 이 박윤선 박사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분열된 고국과 미국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죄악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현대인의 성경)("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가정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어떻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쟁으로 인하여 분열되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결코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28장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자주 교체되면 그 나라는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그 나라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나라는 결코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정치권에서의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치고 낙심하며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잠 28:2).

이 말씀을 개혁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총명(명철)하고 지식이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을 되찾길 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이던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지식도 부족하고 총명하지 못해서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총명(명철)과 지식(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잠언 20장 26-30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왕"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5개를 받았습니다. 짧게 복습을 합니다:

(a) **지혜로운 왕은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분리한 후 악인을 벌합니다(26절).**

만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직책에 악한 사람들을 세워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왕상 3:11).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질서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b)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잠 20:27).**

지혜로운 왕은 의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므로 악을 행하는 악인의 어두움을 들춰내되 그 악인의 깊은 속까지도 살핍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 그 악인들을 벌하므로 악인의 등불을 끕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비췰 것이며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c) **지혜로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합니다(28절).**

지혜로운 왕은 인자함과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위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지켜 행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합니다.

(d) **지혜로운 왕은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29절).**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왕은 힘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한 지혜도 있다는 말입니다.

(e) **지혜로운 왕은 징계를 합니다(30절).**

징계하되 그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없애고자 매를 들어 상하게 때립니다. 그가 그리하는 이유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분리하여 악인을 공의로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나라의 시민을 보호하며 나라의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 그 나라고 오랫동안 인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특히 대통령이나 그의 보좌관들 및 지도자들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고 교체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식이 있길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부유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실(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정직)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직을 버리고 거짓되게 말하고 행해서라도 부자가 되고자 애쓰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부하고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히 행하는냐, 지혜롭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9장 1절을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가난해도 진실하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거짓되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성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6절을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짓된 부자보다 낫다"]. 이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개역하면 "진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두 길로 속이는 부자보다 나으니라"입니다(박윤선). 여기서 '두 길로 행한다'는 말은 "실상 그가 악한 길로 행하면서 선한 길을 가는 체 하기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박윤선). 그러면 이렇게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가 행하는 악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2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가 행하는 악한 길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학대하되 좀 더 구체적인 예는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며 법정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현대인의 성경).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며 또한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 까지 하여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지 않은 뒤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교묘하게) 학대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즉 두 길로 행하는 부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두 길로 행하는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사람들이 모르게 뒤에선 악행을 일삼아서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자보다 진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함과 가난함 보다 진실히 행하느냐 아니면 위선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거짓되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가난할지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기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두 길로 행하는 부자들이 되면 아니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길을 가는체 하면서 실상은 악한 길로 행하는 부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19장 22절 새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율법주의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이 철저히 지켰다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마 15: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였던 예수님 당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켰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계명)을 자기들 나름대로 철저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7:5, 15:7, 눅 6:42, 12:56, etc.).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2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 보시기에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로서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며(롬 2:23)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21절). 예를 들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도둑질을 하였습니다(21절).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 긍정적인 생각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율법”하면 우리는 옛 언약 시대인 구약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새언약 시대인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10계명을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는 이중계명으로 대치하셨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10계명을 중요시하지 않고(심지어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균형을 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10계명이나 예수님의 이중계명이나 지켜 행해야 합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금도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가하면(continuity) 이젠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도 있습니다(discontinuity). 예를 들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10계명 같은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법들은 이젠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칼빈은 율법의 기능이 3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 율법은 우리의 양심과 함께 사람들이 지독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28장 7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건달과 사귀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수치가 된다”]. 무슨 뜻입

니까? 먼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잠언 1장 7절 상반절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지식"은 "지혜"를 가리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않습니다(28:7). 여기서 "음식을 탐하는 자"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방탕하여 재산을 없애버리는 자를 가리킵니다(잠 23:20-21)(박윤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방탕하여 재산을 없애버리는 자와 사귀지 않은 이유는 그는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임을 알기에(8:13) 탕자와 같은 방탕하여 재산을 없애는 자와 사귀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성경 욥기 2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보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2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방탕하여 재산을 없애버리는 "음식을 탐하는 자"를 사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에게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첫째로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좀 철저하게 느낄 때 우리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28장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율법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지혜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신 4:6). 이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들이다'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다음 구절인 신명기 4장 7절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구절(신 4:6, 7) 말씀을 생각할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과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얻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지혜로워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인을 대적합니다. 성경 잠언 28장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악인을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잠언 28장 5절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는 "정의"(justice)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5절)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7절)는 악인이 깨닫지 못하는 정의를 깨닫기에(5절) 악인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4절).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정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대적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방탕하여 재산을 없애버리는 탕자와 같은 자를 사귀지 않습니다(7절). 그 이유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7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란 성경책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닫게 된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순종하므로) 누리는 기쁨이 말씀을 깨달아서 누리는 기쁨보다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8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 4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의인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총명 있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닫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 28장 8-14절]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 128:1).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번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혜의 책 잠언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1:7)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그 반복된 말씀들을 다시금 살펴볼 때 저는 한 2 가지 여기서 다시금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복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나 의지, 느낌, 행실과 목적들이 하나님의 자세와 의지와 느낌과 행실과 목적으로 다 맞바꿔있는 정신 상태입니다["The fear of the Lord is a state of mind in which one's own attitudes, will, feelings, deeds, and goals are exchanged for God's(MacArthur)].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지 결코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결코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느낌, 주님의 자세와 의지, 주님의 행실을 본받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박윤선 박사님은 한 5가지로 말했습니다: (1)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2) 은밀한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며 깨어 기도합니다. (3)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4) 평안한 때에 오히려 주님을 떠날까 하여 두려워하며 조심합니다. (5) 난처한 때에 구차스럽게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고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좀 복습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잠언 1장 8-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이미 교훈을 받았습니다: (a)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부모

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8절). (b)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의 꾐을 좇지 않습니다(10절). (c)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15절). (2) 우리는 잠언 24장 21-2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한 2가지로 이미 교훈을 받았습니다. (a)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민은 자기의 대통령을 경외합니다(21절상). (b)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민은 반역자들과 사귀지 않습니다(21절하). (3) 우리는 전도서 5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a)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1절). (b)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2절). (c)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킵니다(4절). (4) 우리는 시편 34편 8-1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 4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a)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합니다(8절). (b)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9-10절). (c)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12절). (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합니다(14절). (5) 우리는 시편 128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a)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산업에 축복을 받습니다(2절). (b)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에 축복을 받습니다(3절). (c)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회에 축복을 받습니다(5절).

오늘 본문 잠언 28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현대인의 성경)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현대인의 성경)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선 우리는 문맥인 바로 전 구절 13절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현대인의 성경)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8:13).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자복하되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한 죄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한 죄를 버립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림이 회개의 열매이다. 열매 없는 회개는 하나마나 한 것이다. 그런데 죄를 버리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실행된다"(박윤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악을 미워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므로 그 죄를 버립니다. 그가 그리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28:13).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범한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들춰졌을 때 즉시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부인(deny)하고 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14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출 7:13). 그리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 양심에 찔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완악(강퍅)한 마음이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롬 2:5). 그러다가 누군가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증거를 들이대면 우리는 그 때서야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자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범한 죄를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그 죄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퍅하여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모르고 철면피 같은 얼굴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될 때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8장 14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현대인의 성경) "…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릴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8장 8-14절 말씀 중심으로 한 5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자”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자”하면 두 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 나라에서 저에게 융자를 해주었는데 그 융자해 준 돈의 이자가 은행에서 융자해주는 돈의 이자에 비해 매우 쌌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그 때 은행 융자 이자가 한 8%로인가 10%로였던 것 같은데 나라에서 가난한 학생에게 융자해준 돈의 이자는 4%로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융자해준 돈을 제가 졸업한 후 6개월 이후에 매달이 아닌 세 달의 한번 씩 갚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나라에서 융자해준 돈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자”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저희 부부가 Chase 은행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 Saving 계좌에 얼마 정도 입금을 했었는데 이자가 얼마나 작았던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저축 계좌에 입금을 하면 좀 이자가 높아야 저희 부부에게 이익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낮아서 아무리 저축 계좌에 오래 두어둬 이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8절을 보십시오: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이 말씀은 “중한 변리” 또는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가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융자할 때 이자가 30년 융자는 4.0%이고 15년 융자는 3.625%라고 합니다(인터넷). 주로 사람들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낮은 15년 융자를 하고 싶어 하지만 매달 돈을 갚은 액수가 크기에 부담이 되서 30년 융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0.5% 포인트 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40만 달러의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아 살 경우에 연간 700달러가량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인터넷). 결국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므로 말미암아 이자를 받아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28장 8절에서 성경은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구약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동포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박윤선).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성경 신명기 22장 19-20절을 보십시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만 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이나 양식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동족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도 자기 동족들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벨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Hammurabi's Code)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면 이자를 높게는 20%까지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IVP Background 주석).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리대금업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은 부적절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돈을 빌려주는 것이란 같은 동족 사람 중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 사람의 경제적으로 힘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IVP Background 주석).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동족 중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입니다(잠 28:8). 성경 시편 72편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언 19장 17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또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4:31). 오늘 본문 잠언 28장 8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동족에게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사 그들의 늘린

재산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가나안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3장 22절 하반절에도 나와있습니다: "…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현대인의 성경) "…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인다"]. 또한 욥기 27장 16-17절을 보십시오: "그가(악인이)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성경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을지라도 그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 하여 재산을 늘린다고 해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들과 더불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증한 기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저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이안 M. 더귀드(Iain M. Duguid)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와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혹하는 지름길'(deceptive shortcut)입니다. 그 때 우리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므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2) 우리가 그리도 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 사단이 보여

주는 지름길을 선택하여 빨리 얻든지. 그러나 만일 우리가 두 번째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귀드 목사님의 권면은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가실 것이며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임재)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더귀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두려움에서 믿음으로"(From Fear to Faith)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매우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이기주의 등을 다루기 위해 가끔 응답을 미루시기도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매우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기도 응답의 더딤이 우리의 이기주의 등을 다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미루시고 계심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28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는 우리가 귀를 돌려 하나님의 율법(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돌린다(돌이킨다)는 말은 "반역의 심리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음이니, 그것은 일시적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 범죄이다"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말하였습니다(박윤선). 마치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등을 돌려 고의적으로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러면서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반항하고 말도 듣지 않는 자녀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과연 그것이 그 자녀를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자녀를 도와준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 자녀를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더욱더 아버지의 말에 등과 귀를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1-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

께로부터 나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귀를 막으며 자기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 외국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 후로 그들이 살던 땅은 황폐하여 왕래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던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였습니다(렘 32:33). 그러면서 자신들이 궁핍하던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증한 기도를 어떻게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려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18:17) 그들의 가증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슥 7:13).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증한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고통 중에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는 말씀을 토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도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도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살아 있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살아 있는 기도란 우리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균형을 잃은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

지 않느냐?"](눅 6:46).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아니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마 7:21).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시66:18).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기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가증한 기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죄악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성실함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직"하면 잊혀지지 않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정직의 위기"입니다. 워렌 W. 위어스비 목사님이 쓰신 책인 영어 제목은 "The Integrity Crisis"입니다. "정직"(integrity)이란 무엇입니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이 말은 라틴어 "integritas"에서 온 것으로 "완전", "전체", "완벽"의 뜻을 지녔습니다. 어근은 "integr"로서 "완전한", "손상되지 않은", "본래대로의"라는 뜻입니다(인터넷). 저자는 그 책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숨길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열려진 책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 만큼 정직한 사람들로서 투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등을 숨기고 포장하며 꾸밉니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을 말합니다. 특히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교회에 나와서도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등등 척척 잘합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존 비비어는 "광야에서의 승리"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서운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당신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투명한 그릇은 그 자체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라도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연단을 통해서라도 정화되어 정직한 모습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는 세상의 불순한 것들로 오염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양새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꾸미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서 교회같이 보이려고 너무나 두껍게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썩은 냄새는 진동합니다. 그 썩은 냄새도 가려보려고 향수를 뿌려 보지만 더 희귀한 냄새만 나게 될 뿐입니다. 이 썩은 냄새까지는 우리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냄새도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선을 더 싫어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악들인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직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껍데기나 포장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기려고 포장하는데 만 급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투명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썩은 냄새 가운데서도 더욱 더 강하게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내야 이 세상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교회가 투명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단련 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교회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은 값없는 것들에서 값진 것들을 분리시켜 내는 극렬한 불입니다(비비어). 우리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값없는 것들을 내어 버리고 값진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진 것들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교회는 값없는 것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자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정화 돼야 합니다. 정화되데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히 비춰여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0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정직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란 바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와 “성실한 자”(정직한 그 사람)입니다.

먼저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전에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유괴범들이 어린 아이들 꾀어가지고 유괴한 뉴스를 접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유인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어린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꾐에 넘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제가 저희 집 강아지 루나를 유인하려면 간단합니다. 제가 루나에게 먹잇감을 주면서 유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나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저희 집 아이와 함께 있다가도 저를 따라 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1절)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뱀은 그녀는 유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u>뱀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 들게 만들려고 했습니다.</u>

그래서 뱀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1절). 여러분,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현대인의 성경)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2:16)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사탄이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뱀이 의도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라기 보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였습니다(17절).

(2) <u>뱀은 여자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u>

뱀의 질문을 받은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3:2-3).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창세

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여자가 뱀에게 답변한 것처럼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도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3:4-5).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2:17) 뱀은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3:4).

(3) 뱀은 여자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여 결국에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남편인 아담도 같은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은 인간의 제일 취약점인 이 3가지 -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으로 그 여자를 유인하여(entice) 그녀로 하여금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하게 만들므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녀로 하여금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므로 그 또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사사기 14장과 16장을 보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읽다보면 삼손이 여인에게 꼼을 당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옵니다.

(a) 삼손의 첫 번째 아내로서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그녀를 보고(삿14:1) 그녀를 좋아하게 되어(3절) 자기 부모에게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2, 3절).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딤나로 내려갔는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로 삼은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10-12절). 그런데 그 30명 친구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일곱 째 날[NASB는 4

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남편을 꾀어 (Entice your husband)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15절). 그러므로 삼손의 아내는 그 잔치 기간인 7일 동안 계속 울고 삼손에게 졸라 대자(강요함으로) 삼손은 견디지 못해 7일째 되는 날에 그녀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고 말았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b) 삼손의 세 번째 여자인 들릴라라 이름 하는 여인이(16:4)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에게 각각 은화 1,100개씩 받는 조건으로 삼손을 꾀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5절).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을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6절)고 하니까 삼손은 그녀에게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1)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마르지 않은 일곱 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7절), (2)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11절), (3)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자면 되리라”(13절). 이렇게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하니까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15절)라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16절). 그래서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17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삼손히 들릴라의 꾐에 넘어갔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먼저 삼손은 들릴라의 배후 인물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 뒤에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자기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능히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들릴라에게 시켰는지를 몰랐습니다. (2)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에게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세 번째 거짓말에 가서는 자

기의 머리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점점 더 그는 자기의 힘이 근원이 머리카락에 가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러다가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을 날마다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창 39:10)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삿 16:17, 19). 자기 머리를 밀면 자기의 힘이 떠난다고 다 말해 놓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잔다니 '나를 잡아 먹으세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사탄은 인류의 최초의 여인과 그녀의 남편인 아담을 유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였고 또한 나실인이었던 사사 삼손도 여자를 사용하여 유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여 우리를 유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잠언 28장 10절 하반절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성실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즉 의인(upright person)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어 "정직하게 말하는 자"요(잠 16:13) 또한 그/녀의 행위가 정직합니다(미 2:7). 이렇게 의인이 의로운 입술로 정직을 말하고 정직히 행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서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의로운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시 11:7). 그 좋은 예가 바로 욥기 서에 나오는 욥이란 인물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욥1:1, 8). 그러므로 그는 10자녀들을 잃고 물질을 잃었어도 오히려 그는 "땅에 엎으려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20절)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22절). 이러한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성실한 자는 오늘 본문 잠언 28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과연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정직한 욥이 받았던 복은 한 2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먼저,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사 양 14,000 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로 주셨습니다(욥 42:12).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녀의 축복도 주시사 아들 7명과 딸 3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13절). 성경은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온 땅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2) 그러나 제 생각엔 이 복보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더 큰 복은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5절).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삶 현장 속에서 그 분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적 축복이 그가 받은 자녀의 축복과 물직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8장 10절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정직(성실)한 자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건짐을 받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10절 상반절을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은 의인을 악한 길로 유인하고자 함정을 만들어 놓지만 결국에는 악인 자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잠 26:27),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 "함정을 파는 자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전 10:8).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정직한 자를 빠트리려고 악인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악인 스스로 빠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사 그를 악인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건져(구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건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정직을 말하며 그의 모든 행위 또한 정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정직한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길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길에 함정을 파 놓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성실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불의를 행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탄의 유인 작전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성실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성실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길까요? 저는 그 대답을 신명기 8장 17-18절 상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즉,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들에 대해 성경 잠언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더 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3장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다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부자들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일을 경영하여 그 경영하던 일이 잘되면 그들은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 일이 잘 된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요 그 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 신명기 17장 19절을 보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선 우리는 평생에 우리 옆에 성경책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19절).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20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데 마음을 둬서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1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가난해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가 되기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는 명철한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명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하나님께서 크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저의 신앙생활 습관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는 것, 즉 자아 반영 및 자아 성찰케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야고보서 1장 23-24절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 거울로 삼고 그 말씀에 제 속사람을 비춰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영향은 바로 목사님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가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그 어르신들에게 '당신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온 3가지 대답 중 하나가 "self-reflection"(자아 반영)라는 사실에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철저하게 살피면서 또한 노력해야 할 점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2장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였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유대인 성도들이 그러지 않길 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다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 그들 앞에서 교만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도 아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믿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혹여나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좌를 범한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히려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되 철저하게 살핍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인이 권력을 잡는 것을 기뻐하였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생활"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부모는 어린 아이에게 자기의 개성을 억지로 강요하며 어린 아이의 인격을 묵살합니다. 그런 유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은 주로 소유욕이라 불려집니다." 이러한 소유욕을 가지고 자녀를 컨트롤하는 권력을 남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심리적으로도 컨디셔닝에 걸려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건강하지 못한 정신으로 자라나는 자녀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 구실을 제대로 잘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 받은 신적 권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억지로 그 자녀를 강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목사님으로 인해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 하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그 목사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교역자 목사님들은 더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인격을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억지도 일을 강요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못 견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멀리 볼 필요가 있나요, 북한을 보십시오. 독재가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그 나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시민들이 무슨 기쁨과 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8장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에 관한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쓰시므로 의인들이 기뻐하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크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박윤선). 특히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인들로 세우시사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때 그 나라에는 질서와 공의가 있기에 시민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Walvoord).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하심을 받은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1절)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잠언 11장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이 잘되면 온 시민이 즐거워하고 …"].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즉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 살기 마련입니다(28:12, 28). 그 이유는 권력은 잡은 악인은 교만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래서 잠언 2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실제로 지금 악인이 권세를 잡은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우리나라 지도자로 세워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시민들은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가장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인으로 세워주시길 때 그 가정과 교회에는 질서와 공의가 있으므로 온 가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34절을 보십시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의는 나라를 높여도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한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나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나라가 영화롭게 되길 기원합니다. 결코 죄를 짓는 지도자들이 되므로 우리 시민들을 욕되게(부끄럽게)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8:14).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입니다(13절). 우리는 본문 잠언 28장 8-14절 말씀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복 하고 버리는 죄를 한 5가지로 묵상했습니다: (1)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8절). 즉,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2)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증한 기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9절). 즉,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성실함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림(10절). 즉,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4)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11절). 즉,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핍니다. (5)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인이 권력을 잡는 것을 기뻐하였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버립니다(12절). 즉,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 28장 15-20절]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접한 소식은 이 나라 대통령이 미식축구 선수들이 미국 국기에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그들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을 하므로 많은 미식축구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팀 주인(owner)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항의(protest)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에 좀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그 선수가 한 말은 대통령의 발언이 "divisive", 즉 분열을 초래하는(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적인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과 미디어 기자들이 있는데 연설을 하면서 시민을 하나 되게 하기보다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을 욕까지 섞어가면서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인 남편/아버지가 매우 중요하며, 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매우 중요하며,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되 특히 제 생각엔 그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인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는 잠언 20장 26-30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왕"이란 제목 아래 한 5가지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짧게 묵상하면서 이러한 지혜로운 대통령,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가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1) 지혜로운 왕(지도자)은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분리한 후 악인을 벌합니다(20:26). (2)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20:27). (3) 지혜로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합니다(20:28). (4) 지혜로운 왕은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20:29). (5) 지혜로운 왕은 징계를 합니다(20:30).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8장 15-20절 중심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란 제목 아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지를 한 5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탐심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5-16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현대인의 성경) “가난한 백성에게는 악한 관리가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처럼 위험한 존재이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 백성을 탄압하여도 청렴한 통치자는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악한 관원”(15절)과 “무지한 치리자”(어리석은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포학을 크게 행하여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탄압하되 마치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사자가 부르짖습니까? 그 이유는 주려서 먹을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산으로 캠핑을 갔다고 굶주린 곰이나 사자를 만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 호세아 13장 8절을 보면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끼 잃은 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염통 꺼풀을 찢고 그들을 삼키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 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합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사람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분노할 때 들 합리적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MacArthur). 이렇게 분노할 때 들 합리적(이성적)인 미련한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는 어찌되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러한 미련한 지도자라면, 우리 집에 가장인 남편/아버지가 미련한 가장이라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어찌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28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무지한 치리자”, 즉 “어리석은 통치자”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를 “청렴한 통치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두 종류의 지도자를 대조하는 것을 보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통치자는 탐욕을 미워하는 청렴한 통치자와 달리 탐욕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렴한 통치자는 탐욕을 미워하지만 무지하고 어리석은 통치자는 탐욕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탐욕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면 어찌되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되겠습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현대인의 성경)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도자들로 인해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 시민들이, 교회 식구들이, 가족 식구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은 얼마나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탄압하며 시민들에게서 착취하겠습니까(겔 45:9,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탐심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여 포학을 크게 행하여(28:16) 가난한 서민들을 압제한다면(15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 무죄한 자를 죽였고(왕상 21:1-16), 사울 왕은 장기 집권을 위하여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습니다(삼상 18:6-19:1)(박윤선). 지금도 탐욕을 사랑하는 세계 지도자들로 인해 그 나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장기 집권과 물질의 욕심 속에서 시민들을 압제하고 포악하게 다스리므로 그 나라 그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목자들처럼 탐심 속에서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라면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5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욕심꾸러기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왜 이스라엘 목자들은 벙어리 개처럼 능히 짖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11절).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11-12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목자들은 탐심 속에서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오늘도 또한 내일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경 같이 "무지"하였고 벙어리 같이 옳은 말로써 경고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꿈과 같은 헛된 것을 숭상하였습니다(10절). 그들은 안일을 좋아하였고(10절) 탐심이 많았습니다(11절). 그러면서도 각성이 없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11절). 자기 사정만 돌아보면서 술에 취하여 쾌락을 누렸습니다(11-12절).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래의 일을 스스로 장담하였습니다(12절)(박윤선). 이스라엘 목자들은 참으로 몰각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몰각한 이스라엘 목자들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이 심한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 식구들은 어찌되겠습니까? 이렇게 탐욕이 심한 지도자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청렴한 지도자들의 통치 기간은 길 것입니다(박윤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입니까? 결코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탐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탐욕을 미워하는 지도자들이요 청렴한 사람들입니다(잠28:16).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세에게 혼자 중한 짐을 질 수가 없기에 세우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이 생각납니다. 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청렴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신 것을 보면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청렴결백한 사람들이여야 합니다(개역개정).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거짓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며(잠29:4) 또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2절).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살인범)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오래 전에 살인을 한 살인범을 수년 후에야 잡는 뉴스를 봅니다. 그런 뉴스를 보다보면 저는 결국에는 살인범이 잡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

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DNA 검사 결과로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 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늙어서 잡히는 살인범들이 이젠 감옥에 가서 죄 값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죄 값을 다 치르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왜 빨리 자수해서 죄 값을 치루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본능은 죄를 짓고 나서 자수하여 죄 값을 치르기보다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망한다 하여도 잡히는 그 순간까지 그 살인범들이 겪어야 할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바로 자신이 행한 살인죄로 인하여 드는 마음의 죄책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살인범들이 마음의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음이 강퍅하고 양심이 아예 마비가 되어서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도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현대인의 성경) “살인범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자를 돌보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죄로 양심에 눌림이 있고 그 양심에 눌림 속에서 도망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고야 말 것이라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범은 결국에는 잡힌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살인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 좋은 예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에 대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합의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8:27). 아합의 집이 행한 악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른 것입니다(왕상 18:18). 특히 아합 왕은 왕후 이세벨이 충동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습니다(21:25-2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19:10, 14). 결국 아합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21:22).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19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

리야를 통하여 이세벨과 아합에게 속한 자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23-24절; 참고: 왕하 9:10).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한 예언의 말씀대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 부상을 입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왕상22:34-35). 그리고 그 병거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것입니다(38절). 아합 왕의 부인 이였던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일으켜 아합 왕과 그의 모든 가족을 심판하셨는데 예후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죽인 후(왕하 9:33)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34절)고 명하였는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녀의) 두골과 발과 그(녀)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35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르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고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36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신 것입니다(7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응하시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며(9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10절). 이렇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재물이 많아 탐심의 노예였던 바벨론을 보응하심(렘56:7, 13)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과가 땅에 가득할 정도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응하심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응하셨을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역사에 바벨론은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불성실하고 불충성했지만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자기들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겔 14:3, 4, 7)을 보응하심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시므로(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5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5절) 그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들의 죄의 값으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사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되 그 보응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사 다시 세우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응하시사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보응하시므로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책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책임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된 일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특히 한 나라의 악한 지도자와 어리석은 통치차로 인하여 얼마나 그 나라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잠 28:15-16). 심지어 자기 나라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살인하는 동영상까지 우리가 보았잖습니까. 어떻게 자기 나라 시민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들은 지금 자신의 함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1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실제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범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요한1서 3장 15절이라 생각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현대인의 성경)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살인죄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충분히 쏟지 않으시고 잠시 보응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사 결

국에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살인범들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거짓되게 사는 사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중인격자'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이중인격"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았나요? 성경에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마 9:14, 막 2:18)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도 드렸으며(눅 11:42, 마 23:23) 자신들이 보기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막2:16) 세리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하였지만(눅 18:11) 그들은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으며(16:14)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과 방탕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습니다(11:39, 마 23:25, 27).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중인격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외에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이중인격자가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신 예수님, 마리아란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요12:1-3). 그 때 가롯 유다는 이것을 보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냐"고 말하였습니다(5절). 만일 우리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가롯 유다는 진정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롯 유다가 그리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그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도둑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이만재란 사람이 쓴 "교회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그 책을 보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바로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했다," "이중인격자가 많아 싫다"라는 이유입니다(인터넷).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쓴 것

을 다시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2015. 4. 11.).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산하기보다 이중인격자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글로나마 써서 나눈 것입니다. 제가 이리 생각하는 이유는 어쩌면 제 자신부터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이 주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점점 더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교회가 사람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데 헌신하기보다 겉과 속이 좀 달라도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봉사는 열심히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받쳐주지 않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가리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8절을 보십시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현대인의 성경)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지금 잠언 기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진실하게 사는 사람)과 “굽은 길로 행하는 자”(거짓되게 사는 사람)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순전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이중으로 속이는 자는 한번 넘어지리라”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이중으로 속이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8장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거짓된 부자”(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원어 히브리어의 개역하면 “두 길로 속이는 부자”입니다(박윤선). 여러분, 두 길로 속이는 부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겉으로는 선한 길을 가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길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박윤선). 이렇게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가 행하는 악한 길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3절). 학대하되 좀 더 구체적인 예는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며 법정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현대인의 성경).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며 또한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 까지 하여 해를 입힙니다.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지 않은 뒤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교묘하게) 학대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와 보지 않은 뒤에서의 불일치된 행함으로 인하여 두 길로 속

이는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모으되 잘 모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의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이중인격인 악한 부자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는지(시73:12)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헛되도다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13절).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길로 속이는 이중인격인 부자들은 그리 재물을 쌓는 가운데 자신들의 악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28장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한 부자들은 "곧 넘어"질 것임[갑자기 패망할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지는 한 때가 올 것입니다(박윤선).

성경 잠언 28장 6절은 이러한 이중인격인 악한 부자보다 진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짓된 부자보다 낫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함과 가난함 보다 진실히 행하느냐 아니면 위선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거짓되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되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요 갑자기 패망할 것이지만 진실하게 하는 사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건짐)을 받을 것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건짐(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방탕을 따르는 자"(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종착점에 거의 다 와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 볼 때 '아,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특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볼 때 너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 적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탐심 속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수고를 했지만 결과는 '내가 헛되고 무익한 수고를 했구나. 참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 전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현대인의 성경). 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헛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12:2)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1:21). 즉, 우리의 생각이 무가치하고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허망한 생각 속에서는 무가치한 일, 헛된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9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현대인의 성경)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을 따르는 자"란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헛된 것들을 따르는 자"입니다(박윤선). 즉, 헛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헛되게 시간을 보내"므로 결국에는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그 좋은 성경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12-13절). 그리고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13절). 그 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므로 탕자는 비로소 궁핍해 집니다(14절). 한 마디로, 탕자는 헛된 것들을 따르면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므로 결국에는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헛된 세상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헛된 이유를 전도서 1장 1-11절 말씀에서 한 4가지로 이미 묵상했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아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말씀은 해 아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도서 5장 15-16절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

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수고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업적은 그의 사후에 남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3, 박윤선).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한 평생 사는 인생은 결국 별 수 없이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5-6절을 보십시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의기양양하여 한평생 활동하지만 별 수 없이 티끌 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아무리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하고 든든히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시 39:5) 결국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벧전 1:24-25).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24절).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시편 39편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결국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치 바람이 남으로 불다 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결국 돌아가는 것처럼(6절) 흙으로 온 우리 인생들도 결국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인간의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이나 귀가 보고 또한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마치 바다가 언제가 흘려오는 물로 차지 못함 같이(7절) 사람의 욕심도 만족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참으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그 끝없는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이 헛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전도서2장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 자신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말하였지만(2:10) 또한 그는 11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11절).

넷째로,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후세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을 기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이전 것을 거듭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9-10절, 박윤선).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 왕은 “후세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을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11절, 박윤선). 아무리 지금 현재 사람의 부와 권력과 힘 등이 많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죽어서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혀지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3절). 그리고 지나간 세대는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전3:22, 박윤선). 한번 사는 인생,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면서 헛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일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28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현대인의 성경)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 산업으로써(박윤선) 성경은 열심히 일을 하면 먹을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집 안에는 넉넉함이 있을 것입니다(27:27).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고후9:8).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자 애쓰는 게 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경 잠언 23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현대인의 성경)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10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현대인의 성경)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잠언 23장 4절 말씀대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할 "사사로운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 하는 것입니다(박윤선). 여기서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란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제 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는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제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한 2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자제하는 지혜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날개를 펴서 상대방의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되 상대방의 말만 무조건 듣고 다 믿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의 동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제하는 지혜란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시 62:10). 마음의 절제란 어떠한 종류의 탐심의 유혹이라도 뿌리치고 자족하는 마음을 지키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20절을 보십시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충성된 자"(성실한 사람)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과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조를 염두에 두고 속히 부하고자 서두르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은 충성되지(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음. 생각해 보십시오. 속히 부하고자 서두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속히 부하고자 서두르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굽은 길로 행"합니다(18절).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람은 거짓되게 산다는 말입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여도 성실(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거짓된 부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또한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조급하기에 그는 자기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자 사업도 시도해 보면서 이익을 보고자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약 4:13-14). 그는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14절). 그러나 성경은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4:29). 그리고 성경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1:5). 이렇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거짓되게 살고 마음이 조급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8:20,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는 속히 부자가 되기를 애쓰기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두 길로 행하는 부자들이 되면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길을 가는체 하면서 실상은 악한 길로 행하는 부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6절). 성경 잠언 19장 22절 새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28:2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18절). 그리할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악한 관원"(악한 관리)이나 "무지한 치리자"(어리석은 통치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살인범)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거짓되게 사는 사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방탕을 따르는 자"(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잠언 28장 21-28절]

저는 언젠가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5-6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그 외에 사람들(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시간의 의미가 좀 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의 의미는 매우 귀하고 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그 병은 결국 죽게 만들었는데 죽기 전까지 나사로에게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매우 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녀들에게 시간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절박했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좀 느낄 수 있는가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지 4일이나 되었을 때(39절) 베다니(1, 18절)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간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에서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21절). 이 비슷한 내용의 말을 그녀의 동생이 마리아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32절). 이 두 내용의 말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알려드린 것입니다(3절).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6절).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속히 베다니로 가서 병든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는데(5절)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3절) 나사로가(5절)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3, 6절) 속히 베다니로 가셔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 병든 나사로에게 안수 기도해 주셔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11절)가 죽은 줄을 아시고(11, 14절)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7절).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면서 머물고 계셨던 곳에 2일을 더 머무셨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려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6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우리에겐 그 “이틀”(6절)이란 시간이 없고, 하루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던 대로 주님의 역사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주님의 역사는 커녕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고 악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15절).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반절에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그 말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 8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뇌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불공평한 처사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은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개역개정)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성자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

는 어거스틴이 자기가 오래 전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죄를 크게 여기고 자복하는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속으로 '아니 그 빵 하나 훔친 것 가지고 그리도 큰 죄로 여겼을까'라는 식으로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과거에 빵 한 조각 훔친 것을 그리도 큰 죄로 여기고 고백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므로 자신의 과거의 죄들을 더 크게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거스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크기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오래 전에 원로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사도 바울에 관한 설교 말씀 때문입니다.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뼈저리게 깨달아 더욱더 겸손해 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원로목사님에 설교 때 인용하신 사도 바울의 편지 중 성경구절 3개가 있습니다: (1)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 (2) (엡 3: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 (3) (딤전 1:15) "… 죄인 중에 괴수니라."

오늘 본문 잠언 28장 21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공평한 처사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은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개역개정은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불공평한 처사를 우리는 주로 어디서 보나요? 우리는 법정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 재판장이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낯을 보아주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왜 현재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뇌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이 힘이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이루고자 뇌물을 주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 예가 성경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그 소식을 듣고(1절) 스룹바벨과 그 밖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왔습니다(2절). 그들은 스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들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말했지만(2절) 스룹바벨

과 예수아 및 다른 지도자들은 거절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3절). 그 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뇌물”이었습니다(5절). 유다의 대적자들은 “바사와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성전건축) 계획을 막았”습니다(5절). 성경 느헤미야 6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인 도비야와 산발랏은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는 것이었습니다(10절).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11절, 현대인의 성경). 느헤미야는 그 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미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왜 유다 백성들을 대적한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그리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까? 성경 느헤미야 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하여 나를 위협한 것은 그 일로 나를 범죄하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뇌물을 준 목적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케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유다 백성들의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그 재판관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현대인의 성경) “너의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들과 한패이며 하나같이 뇌물과 선물받기를 좋아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사1:23),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현대인의 성경) “모두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여 관리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요구하고 부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들과 결탁한다”](미7:3). 그 결과 뇌물을 받은 재판관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았습니다(사5:23). 다시 말하면,

그는 무죄한 의인을 해하였습니다(시15:5). 이렇게 뇌물을 받는 재판관은 판결을 굽게하였으며(삼상8:3) 그러한 잘못된 판결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암5:12)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판장의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생각되겠습니까(잠28:21).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5절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현대인의 성경) "재판석에서 악인을 옹호하고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출 23:8, 신 16:19, 삼상 12:3)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여(전 7: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므로(겔 22:12) 우리의 판단력을 굽힙니다(삼상 8:3). 그 결과 뇌물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좋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들고 또한 잘못을 저지르게 만듭니다(잠 28:21). 뇌물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욥 36:18). 그러므로 우리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신 10:17, 대하 19:7)을 본받아 우리는 뇌물을 받지 말고 사람의 낯을 보아 줘서는 아니 됩니다(잠 28:21).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정도로 뇌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느 6:13). 그러므로 우리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탐심을 품은 사람은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동화인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 아시죠?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이 동화 이야기의 내용은 인정이라곤 손톱 끝만치도 없는 수전노인 주인공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같이 사업을 하던 동업자 말리의 유령을 만나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고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람다운 마음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인터넷). 저는 어릴 때 이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두쇠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배웠을 텐데 저는 이 동화 이야기보다 더 어릴 때인 국민(초등) 학교 때 들은 "흥부와 놀부"란 동화 이야기가 더 잘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때 그 어린 나이에 이 동화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흥부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욕심 많은 놀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 삶을 뒤돌아 볼 때 어릴 때 배운 교훈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정반대로 욕심 많은 놀부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나중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람다운 마음을 찾게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 안에 있는 "탐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서 주신 깨달음처럼 탐심은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다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경계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이 탐심을 품어 하나님 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여자를 더 사랑하므로 하나님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데(미가1:7, 2:2, 골3:5)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3-35절에서 주신 교훈은 제가 탐심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은 '탐심을 품은 자의 눈'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탐심을 품은 자의 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22절). 이렇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탐심을 품은 이기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급급하다'는 말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탐심을 품은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한다는 말(20절) 또는 부자가 되려고 서두른다는 말입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 잠언 28장 20절을 보십시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탐심을 품은 이기적인 사람이 속히 부하고자 하면 그는 올바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하고자 하기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방법은 바로 '속임수'(거짓말)와 '강포'(폭력) 라고 잠언 21장 6-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덫과 같다 악인은 자기가 쓴 폭력에 자기가 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옳은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속히 부하고자 속임수와 강포를 사용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덫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악인이요 이러한 악인은 “옳은 일을 거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1:7, 현대인의 성경). 그러기에 그들은 옳지 않는 방법인 속임수나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재물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빈궁”(가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탐심을 품은 자들은 빈궁(가난)이 자기들에게 임할(밀어닥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28:22하). 그들은 처음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데 성공하는 것같이 보여 자신들이 소득이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시73:7) 자신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가고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시편 73편을 쓴 시편 기자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성경 시편 73편 18-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현대인의 성경)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시므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현대인의 성경)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눅 16:14).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므로 돈을 탐내면 우리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돈이나 재물을 쌓아두면 둘 중에 하나

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돈이나 재물이 다 해하여 지던지 아니면 도둑이 훔쳐가던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MacDonald). 한 마디로, 왜 우리가 이 땅에 돈이나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냐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는 이 말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마 6:20). 그 방법을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은 방법은, 땅에서 나의 모든 좋은 것들(물질 뿐 아니라 노력과 재능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함이다"(박윤선).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몸과 가족 등 모든 것에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합니다(눅 18:22). 바로 이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입니다(22절).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을 경책하는 것이 혀로 아첨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몇몇 선배님들과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제자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임스는 아직도 혈기가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대학 다닐 때 사랑하는 후배에게 '너는 교만하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때 그 말을 들은 그 형제의 마음과 기분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27장 5절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Better is open rebuke than hidden love). 현대인의 성경은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저는 누군가를 맞대 놓고 책망을 잘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제 성격상 그리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제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할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저는 숨은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저로서는 그보다 나은 사랑의 면책은 더욱더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특히 목회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 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면책했어야 했을 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맞대놓고 책망한 사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다윗 왕을 맞대놓고 책망한 나단 선지자가 생각납니다(삼하 11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죄를 덮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결국 자기의 충선된 군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에(27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한 성에 있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면책하십니다(12:1-4). 그 때 다윗은 크게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5절). 죄를 덮고 덮으려다가 자기 양심마저 덮어버려서 그랬던 것인지 다윗은 자기가 그 "마땅히 죽을 자"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책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면책입니까? 다윗 자신은 분명히 자기 자신은 그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면책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가 내가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 우리의 양심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8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혀로 아첨하는 자"(아첨하는 자)인지 둘 중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경책하는 자"(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23절하).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본능은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기보다 지금 사랑을 더욱 받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대방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잘못을 정신 차리도록 꾸짖기(경책) 보다 그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아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상관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것을 사랑하는 경책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혀로 아첨하기까지 하는 경우를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책(책망)하기보다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리하는 제일 큰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을 책망하므로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끊어질까바 두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안에는 어쩌면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할까봐 하는 염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덮어주고 넘어갈 때에 제 변명은 잠언 17장 9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분명히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다(17:9)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성경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27:5)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면책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에 허물을 덮어줘야 하며 어떤 때에 사랑으로 면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 말하므로 친한 벗을 이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줘야 하지만(17:9) 그 허물이 거듭 행해지되 심각한 죄의 결과까지 가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사랑으로 면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27:5).

성경 잠언 2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성경은 "숨은 사랑보다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더 낫다"(5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비록 친구가 우리를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되겠지만 그 상처는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성경은 이것이 원수의 거짓된 입맞춤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기에 거짓된 입맞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무너트리고자 하는 반면에 친구는 우리는 사랑하기에 진실 된 면책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5절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우매자의 노래"는 바로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매자의 노래, 즉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해야 할 이유는 그 위로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6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우매자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지혜자의 책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채찍질이 미련한 자의 칭찬(격려)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18편 1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께 경책을 받았기에 그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경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3:9).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경책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람을 경책하는 것이 혀로 아첨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민(초등)학교 때 어머님은 동전이 들어 있는 돈지갑을 교회 사택 부엌 찬장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이 좀 깊이 파여 있었고 찬장은 좀 높은데 있어서 제가 그 찬장 윗부분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서 어머님의 지갑을 꺼내 동전을 훔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ㅋㅋ.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제가 거의 스파이더 맨(spider man)처럼 제 몸을 찬장에 달라붙어서 살며시 찬장 끝으로 가서 그 윗부분 문을 열어 돈을 가지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아마 제가 100원 동전을 하나를 훔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앞길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소라(과자)를 매우 사먹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ㅎㅎ 저는 이렇게 부모님의 돈을 훔치는 것이 당연히 도둑질이지만 이 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란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5-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님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고만 하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부모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 잠언 28장 2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현대인의 성경)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왜 성경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처럼 이웃의 물건을 탐해서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왜 성경은 하필이면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행하기보다 오히려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unthinkable)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악한 눈이 있는 자”, 즉 탐심을 품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욕심이 많은 자”는 심지어 부모님하고도 다툼을 일으키면서까지 부모님의 재물을 욕심내서 훔치는 도둑질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자가 바로 강도요 그러한 강도가 충분히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자식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그 도둑질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잠언 14장 8-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 앞 길을 알기 때문이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은 속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심상히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14:9).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대단치 않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8절, 약 1:22).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원인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잠 14:7).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없는 원인은 우리가 거만하기 때문입니다(6절). 우리가 거만한 원인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

다(3절).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2절). 결국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돈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은 1,000을 훔쳤습니다(삿 17:2).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은 1,000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 은을 훔쳤다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그 은 1,000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2-3절).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미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3절). 콩가루 집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 또한 그 도둑질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을 때 그 어머니는 자식의 죄를 사랑으로 면책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돈을 사용하여 자기 자식을 위한답시고 신상(우상)을 만들어 줍니까. 자식이나 어머니이나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잠 14:2).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도둑질 등 모든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자신이 범한 죄를 심상히 여기지만(잠14:2, 9)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어느 면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부모님을 공경해서는 아니 됩니다(마 15:8). 우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잠 23:25).

다섯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욕심을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

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 성경은 우리가 다투는 원인이 “싸우는 정욕” 때문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다투고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과 우리가 욕심을 내므로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 하는도다.” 눈이나 귀가 보고 또한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마치 바다가 언제나 흘려오는 물로 차지 못함 같이(7절) 사람의 욕심도 만족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참으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그 끝없는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이 헛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전도서 2장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 했습니다. 그는 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10절).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11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불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불만족하며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욕심입니다. 이렇게 욕심이란 무섭고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만족과 자족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영적 축복들을 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궁핍함이나 풍부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성경은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욕심이 많은 자”를 생각할 때 이 욕심이 많은 자는 우리가 이미 묵상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눈이 있는 자”(탐심의 눈을 가진 자)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신의 탐심 속에서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기 때문

에(22절)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25절). 이러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아첨까지 해가면서(23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부모하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24절 말씀처럼 자신의 부모의 것도 도둑질하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24절). 그만큼 사람의 욕심이란 양심도 마비시켜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물건까지 훔치기에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부모와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전5:15). 그러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탐심 속에서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고 합니다(딤전 6:6-10).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잠 28:25). 성경 창세기 16장을 보면 한 여자의 욕심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자기의 남편을 움직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게 만드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아브람과 사래의 이야기 입니다.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므로(창 16:1)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거예요”라고 하였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그녀의 남편인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따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이삭을 주실 것을 믿고 그녀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지도했어야 했는데 아브람은 그녀의 지도를 받아 그녀의 여종인 하갈과 동참하였습니다(4절). 그 결과 하갈이 임심하므로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이 사래를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4절). 그리고 사래는 남편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좀 웃기지 않습니까? 사래는 자기가 남편 아브람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했으면서 자기 말대로 한 아브람에게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래의 욕심은 자기 남편까지 자기의 욕심을 만족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결과는 하갈이 사래를 멸시하고 사래는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다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불행의 지름길이기에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8장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신뢰하는 사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1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사 배에서(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을(1절, 현대인의 성경) 가르치셨습니다(3절).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안 그래도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는(5절) 자기 배에서 나와서 이미 그물을 씻었을 텐데도 불구하고(2절)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므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5절).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4절). 그 결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잠 28:25). 바라기는 모든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믿어. 나는 나 자신만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 중 하나가 저에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아무 신도 믿지 않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 믿는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때만해도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 가서 로마서 1장 말씀에 관한 죤 칼빈에 해석을 공부하다가 칼빈의 관점대로 이 세상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로마서 1장 19-2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마음"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 잠언 28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욕심(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합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러한 자는 심지어 자기 부모의 물건까지도 도둑질하기까지 합니다(24절). 한 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렘17:9,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가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또한 성경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미련한 마음"(롬 1:21)을 믿는 자는 당연히 "미련한 자"가 아닌가요?(잠 28:26) 성경은 미련한 자의 미련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22). 그래서 어리석은 그들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23절).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25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28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사 5:21).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3:7).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롬 12:16).

오히려 성경 잠언 28장 26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22:17).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해야 합니다(18절).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19절). 그래서 성경 잠언 3장 5-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7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할 때(3:3) 우리는 미움과 거짓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기 여기는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7절).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 분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헛된 믿음입니다(14:16).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는 이러한 헛된 믿음의 원인은 높은데 마음을 둔 교만입니다(롬 12:16). 왜 우리가 높은데 마음을 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친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잠 3:7)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합니다(롬 12:16). 이러한 교만함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우준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롬 1:21-22).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일으켜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

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잠 28:26).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1:33). 또한 지혜로운 자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29:25)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18:10). 이러한 안전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건지심)과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일곱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빈곤에는 두 종류의 빈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빈곤은 "개인 및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생활상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육체적인 능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의 평균 또는 일정 생활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인터넷). 저는 여태껏 "빈곤"하면 절대적 빈곤의 개념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에는 상대적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들은 뉴스의 내용 중 저에겐 좀 충격이었던 것은 한 달에 3, 4천불을 벌어도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예를 들어 5천불이라면 그 사람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뉴스 내용이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저는 그 때까지만 해도 절대적 빈곤의 개념밖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3, 4천불을 버는데도 빈곤이라고 하니까 좀 놀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후로부터 점점 더 뉴스를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물가가 너무 비싸고 특히 아파트 렌트비랑 너무 비싼데 인건비는 오르지 그만큼 오르지 않다보니 계속해서 매달 마이너스가 되다보면 상대적 빈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이미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제일 근래에 배운 교훈은 바로 잠언 2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성실

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를 개역하면 "순전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이중으로 속이는 자는 한번 넘어지히라"입니다(박윤선). 이중으로 속이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8장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거짓된 부자"(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원어 히브리어의 개역하면 "두 길로 속이는 부자"입니다(박윤선). 두 길로 속이는 부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겉으로는 선한 길을 가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길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박윤선). 이렇게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가 행하는 악한 길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3절). 학대하되 좀 더 구체적인 예는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며 법정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현대인의 성경).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며 또한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하여 해를 입힙니다.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지 않은 뒤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교묘하게) 학대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와 보지 않은 뒤에서의 불일치된 행함으로 인하여 두 길로 속이는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모으되 잘 모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2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현대인의 성경)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를 못 본 체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잠언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2) (17: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 (3) (21:1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4) (22:16)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든지 조롱하면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8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가난한 자를 못 본 체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가난한 자를 못 본 체한다'는 말씀은 가난한 자의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MacArthur). 성경 잠언 14장 31절 하반절(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이

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잠언 28장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체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않는 자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자"(22:9)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9:17). 이러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2:9).

성경 요한일서 3장 17-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현대인의 성경)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난한 형제, 자매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도 끝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하게 우리 가난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8:27)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보았으면 못 본 체하지 말고 오히려 다가가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여덟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 살지만 그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2017년 11월 7일 오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한국 국회당에서 550여명이 되는 한국 여야 의원들과 주한 외교 사절 등 앞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 35분 동안의 연설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24분가량은 북한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6. 25. 전쟁과 한.미 동맹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경고까지 보냈습니

다(인터넷).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을 문대통령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 북한 인민들의 고통과 참혹한 실상을 소개함으로서 한국민들의 반공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 “북한 인민들의 고통과 참혹한 실상”을 다시금 보고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인터넷): “북한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합니다. 최근에는 전 노동 인구에게 70일 연속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치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배관도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며 자녀들이 강제노역에서 규제될 거란 희망을 갖습니다. 100만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1990년대 기근으로 사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하로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2013년 북한 체제는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 즉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한 액수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대신 더 많은 기념비, 탑, 동상을 건립해서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썼습니다. 북한경제가 걷어 들이는 미미한 수확은 비뚤어진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커녕 이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국가에 대한 이들 충성도를 너무나도 자위적으로 평가해서 이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충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딴 사람들은 수도인 평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먼저 아사합니다. 한사람의 작은 위반, 예를 들면 버려진 신문지에 인쇄된 독재자 사진에 얼룩을 실수로 묻히거나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가족 전체 사회 신용등급에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으로 추정되는 북한주민들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고문과 기아, 강간, 살인을 견뎌내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알려진 한 사례에서는 한 9살 소년이 10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김정은 삶에 대한 세부사항 하나를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외국인을 납치해서 이들을 북한 첩보원의 어학교사로 일하게 만듭니다. 전쟁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기타 종교인들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를 보유했다 적발되면 억류와 고문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처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인종적으로 열외에 있다고 간주되는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켜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출산하면 아이들은 신생아 때 살해됩니다. 중국인 아버지를 둔 한 아기는 바구니에 담긴 채 끌려갔습니다. 경비대는 이 아이의 피가 불순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을 도와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까? 북한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해외 노예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고자

시도하게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더 가까웠다.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성경 잠언 2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권력을 잡았기에 북한 백성들이 숨어 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성경 잠언 29장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악인이 권세를 잡은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의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28장 2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그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한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말씀인 잠언 28장 12절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먼저 의인에 관한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쓰시므로 의인들이 기뻐하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크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박윤선). 특히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인들로 세우시사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때 그 나라에는 질서와 공의가 있기에 시민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Walvoord). 성경 잠언 11장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이 잘되면 온 시민이 즐거워하고 …"].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 즉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 살기 마련입니다(28:12하, 28상). 그 이유는 권력은 잡은 악인은 교만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성경 잠언 28장 15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현대인의 성경) "가난한 백성에게는 악한 관리가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처럼 위험한 존재이다"].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사자 가 부르짖습니까? 그 이유는 주려서 먹을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합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사람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분노할 때 들

합리적(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MacArthur)]. 그러므로 미련하고 교만한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시민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 오늘 본문 잠언 28장 28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미련하고 교만한 악인이 망하면 의인들은 많아지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많아졌을 때 죄도 많아졌지만(29:16) 그 악인이 멸망하므로 죄도 적어지므로 당연히 숨어 살았던 의인들이 많아지고 번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 시대 때 악인들이었던 너무 잔인한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았던 것(삿 6:2, 현대인의 성경)처럼 악인들이 일어나면(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은 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잠 28:28).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의 300명 군사로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 후에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삿 8:28, 현대인의 성경). 그러한 평온한 때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평화스러운 때에는 의인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28장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또한 잠언 11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잘되면 온 시민이 즐거워하고”(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무슨 뜻입니까?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승리하여 잘되면 모든 사람(온 시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나마 기도할 때 시리아의 내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독재자가 물러나던지 하고 하루 속이 그 나라 시민들에게 자유가 있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루 속이 독재자가 물러나던지 하고 그 나라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궁핍함과 핍박 속에서 허덕이지 않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쩔 때에는 시편 기자처럼 권력을 잡고 있는 악인 지도자들이 망하길 기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시민들이 더 이상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잠언 28장 21-28절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8가지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뇌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21절). (2)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탐심을 품은 사람은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22절). (3)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을 경책하는 것이 혀로 아첨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23절). (4) 넷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

는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24절). (5) 다섯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욕심을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25절). (6) 여섯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6절). (7) 일곱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7절). (8) 마지막 여덟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 살지만 그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28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

[잠언 29장 1-5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란 바로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혜의 책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면서 또 하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 지혜의 능력을 구하게 된 동기는 지혜의 책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더욱더 제 자신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들춰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지혜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께 지혜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저 또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을 저 또한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현대인의 성경)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란 제목 아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사모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첨 보다 책망을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절과 5절을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 이웃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책망을 듣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첨을 듣는 것이 좋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첨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만 거짓말로 여러분을 기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 아첨을 계속해서 듣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책망을 듣는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좀 안 좋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여러분을 세우고자) 책망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자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그 책망에 오히려 귀를 더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잠언 28장 23절에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는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경책하는 자"(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23절).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본능은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기보다 지금 사랑을 더욱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대방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잘못을 정신 차리도록 꾸짖기(경책) 보다 그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아부(아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이웃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에게 '아첨한다'라는 말은 이웃에게 매끄러운 것(smooth thing)을 말한다는 뜻으로서 "그것은 상대방의 죄악 성품에 잘 영합하여 듣기 좋게 말함입니다(박윤선).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게 듣기 좋게 아첨한 거짓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려고 했을 때였습니다(4절). 그 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5절). 그래서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고 물었습니다(6절). 그러자 그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아첨을 했습니다(6절).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이란 평강이 없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렘 6:14, 8:11). 아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듣기 좋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아첨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아합 왕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기 좋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있었던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죄를 짓고 있었기에 그들의 죄악 성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은 자신들의 죄악 된 뜻과 이익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은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잠언 29장 5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사냥꾼이 그물을 칩니까? 사냥하는 동물을 잡고자 그러는 것 아닌가요?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란 말씀은 비록 처음에 이웃에게 아첨할 당시에는 별 문제 없어보일지라도 그것은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으로서 결국에 가서는 그 그물에 잡힌다(걸려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아첨하는 자는 패망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26:28). 성경 예레미야 9장 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화살과 같다. 그들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다정히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잡을 덫을 놓고 있다." 아첨하는 사람의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입으로 항상 거짓을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웃에게 다정히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잡을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자는 두 마음으로 거짓을 말합니다(시 12:2).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첨하는 자를 경계합니다. 물론 먼저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살전 2:5).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유 1:16).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첨하는 자들은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롬 16:18). 결코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라도 우리에게 아첨의 말을 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어 교만한 가운데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첨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경책하는 자의 책망을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잠 28:23).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첨보다 책망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잠언 29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이 곧은 사람"이란 매우 고집이 완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르치기 어려운, 말을 잘 듣지 않는" 영(unteachable spirit)이 있는 사람입니다(MacArthur). 성경에 이렇게 매우 고집이 완강한 목이 곧은 사람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바로 왕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0번째 재앙을 받고서야 자기의 완강한 고집이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로 왕 외에도 성경에 나는 매우 고집이 완강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요나 선지자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욘 3:10).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10절).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4:1).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3절)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뜻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였습니다(3:4).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내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4:5). 그가 기대한 "무슨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3:4).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농사를 부지런히 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불과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녹이고 부서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찔러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는 사람의 말을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듣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시 39:11).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어야 합니다(50:21). 그러므로 우리의 들춰진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뇌물 보다 정의를 사모합니다.

얼마 전 대학 후배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하는데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요즘 세상은 돈과 힘(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좀 엿보았습니다. 아마 그 후배만 그러한 한탄을 하는 것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돈과 권력의 힘만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잘못을 범하고서도 형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도 뇌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장이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낯을 보아주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28:21) 결코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왜 현재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뇌물'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이 힘이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이루고자 뇌물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가 성경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그 소식을 듣고(1절) 스룹바벨과 그 밖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들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말했지만(2절) 스룹바벨과 예수아 및 다른 지도자들은 거절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3절). 그 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뇌물"이었습니다(5절). 유다의 대적자들은 "바사와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 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성전건축) 계획을 막았"습니다(5절). 성경 느헤미야 6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인 도비야와 산발랏은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12절). 그 예언의 내용은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는 것이었습니다(10절).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11절, 현대인의 성경). 느헤미야는 그 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미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왜 유다 백성들을 대적한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그리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까? 성경 느헤미야 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하여 나를 위협한 것은 그 일로 나를 범죄하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뇌물을 준 목적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케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 공정하고 의로운 왕은 나라를 안정되게 하지만 뇌물을 강요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 공정하고

의로운 왕은 나라를 안정되게 하지만 뇌물을 강요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만일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뇌물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특히 대통령이 사람들이게 뇌물을 강요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뇌물을 강요하는 왕은 나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4절). 실제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 중에 악인들이 권세를 잡아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뇌물을 내게 만드는 지도자(대통령,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4절) 그러한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4절) 그리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기 나라 지도자를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처럼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7장 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뇌물을 받는 왕이나 대통령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과연 그러한 지도자가 자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왕은 부패한 마음으로 가난한 시민들을 천대하며 압박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며 압박했습니다(암 5:12). 이러한 일이 부패한 재판장으로 인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한 나라의 부패한 대통령으로 인해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부패한 대통령이 악한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시민들은 천대하며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9장 2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2절하), "…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뇌물을 강요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4절하).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 잠언 29장 2절 상반절과 4절 상반절 말씀처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2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4절상). 여기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3절) 뇌물을 사모하지 않고 정의를 사모한다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4절). 실제로 잠언 기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한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의로운 지도자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가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두 종류의 지도자들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뇌물이나 억지로 내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인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 법정에 서고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참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잠언 17장 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공동번역)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진짜 이 세상에는 뇌물을 요술방망이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21:7). 그러나 우리는 정의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뇌물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뇌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헛되고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사회처럼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성경 하박국 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되 어찌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는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시되고 마비되어 있기에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의인보다 악인들이 많아서 그 수많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있었기에 부정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쓴 글을 잠깐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 의로운 심령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으며 또한 마음이 찢기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책망하며 경고하시며 사랑으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주님께 징계를 받기 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렘 9:24).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잠 29:4). 그리할 때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2절). 비록 점점 더 악인들이 많아져 의인들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합 2:4).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비록 이 사회가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21:3).

마지막 셋째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창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미국은 “미투(Me too)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침묵을 깨고 “나도 이렇게 당했다”며 “미투”라고 폭로하는 운동입니다. 작년 2017년 12월 6일에 미국 시시주간지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침묵을 깬 사람들’(Silence Breakers)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나도 이렇게 당했다”며 “미투” 운동에 참여해 유력 인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한 불특정 다수 여성들입니다. 올해의 인물로 이들을 선정하면서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첫 번째 성추행 고발 자부터 ‘미투’를 이용해 자신들의 피해 이야기를 공유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와인스타인 스캔들’을 보도한 것은 지난 10월 초다.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성 수십 명을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다. 이후 앤젤리나 졸리, 귀네스 팰트로, 레이디 가가 등 유명 연예인들의 폭로가 잇따랐고, 결국 와인스타인은 자신의 영화사에서 쫓겨났다. 배우 앨리사 밀라노는 ‘와인스타인 스캔들’ 보도 이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소셜미디어에 ‘나 역시 피해자였다’는 의미의 ‘미투’에 해시태그를 붙여 각자 경험을 고백하는 ‘미투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으로 미국 사회 전반에 ‘성폭력 고발 열풍’이 일었고, 영화계를 넘어 정계·경제계·노동계·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성폭력 피해가 폭로·고발됐다”(인터넷).

여러분, 왜 이렇게 수백만 건에 달하는 성폭력 피해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성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을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1) <u>저는 그 원인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생각합니다(요일2:16).</u>

사탄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성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탐내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아무리 많은 여자를 보아도 만족함을 모릅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족함이 없기에 다른 여자를 보고 또 보면서 그 여자를 탐내는 것입니다.

(2) 저는 그 원인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생각합니다(요일2:16).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여 성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우리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을 탐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잠 5:19). 그 결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사 56:11). 그러므로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잠 5:19) 우리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만듭니다(출 29:17).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결국에는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골 3:5).

(3) 저는 그 원인인 '미련함'(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잠언 7장에 나오는 한 지혜 없는 자, 즉 미련한 자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말로 호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입니다(5절). 어떻게 사단은 이 미련한 자를 유혹했을까요? 한 3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a) 사단은 한 지혜 없는 자로 하여금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도록 유혹합니다.

잠언 7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갈

때(8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오히려 돌이켜 떠났어야 했습니다(4:15). 그러나 그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의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걸어가되 그 음녀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해가 저물고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7:9). 그는 아무도 자기를 보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리석은 소년은 남에게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은밀히 깊은 밤에 창녀에게로 간 것입니다(박윤선).

(b) 음녀는 숨겨진 의도로 한 지혜 없는 자를 나와서 맞이합니다.

잠언 7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깊은 밤중에(9절)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녀의 집으로 갔을 때(8절) 그 음녀는 마치 몸 파는 창녀처럼 옷을 입고 그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했습니다(10절). 여기서 "간교한 계집"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녀가 그 소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간교한 창녀는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는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바로 '숨기다'(hidden)입니다(MacArthur). 과연 그녀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잠언 23장 27-28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인간에 궤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가 한 지혜 없는 자를 창녀의 옷같이 입고 맞이하는 숨겨진 의도는 "함정"을 놓아 그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faithless) 만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음녀의 숨겨진 참된 의도는 많은 결혼한 남자들로 하여금 결혼할 때에 언약하였던 것을 파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박윤선).

(c) 음녀는 입술의 호리는 말로 한 지혜 없는 자를 낍니다.

잠언 7장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어떻게 음녀가 한 지혜 없는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시십니까?

(i) <u>음녀는 보이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u>

잠언 7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여기서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그 음녀는 창녀같이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창녀들이 유혹적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노출이 심하되 남자들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성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옷을 입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남자들을 유혹하기에 참으로 자극적입니다.

(ii) 음녀는 만지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잠언 7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 노출이 심하게 옷을 입은 음녀가 어리석은 남자에게 돌진하여 두 팔로 그를 꼭 끼어 앉고 입술에 키스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했을 때 그 어리석은 남자는 안 그래도 그 음녀의 창녀같이 입은 옷을 보고 시각적으로도 이미 성적 흥분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 음녀를 자기를 붙잡고 입까지 맞췄다면 그 때에는 성적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교한 음녀는 한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함에 있어서 육체적 접촉까지 사용합니다. 그 음녀가 만지고 키스까지 하므로 그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할진대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얼마나 성적으로 자극을 받겠습니까?

(iii) 음녀는 들리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음녀는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with persuasive words), “입술의 호리는 말로”(with her smooth talk) 유혹합니다(21절). 여자도 마차가지라 생각하지만 특히 남자는 오감에 있어서 시각, 촉각과 청각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유혹 받을 때 여자의 몸매 보므로 유혹 당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통해서도 유혹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음으로도 충분히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도 창녀와 사귀는 사람은 재산을 허비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창기

와 사귀는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녀와 사귀는 사람은 재산을 허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라면 미련한 아들은 창녀와 사귀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잃어버린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결코 기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생각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눅 15:13). 결국 그 탕자는 가진 것을 다 써 버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14절). 그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그 사실을 그 탕자의 아버지가 알았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창녀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잠29:3). 우리는 창녀를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혜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3절).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 잠언 29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첨 보다 책망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1, 5절) 또한 뇌물 보다 정의를 사모한다고 배웠습니다(2, 4절).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7장 11절에서도 성경은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먼저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기에(8:13)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2) 또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므로(3:1, 3)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3)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에(3:11-12)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첨 보다 책망을 사모하며 뇌물 보다 정의를 사모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창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지혜로운 의인

[잠언 29장 6-11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과 경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엔 “찬양”은 무엇이고 “경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예수전도단에서 섬겼던 홍성건 목사님이 쓴 책에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읽은 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글 내용은 홍 목사님에 의하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며, “경배”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 저는 이 글 내용을 읽으면서 좀 설득을 당했다고 할까요 마음에 좀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는 찬양과 경배의 차이를 생각할 때 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수 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믿을 때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뱌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5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1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6절)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6절). 우리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7절).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이 여기사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O God, You are my God)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어 복음 성가 중에 “Step by Step”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Oh God, You are my God And I will ever praise you …”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당신을 찬양합니다 …).

저는 오늘 "**지혜로운 의인**"이란 제목 아래 지혜로운 의인은 어떻게 행하는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6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악인은 자기 죄로 덫에 걸리지만 의로운 사람은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느 누가 나쁜 일이 있는데 노래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노래하고 기뻐하는 의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선 6절 상반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 여러분, 악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악인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이지 의인이기에 죄를 범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악인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잠언 2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즉, 악인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는 정직한 자와 온전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찾아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정직한 자와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악인의 죄가 정직하고 온전한 자로 인하여 들춰지기 때문입니다(참고: 엡 5:11). 이러한 악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찾아 피 흘리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 잠언 28장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 악인의 결과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28:10). 오늘 본문 잠언 29장 6절에서는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스스로 덫에 걸린다(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2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악인은 그물에 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절인 5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에서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악인은 정직한 자와 온전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찾아 피 흘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므로 결국에는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악인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악인

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6절). 오히려 성경 잠언 12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29:6). 즉,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의인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비록 악인이 정직하고 온전한 의인을 핍박(박해)하므로 의인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의인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찬양이요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직 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에 관한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흥미롭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이르러서(행16:12) 기도처가 있는지 찾고 있었는데(13, 16절) 그들의 기도처가 바로 깊은 옥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므로 말미암아(16-18절)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와 실라는 결국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23-25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에서 기도케 만드시지 않으시고 깊은 감옥과 같은 곳에서 기도케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25절) 그들은 아직 주님께서 옥에서 건져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옥에서 건져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옥에서 건져주실 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록 악인은 지혜로운 의인을 미워하여 죄를 범하지만 그것은 악인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악인의 박해로 인하여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때

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38장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둘째로, 지혜로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정을 아무리 잘 안다할지라도 충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가다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각 사람이나 가정이나 속사정이 없는 사람이나 가정이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인 것 같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그 부부만의 속사정이 있고 그 속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게 갇혀있는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의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되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사정(“내 사정”)을 아뢰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요셉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만 2년 후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그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을 때 그 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41:9-13). 그 결과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 또한 그의 꿈을 해석하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써 보았습니다: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잘 되었으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야 하는데 나를 기억치 못하고 나를 잊어버렸습니다(창 40:14, 23). 나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나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41:9-13). 그 결과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셨습니다(37-43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7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여도 악한 사람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아주되 의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14:31, 19:17),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며(22:9) 구제합니다(28:27). 의로운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여 주며(29:14) 또한 가난한 자의 생명을 보호합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줄 지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9:7). 그래서 악인은 귀를 막아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21:13) 가난한 자를 못 본체합니다(28:27). 그 이유는 악인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신 15:7). 오히려 악인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며(잠17:5) 협박하며(13:8)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까지 합니다(22:16). 그 성경적인 예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그리도 원했습니다(1-2절). 그런데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에(3절)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4절, 참고: 6절). 그 때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습니다(4절).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아합에게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5절)라고 물었고 아합 왕은 그녀에게 다 말했습니다(6절). 결국 이세벨 왕후는 계략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에 줬습니다. 성경은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아(20, 25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절). 성경은 그와 같이 그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5절).

여러분, 성경 이사야 32장 7절은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현대인의 성경) “못된 건달의 주된 무기는 악이다.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결코 악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잠 29:7). 그러므로 악한 관원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합니다(28:15). 그리고 악한 재판관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그의 권리를 박탈까지

합니다(사10:2). 그러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잠 29:7).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합니다(건져줍니다)(시 72:4). 하나님을 아는 의인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줍니다(렘 22:16, 현대인의 성경). 무엇보다도 의인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사 61:1). 즉, 의인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눅7:22).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눅 7:22).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4:18).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잠 28:8) 그를 보살피며(시 41:1) 또한 그를 구제해야 합니다(에 9:22).

마지막 셋째로, 지혜로운 의인은 노를 그치게 합니다.

Gary & Greg Smalley가 쓴 "THE HEART OF REMARRIAGE"란 책을 읽으면서 저는 부부 관계에서 의로운 분노(righteous anger)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부부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변화(healthy change)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분노(unrighteous anger)는 서로의 언행으로 죄를 지으므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제 생각엔 부부 관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분노 조절이 되지 않으면 부부 갈등의 작은 불씨를 충분히 산불로 만들어 부부 관계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을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 표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악 된 분노를 가족 식구들에게 표출하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그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 우리 자신에게 왜 화가 났는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임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8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거만하고 냉소적인 사람은 도시를 소란케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요 분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하며 교만한 자는 다툼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성읍을 요란케 합니다(MacArthur). 성경 잠언 26장 21절을 보십시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숯이 깜부기불을 일게 하고 나무가 타는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채질 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더 크게 잘 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채질해서 작은 싸움을 고래 싸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게 되면 미련한 자가 노하든 웃든 그 다툼은 쉽게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분노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하다고 성경 잠언 17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사람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분노할 때 들 합리적(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MacArthur).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련한 자가 비이성적으로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12:16)이 상상이 되십니까? 미련한 자는 비이성적으로 당장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오랫동안 삐뚤어진 생각으로 분노를 품고 있다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죽이고자 2년 동안 분노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분을 오래 동안 품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박윤선). 이렇게 분을 오래 동안 품게 되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요란케(시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쉽게 분노를 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잠12:16). 오랫동안 삐뚤어진 생각으로 분노를 품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삼하 13장). 분노할 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말아야 합니다(잠 17:12).

우리가 가까이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오늘 본문 잠언 29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교만하여 쉽게 분노하는 자는 가정이나 교회나 도시를 요란케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분노하는 자의 노를 그치게 합니다. 어떻게 슬기로운 자는 분노하는 자의 노를 그치게 할까요? 한 2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잠언 15 18절을 보십시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슬기로운 자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억제합니다. 즉, 그는 노하기를 더디 합니다(약 1:19). 그는 성미가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잠 15:18). 그러나 우리가 성미가 급하여 화를 쉽게 내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분노 가운데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되 과격한 말,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4절).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우리의 입을 좀 다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에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1절).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 말하기를 더디 해야 합니다(약 1:19).

(2) 또한 잠언 25장 15절을 보십시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힘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Walvoord). 지혜로운 자의 부드러운 혀가 무슨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부드러운 혀는 "관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여기서 "관원"이란 말은 재판관과 같은 고위층의 관리를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옳은 판결을 청구하는 자는, 그 재판관의 태만한 것 때문에 분개하기 쉽지만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온유한 태도를 지키면 그 재판관도 감동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혀로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내력 있는 설득"으로 가능합니다(15절).

성경 잠언 15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자는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의인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의인이 노래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합니다(건져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의인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즉, 의인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노를 그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를 억제하며 노하기를 더디 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과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방의 노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내력과 설득력으로 상대방의 노를 그치게 하여 화평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로운 의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잠언 29장 12-21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적어도 한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디 책망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하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을 묵상하다가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 24, 26, 28절을 보면 세 번이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24절), (2)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26절), (3)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28절).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의 죄악 된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성경구절 3개를 들어보십시오: (마15: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갈 5:19-21)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 (딤후 3: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세 성경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본능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죄를 하나님께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우리의 죄악 된 본능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 아래 한 5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귀로 하여금 거짓말을 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2절을 보십시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가 솔깃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악하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과장된 거짓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조금씩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실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사귀지 말고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거짓말에 우리 자신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거짓말 하는 사람들로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연단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인 거짓을 다 제거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진실 되게 만들기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관원은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가 솔깃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악하기 마련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으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악하게 될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되게 행할 것이요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도자의 거짓된 행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막강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거짓말을 듣고 거짓된 행위를 할 때에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권력의 힘을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들도 거짓되게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한 예가 바로 성경 열왕기상 21장 나오는 악

한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을 위하여 그가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그에게 주고자(6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 인을 치고 봉하여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8절). 그 때 그 이세벨 왕후의 편지를 받은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과연 그들이 악하고 거짓된 이세벨이 쓴 편지 내용대로 행했습니까 아니면 거부했습니까? 성경 열왕기상 21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이세벨의 지시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후와 그 밑에 있는 악한 장로와 귀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악한 이세벨이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지신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 모인 자리에게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는데 그 거짓 증언이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13절). 이렇게 악한 이세벨 왕후는 거짓말을 시켰고 그녀 밑에 있는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도 그 거짓말을 하도록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지도자의 거짓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지도자가 우리 보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지도자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거짓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아예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도 말고 사탄과는 말을 섞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미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섞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요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탄의 거짓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인격화 되어가는 진실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 또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제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 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로 양육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읽은 인터넷 기사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자녀교육은?"이란 제목 아래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

울려 사는 세상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 한 예로, 어느 드라마에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대한 열등감에 어느 한 가정의 큰딸은 더 이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묻은 부모에게 그 딸아이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엇을 하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 기사 제목이 흥미로워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읽다가 그 내용 중에 좀 제 관심을 끌었던 기사 내용 부분이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를 무엇을 더 가르쳐야만 경쟁력 있을까?'하는 고민은 이미 경쟁력이 없는지도 모른다. 다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한 세대이기에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녀가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진짜 핵심 키는 인간의 '유능함'이 아닌 인간의 '인간다움임'을 기억하자"(인터넷).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이 메일 글을 보면 2006년 미국의 유학생(대학과대학원)수는 약 6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인도,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전체유학생수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유태인들 입니다. 그들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은 정말 특별납니다. 단연 세계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는 자녀교육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사사들의 치리가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사건, 만나, 여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등등 ...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음이 분명한데 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삿2:2)에 있습니다. 두려움과(철병거가 있으므로..) 환경을 보고, 불의와 타협함(사역을 시키고..)으로 불순종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으며 올무가 된 것입니다.

흔히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솔선수범을 하는 것을 보며 배운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잠언 29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개역개정)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방관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속에 들어가 어느 정도 것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되 너무나 지나치게 개입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컨트롤 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서 또한 너무나 자녀를 방관하는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인데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는 좀 자녀를 방관(neglecting)하는 스타일이고 자기는 좀 컨트롤링(controlling)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저희 부부는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부족함 점들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5절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자녀가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의 징계 차원에서 매를 들어 때리면 매를 맞은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면 경찰에 잡혀간다고 하지만 저는 잠언의 말씀대로 자녀 징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잠언 13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한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실히 우리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문하고 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잠언

23장 13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아마 어느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에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어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로 인해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해도 자녀를 때려서 죽게 하기까지는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자녀를 전혀 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훈계하는 것조차 주저한다면 그 자녀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계속해서 삐뚤어 나아가므로 결국 자녀도 잘못되겠지만 그것이 결국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현대인의 성경)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므로 부모가 욕을 먹든지 아니면 자녀를 징계하므로 부모가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을 얻던지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징계해야 할 때 사랑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욕을 먹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Tripp 목사님의 말처럼 ‘대화와 몽둥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몽둥이만 있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더 이상 말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9, 21절을 보십시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 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현대인의 성경) “말만 해서는 종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것은 그가 다 알면서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 종을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 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잠언 기자 당시의 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용할 때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녀를 무조건 오냐오냐하면서 곱게만 양육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우리 자녀는 버릇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가 고쳐야 할 점이 있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자녀와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먼저 몽둥이를 들고 우리 자녀를 때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가 자기가 고쳐할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행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점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10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고자 결국에는 우리아도 죽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징계 중에 하나로 아들 압살롬을 피신하여 유다 광야로 도망갔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 63:3).

우리는 우리 자녀를 제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우리를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꾸짖고 사랑의 매를 들어 징계해서라도 교육을 시켜 지혜를 얻게 해야 합니다(잠 29:1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악인이 많아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엔 악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리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엔 가난한 악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자 악인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이 세상엔 악인들이 많고 특히 부자 악인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성경 잠언 2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된 부자"들 말입니다. 여기서 "거짓된 부자"들이란 "두 길로 속이는 부자"들로서 겉으로는 선한 길을 가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길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박윤선). 이렇게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가 행하는 악한 길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3절). 학대하되 좀 더 구체적

인 예는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며 법정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현대인의 성경). 두 길로 행하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며 또한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 까지 해서 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와 보지 않은 뒤에서의 불일치된 행함으로 인하여 두 길로 속이는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모으되 잘 모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의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이중인격인 악한 부자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는지(시 73:12)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헛되도다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13절).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길로 속이는 이중인격인 부자들은 그리 재물을 쌓는 가운데 자신들의 악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자들은 “곧 넘어”질 것[갑자기 패망할 것(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8:18). 그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지는 한 때가 올 것입니다(박윤선). 성경 잠언 10장 16절을 보십시오: “…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소득이 많아지면 질수록 더 죄를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늘어나는 재산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6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현대인의 성경)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증가하겠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많아지고 있는 그 악인들이 세상 적으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미 12절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악하게 되므로 악인들을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많아 지는 악인들이 범하는 죄들도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같은 공산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가 죄악을 범할 때에 그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악하게 되어서(12절) 그들 또한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 죄악을 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악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다 더욱더 많아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의인들은 악인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죄가 더욱더 많아질 때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악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볼 때에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몹시 괴로워 할 것이기 때문임). 그 좋은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의로운 롯입니다.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은 악하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방탕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되 그는 몹시 괴로워 했습니다(벧후 2:6-8, 현대인의 성경). 그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악

인들을 어떻게 하셨고 의인인 롯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베드로후서 2장 7, 9,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악한 자들의 방탕으로 큰 고통을 받던 의로운 롯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 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사 형벌을 내리셨고 의인은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악인들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때에도 홍수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벧후 2:5)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주셨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다들 홍수로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와 일곱 식구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5절).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좇던 애굽 군인들은 심판하시사 전멸시키셨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출 15장).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되 우리는 악인들이 많아지므로 죄도 많아지는 모습을 마냥 쳐다만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영광)하게 해야 합니다(마 5:16).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고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무질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질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조직의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chaos)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지

켜지면 그 조직에는 화목과 화평(peace)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질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는 올바른 질서가 확립되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각 사람이 가정에서 자기의 성경적인 책임/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 가정에는 다툼과 불화로 인하여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 아내인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존경하여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게 하므로(창 16:1-4) 결국에는 그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므로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였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6절).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인터넷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에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한 사람"이란 제목 아래 쓴 글이 있어 읽어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글 내용 중에 그 글을 쓰신 장로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으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탐심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를 오직 나의 뜻, 그리고 나만의 달콤한 탐욕 때문에 새로운 질서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뜻", "나만의 달콤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세우신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무너트리면서 세상적인 질서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무한 경쟁 '이 아니며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약자들의 처절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불의한 인간의 질서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인간의 질서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개역개정)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묵시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무질서)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방자히"행한다는 단어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자하였습니다(32:25).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하므로(1절)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8절). 모세가 보기에 이

스라엘 백성들은 방자(out of control)했습니다(25절). 그 원인은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25절). 그러므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25절).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는 백성이었습니다(25절). 참으로 그들은 부패한 백성이요(7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8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9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히 행하였습니다. 방자히 행하되 성경 에스겔 16장 30절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영화로 온전케 된 화려함을 믿고 자신들의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음란을 많이 행하였습니다(14-15절). 그들은 색스러운 산당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을 했습니다(16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들로 우상을 만들고 행음했습니다(17절).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받쳤습니다(20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20절). 그들은 자신들의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28-29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음부 행위"입니다(30절). 그들의 마음은 너무 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한 음부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30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한 음부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방자히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 이유는 묵시가 없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자히 행하며 무질서하게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the lack of the Word)(참고: 삼상 3:1)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부족하기에(the lack of hearing the Word)(참고: 출 32:25, 레 13:45, 민 5:18)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여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MacArthur). 실제로 지금 우리는 아모스 8장 11절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가뭄)을 맞이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설교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모르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므로 방자히 행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과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가정과 교회 안에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자히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도록 (조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조급해서 실수를 범한 후 다시는 조급해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하는데 그리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 볼 때 저는 성격도 급한 면도 제게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언행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르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다 앞서 가므로 그르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조급함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게 하고 그 분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 마음의 조급함은 저로 하여금 잘못된 계획과 방법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고통스러운 결과를 내게 만듭니다. 결국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왜 조급한가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8절). 교만한 마음에는 참는 마음(인내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행뿐만 아니라 생각의 영역에서도 조급하게 주님 보다 앞서갑니다.

그 성경적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롬 4:18, 창 15:5)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의심하게 된 원인은 그녀는 분명하게 보이는 자신의 현실을 보이지 않는 미래 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현실이란 자기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이고(물론 남편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음)(롬 4:19) 보이지 않는 미래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인 25년 후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10년 후인(창 16:3) 그의 나이 85세 때 남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케 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16절). 사라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성취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내 마음에 조급함을 경계하자"라는 글도 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자.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놀라 걱정 근심 가운데 마음이 조급해져서 성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자. 내 마음에 조급함을 경계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 질 것이다.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 ."

오늘 본문 잠언 29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개역개정)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말이 조급한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말을 조급하게 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별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말을 성급하게 했다가 후회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 잠언 10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언젠가(2013년 7월) 제가 잠언 14장 말씀 중심으로 "자기 집(가정)을 허는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한 11가지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묵상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정을 허는 미련한 사람은 조급하고(잠14:29) 방자하여(16절) 분을 쉽게 내며(17절) 입술에는 지식이 없어서(7절) 과격한 말을 하면서도(15:1) 자신이 범한 죄를 심상히 여긴다(14:9)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말에 조급한 자는 다른 행동에도 조급한 법인데, 그 실수로 가져오는 불행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한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1) 욕을 당함(18:13), (2) 궁핍해짐(21:5), (3) 어리석음을 나타냄(14:29) 그리고 (4) 죄를 범함(19:2). 이렇게 말에 조급한 자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에 희망이 없습니다(29:20).

우리는 조급해 하지 말고(잠 29:20, 딤후 3:4) 갈급해 해야 합니다(시 42:1). 성경 시편 42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어 낙심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5, 11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8절, 현대인의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8절).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1, 2절)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9절)을 찾아야 합니다.

방자히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언 29장 18절).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음부의 행위"를 했습니다(겔 16:30).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영화로 온전케 된 화려함을 믿고 자신들의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음란을 많이 행했습니다(14-15절). 그들은 색스러운 산당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을 했습니다(16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들로 우상을 만들고 행음했습니다(17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받쳤습니다(20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17절). 그들은 자신들의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이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28-29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음부 행위"입니다(30절). 그들의 마음은 너무 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한 음부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30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한 음부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자했습니다(출 32:25). 그들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하므로(1절)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8절).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out of control)했습니다(25절). 그 원인은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25절). 그러므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25절).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는 백성이었습니다(25절). 참으로 그들은 부패한 백성이요(7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8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9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신 18:1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18절). 그러나 문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방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20절).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22절). 지금도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예언자/목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arrogant and careless)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4:16).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거만하여 경솔하고 부주의합니다(careless).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제한 받기를 거부합니다(unrestrained)(29:18).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므로 자기 행실을 삼가므로 자기의 영혼을 지킵니다(19:16).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9:18). 당신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방자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잠언 29장 22-27절]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십니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글을 보면 영국 교회의 복음적인 교역자인 케논 배터스비(Canon Battersby) 목사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한 왕의 신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교훈이 나옵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닌 왕의 신하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요4:50).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은 완쾌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의지함이라는 것입니다(인터넷).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볼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승리장로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가?’ 아니면 ‘나는 이 약속의 말씀 외에 혹시나 자주 내 자신이나 그리고/혹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지금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저는 아무도 또한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아무 무엇으로 인해 불안해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믿고 확신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는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의 가사처럼 세월 지나 갈수록 아무 일을 만나도 의지할 것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란 제목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 2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현대인의 성경)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싱글이었을 때 연애를 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았었습니다. '과연 저 자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등등 이러한 생각 속에서 상대방의 거절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 보니 저는 하나님의 크기보다 상대방의 반응의 크기를 제 상상력을 동원하여 확대시키므로 더욱더 상대방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거짓 자아를 형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김준수).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저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엔 그 중에 제일 보편적인 두려움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되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9장 22-27절에서 한 4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노하는 자 또는 성내는 자를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2절을 보십시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현대인의 성경) "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급한 사람은 죄 짓는 일이 많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분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Gary & Greg Smalley가 쓴 "THE HEART OF REMARRIAGE"란 책을 읽으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분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의로운 분노(righteous anger)는 건강한 변화(healthy change)를 가지고 오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분노(unrighteous anger)는 서로의 언행으로 죄를 지으므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아마 우리가 주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분노”하면 “불의한 분노”를 생각하지 의로운 분노는 잘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로운 분노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의한 분노를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죄를 범하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 하여 시비를 그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5:18). 그런데 많은 때에 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을 쉽게 내므로 우리 배우자와 다툼을 합니다(15:18, 21:9, 19).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분노하는 자는 과격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15:1). 과격한 말을 하되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라 마치 연거푸 떨어지는 물방울(19:13)처럼 말을 끊지 않고 분노 가운데 계속 상대방 배우자에게 말을 쏟아 붇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박윤선) 특히 우리나 우리 배우자가 미련한 자라면 어찌되겠습니까? 성경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 배우자가 미련하여 새끼 빼앗긴 무서운 암곰보다 분노할 때 들 합리적(이성적)이면 그 부부 싸움이 어찌 되겠습니까?

분노하고 배우자는 충분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배우자가 미련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분노하는 배우자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나 직장 사람들 중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신1:29).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성경구절 외에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분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2)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현대인의 성경)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전에 성경책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만이란 사람 중심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 교만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에 5:13).

하만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하만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이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자기 밖에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11-12절).

(b) 교만한 사람은 착각을 잘 합니다(6:6).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한 유다 사람 모르드개(2절)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해서 하만을 불러다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6절). 그 때 하만은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라고 착각을 했습니다(6절).

(c) 교만한 사람은 높임(존귀함) 받기를 좋아합니다(6:7-9).

모르드개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은 자기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줄 착각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7-9절). 하만은 자기가 높임(존귀함)을 받을 줄 알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7절)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는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나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침투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착각을 잘하며 높임(존귀함) 받기를 좋아했던 하만의 교만함을 짧게나마 묵상하면서 혹여나 우리 자신이 하만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73편을 보면 마음이 정결한 시편 기자 아삽이(1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여기서 악인의 형통함이란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는 것(4-5절, 현대인의 성경) 등등 여러 가지 입니다. 그 중에 악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6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이러한 교만한 악인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교만한 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29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현대인의 성경)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우리가 교만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23절, 참고: 삼하 22:28, 욥 40:11).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추시되 하나님께서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므로 그들을 낮추신 것처럼(신 8:16)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므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약 4:10).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마 18:4). 낮추되 우리는 자신을 낮추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빌 2:8)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약 4:10).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사(잠 3:34, 벧전 5:5) 그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욥22:29, 시149:4). 성경은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라(존경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9:23).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입니다(15:33).

(3) 우리는 도둑과 공모자를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4절을 보십시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도둑과 공모하는 사람은 영혼을 증오하는 자이다. 그는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소리를 들어도 법정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도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나니에 이르셨을 때 그 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요 12:1-2,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3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마리아에게 했습니다(4-5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러라”고 말씀했습니다(6절). 가룟 유다는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둑이 힘과 권력이 있는 나라 지도자들이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짝하면(한 패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 이사야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현대인의 성경) “너의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들과 한패이며 하나같이 뇌물과 선물받기를 좋아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는구나”].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이 고관들/지도자들과 짝하면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나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4절을 보면 성경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과 짝하는 자”는 도적과 함께 도적질을 계획하고 그 배후에 앉은 자”입니다(박윤선). 그 좋은 예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박윤선). 남편인 아합 왕의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안 하고 있는지 물어본 왕후 이세벨은(왕상21:4,5) 고작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 때문임을 알고(6절)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이래서야 어떻게 이스

라엘 왕으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7절). 그리고는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8절).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은 나봇을 모함하여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 하였다' 하여 나봇을 돌려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9-10절). 참으로 "술수"가 많은(왕하 9:22) 간악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받은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지시, 곧 그(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왕상 1:11) 결국 나봇은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13절). 결국 이세벨은 자기의 남편에게 약속한 것처럼(7절) 아합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15절). 그녀는 나봇을 죽여서라도(14, 15, 16절)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준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아합을 배후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바로 아합을 충동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한 자입니다(25절). 그녀가 바로 아합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26절). 이렇게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상대방 것을 빼앗은 도둑과 께 도적질을 계획하고 그 배후에 앉은자는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도둑이나 도둑과 짝하는 그 배후 인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오늘 본문 잠언 29장 24절을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21장 20절과 25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팔아 도둑과 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행하는 악한 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여 자기 자신을 팔아 도둑과 짝하는 자는 오늘 본문 잠언 29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현대인의 성경) "그는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소리를 들어도 법정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도둑과 짝하는 자는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소리를 들어도 법정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도둑과 공모하는 자는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자는 결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밥 먹는 것보다 더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도둑과 공모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시 121:4-5).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7, 8절).

(4) 우리는 불의한 자를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고 …"].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하다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다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불의"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싫어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 우매함, 배악함, 무정함, 무자비함입니다(롬 1:29-31). 우리가 이러한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사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22장을 보면 점술가(7절; 수13:22) 브올의 아들(민22:5) 발람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발람의 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31:16)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벧후 2:15)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을 뿐만 아니라(민 25:1)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한 것입니다(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3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매어 죽임을 당하고(4절) 이스라엘 백성 중 24,000명이나 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9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은 "불의의 삯을 사랑"하였던 발람 때문이었습니다(벧후 2:15). 이렇게 불의의 삯을 사랑하는 불의한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의를 행하게 만들므로 다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사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자가 의인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불의한 자는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살후 2:12). 그러므로 진리를 믿고 의를 사랑하는 의인은 불의한 자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의한 자의 모든 불의도 미워합니다.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9:14).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습 3:5). 또한 성경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18).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의한 자를 미워하며 그들의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노하는 자(성내는 자)나 교만한 자나 도둑과 짝하는(공모하는) 자나 불의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올무(덫)에 걸린다고 오늘 본문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것이요(신 7:21),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현대인의 성경) “…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길 원하며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바울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삼가라”, 즉 “조심(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유대주의자들을 염두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구약의 의식들(특히 할례의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복음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진짜 신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교회에서 복음의 명료성을 훼손하고, 복음을 심각하게 더럽혔으며 또한 이방 신자들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그 혼란에 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바울의 논리는 누군가가 (1)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2)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3) 다음에 즉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준비를 한다고 말한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은 누군가가 (1) 그리스도를 믿고, (2)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3) 그리고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메이첸). 이 차이가 아주 미묘한 차이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란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반면에 유대주의 자들은 인간이 노력하여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파하였던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지만(은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짓된 복음은 죄인인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공로). 한 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물질을 탐하여 스승으로 자처하고 돌아다니는 까닭이었"습니다(3:19).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된 복음(가르침) 을 전하는 거짓 스승들인 유대주의자들이 위험하기에 그들을 주의(조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이나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음 더하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복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는 모든 가르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5절 하반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한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u>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합니다.</u>

오늘 본문 잠언 29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현대인의 성경)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위험할 때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피합니다(시 31:1).

(2)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6절을 보십시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를 의지하여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환심을 사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할 때 우리는 아부성 있는 말(발언)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뇌물성 있는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행들은 우리가 그 만큼 하나님 보다 그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29장 25-26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자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의 작정은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르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27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의로운 사람은 정 직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 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25절).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 사람(통치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26절). 달리 말 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바르게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27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25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6절) 불의를 행하지 않고 바르게 행합니다(27절). 그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합니다(렘 7:5). 그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시 119:128) 미련한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잠 15:21).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시편 146편 3절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유명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사람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신뢰는, 하나님 신뢰의 길을 차단시키는 악한 사상이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의 행위에 나아가게 하려고, 먼저 인간 신뢰의 죄악을 금지시킨다”(박윤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행위는 진정한 우리의 도울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신뢰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의뢰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잠 29:25).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노하는 자 또는 성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나 도둑이나 도둑과 짝하는 공모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불의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르게 행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에 그는 안전할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는 사람

[잠언 30장 1-9절]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제가 신앙의 여정에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나는 할 수 있다"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광야로 삼고 목회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더 의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잘못된 기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즉,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함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빌1:8)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게의 아들 아굴"을 가리킵니다. 이 아굴이란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와 있기에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야게"이고 "아굴"이란 이름의 뜻은 "gatherer"(채집하는 사람)입니다(Tyndale Concise 성경주석). John MacArthur 목사님에 의하면 아굴이란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지혜의 학생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MacArthur). 이 아굴이란 사람이 오늘 본문 잠언 30장 3절 상반절에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저는 나는 아굴처럼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되기보다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잠언 30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압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현대인의 성경)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도 못하며 내게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요한1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경 레위기 11장 45절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우리가 얼마나 성스럽지 못한지(unholy)를 알아가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호 4:6, 7).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6절).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3).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천지 차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사 55:9). 우리는 우리의 표준과 하나님의 표준이 천지 차이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2-3절을 보면 잠언 기자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했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73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던 시편 기자 아삽은(3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후(17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

리석고 무식하여 주님 앞에서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22절). 잠언 기자 아굴이 오늘 본문 잠언 30장 2-3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으며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아굴은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되 누구에게 그리 고백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디엘과 우갈"이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굴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었을 것입니다(MacArthur). 아굴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현대인의 성경)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오목한 손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알면 말해 보아라"](4절). 아굴이 이리 질문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굴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고백하므로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준 것입니다(MacArthur).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15절). 그 때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16절).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안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잠 30:3).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무지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는 "연단"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잠 17:3). 연단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우리)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셨습니다(사 48:10).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연단시키시되 하나님은 고난의 통로를 걷게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되게 만드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찌끼와 혼잡물과 같은 우리의 믿음(사1:25)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정화시키시사 우리의 믿음을 순금 같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케 하십니다(단 11:35).

오늘 본문 잠언 30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그는 방패가 되신다"]. 잠언 기자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은이나 금을 녹여 불순물을 제하고 순수하게 한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어떻게 제하는 줄 대충 아시죠? 은을 용광로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하여 불순물인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여러 번 높은 열로 제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대장장이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높은 열과 싸우고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원하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인터넷). 성경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치 대장장이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높은 열로 은을 제련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자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사 48:10).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육신적이고 이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처럼 들어 있을 때에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제하고 이에 대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연단의 불인 시련과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인터넷).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성경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잠언25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쓸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셔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잠 30:5). 그 말씀은 시편 12편 6절을 보면 "…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현대인의 성경) "… 확실하여 용광로에 일곱 번이나 정련한 은처럼 순수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수한(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사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u>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벧전 2:2).</u>

우리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잠 30:6).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며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다 보면 그 말씀에 더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현대인의 성경)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2) <u>우리는 그 순전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잠 30:5)</u>.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숨는다'(to hide oneself) 혹은 '피한다'란 뜻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어렵고 위태한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가사와 후렴이 생각납니다: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 합니다" (후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되 우리는 주님의 순전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진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30:5).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현대인의 성경)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합니다(잠 30:5).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글을 보면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 내용 중심으로 이러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셨듯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용서를 죽음 앞에서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게 깨달아서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한 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돼야 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성경 민수기 27장 16-17절을 보면 자기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13절, 현대인의 성경)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자기의 삶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참고: 왕하 20:6).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 그가 그리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참고: 신 34장).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민 27:12-13). 그러면 모세가 죽기 전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한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16-17절). 즉,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회중 위에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죽기 전에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자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생각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7-8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현대인의 성경)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

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잠언 기자 아굴은 주님께 두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자기가 죽기 전에 허락해 주시길 기원했습니다.

(1)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현대인의 성경)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입니다(8절상).

우리도 아굴처럼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헛된 것"을 생각할 때 2010년도에 묵상한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헛된 세상"(전 1:1-11), "헛된 지혜"(1:12-18) 그리고 "헛된 쾌락"(2:1-11).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아무 유익(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1:3), 한 평생 사는 인생은 결국 별 수 없이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이요(5-6절), 인간의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요(8절)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을 기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11절).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된 이유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한 결과 이것은 괴로운 일이며(10절), 인간의 지혜로는 망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으며(15절) 또한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14절)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쾌락을 누려보려고 시험적으로 술을 시도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2:3) 큰 사업도 시도해 보았으며(4절) 또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지만(8절) 결론은 "이것도 헛되도다"였습니다(1-2절).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굴처럼 주님께 이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에게 멀리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 아굴은 "헛된 것"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멀리해주시길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거짓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 기자 아굴처럼

주님께 “거짓말”을 멀리하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멀리하는 것이요 또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과 진리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을 가까이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길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현대인의 성경)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였습니다(8절하).

저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주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라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마 6:11). 여기서 “일용할 양식”(daily bread)란 그 날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 동안 먹을 양식’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출 16:4).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째 되는 2월 15일에(1절, 현대인의 성경)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2절). 그 원망의 내용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였습니다(3절).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4-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원망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매일

나가서 그날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둔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므로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잠언 30장 8절 하반절에서 잠언 기자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당시 원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데로 양식(daily bread that we want)을 주시길 구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필요한 양식(daily bread that we need)을 주시길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기자 아굴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중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 내용을 묵상할 때 저는 빌립보서 4장 11하-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가난에 처하는 것이나 부유함에 처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에(13절) 그에게는 가난함이나 부유함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8절 하반절에서 아굴이 하나님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길 구한 이유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얼마나 공감되는 이유입니까. 물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중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출20:15)는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왜 아굴이 하나님께 "부하게도 마옵시"길 구했는지 그 이유가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의 이유가 많

이 공감되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부해졌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아굴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배우는 우리도 아굴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우리에게서 멀리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사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굴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혹여나 우리가 부하게 되어 배불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혹여나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굴처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압니다.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화시키사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전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우리에게서 멀리해주시길 기도하며 또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길 기도합니다.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0장 10-17절]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할까요?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란 제목을 걸고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하려고하기 보다 너무 빨리 오해하는 사람, 진심으로 칭찬하기보다 비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참고 인내하기보다 너무 쉽게 함부로 분노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기보다 자기 주장하기 바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 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잠언 30장 10-17절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한 7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방(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남의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하여 네가 그 대가를 단단히 받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말 많은 ‘수다쟁이 직장동료’ 퇴치법”이란 글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기사에 의하면 “많은 직장에서 갈등의 원천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직장 동료의 끊임없는 수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및 기업 근로자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3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직장 동료가 한 명 이상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다쟁이들은 동료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잦으며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경력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이러한 수다쟁이 직장 동료가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래서 그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사장

님에게 가서 여러분에 대해 수다를 떨다가 여러분에 대해 비방을 했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 동료가 사장님에게 여러분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장님과의 관계가 어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의 재정 사정이 힘들어서 꼭 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직장 동료가 사장님에게 가서 여러분에 대해 비난을 하므로 사장님이 여러분을 안 좋게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사장님이 여러분에 대한 비방의 말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통해 듣고 여러분을 해고한다든지 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30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남의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종의 신분으로서 상전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상전에게 자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은 자기 상전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비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비난(false accusation)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상전이 그 말을 믿고 그 종을 수상하게 볼뿐만 아니라 안 좋게 본다면 그 종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종을 그 상전에게 훼방하면, 그것은 그에게 대한 상전의 사랑을 끊어주는 악한 짓이다. 종의 생계가 그 상전에게 달려 있는데, 만일 그 상전이 그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는 비참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그 상전 앞에서 훼방함은, 훼방의 죄만 아니라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잔인한 죄까지 범함이다." 성경 신명기 2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현대인의 성경) "만일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떠나 도망치면 여러분은 그를 억지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여기서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한 이유는 그의 주인이 부당한 주인(an unjust master)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당신에게 도망왔다면 그 종을 억지로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상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종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종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30장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하여 네가 그 대가를 단단히 받게 될 것이다"]. 그 종은 자기 상전에게 거짓 비난을 한 사람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값비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전에게 종에 대한 거짓 비

난(비방)의 대가는 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남의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잠 30:10).

요즘 우리는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 등 많은 사람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 없이 보게 됩니다. 그 비방의 댓글들로 인해 그 유명 연예인들 등은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까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한 유명 연예인이 온라인 SNS상에서 자기에 관련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적 희롱 등 명예훼손 게시글/댓글 사례에 대해 강경 대응인 법적 대응으로 형사 고소장을 서울 강남 경찰소 사이버 수사팀에 제출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인터넷). 인터넷상에서 댓글의 말 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시대를 맞이한 듯합니다. 청와대 웹사이트에 어느 사람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자살로 이르게 하고 비난 비방하고 정말 언어의 살인자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입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신중해야 합니다(제 자신이 그리 잘 못하고 있기에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임).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비난/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남의 하인(종)을 비판(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한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이든 교회의 형제, 자매이든 심지어 가족 식구이든 다른 사람들에게(앞에서) 판단하며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잠 30:10).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대가를 단단히 받게 될 것입니다(10절).

둘째로,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1절을 보십시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부모님께 효를 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리 생각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현대인의 성경)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지금은 말세요 고통 하는 때입니다. 이 어려운 말세 때 징조 중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지금도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게 된 지체들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척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자기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지체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어떠한가 생각해 볼 때 대체적으로 지체들이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좋은 듯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축복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1절 말씀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잠언 기자 아굴이 “저주”란 단어와 “축복”이란 단어를 둘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굴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혹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란 부모님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축복해야지 저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 레위기 2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는 자기를 낳아 준 부모를 저주하였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참고: 막7:10).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을 죽을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공경하되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책 제목이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것처럼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는 것 좋다(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자녀가 부모님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해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고 축복해야지 저주해서 되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6장 28절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Y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어느 남자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제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대화를 하길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F…"욕을 해가면서 대화를 하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때 저는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해가면서 대화를 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저 여자의 입이 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저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작년 미국 NBA 농구 서부 결승전에서 한 유명한 독실하다는 기독교 농구 선수가 'F…'욕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로부터 면책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페이스 북에다가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그 인터넷 뉴스 기사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F …'욕 뿐만 아니라 다른 욕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욕을 하는 것만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욕만 하고 다른 죄는 범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국 어느 교회의 "새 가족에게 꼭 가르쳐야 할 5가지 원리"라는 성경교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어 여러분과 나눔니다: "…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경은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간음했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더럽고 추한 죄입니까?"(인터넷) 그래서 우리는 종종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기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자백(인정)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다른 사람이 그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30장 12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스스로 깨끗한 체하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3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4가지가 있습니다(박윤선): (1)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종교의 외부적 규례에 치중하고 심령 상태를 등한히 합니다(마 23:25-27), (2)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한 2가지 잘 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격 전체가 완전해진 듯이 높아집니다(눅 18:12), (3)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남들을 자기만 못한 자로 여기고 차별합니다(11절), (4)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속죄하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특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자기 의"(self-righteousness)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의"란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 곧 "율법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롬 3:20; 갈 2:16). 그 이유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이 여깁니다(사 64:6).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롬 3:21-22).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행 13:38).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대속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어(롬 4:25)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만 의지합니다(3:22).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추구하는 본능적인 '이기심'(selfishness)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랑(self-glory)하게 만들어 '자아-숭배'(self-idolatry)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여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처럼 이타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롬 4:25).

넷째로, 우리는 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눈이 대단히 높고 거만한 자가 있으며"("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본능을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란 인물이 생각납니다. 물론 우리는 "사울 왕"하면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15:22)는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문맥에서 다시금 살펴보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했어야 했었는데(3절)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 주시오"(30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책망을 받은 와중에서도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높여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스스로 작게 여길 정도로(17절)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한 자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질의 원인이 적어도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겸손에서 교만으로 변질되는 원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쳐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위급함 속에 휘말려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상황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보면 해변의 모래 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 쳤을 때(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saw that their situation was critical) 모두 다 두려워 떨면서(7절) 사울에게서 흩어져(8절) 여기 저기 숨었습니다(6절). 자기 앞에서 그리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한 믹마스에 모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11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13, 14절). 그는 사무엘의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친히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9-10, 12절). 제사장만이 드릴 제사를 사울 왕은 자기가 친히 하나님께 드리므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제사법을 무시한 사울 왕의 불신앙이며 또 교만이었습니다(박윤선).

(2) 겸손에서 교만으로 변질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영광 받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삼상 15:12).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까? 오히려 사울 왕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 14:35) 왜 그는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였습니까? 그 원인은 이미 사울 왕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대단히 높고 거만한 자가 있으며.” 여기서 “눈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은 “교만한 눈”(6:17) 또는 “마음이 교만한 것”(21:4)을 말합니다. 이렇게 눈이 대단히 높은 교만한 자가 바로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이 말한 형통하는 악인들[잘되는 악인들(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73:3).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6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7절) 또한 그들은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8절). 어느 정도로 그들은 거만하게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29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요 분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하며 교만한 자는 다툼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성읍을 요란케 합니다(MacArthur).

저는 제 자신의 교만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제 안에 교만함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하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 건가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의 교만함은 저를 사랑해서 책망해주신 분을 싫어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거만함은 진리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여 거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만함은 저로 하여금 세상의 어리석음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를 너무나 속히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9:8).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잠 6:16).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 101:5).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을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27).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사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기보다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남의 것을 착취하여 우리 자신의 영리만 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갑의 착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국 뉴스를 통해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단어는 한국에서 무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첫 머리에는 반드시 갑(甲)과 을(乙)이 등장한다. 계약당사자를 간단히 표시하는 글자다. 갑은 대개 계약을 주는 쪽이고 을은 계약을 받는 쪽이다. 그래서 대체로 갑이 더 힘이 센 쪽이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기 마련이고, 갑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을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갑의 횡포를 “갑질”이라 하는 것 같다. 갑같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는 뜻일 것이다”(인터넷). 이렇게 갑이 을에게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라 바로 ‘착취’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력이나 분배되어야 할 몫을 착취하는 짓이 바로 ‘갑의 착취’입니다(인터넷). 갑은 수많은 을을 착취하되 노동착취 같은 것을 하여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을에게서 약속의 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므로 돈까지도 착취합니다.

성경에서는 “갑의 착취”는 시편 73편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악인들의 모든 행동과 표현이 남을 압제하며 착취하는 포학뿐이라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런데 이러한 착취의 행동을 악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5장 7-9절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도 자기 동족에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중히 생각한 다음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소!' 하고 책망하였다. 그리고서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다.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느헤미야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백성을 착취하기 때문에 시련이 더 심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는 ‘형제의식’의 결핍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이동원).”

오늘 본문 잠언 30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기 영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개역개정) 앞니는 장검 같고 어

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서 개역개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니는 장검 같고 어름니는 군도 같”다는 말씀은 잔인성을 비유하는 시적 표현입니다(박윤선). 즉,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잔인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탐심을 채우는 자들로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서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기 영리만을 추구합니다. 그 좋은 성경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은 자기의 충성된 시민인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 결국에 가서는 아무 죄 없는 나봇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목자들이 탐심 속에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56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욕심꾸러기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오늘도 또한 내일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일을 좋아하였고(10절) 탐심이 많았습니다(11절). 그러면서도 각성이 없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11절). 그들은 자기 사정만 돌아보면서 술에 취하여 쾌락을 누렸습니다(11-12절).

우리는 자기 사정만 돌아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마 22:39).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웃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어 그들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행 20:20). 그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리낌이 없는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21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24절).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는 일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했습니다(9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오해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자기들을 착취했다고 간교하게 속임수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12:16, 현대인의 성경). 이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

하기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리도 조심하였는데 그가 자기들을 착취했다고 간교하게 속임수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었을 까요? 새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가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겸손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되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불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만이 온전히 만족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90편 14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현대인의 성경)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만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후 3:5).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만족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불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만족하는 마음은 무익한 것을 추구합니다(전 5:10, 11).

오늘 본문 잠언 30장 15-16절을 보십시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거머리처럼 지칠 줄 모르며 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서넛 있으니 그것은 지옥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비로도 흡족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

다"]. 여기서 "거머리"나 거머리의 "두 딸"이나 스올과 배지 못하는 태와 물과 불은 모두 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 모든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탐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예를 들어, "거머리"란 환형동물은 몸길이가 3-4cm밖에 안되지만 몸의 양끝에 빨판이 있어 다른 동물의 살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데 아주 팽팽할 때까지 피를 빤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런데 그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오 다오"(give give)인 것을 보면 끊임없이 피를 빨아들이는데 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Believer's Bible 주석). 박윤선 박사님은 "스올"은 죽은 자를 삼키고 또 삼켜도 차지 않고, "아이 배지 못하는 태"는 늘 잉태하기를 원하고, "땅"은 물을 붓는 대로 다 스며들고, "불"은 연료를 계속 공급해도 그것을 다 연소시키며 더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렇게 거머리나 거머리의 두 딸이나 스올이나 아이 배지 못하는 태나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나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으로 인한 불만족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성경 에스겔 16장 28-29절을 보면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음욕"입니다: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앗시리아 사람들과도 음행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상업의 나라 바빌로니아 사람들과도 음행하였으나 너는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족한 줄을 모르는 음욕 외에 성경은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7:20). 즉, 눈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벧후 2:14).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광명"에서 욥기 31장 1절인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 만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 여러분의 눈이 어떤 것들을 탐하지 말게 하십시오. 똑바로 앞만 바라보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 여러분은 눈과 언약을 맺고 앞만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거룩과 하늘만 주목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마치 바다가 언젠가 흘러오는 물로 차지 못함 같이(전 1:7) 사람의 욕심에는 끊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끝없는 욕심을 만족시키고

자 이 헛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전도서 2장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그는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가 막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2:10).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11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불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불만족하며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욕심입니다. 이렇게 욕심이란 무섭고 참 위험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욕심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탐심 속에서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고 합니다(딤전 6:6-10).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잠 28:25).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유익과 의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조롱하며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늙어가는 부모님 얼굴 볼 때마다 하는 후회 6가지"란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인터넷): (1) 부모님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2) 부모님에 대한 무관심, (3) 애정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4)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5)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그리고 (6)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그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서로 간병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도 봅니다. 심지어 생사

의 갈림 길에 놓여 있는 아버님 또는 어머님을 뵈면서 우리 자녀들은 자책하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우리는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30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현대인의 성경)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조롱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조롱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인터넷). 원어 히브리어 의미는 다른 사람을 폄하할 정도로 비웃는 또는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DBL Hebrew). 그 예가 바로 잠언 17장 5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조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녀가 아버지를 폄하하는 말로 아버지를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아버지를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말로만 자녀가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이사야 3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앗수르 왕을 멸시하고 조소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반절에 보면 "…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는 말씀을 보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머리를 흔들므로 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등을 보이고 걸어가면서 머리를 흔들거린다면 이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출 20:12; 신 5:16; 마 19:19; 엡 6:1, 2)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녀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에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아버지를 조롱하는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에(레 19:32)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참고: 말 1:6).

그러면 왜 자녀가 자기의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자녀는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는 그 자녀가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므로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혜가 없으면(잠11:12), 즉 미련하면(23:9)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고 업신여겨 그녀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기에(13;13)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어머님을 공경하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조롱하며 업신여기는 자녀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30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공중의 새들이 죽은 시신을 먹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특히 까마귀나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죽은 시체를 발견하면 내려와서 시체에 올라서 시체의 살을 쪼아 먹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며 업신여기면서 불순종하는 자녀의 결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2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출 20:12; 신 5:16; 마 19:19; 막 10:19; 엡 6:2).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잠언 30장 10-1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한 7가지로 배웠습니다: (1) 우리는 비방(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10절), (2)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11절), (3)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12절), (4) 우리는 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13절), (5) 우리는 남의 것을 착취하여 우리 자신의 영리만 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14절), (6) 우리는 불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15-16절), 그리고 (7)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조롱하며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순종해야 합니다(17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잠언 30장 12절).

책을 내는데 적어도 두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저를 도우시므로(느 2:18) 저의 부족한 책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약 한달 반 만에 빨리 나와서 저희 교회 30주년 기념 연합 예배 때(7월4일) 저희 교회 식구들과 식구들의 이웃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을 받아본 후 읽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읽어내려 가면서 든 생각은 ‘아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내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써 놓고도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부족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을 두 번째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더욱더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책을 낸 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더럽고 추한 죄악된 것들을 전보다 더욱더 들춰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춰지는 제 마음의 추악함을 직시하면서 제 자신으로 인하여 실망하며 슬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죄를 들춰내시므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잠언 29장에서 31장을 읽다가 오늘 본문 잠언 30장 12절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those who are pure in their own eyes”(NIV)]라는 말씀 때문 같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읽었을 때 제 책 제목인 “마음이 정결한 자”(those who are pure in heart)가 생각났기에 제 시선이 그 성경구절에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할 때 든 생각은 제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또 무서운 것은 제 마음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교만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장님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란 놈은 저의 영의 눈을 멀게 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자기의 죄를 못 보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대신 교만은 저로 하여금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악을 더욱더 보게 하므로 마음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게 만들기에 참으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란 제 눈을 심히 높게 하므로(잠 30:13) 말미암아 제 자신의 마음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표면적인 죄는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기에 교만이란 참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죄를 보는 것도 시간이 모자를 텐데 남의 죄를 부지런히 바라보고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판단하며 정죄하곤 하니 참으로 마음이 교만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하고 마음이 정결치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득 찬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시므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제 더럽고 추한 마음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의지케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싶습니다. 물론 찬송가 332장 4절 가사처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할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는 바 죄질 생각 다 버리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버리고 싶습니다. 버리고 버려도 또 드는 죄질 생각들로 인해서 괴롭다가도 많은 때에 마음이 강퍅해져서 죄질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또 회개, 회개하므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 주여, 제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삶?

[잠언 30장 18-33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제 아들 딜런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의 뜻대로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오다가 몇 년 전에 둘째 예리의 일로 인하여 예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다가 예리뿐만 아니라 막둥이 예은이나 첫째 딜런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제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죄악 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기에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의 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 우상숭배의 큰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제 자녀들이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30장 24절을 보면 성경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4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을 걸고 오늘 본문 잠언 30장 18-33절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 한 5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된 옛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옛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는 죄악 된 옛 본능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믿는 데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분수에 넘치는 욕심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은 우리 욕심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 욕심 따라 행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리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는 제가 믿고 말(설교)한 데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의 위선이 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다시 성도님들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설교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내 공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아닌 사람인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위선이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언행과 교회 밖에서의 언행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고 옳게 보이며 본이 되는 듯 한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이 말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선이란 우리의 말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자는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매끄러운 말을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마치되 자기의 악한 마음을 매우 따뜻한(열렬한) 사랑의 말로 가장합니다(잠언 26:23). 우리는 이미 잠언 26장 23-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선자의 입술과 마음은 어떻게 다른지 한 6가지로 배웠습니다: (1) 위선자의 입술은 온유하지만 그의 마음은 악합니다(23절), (2) 위선자는 자기의 미운 감정을 아첨으로 숨깁니다(24절), (3) 위선자는 그의 말을 좋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추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25절), (4) 위선자는 속임으로 자기의 미움을 감출지라도 반드시 그의 악은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26절), (5) 위선자는 함정을 파지만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27절), 그리고 (6) 위선자는 거짓말을 합니다(28절).

오늘 본문 잠언 30장 18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4가지 자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란 첫째로 독수리의 자취, 둘째로 뱀의 자취, 셋째로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넷째로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한 자취, 음녀의 자취입니다(19-20절). 이 4가지 자취 중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음녀의 자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음란한 여자의 자취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시치미를 떼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잠언 기자가 음녀는 음행의 죄를 범하고서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녀가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conceal)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가 감춰져 있듯이, 바위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가 감춰져 있듯이, 음녀는 자신의 음행의 죄의 자취를 감추려고 입술로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7장 10절을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교한 계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이유는 그녀가 그 소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간교한 창녀는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는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바로 ‘숨기다’(hidden)입니다(MacArthur). 과연 그녀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 잠언 23장 27-28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인간에 궤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가 한 지혜 없는 자를 창녀의 옷같이 입고 맞이하는 숨겨진 의도는 “함정”을 놓아 그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faithless)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음녀의 숨겨진 참된 의도는 많은 결혼한 남자들로 하여금 결혼할 때에 언약하였던 것을 파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렇게 음녀는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30:20). 이것은 그 음녀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가장 지혜로운 자는 위선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참고: 벧전 2:1,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위선을 버리고 또 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위선적인 면을 들춰내시고 책망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현대인의 성경)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

리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들춰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마 23:28). 또한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마 23:25, 현대인의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지혜는 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의 정욕과(롬1:24-25)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바꾸어 역리하여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26-27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악한 일"(현대인의 성경)]입니다(28절).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질서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가정에서 각자가 자기의 성경적인 책임을 신실하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내의 책임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골 3:18). 이것은 아내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제도에 아내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적합한 것(it is fitting)입니다. 또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게 주신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 남편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도 그들의 어머니를 본받아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인 남자에게 신적 권위(divine authority)를 주셨는데 그 권위에 그의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엡 5:22) 남자의 권위가 가정에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엡 5:33)라고 명하고 있는데 남편을 경외/존경하기를 거부하는 그의 아내로 인하여

남자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선 가정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가장인 남편/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아버지를 경외하고 존경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므로 결국 분수에 넘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볍게 여기던지 더 나아가서 하잖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민수기 16장 9절에 나오는 레위 자손 고라처럼 당파를 지어 교회란 조직에 질서를 깨는 화평을 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화평을 깨는 자들은 교만함 가운데서 분수에 넘치는 언행을 삼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기에 더 크고 높은(?) 직분을 시기하며 탐하는 가운데 결국 인간의 힘으로 교회 직분을 얻고자 당파를 교회 안에서 짓고 교회 회중 앞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비방과 정죄를 함부로 하며 악성루머까지 사용하여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는 행위는 분명히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교회 회중 앞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결코 직분이 주어진 첫 순간에만 은혜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직분자로서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겸손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직분자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직분자로서 맡겨진 책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히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질서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21-23절을 보십시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서넛 있으니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계집종이 자기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21-23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질서가 거꾸로 된 상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 4가지 상태란 (1) 종이 임금이 된 것, (2)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22절), (3)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 그리고 (4)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23절). 이 4가지 상태의 공통점은 모두 다 무자격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종이 임금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22절 말씀처럼 종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현대인의 성경)]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은 어떻습니까?(22절) 이 말씀의 의미는 미련한 자가 부자 된 것을 말하는데(박윤선) 이것이 세상에서 용납이 될 만한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23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갈 수가 있나요? 시집갈만한 자격이 없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는 것이 용납하기가 힘든 사실이 아닌가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23절), 다시 말하면, “계집종이 자기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23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용납하기 힘든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4가지 상태 모두 다 무자격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질서가 거꾸로 된 상태를 말합니다(박윤선).

이렇게 질서가 거꾸로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종이 나는 마땅히 임금이 되어야 해’, ‘미련한 자가 나는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해’, ‘미움 받는 여자가 나는 마땅히 시집을 가야 해’, ‘여종이 나는 마땅히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등은 무질서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함을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언행을 하므로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

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임금 되고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고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개미같이 근면하고, 사반과 같이 위험을 내다보고 거처를 견고케 하고, 메뚜기 같이 단결하고, 그리고 도마뱀 같이 재빠르고 꾀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언젠가 읽었던 강준민 목사님의 칼럼인 “폭풍 속에서 배우는 지혜”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2 가지만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배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배워야 올바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잘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는 법을 배우면 일평생 유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배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배움은 폭풍 속에서도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가끔 풍랑을 만납니다. 가끔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가끔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인생이 고난만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환란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배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모든 인생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폭풍은 학교입니다. 고난은 스승입니다”(강준민).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동물에게서도 배워야 합니다. 한 2년 전에 헬스조선에서 읽은 기사가 있어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닭에게 배우는 건강 습관 5”입니다(인터넷):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닭은 동트기 직전인 새벽 4~5시부터 ‘꼬끼오~’ 울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면 밤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새끼를 극진히 아낀다는 것입니다.

닭은 모성애가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슴 털을 뽑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알을 품는 20여 일 동안 추위, 더위를 안 가리며 꼼짝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닭은 모이도 거의 안 먹는다고 합니다. (3) 골고루 먹는다. 닭은 잡식성으로 음식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골고루' 먹는데 중요합니다. (4) 부 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닭은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5) 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닭이 물 먹고 하늘 보는 행동을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닭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물은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몸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24-28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4 종류의 동물들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지혜에 의하여 잘 사는 동물들입니다(박윤선).

(1) 개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잠언 6장 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2가지입니다(박윤선):

(a)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협력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6장 7절을 보십시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개미"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개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인터넷 글을 읽어 보니까 개미에 대한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 한 3가지 나눕니다(인터넷):

(i) 개미들은 서로 사려(thoughtful)가 깊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개미”하면 여왕개미하고 일개미로 생각하지만 “척후 개미”(patrolling ant)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미는 척후 개미를 보내어 먹이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찾아 낸 후 척후 개미는 미숙한 동료를 데리고 천천히 세로로 나란히 가며(병렬주행) 새로 발견한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개미는 인도자 선생 덕분에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가는 개미가 꾸물거리면 안내자도 속도를 늦추며 뒤쪽 개미가 다시 따라붙으면 다시 빨리 이동할 만큼 인도자 개미와 따라가는 개미 모두 매우 사려 깊다고 합니다.

(ii) 개미들은 서로 상부상조(help each other) 한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그들의 “의사소통” 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페로몬(같은 종의 동물끼리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화학적 신호를 말함)으로 서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개미의 화학 신호는 다른 벌목 곤충보다 훨씬 발달하였는데 다른 곤충과 마찬가지로 개미는 길고 가늘며 움직일 수 있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더듬이 한 짝에서 냄새의 강도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미 대부분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지표에 페로몬으로 길을 남겨 다른 개미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무리지어 정찰하는 종중에서는 먹이를 찾는 척후 개미는 먹잇감에서 개미집 방향으로 흔적을 표시한다고 함. 다른 개미들이 이 흔적을 따라가며, 이들이 먹이를 들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냄새 길을 더욱 보강한다고 합니다. 그 곳 먹이가 다 없어지면 돌아오는 개미가 표시를 하여, 냄새는 천천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개미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령 먹잇감과 이어진 냄새길이 장애물로 막히면 척후 개미는 길을 벗어나 새로운 통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한 개미가 새 길을 찾으면, 개미는 돌아오면서 지름길을 냄새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개미들이 몰리게 되어, 지름길의 냄새는 강해지고 점차 최선의 통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iii) 개미들은 크기에 따라 전문 직종을 나눈다고 합니다.

개미들의 “식량 재배”를 보면 대부분의 개미는 잡식 포식자이자 죽은 생물을 처리하는데 그러나 그 밖에 특별한 영양 공급 방법을 발전시킨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개미를 “가위개미”라고 하는데 그 개미들은 자기네 개미집 안에서만 버섯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 잎을 모아 자신의 군체로 가져와서 작은 고작으로 자르고 버섯 농장에 놓는데 일개미들은 크기에 따라 전문 직종을 나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개미는 줄기를 자르고, 더 작은 일개미는 잎을 씹으며, 가장 작은 개미는 버섯을 돌본다고 합니다.

(b) 개미는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6장 8절을 보십시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30장 25절을 보십시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베짱이”이를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동안 베짱이는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개미들을 조롱합니다: “어이, 개미들,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짱이는 매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며 살다가 겨울에 되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밥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이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개미처럼 되어야지 베짱이처럼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베짱이처럼 게으르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 이솝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저 개미처럼 근면성실해야 한다는 교훈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 잠언 6장 8절에서 성경은 개미보다 못한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잠언 30장 25절에서도 성경은 개미를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즉 자기들의 음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개미들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여름”에 겨울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여름이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개미들은 겨울철 먹을 것을 모아 들인다고 합니다(박윤선).

(2) 사반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는 개미에게서 먹을 것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근면을 배워야 하며 그 다음에 사반["너구리"(현대인의 성경)]에게서는 앞으로 닥칠 위험을 내다보고 거처를 견고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26절을 보십시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현대인의 성경) "약하지만 바위산에 집을 짓고 사는 너구리와"]. 이 사반이란 동물은 산토끼처럼 작고 겁이 많은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그렇지만 사반은 엄청나게 지혜롭다고 합니다(The Pulpit 주석). 그래서 사반은 자기 자신을 큰 동물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앞으로 닥칠 위험을 내다보고 자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고 합니다(박윤선). 흥미로운 점은 사반은 그룹으로 바위의 갈라진 틈에 서식을 하고 보초병을 세워서 주위에 감시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보초병이 찍찍 소리를 내며 눈을 깜빡여 신호를 주면 모두가 동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인터넷). 성경 시편 104편 18절을 보십시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현대인의 성경) "높은 산은 들염소가 사는 곳이며 바위산은 너구리의 피난처이다"]. 여기서 "너구리"란 오늘 본문 잠언 30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반"입니다. 즉, 사반(너구리)하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피난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피난처"하면 우리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시 14:6; 46:1, 7, 11; 59:16; 61:3; 62:8; 91:2; 142:5). 또한 주님은 우리의 힘의 반석이 되시며(62:7) 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삼하 22:47).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고전 10:4).

(3) 메뚜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메뚜기"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30장 27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현대인의 성경) "왕은 없지만 대열을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하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개의 재앙 중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가 애굽 온 지면을 덮었던 일이 생각납니다(출 10:1-20).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을 때(10:3)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메뚜기 떼"를 보내시사 애굽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4-5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어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14, 15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잠언 30장 27절에서 잠언 기자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 중 하나인 “메뚜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뚜기”하면 출애굽기 10장뿐만 아니라 요엘 1장 4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메뚜기 떼를 사용하셨다는 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 받은 메뚜기 떼는 지도자(“임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잘 정렬되어서 움직이는 군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여 명확한 지시와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Thru the Bible With J. Vernon McGee 주석). 결국 잠언 기자가 오늘 본문 잠언 30장 27절에서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를 말한 이유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단결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저는 이 교훈을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메뚜기 같이 단결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모로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서 마음과 힘을 한데 뭉쳐야 합니다. 특히 메뚜기 떼는 지도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잘 단결한다면 지도자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더 잘 단결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4) <u>도마뱀을 생각해 보십시다.</u>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잠언 30장 28절에서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 도마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도마뱀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이지만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다”]. 아마 우리 모두가 도마뱀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저희 집 앞에서 도마뱀을 여러 번 보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의료 선교에 가 계신 윤장로님을 뵈러 갔다가 호텔에 묵고 있는데 천장에 붙어있는 도마뱀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28절 말씀처럼 제 손에 잡힐 만한 작은 도마뱀이었지만 저는 아예 그 도마뱀을 잡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마뱀이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마뱀이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왕궁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혹시 도마뱀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도마뱀의 특징은

위험에 직면하면 자기 꼬리를 흔들어 적을 유인한 다음, 자기 꼬리를 잘라 적이 당황하는 동안 도망치는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장 지혜로운 삶은 도마뱀 같이 재빠르고 꾀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박윤선).

여러분은 성경에서 재빠르고 꾀 있게 행한 사람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성경 사무엘상 17장 48-49절 새번역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골리앗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릿매로 던졌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 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여기서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뱀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뱀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심성 있게 대처하여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뱀이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뱀의 지혜로움은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마 7:15; 10:16).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넷째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위풍과 후퇴하지 않는 강함이 있고 솔선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파악하며 선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래스는 "성공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음의 4 가지의 A중 하나 이상에 빠져들게 된다고 믿고 있다: (1) Arrogance(거만), (2) Painful feeling of Aloneness(외로움의 고통), (3) Destructive Adventure-Seeking(파괴적인 모험추구), (4) Adultery(간음). 이 4 가지는 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값을 치루기에 언제나 턱없이 비싼 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골짜기, 즉 4 가지 A 중 하나 이상 빠져든

상황에서는 결코 시간이나 돈 또는 더 많음 명성으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버글래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품의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가며 더 파괴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사람들을 이끌 때, 성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멕스웰). 미드 파크(Mid Park, Inc)사의 알랜 버나드 회장은 성품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더십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존경심, 그것은 개인의 윤리적 삶을 필요로 한다. 리더는 옳고 그른 것의 경계선, 그 위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회색지대'가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멕스웰). 지도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록은 성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꾼들(potential leaders)을 찾아 성숙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 파송하기 위해선 "성품 만들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 만들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위기 혹은 역경입니다. 그 이유는 위기가 반드시 성품을 형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성품과 타협이 만나는 교차로로, 인생은 언제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멕스웰).

오늘 본문 잠언 30장 29-31절을 보십시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의젓하고 위풍 있게 걸어다니는 것이 서넛 있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와 으스대며 걷는 수탉과 수염소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다고 하면서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 그리고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지도자(왕)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하여 동물 중 3가지 실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리고 그는 이 3가지 동물들을 가리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현대인의 성경) "의젓하고 위풍 있게 걸어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9절). 즉, 사자나 사냥개나 숫염소는 위풍 있게 걸어 다닌다는 말은 그 동물들은 당당하고 위엄 있게 걸어 다닌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와 같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에게는 당당하고 위엄 있는 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John MacArthur 목사님은 위엄(dignity)과 자신감(confidence) 이라고 말했습니다(MacArthur). "위엄"(dignity)하니까 저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때 그분 말로는 제가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앞에서 그 분의 위엄을 다 깎아내렸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하. 그 때 저는 그 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위엄"이란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위엄"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젓하고

엄숙함,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성,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를 말한다"(네이버 사전)]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감"(confidence)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언젠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3 C's"란 제목 아래 쓴 글을 다시금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1) 첫째 "C"는, Conviction(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의 확신이 없다면 그 지도자를 좇는 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먼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 둘째 "C"는, Confidence(자신감)입니다.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신 있게 아는 지도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확신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서 낙심하고 흔들리며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감에 근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주님의 뜻인 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3) 셋째 "C"는, Consistency(일관성)입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는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합니다. 지도자는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좇는 사람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어떤 지도자들에게는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 이유는 확신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일관성의 가치 혹은 중요성을 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관성에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좇는 자들은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특히 오늘 본문 잠언 30장 30-31절에 나오는 3 동물들을 생각할 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 3가지가 있다고 교훈을 받습니다:

(1) <u>지도자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30절)처럼 위풍과 후퇴하지 않는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박윤선).</u>

지도자는 위엄과 자신감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성경적인 예가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당당하고 서서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말한 다윗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5-4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

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2) 지도자는 사냥개처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솔선적으로 앞장 서야 합니다.

우리고 알고 있듯이 사냥꾼의 사냥을 돕는 사냥개는 사냥꾼보다 앞서 가서 사냥감을 추적합니다(인터넷). 이와 같이 지도자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솔선적으로 앞장 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좇는 자들도 지도자를 따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좇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3) 지도자는 숫염소처럼 선두에서 보호자 역활을 해야 합니다(박윤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양과 염소 이야기는 친숙하고 흥미 있는 이야기로서 염소 없이 양만으로 목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를 섞어서 키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삼상 25:2). 이렇게 염소를 양들과 함께 섞어 키는 이유는 2가지로 합니다:

(a) 첫째 이유는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광야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양들이 뜯어먹을 충분한 양의 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초장을 보호해야 하는데 염소는 다 자란 풀의 잎사귀만 살살 뜯어먹는데 비해 양은 어린잎과 다 자란 잎을 구분하지 않고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잎사귀만 살살 뜯어먹는 염소와 달리 줄 기채 다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염소를 섞어 키우면 양들이 묵묵히 따라한다고 합니다.

(b) 둘째 이유는 광야의 험한 길과 높은 바위를 지날 때 염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대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장밋빛 길'이 아니고 때로는 높은 바위를 올라타야 하고 때로는 험준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하는데, 비온 뒤에 골짜기에 잔잔한 물가가 생기므로 필연적으로 험준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인고로 '돌격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염소라고 합니다(인터넷). 이와 같이 지도자는 어느 면으로 보면 자기를 좇는 자들을 위하여 돌격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앞(선두)에 서서 담대하게 좇는 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의 삶에는 위엄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위풍과 후퇴하지 않는 강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지도자는 솔선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파악하며 선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다섯째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입을 막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선 오래 참아야 합니다(살전 5:11, 13). 오래 참되 특히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잠29:11). 이렇게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게 되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22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분노 속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과격한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15:1). 그 결과 과격한 말을 들은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 자기도 과격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욥기 21장 5절을 보면 욥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리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를 보고 놀라고 손으로 입을 가리라고 말한 이유는 비록 그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고자 왔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조

롱하므로(3절) 욥은 그들을 가리켜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16:2)[“번뇌케 하는 안위자”(개역한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욥기 16장 2절을 보십시오: “… 너희는 모두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온 자들이구나!” (현대인의 성경). 고통당하고 있었던 욥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기에 그들에게 입을 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친구들에게 입을 가리라고 말한 욥은 욥기 40장 4절에 가서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욥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을 가린 것을 생각할 때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 32-33절을 보십시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만일 미련하게도 잘난 체하였거나 악한 일을 계획했다면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생긴다”]. 왜 성경은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미련하면 우리 손으로 우리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미련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미련함이란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은 체하는 것 또는 잘난 체 하는 것과 둘째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또는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32절). 즉 성경은 만일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를 높은 체하였거나 잘난 체하였다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만일 우리가 미련하여 악한 일을 계획(도모)했다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말씀은 그것을 멈추라는 말입니다(The Nelson Study Bible). 즉, 성경은 만일 우리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거가 악한 일을 계획했거든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은 체할 때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입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교만한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높은 체할 때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입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악한 일을 계획했다면 우리 그 계획을 멈춰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악한 일을 행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은 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난 체해서도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거나 잘난 체하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 연합을 깨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행 7:38). 그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레위 사람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이바람와 온이란 사람들이 당파를 져서(민 16:1) 이스라엘 회중에 유명한 250명 족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습니다(2절).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3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4절). 그리고 나서 그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면책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7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신 그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9절).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직분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여(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 분수에 넘치는 행동과 더불어 분수에 지나친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 마음에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교회에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이유는 그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만을 거슬린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을 광야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도 거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1절).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허영심이 있으면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은 체 하고 그러면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말고 행동으로 인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분노케 하여 서로 다투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잠 30:33).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은체하면 우리는 교회의 화목과 연합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하게 스스로 높은 체(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한 일을 계획해서는 아니 됩니다(32절). 설마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계획을 세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럴 위험이 더 많지 않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나요? 성경은 분명히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살전 4:6, 현대인의 성경)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로챘습니다(삼하11:27). 그것도 그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밧세바의 남편인 충성된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후에 말입니다(14-26절).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일까요?(27절) (1)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을 때(8:6, 14) 조심하지 않고 긴장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로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과 요압을 출전시키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11:1, 2, 현대인의 성경). (2) 그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2절). 그리고 그는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2절).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을 본 것입니다. (3) 그는 사람을 보내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그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즉 유부녀인 줄 알았습니다(3절). (4) 그는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더불어 동침했습니다(4절). (5) 그는 밧세바가 임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5절). (6) 그래서 그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두 번이나 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8, 12-13절).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와 동침하여 임신한 밧세바를 우리아가 동침하면 그 아기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라고 속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7) 다윗의 자기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국 요압과 짜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입니다(14-26절). (8) 그런 후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내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27절).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7절).

우리는 입을 막아야 할 때 막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미련함이 있으면 우리는 입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상대방의 분노를 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의 분노를 격동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막아야 할 때 막아야 하며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이 험악한 죄악 된 세상에서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마 10:16).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30장 18-33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 한 5가지로 묵상했습니다: (1) 가장 지혜로운 삶은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2) 가장 지혜로운 삶은 질서 있게 사는 것입니다. (3) 가장 지혜로운 삶은 개미같이 근면하고, 사반과 같이 위험을 내다보고 거처를 견고케 하고, 메뚜기 같이 단결하고, 그리고 도마뱀 같이 재빠르고 꾀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4) 가장 지혜로운 삶은 위풍과 후퇴하지 않는 강함이 있고 솔선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파악하며 선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5) 가장 지혜로운 삶은 입을 막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러준 3가지 교훈

[잠언 31장 1-9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 중에 마음 판에 새겨진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국 농구 선수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선수 중 하나는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2018년 5월 휴스턴 로켓츠와의 NBA 결승전 3차전에서 경기 도중 큰 소리로 F로 시작하는 거친 욕설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TV를 통해 본 그의 어머니는 나중에 아들을 불러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꾸짖되 그의 어머니 소니아는 아들에게 그의 실수를 알려주기 위해 2개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스테판 커리는 ESPN 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서 비누로 입을 씻으라'며, 내가 어떻게 입술을 깨끗케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셨다. 어머니는 전에도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 … 어머니가 옳았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인터넷).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5월에 소천하신 한국 LG 회사의 고 구본문 회장님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 분에게 어머님의 영향이 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기사 제목은 "LG의 인상.상록재단 … '베풀며 살아라' 어머니 뜻 평생 지켰다"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는 이러한 글 내용이 있습니다: "고인은 '남들에게 베풀고 살라'는 어머니 고(故) 하정임 여사의 뜻을 평생 실천했다. '국민이나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영속할 수 없다'면서 LG복지재단, LG연암문화재단, LG연암학원 등 복지·문화·교육 분야 공익재단 이사장 및 대표이사로 사회 공헌 활동에 투자와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31장 1-9절을 보면 어머니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 르무엘 왕에게 일러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1-2절). 그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3-9절).

첫째로,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에게 '너는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3절을 보십시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현대인의 성경) "너는 네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혹시 "정력"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성이여 기를 펴라(생활 속 정력 강화)"라는 인터넷 글이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비뇨기과 의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처럼 정력에 집착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고 하면 개고기, 녹용, 뱀, 자라에서 부터 사슴 피, 웅담, 해구신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댈 정도로 정력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정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뇨기과 의사에 의하면 정력이란 한마디로 '피'라고 합니다. "남성의 음경에는 스펀지나 수세미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말랑말랑한 해면체가 3개 있다. 성적인 자극을 받아 중추신경이 '발기명령'을 내리면 이 해면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곳에 평소의 7배나 되는 피가 쏠리게 된다. 이때 음경 정맥은 확장된 해면체에 눌리므로 해면체로 들어온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된다. 흔히 정력이라 말하는, 딱딱하게 팽창한 것의 실체가 바로 피인 것이다"(인터넷). 이 "정력"이란 단어가 민수기 11장 6절 개역한글에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에서 울었습니다(4절).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과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4절).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4절)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며(5절)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자족하지 않고 그것만 먹으므로 자기들의 정력이 쇠약하였다고(6절) 불만과 불평 속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쇠약해졌다고 하나님을 탓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18절) 혹은 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너는 네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실제로 개역개정에서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말

씀에서 “힘”(strengthen)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바로 성관계에서의 남자의 힘인 “정력”(vigor)입니다(DBL Hebrew).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너는 네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고 훈계한 이유는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입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그 좋은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인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1절). 분명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 왕은 그녀들을 사랑했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솔로몬 왕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린 결과 그녀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방 신들을 따르게(섬기게) 했습니다(4절). 결국 솔로몬 왕은 그 이방 여자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6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성경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그들이 자기들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자기들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14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며(15절) 그 왕이 될 사람에게는 3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3가지란 바로 병마(16절)와 아내와 은금입니다(17절).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3가지가 다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내를 많이 두므로 결국 그 여인들에게 정력을 쓴 결과 우상까지 섬기는 악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충성된 군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잠31:3) 그는 자기 아내들 외에 남은 아내인 밧세바에게 자신이 정력을 소모했습니다. 이 간음의 죄를 범한 후 그 죄를 덮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악을 범했습니다(삼하 11장). 그 결과 중 하나가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13장).

이렇게 다윗 왕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 왕처럼 자신들의 정력을 여자들에게 쓰게 되면(잠31:3) 잠언 5장 9절 말씀처럼 그들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길을 음녀의 집 문에 가까이 갈 때 첫 번째 불행한 결말은 우리는 존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영"이란 "힘 또는 정력"(strength or vigor)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honor)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해석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녀를 멀리하지 않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하므로 결국 그녀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힘(정력)도 잃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명예와 영광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3절에서는 왕들이 여자들에게 정력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에게 미혹되는 자는 실질에 있어서는 자기 정욕에게 미혹되는 자이다. 정욕의 노예가 된 약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랴? 통치자가 정욕의 노예가 된다면 모든 관리들도 그렇게 되고 백성도 그렇게 된다. 그런 경우에 그 나라는 더러운 짐승 같은 자들로 가득 차서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박윤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납니다. 왜 그 도시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성적 타락입니다. "영어 단어 중 sodomy(소도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간이나 동성애 등 비정상적인 성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소도미라는 단어가 파생될 정도로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된 곳이었습니다"(인터넷). 이 소돔과 고모라 외에 로마 제국이 생각납니다. "로마제국 쇠망사"란 책을 쓴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의 쇠망 원인 중 하나로 성적 타락으로 인한 가정 파괴를 들고 있습니다(인터넷).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고 할 정도로 성적 타락은 목욕탕에서 이루어졌는데 로마에만 9백여 개에 달하는 목욕탕이 있었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건립한 목욕탕은 한꺼번에 3천명이 목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우리는 성적 타락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이 죄악 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진대(요일 2:16)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롬 13:14).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갈 5:24). 그러므로 우리는 다 지나갈 정욕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요일 2:17). 우리는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우리의 정욕(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벧전 4:2).

둘째로,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에게 '너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왜 사람들은 술을 취하도록 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잔은- 건강을 위하여 마신다고 하나, 얼큰하면 - 쾌락을 위하여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면 - 방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만취가 되면- 광기를 부리게 된다"(인터넷). 술을 마시는 이유 중 하나는 기분이 좋아서 일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알코올을 조금 마시면 처음에는 중추 및 말초신경이 흥분되고 위산 분비가 촉진되며 또한 도파민(dopamine) 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되므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을 과음하거나 장기간 남용 또는 과용하면 술이 불행하게도 뇌세포 파괴를 촉진시켜 우리 뇌의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매일 십만 개씩 뇌세포가 자동 사멸하는데, 알코올을 다량으로 마시면 더 많은 뇌세포가 죽습니다. 학업이나 기억 또는 사고능력 모두 저하되는데, 이들의 저하는 알코올의 농도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코올을 과음하면 취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소위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인터넷).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마시면 아니 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를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술 취함은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술 취함과 술 마심을 구분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도주를 마신 것은 사실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 마심은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의 "아디아포라" 문제, 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해당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학자의 결론은 술 담배가 몸에도 해롭고 가정에도 해롭다는 인식에 비추어 사랑과 건덕의 원리(근본적으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관용의 원리)를 적용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이미 잠언 20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술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지 마십시다"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성경 잠언 20장 1절을 보십시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

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 외에 "독주"(strong drink)는 보리나, 대추나 혹은 석류로 만든 술로써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사 28:7).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제사장들(레10:9)과 나실인(민 6:1-3) 그리고 다른 사람들(사 5:11)도 마시는 것을 금하였습니다(Walvoord). 그 한 예로 이사야 28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에 실수하는 모습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술 취해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9절에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성경 잠언 20장 1절에서 포도주나 독주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2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2가지란 다름 아닌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를 거만케 하며 또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lead astray)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되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길로 이끕니다. 미련한 길로 이끌되 우리로 하여금 당장 분노를 나타내어(잠 12:16) 다툼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20:3)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듭니다(14:9). 결국 포도주와 독주란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4절을 보십시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현대인의 성경) "르무엘아, 왕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통치자는 독주를 찾아서도 안 된다"]. 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31장 5절을 보십시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현대인의 성경)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기 쉽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훈계한 이유는 왕이 술에 취하면 법을 잊어버려서 곤궁한 백성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5절, 박윤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왕이 술에 취하면 사고력과 판단력이 약해지고, 유죄 판결을 풀지 못하며 또는 마음을 왜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은 명확하고 꾸준한 마음과 예리한 판단이 필요한 통치자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맥아더).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르무엘 왕에게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4절)라고 말한 후 ”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6절). 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독주나 포도주는 죽게 된 자나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3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마시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죽게 된 자나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독주와 포도주는 마치 우울증 치료제처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Believer’s Bible 주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이나 가난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통이나 가난이 극심하다가 우리는 술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술 취함은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술 취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술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3절에서 전도사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술 취함으로 괘락을 누려보려는 것은 어리석기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술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잠 31:5).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사54: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입니다(요 14:1).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의 짐을 다 맡겨야 합니다(벧전 5:7).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된 마음을 위로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시 94:19).

마지막 셋째로,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에게 ‘너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라’고 훈계했습니다.

지난 번 한국 뉴스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인 법원행청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놓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협상)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그 때 최모 부장판사란 사람이 이러한 지적을 했다고 한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어 나눕니다: “그는 법원행정처 문건으로 드러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나 흥정 대상으로 삼아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 존재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인터넷). 저는 그 때 그 뉴스를 보면서 만일 재판거래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법원장이 개입한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가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민들은 누가 대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만일 한 나라의 최고 법원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그 재판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피해를 본 시민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힘입는 권력 앞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한 나라의 시민들이 재판부에 원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지 불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에도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암 5:12). 결국 뇌물을 받으면 치우쳐(대하 19:7) 재판을 굽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잠 17:23). 성경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와 다른 나라들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4-5절). 그 이유는 늙은 사무엘을 대신하여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는데(1-2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즉,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늙어 백발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해오면서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당신은)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12:1-4, 현대인의 성경)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자기들이 아버지인 사무엘과 달리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기에(8:3,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로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그들을 옥에 가뒀습니다(22-23절).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비시민권자들에 비하여 아주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게 되어있었

는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법대로 타당한 재판 절차를 받지도 못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가 없이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가둔바 된 것입니다(유상섭). 이렇게 구약 시대 때부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7절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외국인과 고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부의 옷을 담보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현대인의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 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잠언 31장 8-9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진리를 옹호해 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르무엘 왕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술에 취하여 법을 잊어버려서 곤궁한 백성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5절). 오히려 그녀는 르무엘 왕이 곤궁한 백성, 특히 가난하여 힘이 없고 고통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길 원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되 그녀는 르무엘 왕이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진리를 웅호해 주며 그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한 마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21, 3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이다. …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이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자요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요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르무엘 왕에게 말 못하는 자들[벙어리들(개역한글)], 고독한 자들, 곤고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그들을 신원해 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녀는 르무엘 왕에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제 대학교 룸메이트 중 한 형제는 지금 변호서로 일하면서 또한 Justice Ventrures International(공의가 여러 나라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이란 곳에서 자원하며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 형제는 여름에 직장에 휴가를 내고 그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과 함께 인도에 가서 섬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형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도에 가서 하는 일은 그곳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데 변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Our vision is to see unjust communities transformed into communities ordered according to God's standard of love where human rights and dignity are respected by all"(우리의 비전은 부당한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따라 질서가 잡힌 지역사회로 변화되어 모든 사람이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봉사자들과 그 단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와 극단적인 불의의 다른 형태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에게 자유과 공의와 회복을 가져다주고자 지역 조직들과 및 세계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단체에서 받은 이 메일을 보니까 뉴스레터가 왔는데 그 뉴스레터 제목이 "Four Girls Rescued from Domestic Slavery"(네 명의 소녀가 국내 노예로부터 구출 됨)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대학 후배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돕고자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각자가 나름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며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가난하여 힘이 없고 고통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길 원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되 그녀는 르무엘 왕이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진리를 웅호해 주며 그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왕에 대해 시편 기자는 시편 72편 4, 12-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러한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억울함과 압박과 강포를 알아주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그것으로부터 건져(구원)주는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그러한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길 원한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데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신하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주위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아동 문학가이자 목사님이신 최효섭이란 분이 쓴 글 중에 “어머니, 아 그 위해한 이름”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 마음에 가장 뚜렷한 자국을 남긴 것이 어머니이다. 서양속담에 ‘악마가 인간으로부터 빼앗는 마지막 자국이 어머니의 자국이다’라는 말이 있다. 책이나 너희들의 영웅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악마는 쉽게 빼앗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자국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악마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이다”(인터넷). 그 정도로 자녀에게 있어선 어머님의 영향이 매우 크고 또한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1-9절은 르무엘이란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준 3가지 교훈입니다. 그 3가지 교훈이란 첫째로, ‘너는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라’(3절), 둘째로, ‘너는 술에 취하지 말라’(4절)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너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라’(8-9절)입니다. 우리는 성적 타락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롬 13:14). 우리는 다 지나갈 정욕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요일 2:17). 우리는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우리의 정욕(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벧전 4:2). 또한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술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잠 31:5).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데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신하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주위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31절]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남가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 누군가를 만나러 기숙사에 갔다가 거실에 있는 액자에 영어로 "현숙한 여인"(Noble woman)에 대한 잠언 31장 10-31절을 말씀을 수놓은 성경구절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그 총각 형제가 성경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서 사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형제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총각 형제들이 아니라면 수많은 형제들이 잠언 31장 10-31절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을 자기의 미래 배우자로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능력의 여인"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도덕과 예의의 실행력 있는 여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저는 개인적으로 "현숙한 여인"이 성경 잠언 31장에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엔가 룻기서를 읽다가 룻기 3장 11절에서도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이 말은 보아스란 유대인이 룻이란 모압 여인에게 한 말로서 보아스는 성읍 백성들이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이 어떠한 여인이기에 보아스와 그의 성읍 백성이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알고 있었을까 한 3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첫째로,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자였습니다. 즉,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를 받은 룻은 자기는 이방 여인이어늘 어찌하여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아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을 고백했습니

다(2:10). 그러한 가운데서 보아스로부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은 룻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2:13). 자기를 가리켜 보아스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13절). 이렇게 현숙한 여인인 룻은 겸손히 보아스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자신이 먼저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함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할 때 생각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계속해서 들춰지는 저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시 144:3). 또한 저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갈 때에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룻2:10)라고 고백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고백한 말씀(딤전1:15)처럼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기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저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룻이 보아스에게 “내 주여 …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옵니다(룻2:13)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눅 15:21), 저 또한 주님께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의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룻 2:13).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니 제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사 43:4).

둘째로, 룻은 순종하는 여자였습니다. 즉,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순종하는 며느리였습니다(룻 3:5-6). 룻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고 또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였기에 겸손함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명에 아무 토를 달지도 않고 그저 단순한 마음

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순종하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목욕을 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 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 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실제로 “그 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했습니다(룻 3:3-6,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현숙한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현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할 때 생각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더욱더 알아가는 자는 더욱더 겸손해 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엡 3:8), “… 죄인 중에 괴수니라”(딤전 1:15)]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행 20:24). 그러므로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길 원합니다(빌 2:8).

마지막 셋째로, 룻은 인애를 베푸는 여자였습니다. 즉, 현숙한 여자는 인애를 베풉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에 순종하여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던 룻은(룻 3:4, 7) 밤중에 놀라 돌이켜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10절). 이렇게 룻은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현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점진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생각난 찬송이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새찬송가 314장)입니다: "…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1절),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2, 3절). 제가 이 찬양 가사 대로 저의 진정 소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보다 나중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소중합니다(잠31:10,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혹시 '진주는 아픔의 보석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통해 왜 진주가 아픔의 보석인지에 대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조개가 먹이활동, 호흡활동 등 생존을 위한 갖가지 활동을 하는 동안 조개의 체내로 모래알이나 작은 벌레 등 이물질이 침투하여 살 속을 파고들게 되는데, 이때 조개는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분비물을 계속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면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시작되고, 분비물이 얇게 한 겹 한 겹 싸임으로 '아픔의 결정체'는 자라난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을수록 분비물이 분비되어 더욱 크게 자라며 더욱 영롱해지는 보석이기에 진주를 가리켜 '아픔의 보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주층, 곧 분비물 층이 두꺼울수록 광택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광택과 두께는 진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진주층이 두꺼우며, 흠집이 없는 것이 바로 '극상품의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극히 값진 것이 진주인데 성경 잠언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값지고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아내)은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

운 어머니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르무엘에게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현숙한 여인(아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르무엘의 어머니야 말로 지혜로운 어머니라 생각합니다. 왠지 저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진주보다 소중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교훈한 이유가 그녀의 아들이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얻길 바래서 그리 교훈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본 진주보다 더 소중한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한 마디로 어떠한 여인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31장 29절을 보십시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오.' 하고 칭찬한다"]. 진주보다 더 소중한(10절)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그녀의 남편이 보기엔(28절)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29절). 그래서 그 남편은 자기의 현숙한 아내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오.' 하고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29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인 현숙한 여인에게 "일어나 감사"한다["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현대인의 성경)]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8절). 그러면 이러한 여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누가"(Who?) "어떻게"(How?) 찾을 수 있을까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미만을 찾는 자는 이런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기 어렵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는 자만이 이런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난다. 그런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박윤선). 그러면서 그는 두 성경 구절을 말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18:22),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19:14,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1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현대인의 성경)](10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31절 말씀 중심으로 "**현숙한 여인**"이란 제목 아래 한 6가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11-12절을 보십시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

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같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섣불리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남편/아내가 다른 여자/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번 바람을 피워 부부의 신뢰 관계를 깬 배우자를 다시금 신뢰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이어 주신 우리 배우자와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u>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u>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 부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을 때에야 만이 수평적인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 <u>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u>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들은 서로를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되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신뢰를 주된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만 신뢰를 주기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그 사랑

하는 사랑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실상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된 부부는 자기 백성에게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는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우리의 명철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3)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그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서로들 앞에서 진실 돼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빌 1:8)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4)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그에게 거짓말을 뱉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잘못한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다시는 똑 같은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그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가 잘못한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기록해 놓으면 아니 됩니다(고전 13:5). 하나님께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우리) 죄악을 지워주"신 것처럼(시 51:1) 우리는 그/녀의 잘못한 것을 우리 마음에서 다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그를 신뢰하기로 재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11-12절을 보면 잠언 기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인 르무엘에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10절)고 말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르무엘 왕에게 진주보다 값진, 즉 천하의 모든 보물보다 귀한(박윤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그 아내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녀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는 자기의 현숙한 아내를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가까운 이유가 12절에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12절). 즉,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 현숙한 아내는 "살아 있는 동안에"("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일평생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는 "선한 여인"이요 또한 남편에게 선을 행하되 일평생 그리한다는 것은 그녀는 "신실한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남편은 현숙한 자기 아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까운 12절에 나와 있는 이유 외에 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녀를 신뢰하는지 좀 더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즉,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악을 미워합니다(8:13). 그리고 그러한 여인은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선을 사랑합니다(암5:15). 또한 하나님을 경외

하는 하나님께 속한 여인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합니다(요삼 1:11).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앞으로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의 성품(character)이 매우 중요하다고 권면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성품은 "진실성"입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거짓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성품의 진실성을 강조한 이유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찾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trustworthy)을 만나길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뢰할만한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교회가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롬 12:2)을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엡 2:10)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 중에는 육체적인 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매력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 번 11-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배운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줍니다'라는 교훈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뢰를 줄만한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매력 중 하나는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성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부지런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묵상한 잠언을 뒤돌아보면 잠언 기자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기자는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6장 10절과 2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 더 자고 졸고 누워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깨야할 시간에 깨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다른 것(상황, 사람 등등)을 탓합니다. 즉, 게으른 자는 책임을 질 줄을 잘 모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6장 11절과 잠언 24장 34절을 보십시오: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오되 마치 피해자가 강도를 만나 압도당하는 것처럼(24:33) 가난이 온다는 뜻입니다(MacArthur).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잠언 24장 30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the sluggard)의 밭과 "지혜 없는 자"(the man who lacks judgment)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의어(synonym)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 없는 자"란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판단력이 부족한 자'란 의미입니다. 과연 게으른 자가 부족한 판단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33). 그런데 학개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보다 먼저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바빴습니다(학 1:4, 9).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하게 되도록 놓아두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만 바빴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학개 1장 6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6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9절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농작물에 흉년(한재)이 들게 하시사(학 1:11) 그 수확을 빈핍하게 하셨습니다(6, 9절)(박윤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재정에 가뭄을 들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 미련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과연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2 가지입니다(박윤선): (1)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협력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6장 7절을 보십

시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게으른 사람은 감독하는 개미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서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협력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에 가서 자세히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2) 개미는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6장 8절을 보십시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성경은 개미보다 못한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도 성경은 개미를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즉 자기들의 음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개미들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여름”에 겨울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여름이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개미들은 겨울철 먹을 것을 모아 들인다고 합니다(박윤선). 이렇게 개미들은 추수 때에 자기들이 겨울철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13-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상선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 주고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베를 짜며”]. 이 부분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한다면 현숙한 여인은 근면히 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의 미”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근면히 사업을 운영을 했는지 한 3가지로 말했습니다:

(1) <u>현숙한 여인은 직물(fabric/cloth) 생산에 종사합니다.</u>

오늘 본문 잠언 31장 13, 18,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양

털과 삼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베를 짜며"]. 현숙한 여인은 집안에서 작은 규모로 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작은 규모의 공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일하되 그녀는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베를" 짠다고 19절(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을 정도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8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부인들이 이 현숙한 여인처럼 가내 수공업을 귀히 여겨 생산적인 작은 규모의 공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부인들이 집에서 가내 수공업 외에 컴퓨터 인터넷으로 등 다양한 작은 규모의 생상적인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면 가정 살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부인들의 달란트대로 집 안에서도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부지런히 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2) <u>현숙한 여인은 가정생활을 잘 운영합니다.</u>

오늘 본문 잠언 31장 14-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현대인의 성경) "상선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생활은 등한히 하는 자매님은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자매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경우, 그녀가 자기의 가정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현대인의 성경)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생활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교회 안에서는 본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서는 본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그녀는 주님께 하듯 불신자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 남편이 그 아내의 신덕을 보고서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게 되어 회심 할 수 있다. 그것은 실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다. 우리의 복음 증거가 우리의 선한 생활과 병행하지 않으면 무력하다”(박윤선). 지혜로운 아내는 복음 증거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녀는 불신자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하여 그녀의 불신자 남편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14-15절 상반절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자기 가족을 위하여 멀리서라도 양식을 구입해서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멀리서 가지고 오는 양식은 그저 보통 음식이 아니라 제일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MacArthur).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양식을 먼 곳에서 구입하는 목적은 우량품을 싼 값으로 구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그(녀)는 가정의 식량 정책을 민첩하게 쓴다.” 이러한 민첩함이 우리 아내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가정의 식량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정 살림을 함에 있어서 현숙한 아내들은 지혜롭게 재정을 잘 운영해서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은 좋은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돈을 팍팍 쓰면서 재정을 허비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잠언 기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 잠언 31장 27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먹지 않는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일을 부지런히 잘 보살피며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멀리서라도 우량품을 싼 값으로 구입할 뿐만 아니라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상, 현대인의 성경). 아마 신혼 초에는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혼부부라고 해서 다 그러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시작부터 각자 아침

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아침을 거의 건너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은 세상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까지 있는 가정의 아내가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잠언 31장 15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리 말했습니다: "… 그는 친히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 가정의 식탁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되며, 거기에 가정의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랑하는 식구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 미리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부지런히 가정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3) 현숙한 여인은 산업을 발달시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15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보십시오: "…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대인의 성경) "…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 주고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베를 짜며"]. 이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작은 규모의 공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일러주는 여종과 함께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여종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 것을 보면 그녀 나름대로 지도력(leadership)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 것(16절)을 보면 자기가 집에서 작은 규모로 공업을 해서 번 돈을 모아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박윤선) 포도원 밭을 사서 그 포도원 밭을 일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가정 살림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일도 해서 자기의 산업을 확장시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입을 늘이기 위해 자기 생산품을 먼 곳까지 수술하기에 노력하며 산업을 발전시킨다(17-19)." 이렇게 현숙한 여자는 경제적 실력이 강한데 그것은 그녀의 근면에 의한 것입니다(박윤

선)[(17절, 현대인의 성경)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그 유익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기기도 한다”(24절, 현대인의 성경). 요즘은 젊은 자매들도 인터넷으로 옷을 팔고 하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집에서 가정 살림을 잘하면서도 부지런히 옷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파는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지 아니면 무익한지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무익한 일을 하지 않고 유익한 일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근면이 있는 현숙한 여인은 경제적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번 돈을 모아서 신중히 사용하고 근면 있게 일을 하므로 자기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확장시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아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로,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언젠가(2018. 5. 8.) 미주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기독교인 10명 중 7명 ‘가난한 이웃 도와’”란 제목의 기사기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기관 바나 리서치는 최근 '세계적인 빈곤 문제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3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바나 리서치에 따르면 실천적 기독교인 10명 중 7명(75%)은 "가난한 사람 또는 저소득층 가정에 음식을 제공해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천적 기독교인”이란 “종교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교리에 대해 실천적으로 살고 있다고 답한 교인”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은 '돈을 포함한 옷이나 가구 등을 기부한 적이 있다(72%・일반 성인 64%)', '특정 시간을 정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62%・일반 성인 33%)', '지역 사회 저소득층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47%・일반 성인 29%)', '미국 내 자원봉사 기관에서 봉사한 적이 있다 (39%・일반 성인 24%)',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해외로 나간 적이 있다 (10%・일반 성인 6%)'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성인들 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바나 리서치는 빈곤 문제 해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로 ▶실천적 기독교인은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빈곤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

회적 이슈에도 관심이 많음 ▶빈곤 퇴치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해결 방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31장 20절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대인의 성경)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준다"]. 여기서 '손을 내밀다'는 단어의 의미는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친절히 구제의 물질을 보냄"을 가리킵니다(Matthew Henry, 박윤선).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은 가까이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히 구제를 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친절히 구제의 물질을 보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녀는 가까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친절히 구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녀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라 생각합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히 구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할 때 헨리 나우웬이 말한 "긍휼"에 대한 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긍휼"이란 원어 히브리어로 "라카밈'(rachamim)인데, 이것은 야웨(하나님)의 자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자궁"에 대한 글을 찾다가 자궁의 3가지 특징을 좀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 3가지 특징을 하나님의 긍휼과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1) 마치 자궁이 "이물질"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2) 마치 자궁이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이므로 태반을 자라나게 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 침투'까지 용납하시므로, 즉 죄를 대신 걸머지시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젠 더 이상 '죄 침투'를 막으시사 온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죄의 소통'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3) 더 나아가서 마치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 세포의 자연사를 자궁내막이 막아 주고 또한 임신 후기에는 산모의 배 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고자 자궁 이 얇고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동력 있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도록 신앙생활을 하게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되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흥미로운 점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선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제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구제함"에 대해서 말씀 하신 후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31절).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은 기도와 구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20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하고(13절) 근면하며 열심히 일해서(17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 산업을 확장시켜(15하-19절) 자기 집안에서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14절) 이웃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구제합니다. 저는 이 현숙한 여인을 생각할 때 그녀는 "지혜로운 부자"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잠 22:4, 31:30) 부지런히 일을 하며 또한 겸손한 자세로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고(29:7) 그들을 불쌍히 여겨(시 72:13) 그들을 구제하며(잠 28:27) 도와주기 때문입니다(31:20). 이러한 지혜로운 부자는 마음을 높이지 않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않으며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부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입니다(딤전 6:17-19). 성경 잠언 28장 27절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오히려 성경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구제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기근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유대 형제들을 돕고자 각각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자원하여 구제 헌금을 내어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구제금을 보냈습니다(행11:29-30).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또한 멀리 선교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중심

된 꿈을 가진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면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현숙한 여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염려할 일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믿은 자들로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5절). 우리가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2)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6절).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6절, 현대인의 성경). (3) 그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6:32, 현대인의 성경). (4) 그 네 번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눅 12:3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28절).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우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22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까마귀를 생각해야 합니다(24절).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아야 합니다(마6:26).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난번에 영어사역 연합 수련회를 산으로 가서 아침에 숙소 밖 뒷 베란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날라 다니다가 나무에 앉았다 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는 그 새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도 기르고 계시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나를(사 43:4) 하나님 아버지

께서 어찌 기르시지 않으시겠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기르시사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풍족히 주셔서 음식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한 번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음식이나 옷이나 넘치도록 과분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저런 일들로 염려를 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합니다(마 10:19). 또한 저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합니다(고전 7:33). 저는 교회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고후 11:28, 참고: 눅 10:41).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까봐 염려합니다(신 29:18). 특히 저는 제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까 염려합니다(딤전 3:7). 이렇게 저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눅 21:34) 또한 이렇게 "세상의 염려"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혀 결코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막 4:19). 저는 이러면 안 되다는 것을 알면서도(막 4:19)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일 때문에도 염려를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미래) 일루도 염려를 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오늘 본문 잠언 31장 21-22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답고 고운 모시옷과 자색 옷을 입는다"]. 이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다 홍색 옷을 입혔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색 옷이나 자색 옷은 다 비싼 옷들이었습니다(Bible Knowledge 주석). 그것을 보면 우리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식구들을 궁핍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만들고 살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13절) 자기의 산업을 발달시켜서(15하-19절) 자기 가족들로 하여금 생활을 걱정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21-22절).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의 남편은 신뢰하는 그 현숙한 아내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현숙한 여인이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생활 걱정하지 않도록 집안일을 잘 보살피기 때문입니다["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먹지 않는다"(27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31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녀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염려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숨기고 부인하는 등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약 4년 전(2015년)에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의 연약한 저의 염려를 이미 다 아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 만큼이나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때 저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눈으로 보는데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제 명철을 의지하여 조급히 행동을 옮기면서 결과 등을 예상을 하려고 하면서 염려하는 제 자신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저는 더 이상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모든 염려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다.

다섯째로,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어떠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신여대 심리학 교수가 20년간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리한 주요 내용 중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남편은 “아내가 존중해 주고 자존심을 북돋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과 비교하는 단골 메뉴는 월급봉투, 선물, 휴가, 처가에 잘하는 것, 집안 일 도와주는 것 등이라고 합니다. 채 교수는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자들하고 비교해서 남편의 행동을 수정하려

시도하지 말고, 남편의 현행동에 초점을 두어 잘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원하는 행동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5월 22일에 "지혜로운 아내"란 제목 아래 쓴 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요 남편을 경외 혹은 존경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복종"이나 "경외"라는 말은 부부관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변하는 시대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시대의 걷잡을 수 없는 흐름에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이나 총각, 처녀들이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하듯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마땅한 도리요 (골3:18)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내의 큰 신적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아내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남편을 세우는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즘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를 존중하므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잠언 3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 남편도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존경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임을 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세우되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하는데 중요한 이바지(significant contribution)했다는 것입니다(MacArthur).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성문"이라는 곳은 도시나 기타 지방에서 그곳 주민들의 사건을 처리하는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욥 31:21)(박윤선). 그런데 그 곳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민이 아닌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잠 31:23,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그녀의 남편이 지도급 인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남편의 성공은 그의 현숙한 아내의 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23절). 결혼한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독교 인터넷 웹사이트를 여기저기 보다가 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당신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하여 몰랐던 3가지' ("3 Things You Didn't Know About Spurgeon's Wife")이었습니다. 그 3가지란 첫째로,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스산나(Susannah) 사모님은 결혼에 대해서 힘든 교훈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큰 책임이 있는 남편과 살면서 아내로서 자기 자신을 남편의 마음에 결코 첫 번째로 둘 수 없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 남편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기로 헌신했어야 했습니다. 둘째로, 스산나 사모님은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빚으시사 자기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울증과 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도와야 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극심한 의학전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짐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빚으시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셋째로, 스산나 사모님은 전 세계 사역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The Book Fund"라는 자선단체를 조직해서 3,058 신학 책들과 71,000 복사본을 빈곤한 목사님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기에 그녀의 남편인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큰일들을 행하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23절로 말한다면, 현숙한 스산나 사모님은 자기 남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엡 6:33) 또한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합니다(잠 31:23).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잠언 31장 11-1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현숙한 여인은 평생에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숙한 아내를 믿는 그녀의 남편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기에(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존경)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23절).

저는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내, 말로 상처 주는 남편”이란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좌절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힘을 얻지 못하고, 그만 좌절하며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남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모르며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인터넷). 자매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로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 받는 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존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리할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치 혀를 잘 놀려야 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무슨 뜻입니까? “세치의 혀”란 약 10cm 정도 길이의 혀라는 의미로서 짧은 혀로 하는 말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만큼 혀는 짧지만(3치라 표현), 혀로부터 나오는 말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혀로부터 나오는 말이 어떤 이들은 엄청난 상처와 좌절과 실망과 저주가 되고, 어떤 이들은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얻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잠언 15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떠한지 4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1)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

잠언 15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 지혜 있는 자는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함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지라도 노하기를 더디 합니다(18절). 그러한 가운데 그는 분노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순한 대답으로 그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부드러운 말로 그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을 대합니다(25:15). 대하되 지혜 있는 자는 부드러운 혀로 상대방을 설득시켜 그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분을 쉬게 합니다.

(2)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잠언 15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 무슨 뜻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함을 의미 합니다(박윤선). 즉,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되 지식을 전파합니다(spread knowledge)(7절).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귀는 지식을 구하며(18:15)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시 1:2). 즉,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에 그 지식을 잘 전한다는 말입니다.

(3)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료합니다.

잠언15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 여기서 "온량한 혀"란 '치유하는 혀'를 가리킵니다. 즉, 미련한 자의 입술은 과격한 말을 하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혀를 가지고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과연 어떻게 지혜 있는 자

의 혀는 상처를 치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므로 상처를 치료합니다(2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되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부드러운 말(유순한 대답)(1절상)로 잘 말하여 상대방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치유하는 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혀는 진실하고도 화평스럽게 하는 말로서 듣는 자를 위로하며, 살려주며,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리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골 4:6)(박윤선).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듣는 자를 위로하고, 살려주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에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5:4).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입니다.

(4)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저는 실제로 종종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을 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채팅으로 상담을 할 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구절을 나누게 하시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엿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그 때 그 지체에겐 적합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1-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충고의 말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여기서 "경우"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바퀴"란 뜻입니다. 곧, 그 때 형편과 경우에 잘 조절하여 돌아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충고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잘 조절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박윤선):"충고하는 자 자신이 사랑과 화평을 지니고 있을 때에 말해야 됩니다. 능욕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의 없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할 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그 충고하는 자에게 큰 대접("은쟁반에 금사과"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의 의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잠언 31장 26절을 보십시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현대인의 성경)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현숙한 여인은 그저 좋은 가정주부일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의 산업도 발달시키지만 또한 자기의 가족을 지혜의 말들로 잘 인도합니다(The Pulpit 주석). 여기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녀의 입에서는 나오는 지혜의 말들이란 지식이요(15:7), 그 지식이란 바로 진리(truth)라 생각합니다(8:7).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에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18:4, 박윤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나와야 합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나와야 하며 지혜의 말들이 흘러 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현숙한 여인은 그녀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6절). 현대인의 성경은 그녀는 말을 친절하게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마음에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되 그녀의 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규제된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The Pulpit 주석). 저는 그 인애의 법이 새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이중계명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중계명이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입니다(마 22:37, 39). 이 이중계명을 현숙한 아내는 가정 안에서 그녀의 남편과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입술을 열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야 말로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인애의 법을 보여줘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입을 열어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지혜로운 현숙한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제 친 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 앞에서 하신 말씀 중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잠언 31장 30절이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양로원에 찾아뵈었을 때 무슨 대화를 하다가 할

머님께서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외우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할머님께서는 연로하셔서 얼굴에 주름도 많으셨지만 잠언 31장 30절을 제 앞에서 외우셨습니다. 저는 그 때 할머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말씀을 좀 더 피부 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여인의 미모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칭찬 받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지혜로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그녀의 남편에게 신뢰를 주며, 부지런히 일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입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남편도 사람들에게 인정(존경)을 받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감사하며(고맙게 생각하며),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신랑 되신 주님께 신뢰를 주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지혜로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결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길을 걷길 원합니다. 미련함뿐만 아니라 위선과 게으름과 탐욕과 교만 등 죄악 된 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명철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저 또한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저 또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빛과 별처럼 빛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기원합니다(단 12:3).

그래서 저는 더욱더 지혜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더 지혜의 유익을 깨달아 알길 원하며 또한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혜가 제일인 줄 믿고 그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지혜의 소리를 듣고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실 때 겸손히 지혜를 훈계를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며 또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며 또한 낙심 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저의 마음의 경영과 저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와 정직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며 또한 세 자녀들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주님 중심된 화목한 가정으로 세우는데 헌신하면서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친구를 날카롭게 하는 지혜로운 친구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화평케 하며 화평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합니다.